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문학박사학위논문

宣祖代 초반의 정국과 栗谷 李珥의 개혁론

2015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사학과

김 경 래

문학박사학위논문

宣祖代 초반의 정국과 栗谷 李珥의 개혁론

2015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사학과

김 경 래

宣祖代 초반의 정국과 栗谷 李珥의 개혁론

지도교수 김 인 걸

이 논문을 문학박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4년 10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사학과

김 경 래

김경래의 문학박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5년 1월

위 원 장 (인)

부위원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국문초록]

宣祖代 초반의 정국과 栗谷 李珥의 개혁론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사학과 김경래

이 글은 이이의 개혁론에 대한 기존의 해석에 사후적 맥락과 필요성이 강하게 투영되었다는 문제의식 하에, 이이 당대의 역사적 맥락과 본인의 문제의식에 보다 천착함으로써 그것을 새롭게 이해하려는 목적에서 작성되었다. 이를 위해 「東湖問答」·「萬言封事」·「聖學輯要」 등 이이가 중요한 정국 국면마다 자신이 구상하는 개혁의 이론과 정책을 담아 제출한 저술들을 분석하였다. 이들 저술은 이이의 여러 글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이론적 성격이 강하며, 또 그런 만큼 그의 개혁론의 전모를 드러내는 글이기도 하다.

이 세 저술은 바람직한 경세 질서에 대한 이이의 보편적 전망을 담고 있는 동시에, 그가 처한 구체적 정치 현실에 대한 실천적 대응 차원에서 개진되었다. 그리하여 이이가 어떠한 정국 상황에서 이를 제출하였는지, 그가 자신과 다른 어떤 입장과 세력을 의식하였으며, 왜 그들과 갈등하였는지, 그리고 무슨 의도를 가지고 글을 구성하였는지를 글의 이해를 위한 필수 배경으로 검토하였다. 지금까지 이이의 개혁 이론에 대한 연구를 주로 제출하였던 철학계·사회과학계의 연구가 이를 내재적으로만 설명한 것과 달리, 이 연구는 당대의 구체적 정국상황 속에서 설명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방법론적으로 차별성을 띤다.

이이의 개혁론은 자신과 다른 두 가지 정치적 입장·세력을 끊임없이 의식하는 가운데 제출된 것이었다. 이이의 표현에 따르면, 그것은 '三代之治를 할 수 없다'는 자들, 그리고 '삼대지치를 하루아침에 할 수 있다'는 자들과의 갈등이자 충돌이었다. 전자는 명종대 내내 조정에서 관직 경력을 쌓아 명종대 말에는 대신급 지위에 올랐고, 그 상태가 선조 즉위 후까지 계속된 舊臣들을 지칭하였다. 후자는 이이의 후배 사류들로서 주로 이황과 조식의 제자들이 주축이었다. 그러나 이이는 전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적대하는 태도를

보인 반면, 후자에 대해서는 정치적 동료로 받아들였다.

이이는 稅制 개혁, 관료제 개혁, 왕실 典禮 문제를 둘러싸고 구신들과 갈등하자, 그들을 말로는 삼대지치의 구현을 얘기하지만 실상은 그에 대한 진정한 믿음과 실천 의지가 없는 자들로 치부하였다. 그가 「經筵日記」에서 구신들을 세속적인 일반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는 의미로 '流俗'이라 비난한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었다. 한편 후배 사류들에 대해서는, 그들의 목표 설정은 옳지만 전략적 고려가 부족하다고 비판하였다. 그들의 전략 부재는 현실에서의 실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결국 조선에서 삼대지치의 구현이라는 목표 자체를 무의미한 것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다는 것이 이이의 판단이었다.

한편, 이이의 개혁론과 관련하여 기존에는 제도 변통론, 사림 화합론, 조선적 특질로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이이의 개혁론에서 도덕과 주체로서 인간, '류속' 舊臣들에 대한 배척 태도, 중화주의의 추구라는 면모를 함께 파악함으로써, 위의 일반적 규정들이 실상은 이이의 개혁론에서 보다 큰 목표와 기획을 위한 과정이자 부분임을 규명하였다. 즉, 조광조와 기묘사림 이래 16세기 조선의 개혁세력이 추구했던 군주로부터 일반 민까지를 포괄한 '全一的 도덕국가'의 지향을, 이이 역시 개혁의 최종 목표로서 공유하고 있었다. 다만 그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민생의 안정과 왕실의 도덕적 모범, 무엇보다 자신이 정치적 동료라고 인식한 '사류'의 정치적 집권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점들이 그의 개혁 구상에서 다른 사류들의 기획과 다른 특징적 면모를 형성하였다. 그렇기에 그는 민의 교화를 위한 鄕約의 국가적 시행이 결정되었을 때 오히려 이를 반대하였고, 사림이 東人과 西人으로 분열되자 '류속' 구신에 의한 정치적 탄압을 경계하며 사림 화합론을 주창하였다.

이이의 개혁론에 대한 새로운 이해는 16세기에 소위 '사림파'에 의해 추진된 개혁의 의미·주체·방향에 대한 이해도 새롭게 한다. 즉, 기존의 사림파 이론이 이를 모두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설명했던 것과는 다른 대안적 설명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 연구에 의하면, 16세기 조선의 개혁적 지식인들은 中小地主가 아니라 '중화문명'을 보다 철저히 구현함으로써 당대 조선의 제

모순을 해결하려 한 문화보편주의자들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士族 주도의 자율적 향촌 질서의 확립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 중에는 이이의 경우와 같이 집권 세력의 교체와 국가 체제의 변화를 중시하는 흐름도 있었다.

주요어: 栗谷, 李珥, 三代之治, 變通, 更張, 流俗, 士類, 東湖問答, 萬言封事, 聖學輯要

학 번: 2005-30029

목차

序論 …… 1

1. 문제 제기와 연구 목표 …… 1
2. 연구 대상과 연구 방법 …… 9
3. 이이의 進退와 글의 구성 …… 14

一. 新·舊 간의 갈등과 이이의 개혁 청사진 「東湖問答」 ……19

1. 명종대 말~선조 즉위 초의 개혁정국과 이이의 참여 ……19
1) 명종대 말 개혁적 신진세력의 대두와 權臣 체제의 종식 …… 19
2) 선조의 즉위와 새 질서의 모색 ……24
3) 이이의 出仕와 개혁 운동 참여 ……32

2. 「동호문답」의 君臣論과 도덕정치의 理想 ……41
1) 구성과 제출 배경 …… 41
2) 君臣 관계와 도덕정치의 理想 ……45
3) 권신의 부재와 도덕정치의 가능성 …… 53

3. 이이의 정치적 浮上과 舊臣 비판 ……62
1) 선조 2~5년 新·舊 갈등의 격화와 이이의 정치적 부상 ……63
2) 「경연일기」 속 '流俗'과 '士類' ……73
3) 이이의 '류속'·'사류' 인식과 '류속' 구신 비판 ……81

二. 선·후배 士類 간의 갈등과 이이 개혁론의 정립 「萬言封事」 ……88

1. 鄕約 시행 논란과 이이의 후배 사류 비판 ……88
1) 선조 6~7년 향약 시행 논란의 추이와 특징 …… 90

2) 향약 시행에 대한 제 입장들 ····· 95
3) 이이의 '迂儒' 비판과 그 이유 ····· 100

2. 「만언봉사」의 時宜論·實功論과 '祖宗之法'의 회복 ····· 107
1) 구성의 특징과 제출 배경 ····· 108
2) 법제의 변통과 진실한 실천의 강조 ····· 113
3) 군주의 자기수양과 민생 안정을 위한 '조종지법' 회복 ····· 120

3. 선·후배 사류 간 분열과 이이의 진정 시도 ····· 126
1) 선조 8년 仁順王后 薨去와 新·舊 간 服制 논쟁 ····· 127
2) 후배사류의 선배사류 비판과 선·후배 사류 간 갈등의 표면화 ····· 133
3) 이이의 '류속' 구신 경계와 진정 시도 ····· 140

三. 개혁론의 완성 「聖學輯要」와 이이의 이중 과제 ····· 146

1. 「성학집요」의 집필 의도와 '修己'·'爲政'편 ····· 146
1) 집필 의도와 특징 ····· 147
2) '修己'편의 이기론과 인간관 ····· 155
3) '爲政'편의 구성과 '流俗'·'迂儒' 비판 ····· 166

2. 「성학집요」 '聖賢道統'편과 三代之治論 ····· 176
1) '全一的 도덕국가'로서 삼대지치 ····· 176
2) 「성학집요」의 聖賢道統論과 조선 경세질서의 목표 ····· 186
3) 삼대지치의 像과 개혁론의 근거 ····· 194

3. 東·西 갈등의 격화와 이이의 이중 과제 ····· 202
1) 선조 11년 이후 동·서 갈등의 격화와 고착화 ····· 203
2) 이이의 '류속' 구신 경계와 分黨 문제의 공식화 ····· 207
3) 선조 13년 조정 복귀와 각종 개혁책의 시도 ····· 219

結論 ····· 224

참고문헌 ····· **233**

Abstract ····· **248**

<표 차례>

[표 1] 治亂의 유형과 역대 중국 군주들에 대한 평가 ····· 47
[표 2] 진퇴의 유형과 역대 중국 인물들에 대한 평가 ····· 48
[표 3]「경연일기」속 선조 즉위 초 '류속' 인사들 ····· 75
[표 4]「경연일기」속 선조 즉위 초 복관 인사들 ····· 78
[표 5]「경연일기」속 선조 즉위 초 '사류' 인사들 ····· 79
[표 6] 명종대 말~선조대 초반의 왕실 전례 문제 ····· 128
[표 7]「성학집요」'수기'편 항목 분류 ····· 156
[표 8]「성학집요」'위정'편 항목 분류 ····· 167
[표 9]「경연일기」속 선조 11년 이후 '류속' 인사들 ····· 212

<그림 차례>

[그림 1]「성학집요」목록도 ····· 150

序論

1. 문제 제기와 연구 목표

이 글은 16세기 조선의 대표적 사상가이자 정치가인 栗谷 李珥(1536~1584)의 개혁론을 새롭게 해석함으로써, 이 시기 조선이 직면한 제 모순들을 해결하기 위해 당대의 개혁적 지식인들이 무엇을 고민하고 어떠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였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조선의 역사적 맥락에서 보면, 이이의 개혁론은 16세기 초 기묘사림에 의해 시작된 정치적·사상적 흐름을 일단락 짓는 한편, 훗날 자신의 후예인 서인이 집권한 후 추진한 경세 기획의 원형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다른 한편으로, 그의 개혁론은 동아시아 사상이라는 틀에서는 중국 宋代에 발원한 성리학이 조선이라는 공간에서 어떻게 변용되어 결국 발상지와는 다른 현실을 구현하였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가 된다.

이이의 개혁론에 대한 탐구는 다음과 같은 의문들을 해소하려는 작업이기도 하다. '16세기 조선의 제 분야에서 일어난 변화를 추동한 세력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그들이 변화를 도모한 이유와 변화의 방향과 내용은 무엇이었나?', 나아가 '성리학이 지배이념이었던 조선에서 모순에 대처하고, 해결하는 방식은 어떠했는가?', 다시 말해, '조선에서 개혁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가?'

이이의 개혁론에 대한 인식과 평가는 16세기 이래 조선의 정치·사회·문화의 주도 세력으로 등장하는 소위 도학파 또는 사림파에 대한 그것과 궤를 같이 한다. 그런데 근대 학문이 시작된 일제 식민지기, 그리고 해방 직후까지도 이들 사림파의 사상, 그리고 그들이 행한 정치에 대해서는 부정적 인식이 강하였다. 그들은 지나치게 이론적·사변적이어서 현실 문제를 도외시하였고, 정치가들은 민생의 해결보다는 오로지 정파적 이익을 위한 다툼에 몰

두했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사림파의 경세 구상에 대한 진지한 고찰이나 정치적 갈등에 대한 객관적 이해는 이루어지기 어려웠다. 이는 조선에 대한 민족적·문화적 편견이 강하였던 일본인 학자는 물론이요, 망국의 원인을 조선의 성리학과 '당쟁'에서 찾았던 한국인 학자들도 마찬가지였다. 성리학과 현실 사이에는 커다란 괴리가 존재한다고 인식하는 가운데, 예외적으로 오직 정약용만이 '조선의 유일한 政法家'로 평가되는 정도였다.[1)]

그런 분위기 속에서 정치가로서 이이의 정체성은 사상되고, 그는 오직 '학자'로서 평가되었다.[2)] '학자' 이이는 이황과 함께 조선의 성리학을 대표하는 사상가로, 그와 성혼의 人心道心 논쟁은 이황과 기대승의 四端七情 논쟁과 함께 성리학에 대한 조선의 이해를 보여주는 사건으로 주목되었다. 대표적으로 일본인 학자 다카하시 도루(高橋亨, 1878~1967)는 이황과 이이의 철학을 비교하며 이황은 '主理', 이이는 '主氣'라 규정하고, 그들 사후 조선의 철학적 논쟁은 주리파와 주기파 간의 갈등이었다고 정리하여 그 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3)]

1950년대 이후 식민주의 사학 극복을 기치로 조선의 정치와 사상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시도하는 연구들이 본격적으로 제출되면서, 비로소 정치가로서 이이의 측면도 조명되기 시작하였다. 흔히 정체성론, 타율성론, 당파성론으로 정리하듯이, 식민주의 사학은 조선의 정치·경제·문화는 오랫동안 정체되었고, 중국에 종속되어 고유한 그 무엇을 찾기 어려우며, 집단(세력) 간의

---

1) 『동아일보』 1934년 9월 10일~15일까지 정인보는 '唯一한 政法家 丁茶山先生 敍論'란 제목의 글을 연재하였다. 여기서 '정법가'란 표현은 현대어의 정치가란 의미로 사용되었다. 1933년부터 정약용 서거 100주년을 기념하여 『동아일보』를 중심으로 전개된 소위 '조선학운동'은 특히 정약용에 대해 주목하였다. 이들이 보기에 조선 역사에 출현했던 대부분의 유학자들은 정치가가 아니었다.

2) 이병도는 '퇴계나 율곡은 다 어디까지나 학자이고 정치가는 아니다'라고 하였다. 이병도, 1928「이퇴계와 이율곡」『별건곤』 3권 2호['『두계이병도전집 9, 조선시대의 유학과 문화』, 2012, 한국학술정보'에 재수록, 475쪽]. 그러나 1950년대 이후 이병도는 경세가로서 이이의 측면을 평가한다. '栗谷先生論(1957)' '李栗谷先生과 그 思想(1956)', '經世家로서의 李栗谷에 대하여(1968)'을 보면 이이를 '뛰어난 철학자이자 경세가'로 평가하고 있다.

3)「조선유학대관」(1912)과「조선조 유학에 있어서의 주리파·주기파의 발달」(1929)[조남호 역, 1999 『조선의 유학』, 소나무에 수록]

비방과 다툼은 고질적이라고 설명하였다. 이에 대해 다양한 분야에 걸쳐 조선의 역사에서 변화와 발전, 독창성과 창조성, 통합과 화합의 면모를 보여주려는 연구들이 나오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1970년대 이후 한국학계가 양적·질적으로 비약적인 성장을 하면서 조선의 역사를 새로운 시각에서 설명하는 이론들이 정착하였다.[4] 이이의 개혁론은 이때 다시 구성되기 시작한 조선의 歷史像과 연동되어 탐구되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실학론, 붕당정치론과 탕평정치론, 조선적 향약론과 조선성리학론의 영향 하에 해석되고 평가되었다. 각 이론의 영향 하에 조명된 이이 개혁론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이이의 제도 변통론이 주목을 받았다. 그 계기는 實學 연구였다.[5] 실학 연구들은 조선에서 17~18세기에 성리학을 극복하기 위한 일련의 흐름이 있었음을 강조하였다. 이때 실학은 이론적·사변적인 성리학과 달리, 현실적·실용적인 학문·사유로 묘사되었고, 실학자들의 각종 제도개혁안은 그 증거로 제시되었다. 실학자들의 제도 변통에 대한 관심은 그 이전에 이미 공납, 군역, 관료제도 개혁안 등 각종 제도 변통안을 제출한 이이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고, 그는 실학자들에 앞서 제도 변통을 주장한 선구적 인물로 주목받았다. 그 배경에는 '실학의 비조'로 평가되는 반계 유형원이 『磻溪隧錄』에서 가장 많이 인용한 인물이 이이였다는 점, 또 성호 이익이 '조선에서 시무를 아는 유일한 두 사람은 유형원과 이이'라고 평가했다는 사실이 작용하였다.[6]

다음으로, 이이의 사림 화합론이 높이 평가되었다. 그 배경에는 붕당정치론과 탕평정치론이 있다. 이미 조선말부터 그리고 일제식민지기와 해방 이후에도, 조선 정치 현상의 특징이자 조선 망국의 원인으로 지목된 것은 정

---

4) 식민사학에 대한 개괄적 안내로는 '송찬섭, 1994「식민사학」『한국의 역사가와 역사학』, 창작과 비평사' 참조. '내재적 발전론'을 중심으로 국사학계의 식민주의 사학 극복 노력을 검토한 연구로는 '김인걸, 1997「1960, 70년대 '내재적 발전론'과 한국사학」『한국사 인식과 역사이론』, 지식산업사' 참조. 정치·사상·경제·사회 등 전 분야에 걸친 상세한 연구사 검토는 '근대사연구회 편, 1987『한국중세사회 해체기의 제문제(상)(하)』, 한울' 참조.

5) 조선후기의 실학에 대해서는 '천관우, 1952「磻溪 柳馨遠 研究 (上): 實學發生에서 본 李朝社會의 一斷面」『역사학보』2; 천관우, 1953「磻溪 柳馨遠 研究 (下): 實學發生에서 본 李朝社會의 一斷面」『역사학보』3[1979『近世朝鮮史研究』, 일조각에 재수록]' 참조.

6) 천관우, 위의 책, 236쪽

치 세력 간의 극심한 갈등이었다. 그에 대해 조선의 전 시기가 다 그렇지는 않았으며, 정파 간의 갈등을 현대 정당정치와 같이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발현하는 상황으로 볼 필요가 있다며 인식의 전환을 촉구한 논의가 바로 붕당정치론이었다.[7] 그리고 붕당정치기에 이어 18세기에 정쟁이 격화된 정국 상황에서 국왕의 차원에서 그 해결책을 모색한 것으로 탕평정치가 주목을 받았다.[8] 이때 이이의 사림 화합론은 일찍이 사림 간의 화합과 조화를 추구했던 시도, 노력으로서 탕평정치 추진 세력에 의해 재음미되고 주목받았다는 점이 강조되었다.[9] 그리고 동서분당을 막으려던 이이의 노력은 그 후 격화되는 동서간의 격렬한 정쟁을 예견한 듯 선구적인 논의로 평가되었다.

마지막으로, 朝鮮的이라는 특질이 강조되었다. 이이는 중국과는 다른 조선의 현실을 고려하였고, 그 결과 조선 특유의 사유를 형성했다는 평가였다. '조선적 향약'이란 표현은 이러한 인식의 출발을 잘 보여주며,[10] 이는 '조선성리학'론으로도 이어졌다. '조선성리학'론은 고려 말의 지식인들이 성리학을 수용한 이래, 조선에서는 이이의 단계에 들어 이제 그것에 대한 소화 단계를 넘어 조선 특유의 성리학으로 발전시켰다는 설명이다.[11] 이들 설명에 따르면 조선의 사대부들이 중국에서 유래한 성리학의 사유와 기획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묵수한 것이 아니라, 주체적 자기모색의 과정 끝에 그것을 변용하였으며, 이이는 그 대표적 인물이었다.

이상과 같이 현재 이이의 개혁론에 대해서는 제도 변통론, 사림 화합론, 조선적 특질 등 세 가지로 표상하는 것이 통설로 자리하고 있다.[12] 분명 제

---

7) 붕당정치론에 대해서는 '이태진, 1985「당쟁을 어떻게 볼 것인가」「조선시대의 정치적 갈등과 그 해결」『조선시대 정치사의 재조명』, 태학사' 참조.

8) 탕평정치론에 대해서는 '정만조, 1985「영조대 초반의 정국과 탕평책의 추진」『조선시대 정치사의 재조명』, 태학사; 박광용, 1985「탕평론의 전개와 정국의 변화」『조선시대 정치사의 재조명』, 태학사' 참조.

9) 정만조, 위의 글, 294쪽; 박광용, 위의 글, 362~363쪽

10) '조선적 향약'론은 일제 식민지기의 연구에서 기원하는데, 여기서 이이의 향약안은 조선의 전래 전통과 당시 사회의 실상이 반영된 결과 주희의「증손여씨향약」과 다른 모습을 지니게 되었음이 밝혀졌다[류홍렬, 1938「조선향약의 성립」『진단학보』 9].

11) '조선성리학론'에 대해서는 '최완수, 1980「秋史書派考」『간송문화』 19' 참조.

12) 지금까지 개혁론을 포함해 이이의 철학과 정치론을 종합적으로 다룬 단행본 성과물들이 다수 제출되어, 총체적 이해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이병도, 1972『율곡의 생애와 사

도 변통론, 사림 화합론, 조선적 특질 등은 이이의 개혁론에서 중요한 축을 형성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여러 분야에 걸쳐 행해진 실증적·이론적 연구들은 이를 상세하고도 심층적으로 규명하는 데 성공하였다.[13] 그러나 통설적 설명이 그의 개혁론과 경세 기획에서 혹 부분을 말하고 있지 않은 지, 보다 궁극적인 목표를 위한 과정에 대한 설명에 머물고 있지 않은 지 의심할 필요가 있다.

이이가 제도 변통을 당대 조선의 시급한 과제로 설정하고, 그 누구보다 이를 역설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리고 그의 안들은 조선 후기 제도 변통을 모색하는 자들에게 많은 참고가 되었다. 그런데 이이가 제도 변통을 통해 궁극적으로 추구한 목표는 '古道의 회복[復道]'이었으며, '도의 실행[行道]'에 대한 믿음과 의지를 가진 자들에 의해서만 제대로 된 제도 개혁도 달성될 수 있다고 믿었다.[14] 즉, 제도 변통의 목적은 조선에서 도덕 질서를 새롭게 구축하는 것이었으며, 그것은 새로운 정치 주체에 의해 달성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이가 사림 세력의 분열을 걱정하고 화합과 통합을 주장한 것 역시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본인이 정치적 동료라고 간주한 '사류' 내부에 한정된 태도였다. 그는 자신이 적대적으로 인식한 '류속' 대신에 대해서는 강한 배척 의식을 보였으며, 그들을 정치적으로 무력화하는 것을 가장

상』, 서문당[『斗溪李丙燾全集』(파주, 한국학술정보) 가운데 『韓國儒學史』(7권)에 수록]; 장숙필, 1992 『율곡 이이의 聖學硏究』,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황준연, 1995 『율곡 철학의 이해』, 서광사; 황의동, 1998 『율곡사상의 체계적 이해 1, 2』, 서광사; 이동인, 2004 『율곡의 사회개혁사상』, 백산서당; 전세영, 2005 『율곡의 군주론』, 집문당; 최진홍, 2009 『법과 소통의 정치』, 이학사; 금장태, 2011 『율곡평전』, 지식과 교양; 한영우, 2013 『율곡 평전』, 민음사.' 그 밖에 핵심만을 담아 간단하게 저술한 이이의 인물론으로, 비교적 최근의 것들로는 다음과 같은 연구들이 있다. '정옥자, 1993 「율곡 이이의 시대와 생애, 그리고 실천」『조선후기 역사의 이해』, 일지사; 정만조, 2002 「이이(李珥): 시대의 변화를 읽은 점진적 개혁론자」『한국사시민강좌』 30; 김항수, 2003 「이이-율곡 이이의 구체제 혁신론-」『한국사 인물열전』 2, 돌베개;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엮음, 2005 「경장과 변법의 정치사상: 율곡(강광식·전정희 저)」『한국정치사상사』, 백산서당; 정옥자, 2006 「율곡 이이, 조선성리학을 구축한 성심(誠心)의 사대부」『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 선비』, 현암사'

13) 보다 구체적인 연구 성과들은 뒤의 '연구대상과 연구방법'에서 다룬다.

14) 『율곡전서』 권29, 「경연일기」 선조 7년 2월(41면 가), "雖欲革弊 必在得人 不得其人則弊不能革矣"

중요하며 시급한 과제로 설정하였다. 이처럼 이이가 중시한 것이 제도의 문제만이 아니었다. 가치로서 道와 주체로서 인간의 문제를 함께 중시하였다. 또 그는 화합을 외치는 한편 배척과 척결도 외쳤다. 따라서 제도뿐만 아니라 道와 인간을, '동지'인 사류 세력만이 아니라 '적'인 非사류 세력을 아울러 고려해야 이이 개혁론의 전체상을 파악할 수 있다.

그럼에도 그 동안 제도 변통론과 사림 화합론이 유독 강조된 이유는, 이이의 개혁론에서 '예외적'이며 '선구적'인 측면을 강조하려는 의식이 강했기 때문이다. 즉, 당대의 사림파 일반과 달리 이이는 훗날 조선에서 중대한 정치 과제로 등장하는 사안들을, 즉 제도 변통의 필요성과 격화된 당쟁의 해소라는 두 문제를 앞서 고민하고 해결책을 제시한 것으로 그리려 하였다. 여기에다 이이가 임진왜란의 발생을 예측하였고, 만약 그의 '십만양병설'을 수용하여 미리 대비하였다면 결과는 달라졌을지도 모른다는 안타까움은 先知者로서 이이의 이미지를 더욱 강화하였다. 사실 그러한 이미지는 이미 이이의 死後 얼마 지나지 않아 후계자 西人들에 의해 형성되었으며,[15] 현대의 연구자들에 의해 반복되었다.[16] 따라서 앞으로는 사후적 맥락과 필요성에 의한 이해로부터 벗어나 당대의 맥락 속에서 그리고 이이 본인의 문제의식에서 출발하는 접근법이 요구된다.

결국 이론적 측면에서나 실천적 측면에서나 이이의 개혁론에 대한 해명은 16세기 조선에 등장했던 개혁세력 일반의 맥락과 구도 속에서, 그들의 지적 흐름과 실천 운동의 연장선에서 온전하게 이해될 수 있다.[17] 즉, 이이와 그

---

15) 『선조수정실록』에 실린 이이 졸기, 김장생의 평가 등에서 이미 이이 사후 얼마 지난 뒤부터 그를 예언자적 모습으로 묘사하는 경향이 등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이 사후 서인들이 행한 이이의 행적 정리와 평가 작업에 대해서는 '우경섭, 2005 『송시열의 세도정치사상 연구』, 서울대 국사학과 박사논문, 133~150쪽; 정재훈, 2005「조선중기 율곡학파의 형성」『역사문화논총』 1; 유새롬, 2006「17세기 서인의 學統意識과 栗谷年譜의 편찬」『한국사론』 52, 서울대 국사학과; 정호훈, 2011「16·7세기 율곡학파의 형성과 활동」『사학연구』 103' 참조.

16) 이병도의 다음과 같은 말은 그러한 인식을 대표적으로 보여준다. "그의 수많은 건설적 제언이나 노력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그는 세상을 떠났고, 오래지 않아 임진왜란이라는 큰 폭풍우에 의해 나라가 거의 발가벗겨진 상태가 된 것은 지금 생각해도 실로 유감천만한 일이다"[「율곡의 생애와 사상」『두계이병도전집 9－조선시대의 유학과 문화』, 247쪽].

17) 본 연구에서는 이이의 개혁론을 이해하기 위한 맥락으로서, 사림파라는 용어보다는

들 사이의 고리를 지금보다 더욱 두터이 하고, 간극은 가까이 할 필요가 있다. 이이는 시대로부터 초탈한 예외적이며 특수한 존재가 아니라, 그들 개혁세력이 지녔던 시대에 대한 문제의식, 그리고 그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서 구상한 정치·사회적 비전을 공유하고 있었다. 다만, 그 속에서 이이는 인간과 사회에 대한 이해에서 그만의 개성을 발휘하였고, 이는 그 나름의 시대인식과 실천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따라서 이이의 개혁론에 대한 해명은 개혁세력 일반의 큰 틀 속에서 이루어지되, 그 안에서 이이만의 특징을 구별하는 방식일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16세기 개혁세력 일반의 그것과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아울러 파악하는 방식이어야 한다.

또한 이이는 미래를 앞서 내다보는 초인적 예언자가 아니라 과거부터 누적된 전통의 연장선상에 선 역사적 존재였다. 사상가로서 이이는 이들 개혁세력의 지적 전통 위에서 인간과 세계를 이해하였으며, 그들의 개념과 용어를 활용하였다. 다만, 聖賢의 설을 '모방'하기만 하는 당대 학자들의 태도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었던 그는,[18] 그것을 그대로 수용하거나 반복하지 않고 비틀어서 자신만의 학설을 구축하였다. 또한 정치가 이이가 당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상한 기획 역시 기본적으로 선배 개혁세력이 벌인 개혁 운동의 연장선상에 있었다. 그러나 이이는 선배 개혁세력의 실패를 교훈 삼아 더 전략적이며 실현 가능한 방법을 모색하였다.

여기서 이이를 비롯해 16세기 개혁세력이 내세운 '古道의 회복과 실행'이라는 구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물론 성리학을 지배 이념으로 하여 출발한 조선에서 국초 이래 삼대의 정치는 경세의 理想이자 모범으로서, 그 누구도 그것의 가치와 정당성을 부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16세기 조선의 정국에서 '삼대지치의 구현'과 '고도의 회복' 주장은 그에 대한 이해와 해석을 둘러싸고 서로 다른 입장이 제출되어 상호 갈등하는 논쟁적인 사안이었다. 이는 그것이 유학자라면 으레 주장하는 범연한 구호가 아니었음을, 별다른 의

16세기 개혁세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이는 그들의 정체성을 여말선초부터 동일한 것으로 볼 가능성을 차단하는 동시에, 16세기 초 조광조와 기묘사림의 활동을 기점으로 조선 지식인들의 경세 기획에 중요한 변화가 있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드러내기 위해서이다.

18) 이에 대해서는 '『율곡전서』 권10, 「答成浩原」(34면)'에 매우 자세하게 피력되어 있다.

미가 없는 理想의 제시만이 아니었음을 의미한다. 그 구호는 중요한 정치적 의제를 내포하고 있었으며, 실천적 함의가 지니고 있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의미 부여와 해석이 필요하며, 이는 곧 이이가 개혁을 통해 궁극적으로 구현하려 한 목표가 무엇이었는가에 대한 해명이기도 하다.[19]

미리 말하자면, 16세기의 개혁세력은 '삼대지치'라는 '고대' '중국'의 질서가 시공간의 격절을 넘어 '당대' '조선'의 문제적 현실을 개혁하기 위한 구체적이며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즉, 그들은 삼대의 道와 그것을 구현하던 제도들이 절대적이며 보편적임을 강조하고, 조선에 그것을 보다 철저하게 시행함으로써 당대 조선이 처한 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런 그들이 보기에 '고도는 현재의 도이자, 영원한 도'였으며, '옛날과 지금은 마땅함이 따르다[古今異宜]'며, 그들의 기획을 부정하는 세력은 삼대지치에 대한 진정한 믿음과 실천 의지가 없는 '似而非'였다.

여기서 이이의 개혁론에 대한 '조선적'이란 규정에 대해서도 새롭게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한다. 그의 개혁론에는 분명 '조선적' 특질도 있지만, 동시에 '중화문명'의 가치와 질서를 추구하는 경향성도 강했기 때문이다. 정확히 얘기하면, '삼대지치'라는 '중화문명'의 가치와 질서를 구현하려는 가운데, '고대' '중국'과는 다른 '당대' '조선'의 현실을 고려하는 것이었다. 그에게는 절대적·보편적이라 믿었던 '중화문명'이 본질적이며 우선하는 목표였고, '조선적' 특징은 그 가운데 조선의 발생한 부차적이며 차후적인 결과였다. 그렇다고 그의 사유와 행위에 근대적 인식과 가치관을 투영하여, '사대적'이라 비판해서는 곤란하다. 이이와 개혁세력은 당대 조선의 문제적 현실을 개혁하기 위한 이론적·실천적 대안을, 자신들이 동원할 수 있는 유일한 지적·

19) 국사학계에서 이 구호에 대해 주목한 연구자는 김태영이었다. 그러나 그는 대신에 대한 국정 위임, 법제의 변통 등 '왕정'을 위한 과정과 방법에 대한 설명은 하였으나, 막상 '왕정'의 내용과 의미에 대해서는 별다른 해석을 내놓지 않았다[김태영, 2006「士林政治와 栗谷의 王政 期必論」『율곡사상연구』13]. 한편, 사회과학계와 철학계는 이이가 개혁을 통해 추구한 질서는 예기 예운편에 나오는 大同 사회라는 데 대체로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황준연, 앞의 책, 191~195쪽; 장숙필, 앞의 책, 168~172쪽; 황의동, 앞의 책, 80~83쪽; 강정인, 2010「율곡 이이(李珥)의 정치사상에 나타난 대동(大同)·소강(小康)·소강(少康)」『한국정치학회보』44' 참조. 그러나 본문 제3장 2절 '「성학집요」'聖賢道統'편과 삼대지치론'에서 검토하듯이, 이러한 해석은 성현도통편에 등장하는 '대동'이라는 문구의 의미를 잘못 이해한 데서 비롯하였다.

실천적 자원이었던 중화문명에서 모색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경세 기획이 '보편적' 가치와 질서의 구현임을 강조함으로써, 조선의 '특수성'을 내세우며 변화와 개혁을 거부하는 담론에 대응하고자 하였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는 이이의 개혁론을 사후적 맥락과 필요성보다는 당대의 역사적 맥락과 이이 본인의 문제의식 속에서 해명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이이의 개혁론에 대한 부분적 像을 넘어 총체적 像을 그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는 제도의 문제뿐만 아니라 道와 개혁의 주체 문제를, 調停과 화합을 추구하는 모습과 함께 배척과 척결을 외치는 모습을, '조선적' 특질만이 아니라 '중화문명'의 추구도 함께 검토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는 결국 그의 개혁론에서 16세기 개혁세력으로서 그의 기획이 지닌 보편성과 개성을 동시에 확인하는 일이기도 하다.

2. 연구 대상과 연구 방법

이 글에서는 이이의 개혁론을 새롭게 해명하기 위해, 그 핵심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세 저술, 즉 「동호문답」·「만언봉사」·「성학집요」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분석 방식은 개혁 정책에 대한 탐구보다는 개혁 이론에 대한 탐구에 집중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 이이가 개혁을 통해 구현하고자 한 질서는 무엇이며, 그것을 위한 과정과 방법에 대해서는 어떠한 구상을 하였는지에 대한 고찰을 통해, 개혁의 목표·주체·방법 등에 관한 이이의 일반 이론을 추출하고자 한다.

이이가 수많은 상소와 차자 등을 통해 자신의 개혁론을 제출하였음에도, 특히 이 세 저술에 주목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들 저술은 정국의 중요 기점을 맞아 이이가 자신의 경세 기획에서 핵심적인 내용을 담아 제출한 것이기 때문이다. 「동호문답」은 선조 2년 명종의 大祥이 끝나고 선조의 본격적인 新政을 맞아 개혁의 청사진을 제시한 글이며, 선조 7년의 「만언봉사」는 향약 시행 논쟁 과정에서 이이와 후배 사류 간의 전략적 입장 차가 분명하게 드러난 상황에서, 개혁에 대한 이론

적 정립을 보여주는 글이다. 마지막으로, 선조 8년의 「성학집요」는 위의 두 저술에서 제출된 이론을 종합한 완성본으로서, 이후 그가 제출하는 개혁론은 「성학집요」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이들 저술은 이이의 다른 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론서로서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띠기 때문이다. 「성학집요」는 이이의 그 어느 글보다 가장 이론적 접근을 충실히 한 저술이며, 「동호문답」과 「만언봉사」는 구체적인 정책 제안서의 역할도 하고 있지만, 동시에 이론적 문제 역시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또한 이 글들은 그 구성 면에서도 다른 저술들에 비해 개혁과 관련한 문제 전반을, 즉, 개혁의 목표와 내용 등에 대한 이론을 모두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따라서 이들 세 저술을 중심으로 하여 이이가 구상한 개혁론에 대한 전반적 이해와 이론화 작업이 가능하며, 이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가장 효율적 방법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이이의 개혁론에 대한 방대하고 다양한 주제의 연구들이 축적되는 가운데, 이들 자료에 대해서도 이미 많은 연구들을 통해 검토가 이루어졌다.[20] 그런데 그 방식은 주로 주제별 분석이 많았다. 가령 공납제나 군주론 등을 다룬다면, 이이의 여러 저술과 발언에서 해당 주제와 관련한 내용들을 추출하여 재구성하는 식이었다. 막상 「동호문답」「만언봉사」「성학집요」 등의 저술에 대한 개별적 검토는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였다.[21] 그런데 앞서 언급하였듯이 이들 저술은 특히 이론적 성격이 강한 글이기에, 글의 전체 구조와 주제, 그리고 항목별 주제와 배치에 깃든 이이의 의도를 이해한다면, 그의 개혁론 전모도 드러낼 수 있다. 따라서 연구 주제별로 파편화

---

20) 최근의 한 연구에 의하면, 이이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물 건수는 1천 건이 넘는다고 한다[유원기, 2013 「퇴율사상 연구의 현황과 과제」『한국학논집』 50, 133~136쪽]. 율곡학회가 2007년에 펴낸 『율곡학연구총서』 논문편은 '총류, 철학(리기론), 철학(심성론), 철학(수양론), 문학, 역사, 교육, 경세, 기타' 등의 항목으로 나누어 그때까지 이루어진 여러 분야의 이이 연구를 포괄적으로 정리·수록하고 있어 좋은 참고가 된다.

21) 「동호문답」의 연구 동향 검토를 위해서는 '안외순, 2007 「『東湖問答』에 나타난 율곡 이이의 초기 정치사상: 도덕주의와 현실주의의 통일」『유교사상문화연구』 28'. 정재훈 옮김, 2014 「해제-조선적인 왕도정치를 위한 지침서」『동호문답-조선의 군주론, 왕도정치를 말하다』, 아카넷'을, 『성학집요』의 경우에는 '박홍규·송재혁 저, 2012 「성학집요」 진헌의 정치적 성격」『한국철학논집』 35'를 참조할 수 있다. 현재까지 「만언봉사」 전반에 대한 본격적인 개별 연구는 없는 상태이다.

된 접근을 할 것이 아니라, 이들 자료 각각에 대한 온전한 분석이 요구된다.

한편, 그 동안 이이의 개혁론에 대한 접근법은 분야별로 관심 주제와 접근법에 차이를 보였다.

먼저, 국사학계의 연구는 그가 제출한 각종 개혁안들에 대한 제도사적 고찰이 주를 이루었다.[22] 공납제와 군역제 등 세제 개혁안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며,[23] 관료 조직 관련 개혁안에 대해서도 상세한 규명이 이루어졌다.[24] 그 결과 이이가 제출한 개혁 정책 자체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그것이 나오기까지의 역사적 추이에 대한 이해도 가능해졌다. 이이가 활동했던 선조대 초반의 정국 상황 전반을 다루는 가운데 이이의 활동을 다룬 연구[25], 이이 개인의 정국 인식과 활동에 초점을 맞춘 연구 등의 정치사 연구도 있었다.[26] 상대적으로 이론적·사상적 접근은 많지 않은데, '조선성리학'의 문제의식 하에 이이의 사상을 분석한 연구와 군주론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제출되었다.[27]

---

22) 국사학계의 이이 연구 중에서 가장 활발한 주제인 향약에 대한 연구는 본 글의 제2장 1절 '향약 시행 논란과 이이의 후배 사류 비판'에서 다룬다.

23) 이이의 공납제 개혁안의 경우, 대동법의 前史를 역사적으로 추적하는 가운데 부분적으로 다루어지기도 하고[고석규, 1984「16·17세기 공납제 개혁의 방향」『한국사론』12], 이이의 안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기도 하였다[지두환, 2000「율곡 이이의 사회경제사상」『한국사상과 문화』7; 이정철, 2009「율곡 이이의 공물·진상 개혁안의 영향과 한계」『한국사연구』144]. 군역제의 경우에는 군역제 개혁 자체에 대해서(이태진, 1968「이이의 軍政改革論」『한국군제사』, 육군본부), 내적 추이를 상세하게 검토한 연구가 있다[노영구, 2005「율곡 이이의 軍政改革論과 그 계승」『역사문화논총』1].

24) 이선민은 세제 개혁안과 관제 개혁안을 포괄하며, 이이의 개혁 정책을 종합적으로 다루었다[이선민, 1988「이이의 경장론」『한국사론』18].

25) 이태진, 1977「中央 五軍營制의 成立過程」『한국군제사-근세조선후기편』; 김항수, 1992「선조 초년의 신구갈등과 정국동향」『국사관논총』34; 남달우, 1993「선조초기(1567~1581)의 정국과 사림: 이이의 ≪경연일기≫를 중심으로」『한국학논집』45; 김항수, 1995「선조초 신진사류와 개혁의 추이」『동대사학』1; 이정철, 2012「선조대 당쟁의 원인과 전개양상 -이이를 중심으로-」『사총』75; 이정철, 2012「이이의 經世論의 성립과 그 정치적 배경」『사총』75; 2014「선조대 '동서분당' 전개의 초기 양상-이이를 중심으로-」『영남학』25; 2014「선조 16년 동서 갈등 전개와 "계미삼찬(癸未三竄)"」『영남학』25

26) 정만조, 1990「16세기 사림계 관료의 붕당론 -歐·朱 붕당론과의 비교를 통하여 본-」『한국학논총』12; 김항수, 2000「율곡 이이와 乙巳削勳論議」『한국사상과 문화』8, 한국사상문화학회; 김영두, 2009 「소통의 시각에서 본 율곡 이이의 정치활동: 을사삭훈(乙巳削勳) 논쟁의 의미」『역사비평』89

이이의 개혁론에 대한 이론적 접근은 대체로 철학계와 사회과학계 분야에서 수행되었다. 철학계는 이이의 이기심성론과 수양론 등의 주제에 대한 연구가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는 가운데,[28] 그 연장에서 이이의 철학이 어떻게 그의 경세 기획 또는 개혁론과 연결되는가에 관심을 보였다. 그리고 實功, 實效 등 '實'에 대한 이이의 강조에 주목하여, 조선 후기의 '실학' 사상과의 연관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29] 사회과학계는 철학계와 마찬가지로 개혁론과 철학적 관계의 연결 문제를 규명하려는 연구 경향과 함께,[30] 군주론·붕당론· 공론론 등 군주와 붕당이라는 정치 주체와 집단, 그리고 정책 결정 과정의 소통 방식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였다.[31]

이상과 같이 국사학계의 연구를 통해 개혁 정책에 대한 제도사적 해명과 정치적 상황에 대한 해명이 이루어졌다면, 철학계와 사회과학계를 중심으로

---

27) 이병도, 1972『율곡의 생애와 사상』, 서문당; 정재훈, 1999「《성학집요》를 통해 본 조선중기의 정치사상」『규장각』2; 지두환, 2000「율곡 이이의 사회경제사상」『한국사상과 문화』7, 한국사상문화학회; 지두환, 2008「16세기 시대적 과제와 율곡의 대응」『한국사상과 문화』43; 정재훈, 2014「율곡 이이의 정치사상 재론」『역사문화연구논총』7

28) 철학계의 연구 성과를 중심으로 이이에 대한 연구사를 정리한 글로, '황의동, 1996「율곡학 연구의 어제와 오늘」『오늘의 동양사상』6, 예문서원; 이동희, 2003「율곡 연구의 성과와 반성－철학 사상을 중심으로－」『동양철학』34; 장숙필, 2004「율곡과 율곡학파 연구의 현황과 과제」『한국인물사연구』창간호, 한국인물사연구회; 정원재, 2007「이이 철학을 보는 두 가지 시각: 주기론과 이기지묘론」『철학사상』26, 서울대 철학사상연구소; 유원기, 2013「퇴율사상 연구의 현황과 과제」『한국학논총』50' 참조.

29) 이와 관련한 비교적 최근에 이루어진 철학계의 연구로는 다음과 같은 연구들을 참고할 수 있다. 황의동, 1998『율곡사상의 체계적 이해 2－경세사상』, 서광사; 리기용, 2000「율곡의 경장론 연구－리 인식과 교기질을 중심으로－」『율곡학보』; 장숙필, 2001「율곡 경세설의 특징－무실론과 경장론을 중심으로－」『율곡사상연구』4; 리기용, 2005「『성학집요』를 통해 본 聖人의 학문과 정치」『한국사상과 문화』28; 장숙필, 2005「율곡 경장론의 특징과 그 현대적 의의」『율곡사상연구』10; 맹현주, 2012「율곡 경세론의 실학적 사유 특성」『인문과학연구』35

30) 배병삼, 1995「율곡사상의 정치학적 해석」『栗谷의 사상과 그 현대적 의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이동인, 2000「이이 사회사상의 철학적 기초」『동양사회사상』3; 최진홍, 2010「율곡 이기론의 정치적 해석-경학적 세계관의 경세론적 이해」『율곡사상연구』10

31) 이동인, 2004『율곡의 사회개혁사상』, 백산서당; 김영수, 2005「조선 공론정치의 이상과 현실(1): 당쟁발생기 율곡 이이의 공론정치론을 중심으로」『한국정치학회보』39; 전세영, 2005『율곡의 군주론』, 집문당; 최진홍, 2009『법과 소통의 정치』, 이학사

는 개혁의 이론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 결과 개혁의 정책과 개혁의 이론, 양 방면 모두에서 상당한 이해가 축적되었다. 다만 국사학계의 연구와 철학계·사회과학계의 연구 사이에 상호 대화가 이루어지기보다, 각각의 분야에서 분리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현 상황은 앞으로 극복해야 할 과제로 보인다. 특히 본 연구의 목표인 이이 개혁론에 대한 이론적 해명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

첫째, 개혁의 이론이 구체적인 역사적 맥락과 정국 상황 속에서 검토될 필요가 있다. 철학계와 사회과학계에서 이루어진 작업들은 이이의 말과 글 자체에 초점을 맞춘, 내재적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리하여 일반론의 차원에서만 설명하고 있으며, 그것이 당대의 정치·사회 맥락 속에서 검토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32] 물론 이이의 인간관과 세계관, 정치가 추구해야 할 목표, 바람직한 정치 구조와 정치주체 등에 대한 언설들은 시·공간을 넘는 보편적 전망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이는 당대의 정세를 민감하게 인식하는 가운데, 즉, 자신과 다른 입장·세력을 끊임없이 의식하면서, 자신의 개혁론을 제출하였다. 따라서 이이가 활동할 당시의 정국 상황에 대한 보다 상세하고 세밀한 접근이 요구되며, 그의 말과 글이 구체적 정국 속에서 이해될 때 그 의미하는 바와 의도도 보다 분명하게 해명될 수 있다.[33]

둘째, 이이 개혁론의 내적 추이를 보여주는 작업이 필요하다. 주제별 접근 방식은 이이의 주요 저술 간에 드러나는 차이와 그 이유에 대해 그리 주목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들 주요 저술 간에는 '무실'과 '안민'과 같이 일관된 주제와 내용이 있는 한편, 저술별로 드러나는 개성과 차이점이 있다. 가령,

---

32) 물론 이들 연구에서도 이이 개혁론의 시대적 배경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주로 척신 또는 권간체제의 종식과 '사림의 시대', 건국 이래의 모순이 누적된 '중쇠기'의 시대 정도로 간략한 서술에 그치고 있다.

33) 임진왜란으로 인한 자료적 한계 때문에, 선조대 초반의 정국 상황에 대한 재구성은 조선시대의 그 어느 시기보다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학계와 사회과학계의 연구가 선조대 초반의 정국 상황을 분석한 국사학계의 연구를 활용하지 않고 있는 점, 그리고 이이가 자신의 경험과 견문을 담아 기록한 「경연일기」를 이론 구성을 위한 재료가 아닌 맥락 구성의 재료로 활용하지 않는 상황은 아쉬움을 남긴다. 「경연일기」는 정국 상황에 대한 이이의 주관적 인식이 많이 반영되어 있는 기록이다. 그렇기에 「경연일기」를 통해 당시의 정국 상황에 대한 객관적 재구성 작업은 상당한 주의를 요한다. 하지만, 이를 통해 그의 정국 인식을 이해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다.

「동호문답」과 「성학집요」에는 있는 '교화' 문제를 「만언봉사」는 다루지 않는다. 또, 「동호문답」에는 없던 법제 변통의 이론이 「만언봉사」에서 등장하고, 이는 「성학집요」에도 수록된다. 「성학집요」는 「동호문답」과 만언봉사에는 없는 이기심성론을 비중 있게 다룬다. 이러한 차이가 의미하는 바는 역시 정국 상황에 대한 이해로부터 도출할 수밖에 없다. 이이는 개혁 구상의 기본 틀을 만든 후에, 정세의 변화에 따라 주안점을 달리하는 개혁론을 제출하고, 수정을 계속 한 끝에 최종적 완성을 보았던 것이다.

정리하면, 이이의 개혁론을 새롭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접근 방법부터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것은 이이의 개혁론이 시대 상황과 정국 상황에 대한 이이의 반응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성학집요」 등 이이의 주요 저술을 중심으로 개혁론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하되, 그것을 이이가 처한 정국 상황과 그에 대한 인식 속에서 해석하는 방식을 취하고자 한다.

3. 이이의 進退와 글의 구성

이이는 명종 19년 처음 조정에 진출한 이후, 여러 차례 진퇴를 반복한다. 사대부의 진퇴는 실제 본인이 의도하였거나, 그 의도와는 별개로 타인에 의해 그렇게 해석되고 평가되는 고도의 '정치 행위'였다. 이이의 진퇴 역시 그의 정국 인식과 정치적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한다.

이이가 중앙 정계에서 활동한 기간은 아래와 같이 크게 네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명종 19년 8년 8월부터 선조 3년 10월까지, 약 6년의 기간이다. 이 때는 이이가 급제 이후 첫 출사를 하여 새 정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열정적으로 활동하던 시기이며, 그의 생애 통틀어 제일 오랫동안 조정에 있던 시기이기도 하다. 그 사이에 외조모의 병환과 상으로 인해 1년여의 시간을 조정에서 벗어나 있기도 했다. 이 기간 동안 그는 「동호문답」이라는 개혁 청사진을 제출하고, 위사공신 삭훈 운동을 주도하였다. 그리고 예조좌랑을

시작으로, 사간원 정언, 이조좌랑, 사헌부 지평, 홍문관 교리 등 낭관급의 청현직을 두루 거쳤다.

이이는 을사위훈 운동이 끝내 결실을 맺지 못하고 종료되자, 선조 3년 10월 처가가 있는 해주 야두촌으로 물러난다. 그러나 3년 후 다시 중앙 정계에 복귀하기 전까지, 중앙 정치에 대한 관심을 완전히 놓은 것이 아니었다. 선조 4년 1월, 이황 사망 약 한달 후 이이는 해주에서 파주로 거처를 옮겼으며, 그 해 여름 교리에 제수되자 한양에 들어갔다. 그러나 의정부 검상, 홍문관 부응교 등의 자리를 모두 거절하고, 재차 해주로 내려갔다. 그리고 선조 4년 6월부터 동왕 5년 3월까지는 해주목사로 복무하였다. 해주목사를 마친 후에는 다시 한양으로 돌아왔고, 선조 5년 여름부터는 파주에 머물렀다.

둘째, 선조 6년 9월부터 선조 7년 4월까지, 약 7개월의 기간이다. 이때는 영상 이준경이 사망하고, 영의정 권철, 좌의정 홍섬 등 '류속' 구신들이 정승직에서 물러났다. 그리고 그 자리를 영의정 이탁, 좌의정 박순, 우의정 노수신 등 '사류' 인사들이 대신하였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선조는 국가 주도의 향약 시행을 전격적으로 결정하였다. 기대감을 가지고 다시 중앙 정계에 복귀한 이이는 다시 개혁에 대한 의욕을 불태웠다.

이 기간 그는 홍문관 직제학, 승정원 동부승지, 우부승지 등 주로 근시직에 있으면서, 경연에 참여해 자신의 개혁안을 직접 선조에게 제시할 수 있었다. 선조 7년 1월에 제출한 「만언봉사」, 그리고 다른 기간에 비해 훨씬 상세한 이 시기의 「경연일기」 기록은 이이의 개혁 구상을 잘 보여준다. 그러나 선조 7년 3월, 義盈庫에 황납을 들이라는 선조의 명에 대해, 대사간 이이가 佛事에 쓸 것을 의심하며 강하게 반발하면서 잠시나마 우호적이었던 양자의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하였다. 결국 다음 달 이이는 사퇴하였다. 그리고 같은 해 10월부터 선조 8년 3월까지는 황해도 관찰사로 복무하였다.

셋째, 선조 8년 4월부터 선조 9년 2월까지 약 10개월의 기간이다. 이때 이이가 중앙으로 복귀한 결정적 계기는 그해 1월에 있었던 명종비 인순왕후의 훙거였다. 심의겸과 선배사류의 정치적 배경이기도 했던 인순왕후의 훙거는 본격적인 동서 갈등을 예고하는 사건이었다. 황해도 관찰사 사퇴 후

파주에 머물던 이이는 “나라에 큰 상이 있는데 물러나는 것은 신하의 分義가 아니다”라며 부제학으로 중앙에 돌아왔다. 복귀 후 이이는 재차 선조에게 개혁에 대한 의지를 보일 것과 개혁 정책을 실행할 것을 촉구하였다.

그런데 선조 8년 8월을 전후로 사류 사이의 갈등이 표면화 되면서, 이이는 사류의 분열이라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 직면하였다. 그의 말대로 “위에서도 말하고, 아래서도 떠들썩하여 서로 믿지 않는” 형국 속에서, 이이는 사퇴를 결심하게 된다. 이 세 번째 출사 기간에 이이는 주로 홍문관 부제학으로 있으면서, 두 번째 출사와 마찬가지로 경연에 입시하여 선조를 보좌하였다. 그리고 선조 8년 9월에는 자신의 개혁론을 종합·완성한 「성학집요」를 제출하였다.

이후 이이는 정부를 통한 개혁에 대해, 기대를 접은 듯 보인다. 사퇴 후 10여 개월을 파주에 머무르던 이이는, 선조 10년 정월부터는 아예 해주 석담으로 내려갔다. 그리고 그 후 1년여의 시간 동안 이이는 한 명의 사대부로서 향촌 질서를 위한 각종 제도들을 시험하였다. 가령 향약과 사창을 실시했고, 은병정사를 지어 후학들을 가르쳤다. 『격몽요결』을 지은 것도 이때이다.

선조 10년 겨울 인종 비 공의왕대비의 훙거 직전에 선조가 전격적으로 위사공신 삭제를 명한 것을 계기로, 이이는 다시 중앙 정치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다. 선조 11년 3월, 대사간에 제배하자 한양에 와 사은하고 파주에 머물렀으며, 5월에는 장문의 시국소를 올렸다. 이해 겨울 다시 해주 석담으로 내려가, 선조 12년 봄에 『소학집주』를 완성하였다. 동인이 윤두수 등 三尹을 탄핵하면서 동서 간의 갈등은 점점 격화되자, 이이는 그해 5월에 대사간 제배를 사양하면서 「사대사간겸진세척동서소」를 올렸다. 이 소는 그가 동서 분당의 해결을 공식 과제로 처음 제기한 것이었다.

넷째, 선조 13년 12월부터 선조 16년 6월까지, 약 2년 7개월의 기간으로, 이이의 마지막 조정 진출이다. 이때 이이는 그 어느 때보다 선조로부터 융숭한 대우를 받았다. 여러 차례 특별 승급을 통해 관직에 임명되었고, 파격적으로 호조판서 등에 복무하며 동시에 오랫동안 홍문관 대제학을 겸하였다. 평소 자신이 그토록 그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던 대신직에도 올랐다.

대신이 된 이이는 전과 마찬가지로 폐법 개혁안을 지속적으로 제출하는 한편, 經濟司 설치 등 폐법 개혁을 위한 실질적 작업에 들어갔다. 동시에 동서 갈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하였다. '인심도심설', '김시습전', '학교모범', '극기복례설' 등 각종 학술 관련 저술을 지은 것이 이 때이다. 그러나 동인의 공세는 정철과 심의겸을 거쳐, 이이를 향하였고 결국 그는 사퇴하였다.

이상과 같은 이이의 진퇴 양상을 참고하여, 본문은 모두 세 개의 장으로 구성하였다. 각 장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장은 첫 번째 진출 시기를 다룬다. 선조 즉위 초 대신급의 舊臣과 이이를 포함한 개혁적 신진관료 세력이 정책을 놓고 충돌하는 상황을 다루며, 그것의 기원으로 명종대 말 권신체제의 종식과 선조 즉위 과정도 탐색한다. 향후 이이가 제출하는 개혁론의 청사진이라 할 수 있는 「동호문답」은 이러한 정국 상황 하에 기획된 것임을 이해하는 가운데, 「동호문답」을 통해 이이가 가장 주안점을 두었던 것은 군주와 대신 역할의 중요성과 경세 질서의 목표를 제시하는 것이었음을 밝힌다.

제2장은 두 번째 진출 시기를 다룬다. 선조 6년~7년 향약 시행 논란을 통해 이이와 후배 사류 간의 정치적 입장 차이가 확연히 드러난 시기를 기점으로 결국 선조 8년에 선배사류와 후배사류가 분열하기까지의 상황을 다룬다. 「만언봉사」에서 제도 변통론과 무실론의 이론이 정립되고, 교화보다는 민생 안정만을 강조한 이유를 정국 상황 속에서 이해한다. 더불어, 사림의 분열 상황에서 이이가 사림 화합론을 주장한 진정한 의도는 류속이라는 외부 세력에 대한 경계 때문이었음을 밝힌다.

제3장은 세 번째와 네 번째 진출 시기를 다룬다. 선조 8년 이이가 자신의 개혁론의 종합이자 완성이라 할 수 있는 「성학집요」를 제출하고부터, 선조 13년 다시 조정에 복귀하여 동왕 16년의 최종적으로 물러나는 기간이다. 이 시기는 동서 갈등이 더욱 격화된 시기이자, 이이가 대신급의 직위에 올라 자신이 주장했던 개혁책의 시행을 시도하였던 기간이기도 하다. 「성학집요」의 분석을 통해, 이 글이 '流俗' 구신과 '迂儒' 후배 사류 모두를 의식하는 가운데 구성되었음을 보이고, 최종적으로 그가 지향하는 바람직한 경세 질서

의 상을 무엇이었는지를 그린다.

이 연구는 이이가 조정에서 활동하면서 정부 차원에서 모색하였던 개혁론에 중점을 두었으며, 그가 향촌으로 물러나 시행했던 향약과 서원 활동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다는 사실을 한계로 지적해 둔다.

一. 新·舊 간의 갈등과 이이의 개혁 청사진 「東湖問答」

1. 명종대 말~선조 즉위 초의 개혁정국과 이이의 참여

이이가 출사한 명종대 말은 때마침 중종의 계비 文定王后가 훙거하면서 상당 기간 조선의 정치·사회 질서를 규정했던 권신체제가 종식을 고한 시점이었다. 그와 함께 열린 개혁 정국은 선조 즉위 초까지 이어졌고, 이이는 개혁적 신진세력의 일원으로서 각종 개혁 운동에 참여하였다. 이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결정된 갑작스런 참여가 아니라, 출사 전부터 그가 지녔던 당대 학계·정계에 대한 비판 의식의 실행이었다.

1) 명종대 말 개혁적 신진세력의 대두와 權臣 체제의 종식

명종 18년 8월 중순, 사헌부가 '조정의 和平을 깨는 일군의 부박한' 무리들을 처벌할 것을 국왕 선조에게 요청하여 정계에 일대 파문이 일었다. 사헌부는 그들이 '朋比를 맺고, 인물의 선악을 평하고, 時政을 논의하며, 新進의 士들이 시비도 모른 채 따르도록' 하고 있다는 죄목을 들고, 그들이 국가에 끼치는 해가 매우 크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박소립, 기대승, 이문형, 허엽, 윤근수, 윤두수 등 6인을 구체적으로 지목하였다.[1] 사헌부의 이날 요청은 실상 당시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던 戚臣 李樑의 일파가 자신들에게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던 인사들을 조정에서 축출하기 위한 조치였다.[2]

---

1) 『명종실록』 권29, 명종 18년 8월 17일(계해)

2) 당시 대사헌은 이량의 대표적 하수인인 李戡이었다. 이감에 대한 사신의 부정적 평가들은 『명종실록』에 무수히 많이 등장한다. 대표적으로 '『명종실록』 권19, 명종 10년 9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날의 사건은 이량의 개인적 원한에서 비롯한 것으로 보았다.[3]

그러나 6인에 대한 이량 세력의 축출 시도는 오로지 私的 인연과 감정 때문만이 아니라 당시 조정에서 움트고 있던 일련의 개혁 움직임을 제어하기 위한 조치라 설명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 즉, 이는 개개인에 대한 응징의 차원을 넘어 반대 세력에 대한 집권 세력의 견제와 탄압이었다. 이러한 사실은 이미 이날의 실록 기사에 자신의 평을 덧붙인 史臣이 잘 간파하고 있었다. 그는 이량 세력의 의도를 "'사림의 가장 큰 뿌리는 李滉과 曺植인데 앞으로 점진적으로 그 뿌리를 모조리 제거한 후에야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여 먼저 몇 사람으로 시험하고 장차 그 兇奸을 자행할 셈이었다"라고 분석하였다.[4] 뒷날의 한 기록에 의하면 이때 이량 세력은 장차 40여 명이나 되는 인사들을 제거할 계획이었는데, 그 가운데는 자신들과 직접적으로 원한 관계가 없는데다 초야에 있던 이황, 조식, 李恒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한다.[5] 이들의 움직임을 '小學이 일어난다'고 표현하며, '예부터 소학은 좋지 않다'고 비난하던 척신 인사도 있었다.[6]

사헌부가 직접적으로 지목하지는 못했지만, 실상 조정 내 개혁 세력의 뒤에는 명종비 仁順王后의 남동생 沈義謙(1535~1587)이 있었다. 그는 명종의 장인 沈鋼의 셋째 아들로서, 이량과는 외숙과 조카 사이이기도 하였다. 심의겸은 이미 '현달 전부터 당시의 賢人들을 두루 찾아다니는' 등 대외활동을 활발히 하며 개혁 세력과 접촉하였다.[7] 그리고 이량의 득세가 한창이던 명

월 27일(기미);『명종실록』권19, 명종 10년 윤11월 5일(병인);『명종실록』권27, 명종 16년 4월 26일(을묘)' 참조.

3)『명종실록』권29, 명종 18년 7월 12일(무자); 명종 18년 8월 17일(계해); 명종 18년 8월 19일(을축). 실제 이들 중 몇몇은 개인적으로 이량과 껄끄러운 관계에 있었다. 가령 박소립과 윤두수의 경우 일찍이 이조의 낭관으로 있을 때 이량이 자신의 아들 李廷賓을 낭관으로 만들려고 하자 이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명한 적이 있었으며, 기대승은 권력자 이량이 그의 사촌형 기대항을 통해 만나기를 청했음에도 끝내 응하지 않은 과거가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명종실록』권29, 명종 18년 8월 17일(계해)' 참조.

4)『명종실록』권29, 명종 18년 8월 17일(계해), "士林之根柢 莫如李滉曺植 將漸而盡去根柢 然後吾等得以大肆 而先之以此數人者 姑試之 而將肆其兇奸也"

5)『명종실록』권31, 명종 20년 1월 6일(갑진)

6)『명종실록』권29, 명종 18년 8월 25일(신미)

7)『선조수정실록』권19, 선조 18년 9월 1일(무진)

종 17년, 別試에 합격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정계 활동을 시작하였는데,[8] 그것과 동시에 그를 중심으로 한 조정 내의 정치 세력화도 본격화하였다.[9] 이때 심의겸과 어울리던 주요 인물들이 바로 앞서 사헌부가 지명한 기대승 등의 개혁 세력이었다.[10] 이양은 그런 심의겸에게 "너와 박소립·기대승·윤두수는 무엇 때문에 친한가? 이문형이 너를 동방의 聖人이라고 한다는데 네가 과연 성인인가?"라며 질책하였다고 한다.[11] 이량은 개혁 세력과 함께 세를 키우는 심의겸의 활동을 부정적으로 보며 경계하였고, 이를 기점으로 양자 간 갈등의 골은 점점 깊어질 수밖에 없었다.

심의겸과 개혁 세력 간의 연결에는 이념적 지향과 정치적 이해관계 두 가지 요소의 일치가 모두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이념적 지향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당대와 후대의 많은 기록들이 지적하고 있듯이 심강·심의겸 부자는 개혁 세력과 대단히 친근성을 보이고 있었다. 이들 부자의 이런 성향은 심강의 父이자 심의겸의 祖父로서, 김안국의 문하에서 수업한 沈連源으로부터 비롯하였다.[12] 그리고 그의 아들 심강은 윤원형이나 이량 등 명종대 척신세력들의 탄압으로부터 각각 박순과 홍섬을 적극적으로 보호한 전력이 있었다.[13] 심연원 집안의 이러한 성향은 그의 친동생 심통원 집안이 윤원형, 이량 등의 척신들과 적극적으로 결합한 것과 비교하면 더욱 두드러진다.[14] 심통원의 아들 심전, 조카 심뇌 등은 대표적인 친 척신 인사였다. 당시 거리에 淸濁榜이 붙었는데, 탁방에 오른 네 명 중에 그들 세 사람이 모두 들어갈 정도였다.[15]

다음으로 정치적 이해관계의 측면에서 보면, 심의겸 집안과 개혁 세력은

---

8) 『국조문과방목』(奎 106)
9) 『선조수정실록』 권19, 선조 18년 9월 1일(무진)
10) 『명종실록』 권32, 명종 21년 4월 18일(기묘)
11) 『명종실록』 권29, 명종 18년 8월 17일(계해)
12) 『선조수정실록』 권3, 선조 2년 7월 1일(임신). 심연원은 을사사화 피화인들의 해배에 노력하였으며, 선조 즉위 직후 내려진 인순왕후의 신원 교서 역시 그의 뜻을 이은 것으로 평가되기도 하였다[『미암집』 권5, 「일기」(2면 나~3면 가)].
13) 『명종실록』 권29, 명종 18년 7월 26일(임인); 『명종실록』 권29, 명종 18년 10월 4일(기유)
14) 『명종실록』 권19, 명종 10년 11월 4일(을미)
15) 『명종실록』 권29, 명종 18년 10월 26일(신미)

모두 명종 즉위 이래 척신 세력의 행태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그것을 종식하려 했다. 명종대 말의 개혁세력은 時政에 대한 비판적 문제의식은 공유하고 있었지만, 내부적으로 완전히 균질적인, 단일 집단은 아니었다. 그들은 윤원형과 이량으로 이어지는 척신세력의 행태로 인해 조선이란 정치공동체 전체가 위험에 빠져있으며, 시급히 그 상태를 타개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었다.[16] 그리고 그들은 일찍이 중종대 조광조와 그 일파가 시도했던 개혁책들을 자신들이 추구해야 할 개혁책의 전범으로 여겼던 점에서도 공통적이었다. 그러나 개혁세력의 중심으로서 위에서도 언급된 이황, 조식, 이항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그들은 지역적으로도 그리고 개혁의 방법과 방식에 대해서도 분기되어 있었다.[17]

명종 18년 개혁 세력에 대한 이량 일파의 공격은 오히려 자신들이 축출되는 것으로 귀결되었다. 사헌부가 6인의 처벌을 주청한 지 이틀 후, 부제학 奇大恒을 필두로 한 홍문관원들이 이량을 탄핵하는 차자를 올렸고, 명종이 이를 전격적으로 수용하였기 때문이다. 그 결과 이량은 관작을 삭탈 당한 채 門外黜送 되었으며, 그의 아들 이정빈도 관작이 삭탈되었다. 그리고 이량의 사주를 받고 공격에 앞장섰던 양사의 관원들은 모두 체직되었다.[18] 이후

16) 명종 즉위 후 先王인 중종의 비 문정왕후를 배경으로 그녀의 동생 윤원형이 전횡을 계속하자, 명종은 그를 견제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그리고 그 일환으로 선택한 대안이 바로 인순왕후의 외삼촌 이량이었다. 이에 대해 명종 측의 능동적 선택이 아니라 이량이 먼저 접근했다는 얘기도 있지만, 그 경우에도 최소한 이량의 정치적 성장에 대해 명종과 심씨 일가가 윤원형에 대한 견제를 위해 방조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이량이 심강의 도움으로 홍문록에 선발되었다는 사실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이에 대해서는 '『명종실록』 권29, 명종 18년 8월 19일(을축)' 참조]. 따라서 똑같은 戚臣 출신이라고는 해도, 명종과의 관계나 정계에서의 성장 배경에서 윤원형과 이량은 많은 점이 달랐다. 실록 史臣들의 수많은 지적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량은 명종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다[대표적으로 다음의 두 기사를 참고할 수 있다. 『명종실록』 권29, 명종 18년 5월 4일(신사); 『명종실록』 권29, 명종 18년 10월 15일(경신)]. 이량은 명종의 총애를 등에 업고 윤원형 못지않은 행태를 보였으며, 또 개혁세력에 대한 축출 계획은 그들과 관계가 깊었던 심의겸에게도 직접적인 위협으로 다가왔다[『명종실록』 권30, 명종 19년 7월 13일(계축); 『명종실록』 34권, 명종 22년 1월 20일(병자)]. 이에 이제 청송 심씨 세력과 개혁세력은 그의 축출을 모색할 수밖에 없었다.

17) 명종대 말~선조대 초반의 다양한 학문적 계보에 대해서는 '정만조, 2001「朝鮮中期 儒學의 系譜와 朋黨政治의 展開(Ⅰ)」, 『조선시대사학보』 17' 참조.

18) 『명종실록』 권29, 명종 18년 8월 19일(을축)

이량의 나머지 세력도 양사의 요구에 의해 귀양을 가야 했다. 이때 심강과 심의겸 부자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 이들은 이량의 처리 문제에 대해 사전에 국왕 명종과 협의하여 교감을 나눈 후, 평소 이량과 친밀했지만 자신들의 친족이기도 한 기대항으로 하여금 차자를 올리게 하였다.[19] 이 시점이 되면 애초 이량을 총애했던 명종도 더 이상 그의 권력 전횡을 방치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심강 부자의 역할은 훗날 심의겸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대하던 동인 측에서도 인정할 정도로 사림 전체를 보호하는 큰 공로를 세운 것이었다. 결국, 문정왕후와 윤원형에 대한 대항마로 명종과 심씨 일가의 후원으로 급성장했던 이량과 그의 일파는, 그들 손에 의해 4~5년 만에 정계에서 사라진 셈이었다.

이량과 그의 일파가 정계에서 축출되자, 윤원형은 세력 만회를 꾀하였다. 명종 즉위 이래 줄곧 권력을 전횡했던 윤원형은 이량의 성장과 동시에 근 4~5년 간 위축된 상태에 있었다. 명종 18년 1월에 그는 관료의 정점인 영상에 제수되었으나 이때의 상황은 전과는 많이 달랐다. 먼저 이전에 그를 따랐던 많은 이들이 이량으로 옮겨갔기에 그의 세력은 많이 준 상태였다. 다음으로 명종의 처족 일가가 정치적으로 성장하고 있었다. 이 시기 심의겸의 급성장은 그 증거이다.[20] 이러한 상황에서 윤원형이 택한 전략은 미래 권력을 꾀하는 것이었다. 이량이 축출된 지 약 한달 후 명종의 하나 뿐인 아들 순회세자가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명종의 건강도 좋지 않은 상태였다. 그러자 윤원형은 명종의 후계자로서 유력했던 덕흥군에게 혼약을 강청하여 國舅가 되기를 도모하였다.[21] 비록 명종의 반대로 좌절되었으나, 이처럼 윤원형은 또 다른 척신인 좌상 심통원과 함께 다시 조금씩 권력을 되찾아 가고 있었다.

그러나 명종 20년 4월 문정왕후가 사망함으로써, 그의 계획은 모두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문정왕후의 죽음은 단지 한 왕비의 죽음으로 그치는 게

---

19) 애초 기대항은 이량과 결탁하여 움직이기도 했지만, 심강 집안과 친척이기도 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명종실록』 권30, 명종 19년 7월 13일(계축)'의 기대항 졸기 참조.

20) 『명종실록』 권29, 명종 18년 9월 29일(갑진). 심의겸이 약 급제 1년 만에 홍문관 부수찬에 제수된 이날 기사에서, 사신은 '이렇게 빨리 자급과 차례를 뛰어넘어 오른 예가 없었다'는 평을 남겼다.

21) 『명종실록』 권30, 명종 19년 6월 21일(신묘)

아니라 이후의 커다란 정국 변동을 예고하는 사건이었다. 그녀는 명종의 즉위 이래 동생 윤원형과 함께 정국을 주도하고 있었다. 그런 문정왕후가 사망하였으니, 이제 그녀의 세력 그리고 그녀가 만든 체제에 대한 청산 요구가 나올 것은 예정된 일이었다. 그 시작은 문정왕후가 사망한 지 채 한 달도 안 되어 보우를 처형하라는 요구가 대간으로부터 나온 것이었다.[22] 그리고 문정왕후의 발인이 끝난 후에는 윤원형에 대해 축출 요구가 나왔다. 이때 대사헌 이탁과 대사간 박순이 앞장서서 윤원형의 죄상을 제기했는데, 그 핵심은 임금의 권위를 훼손하는 정치적 권력 남용, 그것과 관련하여 재산 축적이었다. 그 외에도 첩 난정을 정처로 삼은 점, 그리고 덕흥군과 혼사를 추진한 점을 들었다.[23] 결국 윤원형은 이해 8월 放歸田里 되었다.[24]

문정왕후의 죽음은 그 이전부터 상당 기간 조선의 정치·사회 질서를 지배했던 세력과 그들이 구축한 질서의 종식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 시기에는 '權臣'이라 지칭되던, 왕의 姻戚인 소수의 인물들이 자의적으로 막강한 권력을 행사했는데, 그 결과 조선의 정치, 경제 등 제 분야에는 수많은 모순들이 누적되었다. 그 대표적 인물이자, 최근의 인물이 바로 문정왕후의 동생인 윤원형이었다. 윤원형은 '권력을 잡은 20년 간, 임금과 권세를 다투었으며 뇌물로 인해 재산이 국고보다 많았다'는 실록 졸기에 적힌 사신의 평처럼, 당대 조선에서 그 누구보다 압도적인 권력과 부를 가진 인물이었다.[25] 그러나 문정왕후라는, 그의 권력 기반이 사라진 것과 함께 그와 그가 구축한 질서도 종말을 고할 수밖에 없었다. 나아가 윤원형 세력의 몰락은 오랜 기간 유지되었던 권신 체제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2) 선조의 즉위와 새 질서의 모색

22) 명종대 문정왕후의 보우 후원에 대해서는 '한춘순, 2013「조선 명종대 불교정책과 그 성격」『한국사상사학』 44; 손성필, 2013『16,17세기 불교정책과 불교계의 동향』, 동국대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참조.
23)『명종실록』 권31, 명종 20년 8월 14일(무인)
24)『명종실록』 권31, 명종 20년 8월 27일(신묘)
25)『명종실록』 권31, 명종 20년 11월 18일(신해)

⑴ 선조의 즉위 과정과 그 배경

1567년(명종 22년) 7월, 중종의 손자이자 德興君의 셋째 아들인 하성군이 명종의 뒤를 이어 새 국왕으로 즉위하니, 그가 선조였다. 명종은 아픈 몸을 이끌고 문정왕후의 禫祭를 치르고 종묘에 부묘한 지 한 달이 채 못 되어 자신도 훙서하고 말았다. 선조의 家系와 즉위 과정은 여러모로 그때까지의 왕위 계승과는 다른 점이 많았다. 먼저 그는 조선 역사상 처음으로 嫡子가 아닌 庶子 출신 군주였다.[26] 중종의 두 적자인 인종과 명종에게 후손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명종의 후사는 중종의 서자 후손들 중에 선정할 수밖에 없었다. 다음으로 선조는 이전 대부분의 조선 왕들과 달리 정식으로 세자에 책봉된 적이 없이 곧바로 왕에 등극하였다.[27] 세자였던 순회세자가 사망한 후에도 명종은 끝내 자신의 후사를 공식적으로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상의 사실들은 선조의 즉위 과정과 배경에 대한 면밀한 탐구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즉 선조는 세자의 사망이라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짧은 기간과 제한된 조건 속에서 '선택된' 군주였다. 따라서 그 선택을 주도한 세력 또는 주체와 선택 과정을 살펴보는 작업은 향후 선조의 왕권과 즉위 초의 정국 상황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기초가 된다.

명종에게는 정비 인순왕후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한명 있었으니, 그가 바로 順懷世子이다.[28] 그는 명종 12년 왕세자로 책봉되었으나, 명종 18년 9월에 13살의 나이로 세상을 뜨고 만다. 그 후 명종은 後嗣를 낳기 위해 여러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나,[29] 끝내 아들은 탄생하지 않았고, 순회세

---

26) 선조의 아버지 덕흥군은 중종과 후궁 昌嬪 安氏 사이에서 태어난 인물이었다. 중종은 3명의 정비와 6명의 후궁 사이에서 모두 2명의 적자와 7명의 서자를 두었는데, 덕흥군은 아들 가운데 제일 막내였다. 이에 대해서는 '지두환, 2001『중종대왕과 친인척』, 역사문화' 참조.

27) 계유정난과 중종반정이라는 특수한 방법을 통해 등극한 세조와 중종의 경우에도 세자로 책봉된 적이 없었다. 그리고 미처 세자를 책봉할 새도 없이 지극히 짧은 기간을 재위한 先王을 이은 성종과 명종도 마찬가지였다.

28) 순회세자는 명종과 6명의 후궁 사이 전체를 통틀어도 유일한 소생이었다.

29) 새로 후궁을 들이고, 문정왕후의 능 자리를 살피면서 '無後之地'가 아닌지를 신경 쓰고, 사람을 보내 개성 송악산에 기도를 올렸다고 한다[『명종실록』 권30, 명종 19년 2월 1일(갑진); 『명종실록』 권31, 명종 20년 5월 30일(을축); 『명종실록』 권32, 명종 21년 1월 24일(병진)].

자의 사망 이후 두드러지게 악화되기 시작한 명종의 건강은 그로부터 약 1년 6개월 후에는 문정왕후의 상까지 치르면서 더욱 나빠졌다.[30] 그리고 建儲 문제는 정계의 첨예한 관심거리로 대두하였다.

본격적인 후사 논란은 명종 20년 9월 중순, 문정왕후의 喪 중에 있던 명종의 건강이 급속도로 나빠졌을 때 처음 불거졌다. 인견 자리에서 영상 이준경이 "國本은 반드시 미리 정해야 인심이 안정될 수 있다"며 선조의 결정을 촉구한 것이다. 그러나 선조는 건저 문제에 적극적이지 않았으며 불편한 기색을 보였다. 이에 이준경은 한발 물러나 '세자를 정하지는 않더라도, 염두에 두는 인물이 누구인지는 알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선조는 '중전이 알아서 처리할 것'이라며 결정적인 언급을 피하였다.[31]

이틀 후 선조의 건강 상태가 더욱 나빠지자, 2품 이상 대신들이 대거 중전에게 국본을 서둘러 정할 것을 촉구하였다. 처음엔 사안이 중대하므로 후일을 기약하자던 중전은 대신들이 재차 재촉하자 친필로 "덕흥군의 셋째 아들 鈞이 입시하여 醫藥을 시중들라"고 써서 내렸다. 이에 대신들은 그 결정이 명종의 승낙을 얻은 것인지 묻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단 한자라도 御筆로 쓰게 하여 그 효력을 확실히 하고자 하였다. 중전은 명종에게 아뢰지 않았음을 밝히며, 명종의 병세가 호전되면 품의하기로 하고 일단 이날의 논의를 정리하였다.[32] 인순왕후는 명종의 병세 악화를 이유로 단독으로 하성군을 지명한 것이며, 이는 하성군이 처음으로 명종의 후사로 언급된 것이었다.

하성군의 지명 과정을 보면 중전이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반면 명종은 소극적, 회피적 자세로 일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 중전의 의향은 곧 그녀의 친정인 청송 심씨 일가의 의지이기도 하였다. 하성군의 이름을 써서 내린 날에도 심강의 妹夫이자 중전의 고모부인 尹健이 중전과 이준경의 처소를 7~8차례 오갔다고 한다.[33] 이로 보아 후사 선정 과정에서 이준경과 심씨 일가 사이에는 상당한 교감이 있었음이 분명하다.[34] 그들은 모두 후사

---

30) 『명종실록』 권34, 명종 22년 6월 28일(신해)
31) 『명종실록』권31, 명종 20년 9월 15일(무신)
32) 『명종실록』권31, 명종 20년 9월 17일(경술)
33) 위의 자료.
34) 이준경과 심씨 일가의 교감에 대해서 실록의 사신은 그가 척리 윤건을 시켜 내전에 알렸다고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다. 윤건은 심연원의 사위이자, 이준경의 外弟였다. 이

선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러한 사실은 이준경의 후사 문제 제기에 심의겸과 긴밀한 관계에 있던 閔箕의 역할이 컸다는 점에서도 짐작할 수 있다.[35] 그렇다고 하성군의 지명이 오로지 심씨 일가만의 일방적인 생각은 아니었다. 순회세자 사후 윤원형이 덕흥군 집안과 혼사를 맺음으로써 권력을 도모하다 좌절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당시에 덕흥군의 세 아들은 이미 유력한 차기 군주 후보군이었다.[36]

신료들의 요청과 달리 명종의 일관된 입장은 세자의 탄생을 기다려야지 미리 정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었다. 보름여 뒤 어느 정도 건강을 회복하여 다시 대신들을 인견하는 자리에서 선조는 앞서 인순왕후가 내린 결정을 불가피한 상황에서 취해진 선택으로 치부하고 이를 무효화하였다. 그리고 다시는 건저 논의를 하지 말 것을 명하였다.[37] 그러나 이해 9월 중순부터 명종의 건강은 다시 악화되기 시작하였으며,[38] 10월 하순부터는 더욱 심해졌다.[39] 이에 윤10월에 영상 이준경은 장문의 상소를 올려 입후를 분명히 할 것을 다시 촉구하였다.[40] 이준경을 비롯해 건저를 촉구하는 이들의 공통된 주장은 빨리 후사를 확정하고 그를 궁중으로 들여 미리 준비토록 하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명종을 안심시키기 위해, 훗날 국본이 새로 탄생한다면 자연히 후사는 새 왕자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언급도 빼놓지 않았다.

이에 대한 명종의 반응은 끝까지 不可였다. 그 이유로 '어느 종실이 적합

에 대해서는 '『명종실록』 권32, 명종 21년 3월 9일(경자)' 기사 참조.

35) 『명종실록』 권30, 명종 19년 2월 17일(경신); 『명종실록』 권31, 명종 20년 10월 10일(계유). 민기의 역할을 가장 적극적으로 평가한 기록은 『연려실기술』에 전재한 『부계기문』이다. 이에 따르면 명종 20년 9월, 이준경에게 후사 문제를 거론케 한 것도 민기였으며, 그런 이유로 선조 등극 후 가장 먼저 정승이 되었다고 한다. 심의겸과 민기의 관계에 대해서는 '『명종실록』 권32, 명종 21년 4월 18일(기묘)' 참조.

36) 『명종실록』 권30, 명종 19년 6월 21일(신묘)

37) 그렇다고 입후 요청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다음해인 명종 21년 3월 鈴平府院君 尹溉가, 4월에는 豊德郡守 李民覺이 宗社의 근본을 정할 것을 촉구하였다[『명종실록』 권32, 명종 21년 3월 22일(계축); 『명종실록』 권32, 명종 21년 4월 17일(무인)].

38) 『명종실록』 권33, 명종 21년 9월 13일(경자)

39) 『명종실록』 권33, 명종 21년 윤10월 14일(신축)

40) 『명종실록』 권33, 명종 21년 윤10월 15일(임인). 이해 11월에는 白川의 생원 金澤가[『명종실록』 권33, 명종 21년 11월 16일(임신)], 해를 넘겨 명종 22년 5월에는 古阜郡守 鄭復始가 같은 주장을 반복하였다[『명종실록』 권34, 명종 22년 5월 2일(병진)].

한 지 모르겠다'거나 '문정왕후의 상중'이라는 이유를 들며, 건저 논의에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그렇다고 명종이 후사에 대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그는 일단 왕손들에 대한 교육에 착수하였다. 명종 21년 8월, 師傅를 선발하여 德陽君의 아들 豐山都正 宗麟과 덕흥군의 아들 河原君 鋥, 前河陵君 鏻, 河城君 鈞을 가르치도록 하였다.[41] 그리고 며칠 후에는 韓胤明을 사부로 선발하고, 尹希廉과 鄭芝衍이 이어서 그 일을 하도록 하였다.[42] 그런데 이때에도 명종이 후사와 관련해 특정인을 공식적으로 지목한 일은 없었으며, 하성군은 어디까지나 4명의 후보 중 한명이었다.[43] 명종 22년 6월 말, 명종은 결국 훙거하였다. 명종의 의식이 흐릿한 상태에서, 영상 이준경 등 입시한 신료들이 혹 후사 관련 전교가 있었는지를 묻자 인순왕후는 '을축년(명종 20년) 때 내가 下書한 대로 한다'고 할 뿐이었다.[44] 후사에 대한 명종 본인의 공식적인 언급은 끝내 없었던 것이다.

이상과 같이, 선조의 즉위는 인순왕후와 그녀의 친정인 청송 심씨 세력이 주도하고, 이준경을 비롯한 대신 세력이 협조한 결과였다. 따라서 앞으로의 정국 상황은 청송 심씨의 태도와 선조의 역량에 따라 여러 가능성이 열려있었다. 즉, 청송 심씨의 우위 속에 명종대와 같은 척신 정치가 재현될 가능성도, 반대로 선조가 대신들과의 협조를 통해 국왕권을 적극적으로 발휘할 가능성도 있었다. 아니면 개혁적 신진세력이 자신들의 기획을 보다 강력하게 관철하려는 시도를 하면서, 이들에 대한 입장의 차이에 따라 분열할 수도 있었다.

⑵ 과거사 청산과 새 질서의 모색

선조의 즉위는 상당 기간 조선을 지배했던 척신 세력과 그들이 만든 질서의 종식을 의미하는 동시에 그것을 대체할 새로운 세력과 질서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일단 명종의 후사로 선조가 선택되어 즉위하였으나, 앞으로 누

41) 『명종실록』 권33, 명종 21년 8월 26일(갑신)
42) 『명종실록』 권33, 명종 21년 8월 28일(병술)
43) 『경연일기』·『선조행장』 등에서는 여러 후보군 중 하성군의 덕행이 두드러지고 총명하여, 명종이 그를 총애한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러나 공식적인 조치는 없었다는 점은 분명하다.
44) 『명종실록』 권34, 명종 22년 6월 28일(신해)

가 정국을 주도할 것이며, 그(들)이 구현하는 조선의 정치·사회 질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는 이제 새 국왕과 朝野의 사대부 등 여러 정치 주체들 간의 대화와 합의 혹은 갈등과 대립의 과정을 통해 빚어질 예정이었다.

그런데 선조 즉위 후부터 명종의 祔廟가 이루어지는 선조 2년 8월까지는 그들 모두가 동의하는 일관된 방향이 분명하게 존재하였다. 그리고 선조 즉위 초에 행해진 일련의 조치들은 바로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행해졌다. 그 첫째는 아직 조정에 남아 있는 명종대 척신 세력을 축출하는 인적 청산 작업이었으며, 둘째는 명종대 척신세력에 의해 발생한 여러 시국 사건들을 재평가하는 작업이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조광조, 이언적 등에 대한 국가 차원의 추숭 작업이었다. 이 가운데 둘째와 셋째 작업의 진행 과정에서 국왕과 대신, 그리고 신진세력 간에 드러난 입장 차는 향후 본격적으로 드러날 갈등의 전주곡과 같았다.

첫째, 인적 청산은 沈通源과 그의 세력을 축출하는 것이었다. 심통원은 윤원형·이량과 같은 명종대의 대표적 '權勢之家'로서, 그들과 연합하면서 권력을 행사하고 많은 부를 모았다. 그 결과 '관직 매매와 뇌물 수수가 윤원형에 버금간다'거나,[45] '또 다른 윤원형'이라는 평을 들을 정도였다.[46] 그는 명종 20년 윤원형이 축출되고 난 후 여론의 악화 속에서 일단 좌의정 자리에서 자진 사퇴하였다.[47] 그러나 그 후에도 영중추부사로서, 여전히 정치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세를 과시하였다. 단적으로 그는 당시 비밀리에 추진되어 대간도 알 수 없었던, 북서지방의 토벌 계획 논의에 참여하였다.[48] 또 문정왕후 장례 시에도 典禮 문제 논의에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하였으며,[49] 명종의 병세가 악화되고 훙거하기까지는 약방 도제조로서 그 과정을 가까이 지켜보며, 선조의 옹위 과정까지 주관하였다.[50]

---

45) 『율곡전서』 권28, 「경연일기」 선조 즉위년 9월(15면 나)
46) 『명종실록』 권31, 명종 20년 8월 27일(신묘)
47) 『명종실록』 권31, 명종 20년 12월 20일(계미); 『명종실록』 권31, 명종 20년 12월 21일(갑신)
48) 『명종실록』 권32, 명종 21년 1월 7일(기해); 『명종실록』 권32, 명종 21년 3월 2일(계사)
49) 『명종실록』 권32, 명종 21년 4월 4일(을축); 『명종실록』 권32, 명종 21년 4월 5일(병인)
50) 『명종실록』 권34, 명종 22년 6월 28일(신해)

그리하여 윤원형 死後 성균관 유생들은 당대의 대표적 '부패 인사[濁榜]'로 그와 그의 조카들을 들 정도였으며,[51] 사림들은 그가 어떤 일을 벌이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걱정하였다.[52] 그러나 명종의 졸곡이 끝난 직후인 선조 즉위년 9~10월 심통원과 그의 조카로서 그 못지않게 부패하였던 沈銓이 삭탈관작 되었고,[53] 심통원의 심복이었던 김명윤이 축출되었다.[54] 심통원과 그 세력의 축출은 유일하게 남아있던 척신 체제의 핵심 인물이 완전히 제거되었음을 의미하였다.

둘째, 정치적 청산은 을사사화를 비롯해 명종대 발생한 일련의 시국 사건들에서 죄를 입은 자들에 대한 伸寃 작업이 핵심이었다. 명종대 초반에는 즉위년의 을사사화, 명종 2년의 소위 양재역 벽서사건, 명종 3년의 안명세 옥사 사건, 4년의 이홍윤 옥사 사건, 5년의 이해 옥사 사건 등 시국 사건들이 연이어 일어났다.[55] 이 사건들은 모두 당국자들에 의해 역모 사건으로 규정되었으며, 그에 따른 처벌이 내려졌다. 그런데 선조 즉위년 10월, 명종의 卒哭이 끝나자마자 이들 피화인들에 대한 伸寃 작업이 추진되었다. 이를 먼저 발의한 三公이나 인순왕후의 견해는 '을사년 이후 많은 사람들이 죄를 받았지만 그들 대개는 이기와 윤원형 무리들에 의해 억울하게 모함을 받았다'는 것이었다.[56]

---

51) 『명종실록』 권32, 명종 21년 2월 5일(정묘)

52) 『명종실록』 권33, 명종 21년 12월 30일(병진)

53) 『선조실록』 권1, 선조 즉위년 10월 24일(을사); 『선조수정실록』 권1, 선조 즉위년 10월 5일(병술).

54) 『선조실록』 권1, 선조 즉위년 12월 23일(계묘).

55) 윤원형 세력이 윤임 세력을 제거하기 위해 벌인 핵심 사건은 을사년의 사건이었으며, 이후의 여러 사건들은 그것의 연장선에 있었다. 특히 규모나 피화 범위로 봤을 때 을사년(명종 즉위년) 사건과 함께 정미년(명종 2년), 기유년(명종 4년) 등의 세 사건이 대표적인 사건들로 평가되었다. 이들 사건들에 대해서는 『연려실기술』의 '명종조 고사본말'에 잘 정리되어 있다. 현대의 연구로는 '박홍갑, 2001「조선 명종조 忠州獄의 전개와 충주사림」『조선시대사학보』 17; 2005「16세기 전반기 정국 추이와 충주사림의 피화-광주이씨 克堪系를 중심으로-」『사학연구』 79; 이영춘, 2001「16세기 士林派와 김저의 政治活動」『한국사상과 문화』 12; 한춘순, 2006『明宗代 勳戚政治 硏究』 중 '1. 을사사화의 발생과 확대'; 이기순, 2008「이약빙의 정치활동과 왕도정치론」『사총』 66; 김돈, 2009「을사사화와 피화인 김저」『조선중기 정치사 연구』, 국학자료원' 등을 참고할 수 있다.

56) 영의정 이준경, 좌의정 이명 등 재상들의 견해는 '『선조실록』 권1, 선조 즉위년 10월

그리하여 이달에만 대규모의 신원 조치가 내려졌다. 유배 중이던 자들은 해배되었으며, 산 자나 죽은 자 모두 직첩과 적몰 당했던 재산을 돌려받았다.[57] 노수신, 유희춘, 김난상 등 그 중 일부는 敍用되어 다시 조정에 복귀하였다. 또, 명종 2년 이홍윤 사건으로 인해 유신현으로 강등되었던 충주는 이름을 회복하고, 그와 함께 사건에 연루되었던 수많은 충주 사람들도 신원되었다. 다음해 선조 1년 2월에는 인순왕후가 수렴청정을 그만 두면서 또 다시 대규모의 신원 조치를 내렸다.[58] 이러한 신원 조치는 명종대 척신 정권의 도덕적 정당성의 결핍을 드러낸다는 의미가 있었다. 그들 정권은 애초부터 잘못된 방법을 통해 출범한, 잘못된 정권이었다는 것이다.

셋째, '사습을 바로잡기 위해' 조광조에 대한 국가 차원의 추증이 이루어졌다. 조광조의 복권 요구는 이미 중중대 말부터 제기되어 인종대 들어서도 계속되었다. 인종은 번번이 先王의 조치를 가벼이 고칠 수 없다는 이유로 거절하다 마지막에 유언으로 그것을 허락하였다. 그러나 명종 즉위 후 척신 세력에 의해 그 유언은 무효화 되었고, 이후 조광조의 복권 요구는 사실상 사라졌다.[59] 그런데 선조가 즉위하자마자 조광조에 대한 복권 요구가 다시 터져 나왔다. 그 대표적 인사는 바로 당대 사림을 이끌던 기대승과 이황이었다. 애초 이들이 요구한 것은 단지 복권만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 문묘종사까지를 포함하는 국가의 추숭이었다. 또 조광조와 더불어 이언적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리하여 마침내 선조 1년 4월, 조광조를 영의정으로 추증하였다. 더불어 약 5개월 후에는 기묘사화의 주도자였던 南袞의 관작마저 삭탈하였다. 이로써 중종 14년 기묘사화 발생 이후 근 50년 만에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공식적 평가는 뒤바뀌게 되었다.

6일(정해)'에, 인순왕후의 견해는 '『선조실록』 권1, 선조 즉위년 10월 15일(병신)'의 전교에 잘 드러나 있다.

57) 『선조실록』 권1, 선조 즉위년 10월 12일(계사)

58) 이때 인순왕후는 '을사년에 적몰했던 재산을 환수하고, 노비가 된 처자와 기유년의 유배자를 모두 방송하라'는 명을 내렸다[『선조실록』 권2, 선조 1년 2월 24일(갑진)].

59) 중종대 후반 조광조에 대한 복권 논의의 시작부터 광해군 2년에 그가 문묘에 종사되기까지의 과정에 대해서는 '정두희, 2001「趙光祖의 復權過程과 賢良科 問題」『한국사상사학』 16'에 잘 정리되어 있다.

이상과 같이 선조 즉위 초에는 과거의 '사건'과 '인물'에 대한 대대적인 재평가 작업이 행해졌다. 이들 조치는 모두 '과거'의 일을 대상으로 한 사후적 조치였지만, 그 목적은 '미래'를 향해 있었다. 과거의 문제적 '사건'과 '인물'에 대한 是非를 새롭게 규정함으로써, 향후 조선이 추구할 가치와 질서 기준을 새롭게 제시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이다. 기대승과 이황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것은 '지난 일들에 대한 是非를 분명히 함으로써, 앞으로의 풍속을 바꾸기' 위한 것이었다.[60] 따라서 이들 사안은 긴밀하게 연동되어 있었으며, 시간적으로도 동시에 추진되었다. 이렇듯 前朝에 대한 부정과 청산 작업은 일찍이 反正이라는 예외적 방식을 통해 정권이 바뀐 중종대의 경우에서나 볼 수 있는 현상이었다.[61] 또 조광조에 대한 국가 차원의 褒奬은 先王의 조치를 뒤집거나 선왕이 주저했던 바를 과감하게 실행한 것이었다. 그만큼 선조 정권의 출범은 향후 조선의 정치와 사회에 이전과는 상당한 격절과 변화가 있을 것임을 암시하였다.

3) 이이의 出仕와 개혁 운동 참여

이이는 명종 19년에 치른 식년시에서 甲科 1등, 즉 壯元으로 급제하면서 관직 생활을 시작하였다. 이때 그의 나이 29세였다. 그는 같은 해에 생원시와 문과를 동시에, 그것도 모두 장원으로 합격함으로써 명성을 높였다.[62]

---

60) 『선조실록』 권1, 선조 즉위년 10월 23일(갑진); 『선조실록』 권1, 선조 즉위년 11월 4일(을묘). 기대승의 "천하의 일은 是非가 없을 수 없다. 시비가 분명한 연후에야 인심이 복종하고, 정사가 순조롭다. 시비는 인심에서 나올 뿐 아니라, 천리에서 나온다"는 발언은 개혁적 신진세력의 의식 세계를 잘 보여준다[『고봉집』「論思錄」 卷上(2면 나), "天下之事 不可無是非 是非分明 然後人心服而政事順矣 是非不但出於人心 而出於天理也"].

61) 중종대 문제로 삼은 대상이 '廢主'에 의해 만들어진 질서였다면, 선조대 개혁의 대상은 '權臣'이 만든 질서라는 점이 달랐다. 중종대와 선조대의 개혁 작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자세한 비교 분석 작업이 필요하다. 한편, 새 국왕의 즉위와 함께 위험 세력에 대한 처치와 사면은 일반적 조치로, 새 국왕이 즉위하면 으레 있는 일이기도 하였다. 하지만, 선조 즉위 직후부터 이루어진 사면은 일반 범죄가 아니라 시국 사건 관련자들이라는 점이 일반적 사면과는 달랐다.

62) 『명종실록』 권30, 명종 19년 8월 30일(기해)

이미 그 전에도 명종 3년에 13세라는 어린 나이로 진사시에 합격하여 주목을 받았고, 금강산에서 돌아오고 난 후 명종 11년에 치른 한성시, 또 명종 13년의 별시에서 모두 장원을 차지하여 더욱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 특히 명종 13년에 對策文으로 제출한 천도책은 試官 鄭士龍을 비롯한 선배 관료로부터 찬탄을 받고,[63] 명나라에까지도 알려지는 등 상당한 주목을 끈 것으로 보인다.[64]

이처럼 촉망받는 신진 관료였던 이이는 명종대 말 급제한 이후 낭관 및 언관 등의 청요직에서 활동하게 되었다. 그는 문과에 합격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호조좌랑에 첫 발령을 받았으며,[65] 이후 예조 좌랑, 사간원 정언[66], 병조 좌랑을 거쳐,[67] 명종 21년 5월에는 六曹의 낭관 중에서도 가장 요직이자 영예직이던 이조 좌랑에 제수되었다.[68]

이이가 관직 생활을 시작하던 때는 마침 조선의 정계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던 시점이었다. 그의 출사 약 1년 전에 이량 세력이 전격적으로 축출되었고, 출사 7개월 여 뒤에는 문정왕후가 훙거한 것이다. 그리하여 이량과 윤원형 등이 구축한 권신 체제에 대한 개혁 요구가 朝野에서 활발하게 제기되고 있었고, 갓 출사한 신진 관료 이이도 이 개혁 운동에 적극 참여하였다. 먼저, 이이는 보우·윤원형·심통원 등 척신 정권의 핵심 인물들에 대한 처벌 요구에 동참하였다.[69] 다음으로, 자신이 속한 관서의 이름으로 각종 개혁안

63) 『율곡전서』 권33, 「연보」
64) 『선조수정실록』 권16, 선조 15년 11월 1일(을묘).
65) 『명종실록』 권30, 명종 19년 8월 30일(기해).
66) 명종 20년 11월 18일에 제수 받았고, 동왕 21년 3월 24일에 같은 직에 또 임명되었다.(『명종실록』)
67) 『명종실록』 권32, 명종 21년 2월 15일(정축).
68) 『명종실록』 권32, 명종 21년 5월 15일(을사). 이이의 연보에는 이해 겨울에 발령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록에는 이미 이해 5월에 제수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69) 윤원형의 경우 이이는 다른 동료들과 마찬가지로 그를 귀양 보낼 것을 요청하였다[『율곡전서』 권3, 「논윤원형소」]. 하지만, 보우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동료 의견과 달리, 명종의 喪中이므로 그를 축출하긴 하되 죽이지 말고 먼 곳에 귀양 보낼 것을 제안한 점이 특징적이다[『율곡전서』 권3, 「논요승보우소」]. 연보에는 이 소를 올린 것을 명종 20년 8월의 일로 차정하였으나, 이미 이해 6월에 제주도에 귀양 보내라는 명이 내려졌으므로[『명종실록』 권31, 명종 20년 6월 25일(경인)], 4~5월에 올린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 명종 21년에는 육조의 다른 낭관들과 함께 심통원의 처벌을 주장함으로써 과거 인물 청산에 종지부를 찍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율곡전서』 권3, 「육조낭관논심

이 제출될 때 그 저술을 담당하였는데, 대표적으로 「논전조청탁지실계」·「청혁양종선과계」가 있다. 「논전조청탁지실계」는 그가 이조 낭관으로 재직하며 절감했던 관리 선발의 공정성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반영한 글이며, 「청혁양종선과계」는 문정왕후에 의해 추진된 불교 정책에 대한 비판을 드러낸 글이다.[70]

이처럼 출사 직후 개혁 운동에 적극 참여하던 이이는 선조 1년 가을 千秋使로서 京師에 다녀오고, 같은 해 겨울에는 외조모의 병간호를 위해 강릉에 내려감으로써, 이 후 약 6개월 간 정국의 중심에서 한발 물러나게 된다.[71]

그런데 이이의 개혁 운동 참여는 관직 진출과 함께 전개된 예상치 못한 정국 상황에서 갑작스레 결정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이미 출사 이전부터 당대 지식인·정치인 일반의 학문과 실천을 비판하는 의식을 강하게 표출하고 있었다. 선조 2년에 올린 상소에서 본인이 "斯道에 뜻을 둔지 10여년"이라 고백하였듯이,[72] 이이는 출사 수년 전에 자신의 학문적 정체성을 정립한 상태였다. 그리고 그것은 곧 그의 정치적 정체성을 형성한 것에 다름 아니었다. 즉, 자신(들)이야말로 올바르고 진정한 학문을 한다는 주장은 곧 기존의 주류적 행태에 대한 비판과 차별화를 의미하였고, 이는 문제적 정치 현실을 극복하려는 실천 의지와도 연결될 수 있었다. 아래에서는 출사 전 그의 修學 이력과 交遊 상황을 살펴봄으로써 이를 확인하고자 한다.[73]

통원소」].

70) 양종 선과는 문정왕후의 후원을 받던 普雨가 주도하여 설치한 것으로, 보우가 축출된 이후에도 존속하다 명종 21년 4월 양사의 합계로 폐지하였다.

71) 이이는 선조 2년 6월, 다시 조정에 돌아온다. 그리고 이후 그는 자신의 개성을 드러내며 개혁 운동을 전개한다. 이에 대해서는 제1장 3절 '이이의 정치적 浮上과 舊臣 비판' 참조.

72) 『율곡전서』 권3, 「사교리잉진정소」

73) 지금까지 이이의 출사 전 행적에 대해서는 주로 금강산 입산 동기, 그리고 이황과의 만남에 관심이 집중되었다. 금강산 입산 동기에 대해서는 '이병도, 1925 「이율곡 '入山'의 動機에 대하여」 『조선사학』 1[『두계이병도전집 9－조선시대의 유학과 문화』(2012, 한국학술정보)에 수록]; 황준연, 앞의 책, 39~53쪽; 한영우, 앞의 책, 63~75쪽'에서, 이황과의 만남에 대해서는 '황준연, 위의 책, 62~68쪽; 이광호 편역, 2013 『퇴계와 율곡, 생각을 다투다』, 홍익출판사, 25~47쪽'에서 자세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이와 성혼, 정철 등과의 교유 활동에 대해서도 이미 여러 연구에서 다루었는데[정재훈, 2008 『조선시대의 학파와 사상』, 신구문화사, 90~93쪽; 금장태, 앞의 책, 98~115쪽], 앞으로 교류 대상과 양상을 보다 확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이이의 출사 전 수학

이이는 修學 과정에서 중대한 전환을 경험한 것은 18세였던 명종 8년을 즈음이었다. 이때를 기점으로 그는 과거 공부 위주에서 성리학에 대한 본격적인 탐색을 시작한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그 일년 뒤인 명종 9년에 친우 최립·성혼과 나눈 두 통의 편지에서 본인이 회고하는 내용이 있어 좋은 참고가 된다. 崔立에게 보낸 편지는 아직 그와 교류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이이가 최립이 '斯道에 뜻이 있음'을 알고 먼저 자신의 솔직한 속내를 보임으로써 앞으로 더욱 관계를 친밀히 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보낸 것이다.[74] 여기서 이이는 자신의 공부가 '과거를 위한 학문[科擧之學]'으로부터 시작하였지만, 5~6년이 지난 어느 날 '깨달은 후부터 性理之學을 추구'하게 되었음을 고백하고 있다.

> 나는 어릴 때부터 학문에 뜻이 있었으나, 학문을 하는 방법을 알지 못했다. 그래서 老儒 선생에 나아가 배움을 구해 보았지만, 선생이 권하는 것은 科擧의 글에 불과하여 구차하게 세상에 영합하기에 힘썼다. 어리고 어리석은 데다 식견이 없어, 그 業을 좇은 것이 … 거의 5,6년이었다. 性理之學은 말할 것도 없고, 科擧之學도 아직 완전히 익히지 않았는데, 마침 어머니의 상을 당하였다. 喪을 치르는 중에는 책을 집을 수 없어 다만 옛 사람의 글 가운데 해학류의 글을 취해 수시로 열람하며 적요함을 깰 뿐으로, 시문을 짓는 일은 전혀 하지 않은 채 3년을 보냈다. 어느 날 아침에 분노하며 가슴 속을 돌아보니, 텅 비어서 아무 것도 없었다. 이에 가만히 탄식하기를 사람의 재주가 있고 없음은 배움의 여부에 있고, 현명함의 있고 없음은 행동의 여부에 있는데, 나는 본래 거칠고 잡스런 바탕에다 또 배우고 행한 것도 없다. 예전에 한 일은 과거를 좇을 뿐이었으니, 과거를 좇기보다 배우고 행함에 힘쓰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75]

이력과 그의 출처관에 대해서는 아직 본격적으로 검토된 적이 없는데, 입사 후 그의 정치 활동과 학문 활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앞으로 더 상세한 연구가 필요한 주제라 할 수 있다.

74) 최립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다음의 두 글을 참조할 것. 沈慶昊, 1988「崔岦의 文章之文論과 古文詞」『진단학보』65; 김남기, 2001「간역 최립의 생애와 시세계」『한국한시작가연구』6.

75)『율곡전서』습유, 권3「與崔立之」, "吾自髫年有志於學 而不知爲學之方 乃就老儒先生 以求其學 老儒之所勉 不過科擧之文 而以苟合於世爲務 童騃無識 遂趨其業 … 幾五六年 性理之學 無所復道 科擧之學 尙未純熟 而適丁內憂 衰絰之下 不能執卷 但取古人之文 類於詼諧者 時而閱覽之 以破寂寥而已 其於翰墨 闕然不接 奄過三年 一朝發憤而反顧胸中 則空空焉無物也 竊自嘆曰 人之才不才 在於學不學 人之賢不賢

이이가 어머니의 상을 당한 것은 16세이던 명종 6년의 일이다. 따라서 이이는 10세~11세경부터 과거 공부를 시작하였으며, 이후 5~6년 동안은 그것에 주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실제 그 기간 중인 13세 때는 처음으로 진사시에 합격하였다. 그러나 어머니 신사임당의 상을 당하고는 과거 공부도 그만 두고 '해학류의 글'을 읽는 정도로 3년을 보내다가 성리학 공부를 하기로 결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이가 18세부터 본격적으로 성리학 공부를 시작했음은 같은 해 성혼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 글에서 그는 '15~16살 전에는 읽은 책이 거의 없었는데, 17살에 비로소 학문에 뜻을 두기 시작했고, 작년부터 비로소 實學을 보기 시작했다'고 진술하고 있다.[76]

그런데 이이는 최립에게 보낸 같은 편지에서, 자신이 과거 공부에서 성리학으로 전환을 했지만 스승으로 모실만한 인물이 없다고 토로하였다.[77] 이는 자신의 기준으로 판단하건대 스승으로 모실만한 인물이 없거나, 어쩌다 있더라도 배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비판적 인식의 표현이었다.

> 오늘날의 세상에 스승으로서 가르치는 자는 누구인가? 공자의 말을 외우고 공자의 옷을 입는 자는 모두 名利를 좇고 세상에 팔리기를 구하니, 내가 마땅히 스승으로 삼을 자가 아니다. 公卿大人으로서 비록 도를 아는 자가 있더라도 門戶가 깊고 높아서 小子가 나아갈 수 있는 바가 아니다. 혹 스스로 나아가면 반드시 스스로 팔았다는 말을 듣는다. 그러므로 공경대인도 내가 감히 스승으로 취할 자가 아니다. 스승으로서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을 얻을 수 없으니, 차라리 벗을 구하여 나를 돕게 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78]

在於行不行 我本以駁雜之質 又無學行之資 曩日之業 不過逐逐於科擧而已 與其逐逐於科擧者 曷若孜孜於學行乎"

76) 『율곡전서』 권9, 「答成浩原」(21면 나)

77) 잘 알려진 대로, 존경할만한 스승이 없다던 이이가 당대의 인물 중 유일하게 학문을 인정한 이는 바로 퇴계 이황이었다. 23세이던 명종 13년 봄, 이이는 성주에서 장인 노경린을 만난 후 강릉으로 가는 도중 안동에 들러 이황을 처음 만났다. 그리고 강릉으로 돌아온 이후에도 서신을 교환하며 성리학의 여러 주제에 대해 대화를 나누었다.

78) 『율곡전서』 습유, 권3 「與崔立之」, "當今之世 師授者何人 誦孔子之言 而服孔子之服者 皆趨名利而求衒於當世 則非吾之所當師也 公卿大人 雖有知道者 而門戶深峻非小子之所能自進也 苟或自進 則必至於自鬻之名 故公卿大人 非吾之所敢師也 師授者旣不可得 則曷若求友之輔我者乎"

먼저 그는 당대의 스승이라 불리는 자들이 대부분 스승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말한다. 말과 외양은 유학자를 표방하지만, 실제로 그들은 名利를 추구하는 자들이라는 비판이다. 이는 당대의 일반적 학문 권위에 대한 강한 비판 의식의 표현이자, 그것과의 의도적 단절을 통해 새로운 학문을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였다. 그런데 여기서 이이는 그와는 또 다른 차원의 아쉬움을 드러내었다. 공경대인으로서 도를 아는 자가 있어도 접근하기 어려울 뿐더러, 스승으로 모실 경우 '스스로를 팔았다'는 비난이 닥친다는 것이다. 즉, 자신과 마찬가지로 기존의 학문적 권위에 대해 비판적 입장인 인사들의 경우 공경대인과 같은 인물에게 접근하는 것 자체를 터부시하며 비난하고 있었다. 이이는 그럴 바에는 스승을 찾기보다 벗을 구하겠다고 말한다.

그리하여 과거 공부에서 성리학으로 전환한 이후, 이이는 '道友'를 찾았고, 그런 가운데 수평적 동지 관계를 확대하기 시작하였다. 시간 상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그의 '도우' 찾기는 대체로 20살을 전후 한 시기, 즉 금강산 입산 前後 모두에 걸쳐 이루어진 일로 보인다. 서신을 통해 자신의 학문 이력을 고백한 최립과 성혼, 마찬가지로 많은 학문적 논의를 나누는 송익필도 비슷한 시기에 알게 되었다. 훗날 선조대 초반의 정국 상황 속에서 이이의 동료로서 활동하고, 결국 동인에 의해 서인으로 차정되는 정철을 사귀게 된 것도 바로 이때부터였다.[79]

이이는 자신과 도우들과의 사귐은 이익이나 인정에 기초한 세속적인 사귐과는 다르다며, 차별화 의식을 분명하게 드러냈다. 아래와 같은 편지들에서 이이의 자부심을 읽을 수 있다.

> 士에게 소위 벗이라 것에는 세 종류가 있다. 시문을 짓는 곳에서 서로 기뻐하는 것은 文友이며, 조정에서 서로 이끌어 주는 것은 宦友이며, 성리지학을 같이 강학하는 것은 道友이다. … 문우와 환우는 반드시 가까이 접촉하며 유대를 가짐으로

79) 성혼, 송익필, 정철 등은 향년 49세로 졸한 이이의 祭文에서 공통적으로 이이와의 인연이 30년이 되었음을 말한다. 그런데, 성혼에게는 입산 전인 명종 9년에 보낸 편지가 있으며, 정철의 경우 금강산에서 나온 이후인 명종 11년부터 알게 되었다. 따라서 이들이 말하는 30년이란 정확한 시간이라기보다 대략적인 기간을 의미함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율곡전서』 권37, 「祭文」' 참조.

친함을 삼고, 반드시 서로 덮어주고 추허함로써 덕을 삼고, 반드시 동맹을 맺어 천지를 두고 맹세를 함으로써 신의를 삼으니, 이 세 가지가 없다면 마음에 부족하여 범연히 서로 만나며 끝내는 길거리의 사람이 되고 만다. 그러나 도우는 그렇지 않아 그 친함이 면목의 접촉에도 있지 않고, 그 덕이 추어주고 칭찬하는 데 있지 않고, 그 신의가 약속의 중대함에도 있지 않다. 바로 同志로써 친함을 삼고 責善으로써 덕의를 삼고, 守道로써 신의를 삼는다.[80]

朋友의 도가 사라지고 끊어진 지 오래다. 요즘 세상의 이른 바 朋友는 내가 말하는 붕우가 아니다. 어려서는 같이 무리 지어 놀고, 자라서는 소원해 지지 않는 것이 벗인가. 아니다. 어려서는 마을을 같이 하고 자라서는 학문을 같이 하여, 하루라도 보지 못하면 마치 三秋 동안 떨어져 있는 것과 같다면 이것을 벗이라 할 수 있는가. 아니다. 그 부모를 배알하고 가족과 통하여 情이 끈끈하고, 가슴 속 얘기를 말하는 것이 어찌 벗이 아니겠는가? 아니다. 벗이란 오로지 그 志를 벗하고, 그 도를 벗한다.[81]

내가 그대를 대하는 것과 그대가 나를 대하는 것은 모두 세속의 사귐이 아니다. 어찌 옛 사람의 사귐이라고 스스로 정하겠는가만, 그렇다고 도리어 세속의 경박함으로써 서로 취하고는 기뻐하겠는가.[82]

이이는 자신들과 같은 도우의 사귐은 자주 보고, 서로 이끌어주어야 유지되고, 그렇지 않으면 금세 멀어지는 세속의 관계와는 다르다고 말한다. 서로의 친밀함과 인정이 중요한 관계와도 다르다고 말한다. 자신들은 자주 보지 않아도, 서로 이끌어주고 칭찬하지 않아도, 서로 가슴 속 이야기를 하지 않

80) 『율곡전서』 습유 권3, 「送尹子固根壽朝天序」, "士之所謂友者有三 相歡于翰墨之場者 是文友也 相引于章緩之間者 是宦友也 相講于性理之學者 是道友也 友名雖一 所以爲友者不同 彼文友宦友者 必連牀接被 握手銜杯以爲親 必匿瑕藏垢 褒才彰能以爲德 必修契結約 指天畫地以爲信 無是三者 則有歉於心 泛泛相遇 終爲路人可已 若道友則不然 其親不在面目之接 其德不在推譽之勤 信不在然諾之重 以同志爲親 以責善爲德 以守道爲信"

81) 『율곡전서』 습유 권3, 「贈李景魯希參序」(37면 나), "朋友之道 缺絶久矣 今世之所謂朋友者 非吾之所謂朋友也 幼作同隊之魚 長無頭角之疏者 斯爲友耶 曰 非也 少而同里 長而同學 一日不見 如隔三秋 如是而可謂友耶 曰 非也 拜其親而通其家 情如膠漆 言吐肝膈者 豈非友耶 曰 非也 友者 友其志也 友也道"

82) 『율곡전서』 습유 권3, 「與李景魯」(14면 가), "僕之待足下 足下之待僕 俱非世俗之交也 安有以古人之交自期 而反以世俗之浮藻 相取悅哉"

아도, 뜻을 같이하고 도를 함께 하는 사이기 때문에 오래토록 공고하게 유지되는 관계라는 것이다. 이처럼 이이는 자신과 친우들은 문장이나 사환을 인연으로 맺어지거나, 혈연과 지연에 기초한 관계가 아닌, 도에 기초한 관계로서 일반적 관계와는 다른 새로운 관계임을 표방하고 있었다.

이이는 명종 8년부터 성리학을 공부하기 시작하고, 또 '도우'들과 교류를 시작했음에도, 다음 해인 명종 9년 어머니의 大祥을 마치고는 금강산으로 들어간다. 그가 금강산에 들어가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분분하지만, 훗날 본인의 입으로 회상하였듯이, 이때 그가 불교에 깊이 심취했던 것은 확실해 보인다. 그러나 그는 일년 후 금강산을 나왔고, 聖人이 되는 것이 자신이 추구할 목표임을 선언하는 내용의 「自警文」을 지어, 다시 성리학의 길을 걷을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83] 종종 이때를 기점으로 이이가 처음 성리학에 대한 학문적 결심을 할 것으로 이해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상의 두 편지에서 서술한 본인의 진술로 보건대, 이이의 학문 이력은 '과거 공부 → 불교 → 성리학'이 아니라, '과거 공부 → 성리학 → 불교 → 성리학'이었다.

그런데, 이이가 18세를 전후하여 과거 공부에서 성리학으로 전환했다고 하여, 과거 응시를 포기한 것은 아니었다. 이후에도 그는 끊임없이 과거에 응시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었다. 21세, 23세에 각각 한성시와 별시에 응시하여 장원을 차지하였다. 그가 훗날 쓴 「격몽요결」에서 과거 공부와 성리학 공부를 병행할 수 있다고 하였듯이,[84] 본인이 몸소 양자를 병행 하였던 것이다. 다만, 이이는 과거를 통한 출사를 매우 부정적으로 보던 당대의 비판적 지식인들의 일반적 인식을 의식하며, 끊임없이 자신의 과거 응시에 대한 이유를 내놓고 있었다.[85] 특히 자신과 달리 출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명성이 높았던 성혼에게, 이이는 자신의 출사 이유에 대해 많이 변명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86] 그 요는 자신의 출사는 어디까지나 경제적 이유

---

83) 『율곡전서』 권14, 「自警文」

84) 『율곡전서』 권27, 「擊蒙要訣」, "先賢曰 不患妨功 惟患奪志 若能爲其事而不喪其守則科業理學 可以幷行不悖矣 今人名爲做擧業 而實不著功 名爲做理學而實不下手 … 卒至於科業理學 兩無所成 老大之後 雖悔何追 嗚呼 可不戒哉"

85) 16세기 사류들의 출처관에 대해서는 '신병주, 2000 『남명학파와 화담학파 연구』, 일지사, 22~38쪽; 김훈식, 2003 「16세기 군신윤리의 변화와 출처론」 『역사와 현실』 50' 참조.

때문이며, 그렇기에 일반적 출사와는 다르다는 것이었다.[87]

86) 『율곡전서』 권29, 「경연일기」 선조 6년 12월(27면 나), "以成運爲司憲府持平 渾早受家庭之訓 守道不仕 人望甚重 至是始拜憲官"
87) 『율곡전서』 권9, 「답성호원」(33면 가~나)

2.「동호문답」의 君臣論과 도덕정치의 理想

잘 알려진 대로「동호문답」은 선조 2년 이이가 사가독서의 과제로 제출한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단지 의무에 의해 작성된, 범상한 저술의 하나가 아니었다. 이이는 권신 체제의 종식 후 새 질서를 모색하는 전환기적 상황을 맞아, 특히 '명종의 服喪을 마치고 선조의 新政이 시작되는' 시점에,[88] 자신이 구상하는 개혁의 청사진을「동호문답」에 담았다. 그리고 이후 누차 제출되는 그의 개혁론은 여기서 제시한 구상을 보다 상세하고 풍부하게 발전시키기는 과정이었다. 따라서 이이의 개혁론에 대한 탐구는「동호문답」에 대한 이해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다.[89]

「동호문답」의 독해를 위해서는 같은 달에 제출한「玉堂陳時弊疏」가 좋은 참고 자료가 된다. 이이 개인의 이름으로 제출된 저술인「동호문답」과 달리「옥당진시폐소」는 홍문관의 명의로 올린 글이기에 양자는 구성과 내용에 다소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이이가 주도적으로 작성한「옥당진시폐소」에는「동호문답」에서 언급한 상황 인식이나 정책들과 연결되는 지점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둘을 함께 검토함으로써「동호문답」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

1) 구성과 제출 배경

「동호문답」은 모두 11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병렬적으로

88)『율곡전서』권3,「玉堂陳時弊疏」

89) 현재까지「동호문답」을 단독으로 다룬 연구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최승순, 1997「栗谷의 東湖問答考」『율곡사상연구』1; 안외순, 2007「『東湖問答』에 나타난 율곡 이이의 초기 정치사상: 도덕주의와 현실주의의 통일」『유교사상문화연구』28'. 그리고「동호문답」을 번역한 단행본에도 해제 글이 수록되어 있어 참고할 수 있다. 특히 정재훈은 전체 해제인 '조선적인 왕도정치를 위한 지침서'와 함께 각 항목별로도 상세한 해제를 첨부하고 있다. '안외순 옮김, 2005「해제-선조에게 올리는 청년 이이의 수기치인의 정치개혁 보고서」『동호문답』, 책세상; 정재훈 옮김, 2014『동호문답－조선의 군주론, 왕도정치를 말하다』, 아카넷.'

나열되어 있다. 표면적으로 저자는 여기에 아무런 분류와 층위를 부여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이는 분명한 문제의식 하에 항목별 주제를 정하고 순서를 배치했음을 알 수 있다.

11개의 항목들은 내용상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중국 역대 왕조의 군주와 신하들에 대한 평가이며, 둘째는 箕子 이래 당시까지 '東方'의 상황에 대한 인식과 평가이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이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제안이다. 편의상 각 항목에 번호를 부여하고, 세 부분으로 나누어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part1.
1. 論君道, 2. 論臣道, 3. 論君臣相得之難

part2.
4. 論東方道學不行, 5. 論我朝古道不復, 6. 論當今之時勢

part3.
7. 論務實爲修己之要, 8. 論辨奸爲用賢之要, 9. 論安民之術, 10. 論敎人之術, 11. 論正名爲治道之本

이들 항목이 다루고 있는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1~3은 일반론이자 중국의 역대 왕조에 대한 평가이다. 여기서 이이는 覇道가 아닌 王道로써 질서[治]를 이루는 것이 정치의 목표가 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그리고 이는 군주와 신하가 모두 이상적인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제까지 왕이 道學에 밝지 못하거나, 도학에 밝은 자들 즉 '眞儒'는 기껏해야 하급관리에 그치는 등 세상에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정치는 오로지 三代에만 행해졌음을 강조한다.

다음은 4~6으로서, 이제 시선은 東方으로 옮아온다. 이이는 일찍이 箕子가 왕도로 다스렸을 것으로 추측되지만 문헌이 없어 고증할 수 없으며, 따라서 이 땅에서는 한 번도 왕도정치가 행해진 적이 없었다고 결론 내린다. 그 후 앞서 1~3에서와 같이 군주와 신하의 인물됨을 중심으로 조선 개국 이래의 상황을 평가한다.

마지막 7~11은 앞으로 해야 할 일인데, 그것은 실행(실천)에 힘씀[務實], 현인의 등용[用賢], 민생의 안정[安民], 백성의 교화[敎民], 명분을 바르게 함[正名]의 순으로 정리된다. 먼저 왕도정치를 하겠다는 뜻을 세운 후에는 각 단계별로 일을 진행함에 항상 형식보다는 실효를 얻도록 힘써야 한다. 그래서 격물치지, 성의, 정심, 수신, 효친, 치가까지의 수기의 단계에서는 물론, 用賢, 安民, 敎化와 같은 치인의 단계에서도 실행에 힘써야 한다. 이렇게 하여 인재를 얻어 정치를 행할 요건을 갖춘 후에는 무엇보다 먼저 폐법을 개혁하여 민생을 구제하는 길로 나아가야 한다. 이들 문제를 해결한 뒤에는 백성들의 교화에 착수해야 하는데 그 핵심은 學校 정책의 변화에서 시작한다.

그런데 제일 마지막 항목인 11은 넓게는 part3의 일부로서 마찬가지로 앞으로 할 일에 속하지만, 그 의미나 내용은 앞의 7~10과는 위상을 달리하여 7~10을 하기 위한 가장 기초이자 선행조건이며, 지금 당장 착수해야 할 일이다. 그것은 바로 을사사화를 일으키고 衛社功臣에 책봉된 '五姦', 즉 정순붕·윤원형·이기·임백령·허자의 官爵을 삭탈하고 공훈을 없애고, 억울하게 처벌 받은 사람들을 사면하는 일이었다.

이상을 정리하면, 「동호문답」에는 이이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정치, 과거와 현재의 상황에 대한 인식, 그리고 앞으로 해야 할 과제 등이 모두 담겨 있다. 이러한 「동호문답」은 여러 측면에서 복합적인 성격을 지닌 글이다. 먼저, 경세 질서에 대한 보편적 원리를 제시하는 이론서이자, 구체적 시행안이 담긴 실천 지침서였다. 가령 여러 상소문들과 비교하면 이론적 접근의 성격이 강하지만, 「성학집요」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정책 제시의 비중이 높다. 다음으로, 「동호문답」은 중국과 東方의 역대 왕조들을 평가하는 역사평론이자, 당대의 조선 상황을 비판적으로 묘사한 시사평론이며, 향후의 비전과 전망을 제시하는 미래전략 계획서이기도 하다. 즉, 시간적으로 과거와 현재, 미래를, 공간적으로는 중국과 동방을 모두 포괄하고 있다. 그렇기에 「동호문답」이라는 저술의 성격을 어느 하나로 규정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분명한 사실은 「동호문답」이 군주를 독자로, 군주의 역할을 제시한 일종의 군주론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이이 본인도 「동호문

답」에 대해 “군주의 학문과 다스림의 도에 대해 말했다”고 표현함으로써, 이 글이 철저하게 군주를 중심에 두었음을 분명히 하였다.[90] 이러한 「동호문답」의 성격은 훗날 「성학집요」에서 이이가 이를 군주와 사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음을 강조한 것과도 비교된다.[91] 다만, 전환기라는 시대적 상황에서 이이는 「동호문답」을 통해 군주의 역할에 대한 이론적 제시만이 아니라, 정책적 제안까지 해야 한다는 조급함과 절실함이 있었다. 그렇기에 이이는 「동호문답」에서 단지 이론적 논의로 그치지 않고, ‘안민’, ‘교인’ 등의 항목에서 구체적인 정책들을 제시할 수밖에 없었다.

「동호문답」이 제출된 시점은 정국 상황의 측면에서나 이이의 개인적 차원에서나, 하나의 분기점을 이루는 때였다. 다시 말하면, 「동호문답」은 특정 시점에, 특정한 상황을 의식하며 저술한, 時宜性이 강한 글이었다. 선조 2년 9월은 다음의 두 가지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시점이었다. 그렇기에 「동호문답」의 구조와 내용을 본격적으로 분석하기에 앞서, 먼저 그것이 제출된 시점의 상황에 대한 이해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선조 2년 9월은 다음의 두 가지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시점이었다.

첫째, 정국 상황의 측면에서 보면 先王인 명종의 大祥과 祔廟를 모두 마치고 난 직후로서, 선조가 주도하는 정치, 새 정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점이었다.[92] 그간 先王의 喪中이라는 상황에서 국왕과 신료 모두 다소 신중할 수밖에 없었다면, 이제부터는 여러 세력들이 자신의 정치적 입장과 목표를 제대로 드러낼 참이었다. 이는 이이도 마찬가지여서, 그 역시 명종의 상이 끝나는 것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자신만의 개혁 구상을 제출하고 衛社功臣 삭훈 운동 등 그것의 실천에 나서게 된다. 특히 선조 2년 2월부터 문소전 문제를 둘러싸고 조정에서는 신·구 관료들 간의 갈등이 드러나기 시작한 상황이었다.[93] 이처럼 「동호문답」은 선조의 본격적인 새 정치[新政]를 앞두고, 또 이미 新舊 관료들 간의 갈등이 표면화된 상황에서, 이이가 그의 개혁 구상을 담아 선조에게 제시한 것이었다.

---

90) 『율곡전서』 권28, 「경연일기」 선조 2년 9월(40면 나), “時李珥因書堂月製 乃設作問答之辭 以陳人君爲學爲治之道 名曰東湖問答”
91) 『율곡전서』 권19, 「성학집요」 序, “此書雖主於人君之學 而實通乎上下”
92) 『선조수정실록』 권3, 선조 2년 7월 1일(임신), “祔明宗于太廟”
93) 이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다룬다.

둘째, 이이 개인으로 보면, 당시 그는 홍문관에서 근무하며 사가독서를 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이 시기 그가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이론화할 시간과 기회를 얻었음을 의미한다. 명종 19년, 조정에 진출한 이래 이이는 낭관직과 언관직을 두루 거치면서, 당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던 개혁운동에 참여하였다. 그리고 외조모의 병간호를 위해 잠시 조정에서 물러나 있다가 선조 2년 7월 조정에 복귀하면서부터 홍문관에서 일하게 되었다. 홍문관원이 되었다는 것은 일반 관원보다는 학술적인 활동에 보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일 수 있게 되었음을 뜻하였으며 특히 경연에 참여하여 국왕에게 직접 의견을 개진할 수 있었다. 게다가 이해 겨울 그는 사가독서에 선발됨으로써, 더욱 자신의 생각을 정리할 시간과 여유를 가졌을 것이다. 그렇기에 「동호문답」에는 그가 조정에 진출한 이래 활동하면서 가졌던 시국인식을 담을 수 있었다.[94]

이상의 상황들을 종합하면, 이이는 본격적으로 선조의 新政이 시작하려는 시점에, 홍문관에서 있으면서 사가독서를 가지게 된 것을 계기로, 경세에 대한 자신의 이론을 정리하여 「동호문답」을 작성하였던 것이다. 이이는 「동호문답」의 제출을 기점으로, 이후 이론적인 측면과 실천적인 측면 모두에서 경세가로서 자신만의 색깔을 본격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이론적으로는 향후 그가 제출하는 개혁론을 기초하였다는 점에서, 실천적으로는 「동호문답」의 제일 마지막을 장식한 위사공신 삭훈 문제를 이후 주도적으로 제기하면서 개혁적 신진관료세력의 주요 인물로 부상하였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2) 君臣 관계와 도덕정치의 理想

「동호문답」은 다음과 같은 손님의 질문으로 시작한다.

> 손님이 주인에게 물었다. 예나 지금이나 다스려짐과 어지러움이 없을 수 없지만 어떻게 하면 다스려지고 어떻게 하면 어지러운가? [95]

94) 『선조수정실록』 권3, 선조 2년 7월 1일(임신)
95) 『율곡전서』 권15, 「동호문답」 (2면 가), "無古今無治亂 若何而治 若何而亂"

이이는 왜 글의 시작을 다스림과 어지러움의 방법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하였을까? 「동호문답」의 첫 항목은 군주의 도[君道]이다. 이이는 추상적이며 다소 무거운 질문을 던짐으로써 군주인 선조에게, 그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며 治亂에 결정적 요소가 되는지를 강조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에 실상 '군도' 항목 목적은 단지 군주에 대한 논의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바람직한 경세 질서를 제시하는 것이기도 하다.

손님의 질문에 대해 주인은 다스려지는 경우와 어지러운 경우로 나누고, 그 속에서 다시 각각 두 가지 경우를 든다. 다스려는 경우는 군주 본인의 재주와 지혜가 출중하여 뛰어난 자들을 부릴 수 있거나, 본인의 재주는 비록 부족하더라도 현명한 자에게 맡길 때이다. 반대로 군주가 자신의 총명만을 믿고 아랫사람들을 믿지 않거나, 간사하고 아첨하는 자들만을 편벽되게 믿어 이목이 가려지는 경우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이는 다스려짐과 어지러움이 군주의 자기수양에 달려있다고 답하지 않으며, 어떤 경우든 군주의 바람직한 덕목은 아랫사람을 잘 부리거나 맡기는 것과 같은 행동임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동호문답」의 시작은 『대학연의』처럼 군주의 마음, 군주의 수신을 다스림의 근본이자 출발로 강조하는 종류의 글들의 그것과 결정적으로 구분된다.

다스림의 방법에 대한 손님의 질문은 주인의 답변에 의해 다스림의 내용에 대한 보다 섬세한 접근로 이어진다. 주인이 질문에 답하며, 다스려지는 상태 자체[所治]도 중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다스려지게 하는 방법도 중요함을 강조하기 때문이다.

> 다스려지는 바에도 두 가지가 있지만, 다스려지게 하는 방법에도 두 가지가 있다. 몸소 仁義의 道를 행하여 不忍人之政을 시행하여, 天理의 바름을 지극히 하는 것이 王道이고, 仁義의 이름을 빌려 권모술수의 정치를 행하면서 功利의 사사로움을 다하는 것이 覇道이다.[96]

96) 『율곡전서』 권15, 「동호문답」(2면 가), "所治二 而其所以治之之道有二 躬行仁義之道 以施不忍人之政 極夫天理之正者 王道也 假借仁義之名 以施權謀之政 濟夫功利之私者 霸道也"

여기서 결과적으로는 똑같이 다스림의 상태에 도달했지만, 그 내용은 '왕도'와 '패도'가 극명하게 대비된다. 전자가 궁극적으로 도덕 질서를 구현하는 정치라면, 후자는 도덕 정치를 표방하지만 실상은 도덕이 아니라 이익을 추구하는 정치이다. 이이는 이러한 대조를 통해 다스려짐과 같은 결과와 상태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에 이르기까지의 방법과 내용 역시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그리고 치란의 상태뿐만 아니라, 치란의 방법 및 내용까지 모두 고려하여 역대 중국의 군주들을 평가하는데, 이를 표로 분류하면 아래와 같다.

[표 1] 治亂의 유형과 역대 중국 군주들에 대한 평가

治亂	분류	군주의 자질과 태도	실례: 군주(신하)
治	王道	才智出類 駕馭豪傑	五帝・三王
		才雖不足 能任賢者	商太甲(伊尹)・周成王(周公)
	覇道	才智出類 駕馭豪傑	晉文公・晉悼公・漢高祖・漢文帝・唐太宗・宋太祖
		才雖不足 能任賢者	齊桓公(管仲)・漢昭烈(諸葛亮)
亂	暴君	自恃聰明者	夏桀・商紂・周厲・隋煬
		偏信姦諛者	秦二世(趙高)・漢桓帝(宦寺)
	昏君	自恃聰明者	唐德宗
		偏信姦諛者	宋神宗(王安石)
	庸君	碌碌之庸君	周赧王・漢元帝・唐僖宗・宋寧宗

그의 평가에 의하면, 오직 삼대까지 바람직한 군주와 바람직한 다스림이 있었고, 삼대 이후 다스림을 이룩하였다고 평가를 받는 대표적 군주들, 즉 晉文公·晉悼公·漢高祖·漢文帝·唐太宗·宋太祖 등도 모두 패도를 달성한 군주로, 즉 지양해야 할 사례가 된다.

군주가 현인에게 맡김으로써 왕도정치가 가능하다면, 이제 문제는 신하의 영역으로 넘어간다. 그런데 이 글이 철저하게 선조를 독자로 상정하고 있음을 염두에 둔다면, 여기서 말하는 '신도'는 관료 또 士에게 그들의 길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이라기보다, 군주에게 신하를 대하는 자세나 태도를 제시하기 위한 목적이 컸다. 손님과 주인이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士의 출사에 대

한 인식, 즉 '사라면 누구나 출사하여 經世를 할 뜻을 지니고 있다'는 명제 역시 사실상 사의 출사는 군주의 의지와 태도에 달려있다는 주장을 위한 전제 만들기의 성격이 짙다.[97] 그렇기에 '군도'에 이어지는 '신도' 항목은 '군도'와 병렬적 의미를 지닌 항목으로서 위상을 지닌 것이 아니라, 사실상 '군도'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때 군주와 함께 왕도정치를 이룰 수 있는 신하의 像으로, '본인이 도덕을 지니고 이를 미루어 남에게 미칠 수 있는' '大臣'이 제시된다.[98] 자기자리를 지키기에 급급한 '幹臣'은 물론, 열심히 나라를 걱정하고 시종 사직의 안정을 염려하는 '忠臣'도 부족하다. 그들에게는 도덕적 자질이 부족하다는 점이 결정적으로 결격 사유가 된다. 만약 조정에 있는 신하들 중에 '대신'이 없다면 재야에서 찾아야 한다. 재야에도 '대신'과 같은 도덕적 자질을 갖춘 자들인 '천민'이 있지만, 그들은 절대로 본인 스스로는 조정에 나오지 않는다. 그 대신 그들은 시대를 구제할 뜻을 품고 있기에, 언제든 자신을 부르면 조정에 나오는 자들이다. 따라서 군주의 적극적인 招致가 관건이 되며, '천민'이 '대신'이 될 때 비로소 왕도정치가 행해질 수 있다. 삼대 이전의 伊尹, 傅說, 太公이 바로 그런 경우에 해당하는데, 문제는 삼대 이후로, '천민'이 대신이 된 경우가 없다는 것이다. 이이는 二程과 주희 등은 도덕적 자질을 갖춘 '천민'들이었지만 끝내 군주의 부름을 받지 못하였기에 왕도정치를 구현할 수 없었다고 평한다.

[표 2] 진퇴의 유형과 역대 중국 인물들에 대한 평가

상태	品	실제 사례
進	大臣	皐陶, 夔, 稷, 契, 仲虺, 周公, 召公
	忠臣	甯武子, 諸葛亮, 狄仁傑, 司馬光
	幹臣	趙過, 劉晏, 趙充國

97) 『율곡전서』 권15, 「동호문답」(4면 가~나), "客曰 士生斯世 莫不以經濟爲心 宜乎心迹皆同 而或進而兼善 或退而自守 何耶 主人曰 士之兼善 固其志也 退而自守 夫豈本心歟"

98) 『율곡전서』 권15, 「동호문답」(4면 가), "道德在躬 推己及人 欲使吾君爲堯舜之君 吾民爲堯舜之民 事君行己 一以正道者 大臣也"

退	天民	伊尹, 傅說, 太公 / 周濂溪, 程明道, 程伊川, 邵康節, 張橫渠, 朱熹
	學者	漆雕開
	隱者	晨門, 接輿, 沮溺

이상을 정리하면, 이이는 「동호문답」의 처음 세 항목, 즉 '군도'·'신도'·'군신상득' 등을 통해, 자신이 추구하는 경세 질서는 무엇이며, 그것의 달성을 위한 핵심조건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한다. 그는 중국 역사의 인물과 사례들을 통해 원리들을 이끌어내는데, 이를 통해 이이가 강조하고자 했던 핵심은 크게 두 가지였다.

첫째, 군주의 자질과 태도의 중요성으로, 그것에 따라 治와 亂이 결정적으로 좌우되었다. 그런데 현실에서 군주가 五帝·三王와 같은 완벽한 聖人이 되기는 불가능하며, 마찬가지로 皐陶나 周公과 같이 도덕적 완성을 이룬 '大臣'이 이미 조정에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 따라서 실상 현실에서 공동체의 질서와 안정을 달성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군도' 항목에서 제시된 덕목과 '신도' 항목에서 제시한 항목의 결합을 통해서였다. 즉, 군주의 '재주가 비록 부족하더라도, 賢人에게 맡기는 것'과 도덕적 자질을 갖춘 '天民'을 잘 발굴하여 등용하는 일이 함께 이루어져야 했다. 둘째는, 질서의 내용에 대한 것으로, '패도'가 아닌 '왕도'를 통해 질서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동호문답」에서 이이는 '왕도'의 문제는 더 이상 자세히 다루지는 않으며, 이는 훗날 「성학집요」에서 본격적으로 설명된다.[99] 따라서 「동호문답」에서 이이가 무엇보다 강조하고 한 점은 바로 '군신상득'이었다고 할 수 있다. 즉, 선조의 새 정치를 맞이하여 정치적 질서와 안정을 위한 우선적이며 필수적인 조건·방법을 제시하는 것이었으며, 그것은 곧 도덕적 자질을 갖춘 이를 대신급의 책임 있는 자리에 등용하는 일이었다.

물론 군주와 신하의 제대로 된 만남이 중요하다는 생각, 그리고 현실에서 그것은 실현되기는 매우 어려운 과제라는 언설은 이이만의 특유한 것이 아니라, 그 연원이 오래되었고, 상당히 보편적으로 언급되던 것이었다.[100] 그

99) 이에 대해서는 제3장 2절 '「성학집요」 '聖賢道統'편과 三代之治論' 참조.

런데 '군주와 신하가 만나기 어렵다'는 언설은 상황에 따라, 각 정치주체에 따라 다른 의도로 발화될 수 있었다. 즉, 군주의 입장에서는 적임자가 없다는 불만을 표출하기 위한 근거로 사용할 수 있었고, 士의 입장에서는 군주의 의지와 실천 부족을 비판할 때 이용할 수도 있었다. 다시 말해, "신하가 밝은 임금을 만나기도 진실로 어렵지만 임금이 좋은 신하를 만나기도 또한 어렵다"고 얘기할 수 있었다.[101]

그러나 조선에서 사실상 이러한 언설은 신료의 입장에서 군주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신료에 대한 역할 위임을 요구할 때 언급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사실은 조선에서 이이 이전에 이 문제에 대한 가장 정돈된 형태의 논술을 제출한 정도전의 경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는 『조선경국전』 治典의 '宰相年表' 항목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 재상이 된 사람은 훌륭한 임금을 만나야 위로 道를 시행하고, 아래로 백성에게 은혜를 미치며, 살아서 일신이 명예로워지고 죽어서 후세에 이름을 떨치게 된다. 그러나 임금과 신하가 설로 잘 만나기란 예부터 어려운 일이다. 帝者가 다스리던 시대에는 임금과 신하가 모두 聖人이어서 서로 의견 대립이 없이 정사를 논의하여 화락한 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 王者가 다스리던 시대에도 군신이 모두 賢人이어서 서로 정사에 부지런히 힘써서 융성하고 태평한 시대를 이루었다. 覇者가 다스리던 시대에는 임금이 신하만 못하였으나 신하에게 전권을 맡겨서 한 시대의 공업을 이룰 수 있었다. 만약 임금의 자질이 중간 정도인 경우에는 재상만 훌륭하면 정치가 잘 되지만, 재상이 훌륭하지 못하면 정치가 어지러워진다. … 아, 신하가 밝은 임금을 만나기도 진실로 어렵지만 임금이 좋은 신하를 만나기도 또한 어렵다. … 총재는 여러 직책을 겸임하지만, 임금의 직책은 한 사람의 재상을 간택하는 것뿐이며, 그밖에 모든 정사의 집행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한다.[102]

---

100) 그 대표적 근거 가운데 하나는 『書經』 '說命'에 나오는 아래의 문구와 그에 대한 蔡沈의 주석이라 할 수 있다. 이 구절은 「성학집요」의 '위정'편에도 다음과 같이 인용되고 있다. "惟后非賢不乂 惟賢非后不食 其爾克紹乃辟于先王 永綏民 說拜稽首曰 敢對揚天子之休命 蔡氏曰 言君臣相遇之難如"[『율곡전서』 권24, 「성학집요」(36면 나~37면 가)]

101) 이는 아래 정도전의 글에서 확인할 수 있다.

102) 『삼봉집』 권7, 「朝鮮經國典上」 治典 宰相年表, "宰相之職 臣於治典論之矣 然爲宰相者得其君 然後道行於上而惠及於下 身榮於前而名顯於後 而君臣之相遇 自古以爲難也 帝者之世 君臣俱聖 故相與都俞於堂陛之上而成雍熙之化 王者之世 君臣俱賢 故相與勤勞於政事之間而致隆平之治 霸者之世 其君不及其臣 然能任之專 故亦能成

여기서 정도전은 '군신이 서로 만나기 어려움'을 재상의 입장에서, 재상이 군주를 만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이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 글은 앞서 본 이이의 「동호문답」과 비교할 때, 표현과 서술 내용에서 다소 차이를 보인다. 먼저, 이이의 그것에 비해 분류가 간단하다. 가령 이이는 군주와 신하가 결합하는 양상을 크게는 2가지, 중분류로는 5가지, 가장 세밀하게는 모두 9가지의 경우의 수를 제시하였다면, 정도전은 군주와 신하의 자질을 기준으로 모두 4단계로 구분하였다. 반면, 각 단계의 상태에 따른 결과에 대해 이이가 다스림[治]과 어지러움[亂] 등 두 가지로만 분류하였다면, 정도전은 교화[化], 다스림[治], 공업[功], 태평[太平], 어지러움[亂] 등으로 세분화 하였다. 더 중요한 차이로는 군주의 역할과 정사 위임에 대한 생각이다. 여기서 정도전은 "임금의 직책은 한 사람의 재상을 간택하는 것뿐이며, 그밖에 모든 정사의 집행에는 관여하지 않는다"고 하여, 군주의 역할이 재상의 선발과 그에게 정사를 위임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103]

이와 달리 「동호문답」에서, 그리고 그 뒤 다른 글과 발언을 통해서도 이이는 군주가 모든 일을 재상에게 위임해야 한다고 말하지는 않는다. 그는 어디까지나 군주가 대신을 잘 등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까지만 말한다. 또 하나, 이이가 그 역할과 의미를 강조한 신료는 정도전이 한 것과 같이 재상 一人에만 초점을 맞추지는 않았다. 그보다 이이는 주로 大臣이라 표현하는, 판서와 같은 각 관서의 책임자를 비롯해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2품 이상의 고위 관료들의 역할과 비중에 주목하는 경우가 많았다.[104] 대신

一時之功 若夫中材之主 相得其人則治 不得其人則亂 如唐之玄宗相宋璟 , 張九齡則致開原之太平 用李林甫楊國忠則速天寶之禍亂 噫臣之遇君誠難 而君之遇臣亦難矣 … 冢宰之兼衆職 而人主之職在擇一相 百執事以下不與也"[『조선경국전』(한영우 역, 2012, 올재, 52~53쪽 인용]

103) 정도전의 재상론에 대해서는 '한영우, 1983 『정도전사상의 연구』, 서울대출판부, 137~147쪽' 참조.

104) 이때의 대신은 앞서 「동호문답」의 '신도'에서 언급된 '道德在躬推己及人'의 '대신'이 아니라, 일반적 의미의 대신을 말한다. 이이가 자주 사용하는 대신이란 말의 용법은 삼정승만이 아니라, 육조의 판서 등 2품 이상의 고위 관료들을 의미하던 당대의 용법과 같은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 용법의 대표적 사례로 다음과 같은 기사를 들 수 있다. "且所謂大臣 豈特政丞也 六卿以上 亦可謂之大臣矣" 『명종실록』 권1, 명종 즉위년 8월 11일(신축). 그리고 이들 대신들이 중요 사안의 결정에 참여하는 사례로는, 명

의 역할과 권한에 대한 이이의 강조는「동호문답」이후 그가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여러 언급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가령, 선조 3년 '國事가 날로 잘못 되는 것은 대신이 그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라거나,[105] 선조 7년에 '주상 재위 7년 동안 輔導하는 사람이 없었다. 만약 현명한 자가 조정에서 성심을 다해 보도하였다면 희망이 있을 것'이라는 발언이 있었다.[106] 또, 선조 8년 '國事는 마땅히 대신에서 나와야 하며. 小臣은 단지 논의만 할 뿐'이라거나,[107] 같은 해 대간의 대신 推考를 반대하며 '추고는 일반 관원에게 하는 것이지 대신에게 하는 바가 아니다'라고 한 발언을 통해서는 대신과 소신의 간의 권위와 역할을 분명히 구분하는 의식을 엿볼 수 있다.[108]

이이가 지방관으로 나가는 柳夢鶴에게 보낸 한 편지는 그가 조정에 진출한 사의 궁극적 역할로 무엇을 상정하고 있는가를 잘 보여준다. 이 편지는 大興 현감으로 가는 유몽학에게 지방관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직무에 충실할 것을 당부하는 목적을 지녔지만, 그런 가운데 '卿相'의 의미와 역할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 士가 이 세상에 태어나 어려서부터 배우는 것은 장차 행할 게 있기 위함인데, 배우는 것은 나에게 있지만,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는 때에 있다. 배움이 부족한데 먼저 행하려 해서는 안 되지만, 배움이 이미 충분한데 행하려 하지 않는 것도 또한 잘못이다. 사가 조정에 벼슬하는 것은 직책이 각각 같지 아니하여 그 행하는 것이 잠깐이거나 국한되어 있으니, 크게 행하려면 卿相의 자리에 있지 않고서는 안 된다. 경상은 모두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 오직 邑宰가 백성을 가까이 하여 스스로 도를 행하고 백성에게 혜택을 베풀 수 있다. 그러므로 사가 경상이 되지 못한다면 반드시 읍재를 해야 한다.[109]

종의 후사와 관련한 다음의 기사를 참조할 수 있다.『명종실록』권31, 명종 20년 9월 19일(임자).

105)『율곡전서』권28,「경연일기」선조 3년 4월(47면 나), "國事日非 弊習已痼 而徒務遵守前例 坐而待亡 大臣非其人 禍可旣乎"

106)『율곡전서』권29,「경연일기」선조 6년 12월(27면 나), "主上在位七年 無人輔導 故馴致不可爲 若賢者在朝 盡誠輔導 則恐有萬一之望也"

107)『율곡전서』권29,「경연일기」선조 8년 6월(66면 나), "國事當出於大臣 小臣只可論議而已"

108)『율곡전서』권29,「경연일기」선조 8년 8월(68면 가), "所謂推考者 有司詰問照律乃督察庶官之法 非所以待大臣也"

109)『율곡전서』권14, 贈柳應瑞(夢鶴)郡說, "士生斯世 自幼而學 將以有行也 學在己

경상의 직위에 올라야 사가 비로소 자신의 학문을 세상에 크게 펼쳐 행할 수 있다는 이이의 진술은 경상에 대한 그의 의미 부여가 어느 정도인지를 잘 보여준다. 비록 그는 정도전과 같이 재상에 의한 위임통치를 명시적으로 말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가 '군주와 신하의 만남'을 역설한 이유는 정치 질서의 확립에 군주와 대신의 역할이 결정적 요소라는 점을 주장하고자 함이었으며, 이처럼 최고위 관료의 역할을 중시하고 강조한다는 점에서 이이와 정도전의 생각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런데 이때 이이에게 관료 조직과 士는 명확히 구별되어야 하는 별개의 영역이 아니었다. '사라면 누구나 출사하여 經世를 할 뜻을 지니고 있다'거나, '사가 세상에 태어나 어려서부터 배우는 것은 장차 행할 게 있기 위함'이라는 발언에서 잘 나타나듯, 이이는 사의 조정 진출을 당연시하는 것을 넘어 바람직한 것으로 상정하고 있었다. 따라서 대신의 존재는 단지 관료 조직의 최고위가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사를 포함한 지식인 전체의 최고위이기도 하였다. 그런데 바람직한 대신의 像으로 '본인이 도덕을 지니고 이를 미루어 남에게 미칠 수 있는' 자를 지향했다는 점에서, 이이의 大臣論은 이상적으로 사의 정치적 권위와 도덕적 권위가 일치하는 상황을 지향하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이이가 「동호문답」 등을 통해 새삼 大臣의 중요성을 강조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 해답은 당대 이이가 처한 상황을 고려함으로써, 즉 일반론의 차원이 아니라 조선의 구체적인 역사적 맥락에서, 그리고 이이의 시대인식을 통해 찾을 수 있다.

3) 권신의 부재와 도덕정치의 가능성

⑴ 권신 체제의 遺弊와 대신 비판

行不行在時 學不足而先求行 不可也 學已足而不求行 亦過也 士之官乎朝者 職各不同 而其行姑局 必求大行 則非居卿相 不能也 卿相非人人所能爲 則惟邑宰親民 可以自行其道 施澤於民 故士不能爲卿相 則必當爲邑宰"

선조 2년 9월, 선조의 본격적인 新政에 즈음하여 이이가 제출하는 저술과 발언들에서 보이는 시대인식과 과제들은 향후 그의 경세론 전반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그는 당시 조선의 상황에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진단하고, 그 진단의 결과를 토대로 해결 방안을 모색하였다. 그리고 이후 이이는 정치적 상황이나 자신의 처지에 따라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지만, 그때마다 파악하는 시대 인식과 과제는 일관되게 유지된다. 이를 잘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가 이 시기 그가 조선의 문제적 상황을 실감나게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특유의 비유들이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사용된다는 사실이다.[110]

이이가 파악한 당대 조선의 상황은 어떠했을까? 「동호문답」의 '我朝古道不復' 항목의 마지막에서 이이는 당시의 조선 상황을 아래와 같이 비유하였다. 그리 길지 않은 이 글은 당대 조선이 마주한 문제들과 그에 대한 대응들이 함축적으로 담고 있다.

> 지금 국가의 형세는 비유하자면 기절한 사람이 겨우 깨어나 맥이 아직 안정되지 않고 원기를 회복하지 못한 것과 같다. 서둘러 약을 먹어야 겨우 살아날 수 있으나, 혹자는 약을 쓸 필요가 없으니 저절로 낫기를 기다리자고 하고, 혹자는 좋은 약을 투약해야 한다고 하지만 어떤 약을 써야하는지 알지 못하고 손을 모으고 주위만 두리번거리고 하나의 계책도 시행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장차 큰 병을 앓은 끝에 감기에 쉬이 걸려, 치료할 수 없는 위험의 증후가 있고 반드시 죽을 거라고 한 후에야 위와 같은 행동을 그칠 것이다.[111]

이이는 당대의 조선을 기절했다가 막 깨어난 사람에 비유한다. 이를 사실적 용어로 풀어내면, 조선은 위기 상황에서는 겨우 벗어났지만, 만약 개혁을 통해 문제를 해소하지 않으면 언제든 다시 심각한 위험에 빠질 수 있었다.

---

110) '무너지기 직전인 만 칸의 큰집'과 '투약이 시급한 사람'은 이이가 즐겨 사용하는 표현으로 여러 자료에서 반복적으로 나온다. 전자는 선조 2년 7월 경연에서 김계휘에게 구두로 말할 때, 같은 해 9월의 「옥당진시폐소」, 선조 7년의 「만언봉사」와 선조 9년 「성학집요」 식시무장, 선조 11년의 「응지논사소」에 등장한다. 후자는 선조 2년 9월의 「동호문답」과 함께 「성학집요」 식시무장에서도 볼 수 있다.

111) 『율곡전서』 권15 「동호문답」 我朝古道不復 "當今國家之勢 譬如氣絶之人 僅得蘇醒 百脈未定 元氣未復 汲汲投藥 庶見生道 而或以爲不用藥餌 坐待自瘳 或以爲當投良藥 而不知某藥之可用 拱手環視 不施一計 則大病之餘 風邪易中 將必有不可救之危證 以至於必死而後已也"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적 상황에 대한 조선 정계의 반응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개혁의 필요성과 시급함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는 입장이었고, 다른 하나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은 하지만 막상 실천 필요한 행동은 취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즉, 상황의 심각성에 대한 문제의식 자체가 없는 경우 그리고 문제의식은 있으나 실천 방법을 모르는 경우로 나뉘었다.

그렇다면, 조선이 기절했던 이유, 그리고 여전히 위기인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인용문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남곤, 김안로, 이기, 윤원형이 나라를 망친 폐해"라고 하여, 구체적인 인물들과 함께 거론되고 있다. 다음 항목 '당금지세'에서 볼 수 있듯이, 흔히 남곤 등에게는 권력을 남용하는 신하라는 의미를 지닌 '權臣'이라는 호칭을 붙였다. 그렇다면 이들이 남긴 폐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가? 이는 크게 영역 상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었다.

첫째, 관료 조직의 부패와 기강 해이 문제가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옥당진시폐소」에서 상세하게 거론되고 있다. 여기서 이이는 관료 조직의 기강을 세우는 핵심 원칙으로, 현명하고 능력 있는 자가 관직에 있을 것 그리고 賞罰과 같이 일에 대한 평가가 정확할 것 등 두 가지를 든다.[112] 그런데 이이의 진단에 따르면, 권신의 집권기에 그러한 두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그 여파가 선조 즉위 초까지 이어지고 있었다. 즉, 청탁에 의해 관직이 결정되었고, 관작이 남발되었으며, 상벌은 분명하지 않았다. 그 결과 현명하고 능력 있는 인재가 관직에 있지 않았고, 오히려 이록을 추구하는 자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둘째, 위의 인용문에서는 "백성을 괴롭히는 가혹한 법들"이라 표현된, 稅制 문제가 있었다. 이 문제 역시 「옥당진시폐소」에서도 거론되지만, 구체적인 정도에 있어서는 그것보다 「동호문답」의 '안민지술'에 보다 자세하게 언급되어 있다. 여기서 이이는 도망간 자의 부담액을 이웃에게 전가하는 '일족절린', 중앙에 올리는 물품이 많고 빈도가 잦다는 '진상번중'의 폐단, 공물을 중간에서 대납하고 그 가격을 비싸게 거두는 '공물방납'의 폐단, 役事가 공평하게 분배되지 않는 '역사불균'의 폐단, 아전들이 뇌물에 따라 일처리를 하

112) 「성학집요」 '위정'편의 '기강'장은 '紀綱之當立'·'無私心是紀綱之本'·'公賞罰是立紀綱之法' 등 모두 세 개의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는 '이서주구'의 폐단 등 모두 네 가지를 든다.

그런데 위와 같은 이이의 시대인식은, 즉 권신의 집권으로 인해 관료 조직의 부패와 민생의 곤란이 초래되었다는 생각은 그만의 특유한 것이라기보다 선조 즉위 초 개혁적 신진관료들이 가졌던 일반적인 시대 인식이었다. 대표적으로 당시 개혁적 신진관료 세력의 중심인물이었던 기대승은 선조 즉위년의 경연 자리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가) 지난 번 이기와 윤원형이 나라를 담당하니 착한 자가 죄를 받고 뜻을 얻는 자는 모두 그들이 부리는 자들이었다. 그러므로 탐오함이 풍습을 이루어 지금은 모든 풍속이 그러하다. 지금의 소위 근검하다는 자가 우리 옛 조정의 근검하다는 자와 비교하면 탐오함을 벗어나지 못한다. … 비단 수령만이 아니라 조정에도 또한 많으니 탐오한 자를 통절히 끊은 연후에야 풍속을 바꿀 수 있다.[113]

(나) 지난 번 간사한 권신들이 뜻을 얻은 지 20여 년, 거두어들인 폐해를 어찌 다 말할 수 있겠나. 수령을 모두 자기 사람[私人]을 뽑아 보내어 그들의 뇌물을 받았는데 먼 곳의 堤堰과 陳田까지 받아 모두 백성들을 모아 경작하게 하니, 각 관서에서 그 백성들을 부릴 수 없었다. 또 (그 요역을) 남아있는 백성들에게 중첩으로 부과하였기 때문에 곤궁한 백성들은 더욱 곤궁하게 되었다. [114]

위의 인용문들은 관료 조직의 부패가 민생의 곤란이 결코 분리되어 있지 않음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문제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 모든 문제의 시작이자 근원에는 권신의 탐욕이 있었고, 그들의 욕망으로부터 비롯한 국가 조직의 사유화는 관료들의 부패와 이익추구로 이어졌고, 그 결과 민생의 피폐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이이의 시대인식에서 사류 일반의 그것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있다면 관료들, 그 중에서도 특히 그 정점에 있는 대신급 인사들에게 비판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이다. 위의 인용문에 이어, 이이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

113) 『고봉집』「論思錄」 卷上(5면), "頃者李芑尹元衡當國 善人受罪 而得志者皆其鷹犬 故貪汚成風 今則擧俗皆然 今之所謂廉謹者 以祖宗朝廉謹者比之 則皆未免貪汚者也 … 非但守令 朝廷之間 亦多有之 貪汚之人 必爲痛絶 然後可以變化風俗矣"

114) 『고봉집』「論思錄」 卷上(32면), "往時權奸得志二十餘年 聚斂之弊 何可勝言 守令皆以私人差遣 而受其賂遺 至於遠方堤堰陳田 皆萃生民而耕治之 各官不能役其民 又以其後 疊責於見存之民 故困者益困矣"

> 국가의 형세가 위급함이 이와 같은데 녹봉을 받는 신하들[肉食之臣]이 어찌 걱정스럽게 그것을 구제할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있는가? 간사한 자를 내쫓고 현명한 자를 나아가게 하는 것은 단지 옛 폐해를 제거하고 새 은혜를 펴서 민생을 구제하기 위함일 뿐이다. 지금은 그렇지 않아 남곤·김안로·이기·윤원형이 나라를 잘못 되게 한 폐해가 모두 제거되지 않았고, 백성을 괴롭히는 가혹한 법이 개혁되지 않았는데, 안락함을 도모하고 일벌이기 싫어하여 건의하는 것이 없어, 마치 曹參이 蕭何를 대신한 것과 같으니 이것은 나라 전체를 망각의 구역에 두는 것이다.[115]

위의 인용문에서 "안락함을 도모하고 일벌이기 싫어하여 건의하는 것이 없어, 마치 曹參이 蕭何를 대신한 것과 같다"는 구절은 당대의 정국 상황에 대한 이이 문제의식의 핵심을 잘 보여준다. 여기서 이이는 漢나라 高祖 때의 丞相으로서, 소하에 뒤이어 승상이 된 조참이 소하의 정책을 그대로 이어간 역사적 경우를 부정적 사례로 인용한다. 일반적으로 조선에서 이 고사는 전대의 정책을 잘 계승하여 정치의 안정을 이룩한 대표적 사례로 긍정적으로 인용되었다. 특히 왕안석의 變法 정책이 북송의 멸망을 가져왔다는 사실과 대조하면서, 더욱 그 효과를 높이기도 하였다.[116]

그런데 여기서 이이는 이 일화에 대해 일반적인 평가와는 정반대의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곧 이이가 당대의 과제는 전대 정책의 계승이 아니라 변화와 개혁에 있었음을, 그리고 그 과제의 수행을 위한 적극적 역할을 대신에게 기대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당대 대신들에 대한 이이의 비판과 불만은, 그만큼 그가 대신들의 존재와 역할을 중시하였기 때문이기도 하였다.

---

115) 『율곡전서』 권15, 「동호문답」 我朝古道不復 "當今國家之勢 譬如氣絶之人 僅得蘇醒 百脈未定 元氣未復 汲汲投藥 庶見生道 而或以爲不用藥餌 坐待自瘳 或以爲當投良藥 而不知某藥之可用 拱手環視 不施一計 則大病之餘 風邪易中 將必有不可救之危證 以至於必死而後已也 國家之勢 其危如此 肉食之臣 其可不惕然思有以救之乎 所貴乎去姦而進賢者 只爲除其舊弊 布其新惠 以救民生耳 今也不然 南袞金安老李芑尹元衡誤國之遺弊 未盡洗滌 虐民之苛法 未見改革 而方且偸安厭事 無所建明 若曹參之代蕭何 則是擧一國 而付之相忘之域矣"

116) 이를 잘 보여주는 자료로는 '『태종실록』 권5, 태종 3년 4월 4일(경술); 『성종실록』 권236, 성종 21년 1월 24일(정축); 『중종실록』 권2, 중종 2년 4월 13일(병술)' 참조.

⑵ 권신의 부재와 도덕정치의 가능성

이이는 '當今之時勢' 항목에서 아래와 같이 조선 경세 질서의 목표는 '삼대지치'가 되어야 하며, 그것은 실현가능한 목표임을 분명히 한다.

> 손님이 물었다. 三代之治를 과연 오늘날 회복할 수 있는가?
> 주인이 말하였다. 회복할 수 있다.
> 손님이 크게 웃으며 말하였다. 말이 너무 지나치다. 王道가 행해지지 않은 것이 이미 漢나라 때부터 그러한데 하물며 지금의 사람들은 한나라 사람보다 많이 부족하다. 우리 東方은 箕子 이후 다시는 善政이 없었고 지금의 풍속을 생각하면 필시 前朝보다 못하다. 만약 少康을 구한다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도를 행하고자 한다면 단지 處士의 큰소리가 될 뿐이다.
> 주인이 근심스럽게 말하였다. …王道가 행해지지 않는 것은 단지 군주와 재상이 그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지 어찌 시대가 점점 내려갈수록 회복할 수 없는 것이겠는가. 그 군주와 그 재상이 있다면 회복할 수 있는 때이다 117)

손님의 말은 당대의 일반적 인식을 대변하고 있다면, 이이는 주인의 입을 빌려 자신의 생각을 피력하고 있다. 손님은 '지금' '조선'에서 삼대지치를 할 수 있다는 주인의 말에 웃으며 그것을 어디까지나 현실을 잘 모르는 사람의 큰소리일 뿐으로 치부한다. 이때 손님이 그러한 판단을 내린 근거는 두 가지였다. 첫째, 이미 한나라 때부터 도가 행해지지 않았는데 한나라보다 못한 조선에서 그것이 가능하겠느냐는 것으로, 삼대지치 구현의 장소로서 조선이라는 '공간'에 대한 의문이다. 둘째, 작금의 조선의 풍속은 高麗만도 못한데 하물며 삼대지치를 꿈꿀 수 있겠느냐는 것으로, 기자와 현재 사이의 먼 '시간'의 격절에 대한 의문이다. 종합하면 삼대라는 너무나 오래 전의 일을, 기금 조선에서 구현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한 문제제기였다. 그리고 손님이 제시하는 현실적인 목표는 '少康'이었다.118) 이에 대한 주인 대답의 요점은

---

117) 『율곡전서』 권15, 「동호문답」 當今之時勢, "客曰 三代之治 果可復於今日乎 主人曰 可復矣 客呀然笑曰 何言之過也 王道之不行 自漢已然 矧今之人 不及漢遠甚乎 東方則箕子之後 更無善政 度今之俗 必不及前朝矣 若求少康 則庶可矣 欲行己道 則徒爲處士之大言而已 主人愀然曰…夫王道之不行者 只是君相非人耳 豈以時代漸下欲復而未能歟 有其君有其相 則斯爲可復之時矣"

118) 여기서 이이는 의도적으로 『예기』 예운편의 '小康'과 다른 '少康'이란 용어를 사용

한마디로 삼대지치는 시간의 문제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며, 조건만 갖추어지면 언제든 달성 가능한 목표라는 것이었다. 그는 이러한 사실을 같은 항목의 마지막에서 "治亂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지 때와는 상관없다"며 재차 강조하였다. 그 "때라는 것은 윗자리의 사람이 만드는 바"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군주와 재상이 적임자라면, 보다 현실적으로는 군주가 재상의 자리에 적임자를 등용하면, 언제, 어디서든 다스림이 가능하였다.[119]

같은 항목에서 이이는 지금 조선에서 정치의 理想인 왕도정치, 즉 도덕정치를 행할 수 있는 좋은 조건 두 가지와 나쁜 조건 두 가지를 든다. 좋은 조건이란 '군주다운 군자가 있다'는 것과 '권신이 없다'는 사실이었다. 나쁜 조건이란 인심이 왕도정치를 믿지 않는다는 것과 士氣가 저하되었다는 사실이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되는 점은 호조건으로 권신이 없다는 사실을 든 점이다. 군주다운 군주가 있다는 말이 선조에 대한 정치적 수사일 뿐으로 큰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한다면, 사실상 이이가 도덕정치를 행할 수 있는 호조건으로서 얘기하려는 바는 권신의 부재라고 할 수 있다.

> 예부터 인군이 비록 다스림의 도[治道]에 뜻을 두었다고 해도, 만약 권신이 멋대로 제재하고 군주를 위협하고 협박하면 비록 무언가 하고자 해도 말미암을 바가 없었다. 지금 우리나라는 私兵을 없앤 이후부터 소위 권신이란 자는 그 누구라도 군주의 총애에 의지하여 위세를 부리지 않은 적이 없었으며, 감히 성상을 능멸하고 기강을 침범하지 않았다. 남곤의 간특함, 김안로의 음험함, 이기의 흉악함, 정순붕의 음휼함, 윤원형의 간사함과 독기, 이량의 패려함과 망령됨으로도, 부르고 내치는 것을 오직 성상의 명령에 따랐다. 더구나 지금 뭇 간신들이 모두 조정에 없다. 만약 상이 하고자 한다면 누가 감히 화를 일으킬 마음을 품고 성상의 귀를 현혹하겠는가.[120]

하였는데, 그 의미는 패도에 해당하였다. 少康의 의미에 대해서는 제3장 2절 '「성학집요」 '聖賢道統'편과 三代之治論'에서 다룬다.

119) 『율곡전서』 권15, 「동호문답」(14면 나), "治亂在人 不係於時 時也者 在上位者之所爲也 若我聖上奮然振起 欲復古道 則人心可拯於陷溺之中 士氣可作於摧挫之餘 安可謂之非時耶"

120) 『율곡전서』 권15, 「동호문답」(13면 가~나), "自古人君 雖或有志於治道 而若有權臣擅制 威脅君上 則雖欲有爲 末由也已 今我國家 自廢私兵之後 所謂權臣者 莫非依寵而作威 不敢陵上而干紀 雖以南袞之姦慝 金安老之邪險 李芑之兇惡 鄭順朋之陰譎 尹元衡之憸毒 李樑之悖妄 呼來斥去 惟上所命 矧今羣姦 皆不在朝 自上若欲有爲 則

여기서 이이는 권신이란 군주의 권한을 위협하는 존재임을 분명하게 말하였다. 앞서 관료 조직의 기강과 민생의 안정을 위협하는 존재로서 권신을 봤다면, 이제 군주권을 방해하는 존재로서 권신의 문제점이 추가로 드러났다. 문제는 권신이 군주권의 발휘를 제한할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군신 관계도 해친다는 점이었다. 위에서 권신의 사례로 든 남곤 등은 모두 대신급의 직위에 올라 자신의 권력을 휘두른 인물이었다. 대신은 언제든 권신이 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었으며, 그것은 곧 정상적인 군신 관계의 붕괴와 바람직한 정치질서로부터 멀어짐을 의미하였다.

사실 조선에서 권신을 핵심적 위협 요소로서 파악한 것은 고려 때의 경험에서 비롯하여 오랜 연원이 있으며, 반복적으로 제기되던 주장이었다. 조선 건국 초의 많은 기록들이 보여주듯이, 고려 말엽의 문제적 상황은 권신이 권력을 잡고 경제적 부를 독점하고, 매관매직을 통해 관료조직을 타락시킨 것에서 비롯하였다는 인식이 일반적이었다.[121] 그런데 이러한 상황은 앞서 보았듯이, 중종대 말~명종대 권신의 집권으로 인한 문제적 상황의 묘사와 매우 유사하였다. 권신을 청산하고 건국된 조선에서 또 다시 권신의 양태를 보이는 인물이 등장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이들이 재차 조선의 질서와 안정을 위협한 것이다.

아래와 같은 『迂書』의 구절은 중종반정 이후 조선이 또 다시 권신의 정치로 인한 문제적 상황에 처하였음을, 그리고 중종대 기묘사림과 선조대 초반의 사류는 공통적으로 그러한 권신들의 행태에 대한 개혁 요구 움직이었음을 잘 보여준다.

> 靖國(중종반정) 이후로 사대부들이 權幸의 專橫에 분노를 품고 있었으므로 靜庵 조광조 등 여러 공들이 淸議로써 그 폐단을 바로잡으려 하다가 화를 입었다. 또 그 후에 김안로와 윤원형의 濁亂을 거쳐서 선조 초년에 이르러 士類가 또 淸議를 가지고 나왔으니, 기대승 등 諸人으로 언어와 氣習에 지나친 점이 많았다.[122]

孰敢包藏禍心 熒惑聖聽耶 此其可爲之勢二也”

121) 『태조실록』 권4, 태조 2년 9월 18일(경신); 『정종실록』 권5, 정종 2년 8월 14일(병오)

122) 『우서』 권4, 論主論之弊, “自靖國後 士大夫積憤於權幸專扼 靜庵諸公 欲以淸議矯

그런데 앞서 인용문에서, 이이는 '사병의 혁파' 이후, 즉 태종대 이후 권신의 권력은 사실상 군주의 영향력 하에 있게 되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즉, 그는 조선의 권신은 더 이상 고려 때의 권신과는 질적으로 다르다며, 군주가 마음먹기에 따라 언제든지 통제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상을 정리하면, 「동호문답」을 통해 이이가 새삼스레 다시 '군주와 신하의 만남'을 역설한 의미는 다음과 같았다. 권간이 척결된 지금이야말로 군주와 대신 간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돌아올 상황이며, 군주는 권간의 성장에 대한 걱정 없이 대신에게 정상적인 권한과 역할 부여를 해야 한다는 것으로, 문제적 상황을 거친 후의 '正常性' 회복을 강조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앞으로 조선에 새로운 질서 구현하기 위한 시작이자 근본이라는 사실의 강조였다.

其弊 而身蒙其敗 厥後又經安老元衡之濁亂 而宣廟初年 士類又持淸議 奇大升諸人言議氣習 多有不中處"

3. 이이의 정치적 浮上과 舊臣 비판

권신 체제가 종식된 이후, 선조대 초반의 정국에 오로지 일원적 지향만이 존재한 것은 아니었다.[123] 오히려 이 시기는 권신 체제 이후를 모색하는 가운데 앞으로 조선에 어떠한 질서를 구현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다양한 비전들이 경쟁하였고, 그 경쟁은 그들 사이에 긴장과 갈등의 상황을 연출하고 있었다. 다시 말하면, 이 시기는 새로운 질서의 태동을 예고하는 '열린 가능성의 시대'이자 동시에 '긴장과 갈등의 시대'이기도 하였다. 특히, 선조 즉위초에는 대신급의 舊臣과 낭료급의 개혁적 신진 관료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었다.[124]「경연일기」를 보면, 이이 역시 선조대 즉위 초 철저하게 그들 각각을 정치적 적대세력과 동지를 구분하고 있었음을, 그리고 그들 사이의 정치적 긴장감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개혁적 신진세력의

123) 일찍이 이태진은 선조 즉위 직후부터 '사림파'가 완전히 정국의 주도권을 가진 것으로 보는 당시의 일반적 인식이 지닌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 시기 구체제 척결을 둘러싼 세력 간 갈등이 존재했었음을 강조하였다[이태진 편, 2003『조선시대 정치사의 재조명(개정판)』, 태학사, 57쪽]. 그러나 현재에도 종종 일부 연구들에서 이태진이 비판했던 인식과 평가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124) 자료의 한계 등으로 인해 현재 선조대 초반의 정국상황을 본격적으로 다룬 연구는 매우 적다. '이태진, 1977「中央 五軍營制의 成立過程」『한국군제사-근세조선후기편』[『朝鮮後期의 政治와 軍營制變遷』(한국연구원, 1985 수록)]'이 이 시기를 개괄적으로 다룬 선구적 연구라면, '김항수, 1992「宣祖 初年의 新舊갈등과 政局動向」『국사관논총』34'는 이를 보다 상세하고 구조적으로 살핀 대표적 연구라 할 수 있다. 김항수는 선조대 초반의 갈등을 '사림계 내부의 新舊 갈등'으로 설명하며, 그 갈등은 구체제, 구세력 청산의 정도에 대한 입장 차이에서 비롯하였다고 해석하였다. 그리고 이는 이후의 동서 분열과는 다른 성격의 갈등으로 이해한다. 이에 대해 최근 김정신은 일련의 논문들을 통해 김항수의 주장을 비판하고, 이 역시 사림 내부의 입장 차에서 기인하는 문제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였다[김정신, 2004「宣祖代 文昭殿 論爭과 朋黨」『한국사상사학』22; 김정신, 2009「東巖 李潑의 학문경향과 정치활동ㅡ척신정치의 청산을 둘러싼 동인과 서인의 갈등을 중심으로ㅡ」『호남문화연구』46]. 즉, 김항수가 '선조대 초년의 신구 갈등'과 '사류 내부의 선후배 대립'을 분리하여 파악하려고 하는 반면, 김정신은 이 둘을 모두 '사림파 내부에서 벌어진 논쟁'으로 파악한다. 필자는 기본적으로 김항수의 견해와 같은 입장으로, 신구 갈등과 동서 갈등은 서로 다른 성격의 갈등인 것으로 이해한다. 다만 김항수의 연구가 주로 선조 즉위 초의 신구 갈등에 초점을 맞추고, 동서 분열이 이루어지는 선조 7~8년까지를 다루었다면, 본고는 이이의 시각에 따라 선조 11년 이후 구신 존재에 대한 이이의 인식까지도 추적하였다.

일원으로서 이이는 이 시기「동호문답」등을 통해 제기한 개혁 과제의 실행을 위해 노력하였고 그 과정에서 그들 가운데 중심인물로 부상하고 있었다.

1) 선조 2~5년 新·舊 갈등의 격화와 이이의 정치적 부상

⑴ 선조 2년 文昭殿 典禮 논쟁과 신·구 갈등의 표면화

선조 2년을 기점으로, 정국 상황은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다. 그 배경에는 이해 8월, 명종의 大祥이 끝난다는 사실이 있었다.[125] 일반적으로 새 왕이 즉위하였더라도 상당 기간 先王에 대한 추도 정국이 이어졌으며, 대상과 부묘를 마친 후에야 정상적인 정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실제 즉위 2년째로 접어들며 국왕 선조가 개혁적 신진세력들의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였다. 명종의 처가 청송 심씨 세력과 대신들에 의해 선택되고 추대되었던 선조는 이때부터는 본격적으로 군주로서 자신의 권한을 행사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런 선조에게 가장 든든한 지원군은 영상 이준경을 비롯한 대신급 인사들이었다.[126] 관료 조직의 최고위층에 있으면서 정책결정을 위한 최종 협의 과정에 참여하는 이들 대신들은 사안에 따라 종종 개혁세력의 입장에 동조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체로 선조와 함께 개혁에 대해 신중론을 내세우는 경우가 많았다. 그 결과 '선조와 대신들 對 낭관급의 개혁적 신진관료'라는 대립 전선이 형성되었고, 조정에서 '新進과 舊臣 간의 사이가 나쁘다'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나오게 되었다.[127]

이들 간의 갈등이 표면화되기 시작한 것은 이미 선조 2년(1569) 2월, 文

125) 선조 2년 8월에 명종의 부묘가 있었다[『선조실록』권3, 2년 8월 16일(정사)].

126) 여기서 대신이란 말은 삼정승만이 아니라, 육조의 판서 등 2품 이상의 고위 관료들을 의미한다. 이러한 용법의 대표적 사례로 다음과 같은 기사를 들 수 있다. "且所謂大臣 豈特政丞也 六卿以上 亦可謂之大臣矣"[『명종실록』 권1, 명종 즉위년 8월 11일(신축)]. 그리고 이들 대신들이 중요 사안의 결정에 참여하는 사례로는, 명종의 후사와 관련한 다음의 기사를 참조할 수 있다. 『명종실록』 권31, 명종 20년 9월 19일(임자).

127) 『율곡전서』 권28, 「경연일기」 선조 3년 5월(48면 나), "方今朝廷 新舊不和 大臣務欲安靖 其弊也偸 士類務欲建白 其弊也激"

昭殿에 시행할 典禮를 둘러싼 논쟁에서였다. 이때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인물은 당대 사림의 추앙을 받던 이황으로, 그는 판중추부사로 이 일에 간여하고 있었다. 논란이 된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128]

먼저 명종의 부묘를 앞두고 문소전의 건물 상황을 점검하던 상황에서, 이황과 대간들은 '古禮'에 따라 文昭殿 위패의 방향과 소목의 위치를 변경할 것을 요청하였다.[129] 그러나 이준경을 비롯한 대신들은 문소전에 '古禮'를 시행할 수 없으며, 이미 시행한 지 140년이 넘은 것을 변경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하였다. 결국 이 논란은 선조가 대신들의 손을 들어주는 것으로 끝났다. 다음 달 3월에는 명종의 위패를 문소전에 부묘할 때는 延恩殿에 있는 인종의 위패도 옮겨 함께 모실 것인지 여부가 논란이 되었다.[130] 삼사를 중심으로 한 신진들은 인종의 위패도 문소전에 부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대신들은 이를 반대하였지만, 결국 인종의 위패를 문소전에 부묘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131]

당시 이이는 외조모가 위중한 상태라는 소식을 듣고 강릉에 내려가 있는 상태여서, 문소전 논의에 직접 참여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훗날 그는 이 일에 대해 아래와 같이 평함으로써 이황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함을 표하였다.

> 人君이 조상을 모시는 것은 마땅히 종묘를 중히 여겨야 하는 것이니, 原廟는 설치하지 않는 것이 옳다. 우리나라에서 문소전을 설치한 지 오래되었으니, 聖學이 고명하여 예로써 망자를 모시는 분이 아니면 혁파할 수 없다. 이문순(이황)이 스스로 원묘를 폐할 수 없음을 헤아려, 원묘 안에서 고례를 행하려 했으니, 이 역시 변통에 처하여 바름[正]을 얻은 것이다. 대신이 정해진 견해가 없으면서, 단지 구차하게 流俗을 따르고자 하여 儒者의 논의를 막았을 뿐이다. 주상이 이미 고도를 좋아하지

128) 문소전과 연은전의 내력에 대해서는 '『선조수정실록』 3권, 선조 2년 1월 1일(을사)' 기사 참조. 당시의 문소전 전례를 둘러싼 논란의 추이와 담론에 대해서는 '김정신, 2004 앞의 논문' 참조. 김정신은 '血統論' 대 '義理論'의 구도로 논의를 정리하였다.

129) 이황의 주장은 '古禮'에 따라 태조의 위패는 현 남향에서 동향으로 바꾸고, 昭穆은 東西에서 南北의 위치로 변경하자는 것이었다.

130) 인종의 위패는 1년도 왕위에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문소전이 아닌 延恩殿에 모신 상태였다.

131) 『선조수정실록』 권3, 선조 2년 3월 1일(을사)

않고 대신 또한 식견과 국량이 없으니 賢者가 조정에 있을 수 없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가.[132]

이처럼 이이는 문소전 전례 논란을 '고례를 행하려는' 이황 對 '류속을 따르는 대신'의 구도로 이해하고 있었다.[133] 이황과 이이는 문소전 혁파까지는 요구하지는 않는 대신, 그 공간에 고례를 시행하는 '변통'이라도 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이 왕실 전례 문제를 둘러싸고 구신과 신진 세력 간의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4월에는 그것을 전면적으로 표출시킨 사건이 발생하였다. 대사헌 金鎧가 경연 자리에서 '자기에게 붙는 자는 진출시키고, 다른 자는 배척하였다'며 조광조를 비난한 것이다.[134] 이에 三司의 관원들이 강하게 반발하였지만, 더 이상 논란은 없는 상태로 일단락되었다. 그러나 6월에 김개는 조강에서 또 다시 조광조와 기묘사림을 비난함으로써 재차 분란을 일으켰다. 그는 앞서 했던 자신의 발언은 연소 관료들이 삼공, 특히 영상을 공격하는 상황에서 그들로 하여금 근신케 하려는 목적이 있었음을 밝히고, 조광조의 처신에 대한 말은 어디까지나 당시의 傳旨에 나온 구절을 인용한 것이라고 해명하였다.[135] 김개의 발언은 표면적으로는 조광조와 기묘사림에 대한 비판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당시 신진 세력의 행태를 비난하려는 의도였던 것이다.

그러자 이전보다 더 광범위하고 거센 반발이 나왔다. 삼사 뿐만 아니라 승정원에서도 전 관원이 나서 김개를 논박하였는데, 그 선두에 좌승지 기대승과 우승지 심의겸이 있었다. 이들은 선조와의 면대 자리에서 김개가 '근래

132) 『율곡전서』 권28, 「경연일기」, 선조 2년 1월(30면 가), "謹按 人君之奉先 當崇重於宗廟 而原廟非所當設也 我國文昭殿之設已久 非聖學高明以禮事亡 則不能革罷矣 李文純自度不能廢原廟 故欲就原廟中行古禮 是亦處變而得正也 大臣非有定見 只欲苟循流俗 以沮儒者之議而已 主上旣不好古 而大臣又無識量 宜乎賢者之不能立朝也"

133) 문소전 논란 이전에도 명종 22년의 문정왕후 상례 시와 선조 즉위년의 명종 상례 시에는 卒哭 후 服制 문제에 보인 관심에서 알 수 있듯이, 왕실 전례 문제는 이이를 비롯한 사류의 핵심적 관심 사안이었다. 이에 대해서는 제2장 3절에서 보다 자세하게 다룬다.

134) 『선조실록』 권3, 선조 2년 4월 19일(임진)

135) 『선조실록』 권3, 선조 2년 6월 9일(신사)

젊은 무리들이 시비를 분명히 가리려 하자 그들을 모함하고 말을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며, 그의 본래 의도를 들추어냈다. 나아가 김개가 장차 이탁, 박순, 기대승, 윤두수, 윤근수, 정철, 이후백 등 5~6인을 모함하려 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고 폭로하였다.[136] 이 당시 기대승은 사림의 重望을 받고 있었으며, 특히 이황이 선조에게 '학문을 아는 자'로 추천을 하여 더욱 명성이 높아진 상태였다.[137] 그는 대신들이 문소전 논란의 주동자로 지목할 정도로, 조정 내 개혁적 신진세력의 구심 역할을 하고 있었다.[138] 그리고 심의겸은 여전히 그들의 후원자로서, 선조 즉위 초에는 더욱 정치적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었다. 따라서 기대승과 심의겸의 면대는 사실상 조정 내 개혁적 신진세력의 의견을 대표한 것이기도 하였다.

이날의 자리에서 기대승 등은 김개와 관계가 깊은 인사가 2~3명 더 있다고 말하였는데, 훗날 이이는 「경연일기」에서 그 2~3명의 인물이란 이조판서 홍담과 그의 從兄인 우의정 洪暹, 그리고 의정부 우참찬 宋純을 가리키는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지적하였다. 홍담은 평소 '지금 세상에 어찌 眞儒가 나오겠는가. 오늘날 학문이라 말하는 것은 모두 가짜다'라고 하여 개혁세력의 반감을 얻고 있었다. 특히 이때 그는 대사헌 김개를 내세워 사류 공격을 주도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다. 김개의 발언으로 시작된 소란은 결국 그의 관직을 삭탈하고 門外黜送하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고, 곧이어 김개를 대사헌으로 등용했던 홍담도 병을 이유로 물러났다.[139]

당시의 긴박했던 정국 분위기는 기대승이 예안의 이황에게 보낸 편지에서 자신이 처한 어려움에 대해 토로하는 것에서 알 수 있다.[140] 그는 김개가 장차 '사림에게 화를 일으키려한 것'으로 추측하고, 조정의 '상황이 매우 좋지 못하여, 조만간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 같다'며 불안감을 표시하였다. 특히 그는 벗들 중에도 이해관계에 이끌려 자신과 심의겸을 비난하는 자들이 많다며 매우 안타까워하였다.[141] 이로 보건대, 당시 조정에서 개혁적 신진

136) 『선조실록』 권3, 선조 2년 6월 9일(신사); 선조 2년 8월 16일(정사)
137) 『선조실록』 권3, 선조 2년 3월 4일(무신)
138) 『고봉집』「양선생왕복서」 권3, 27면
139) 『율곡전서』 권28, 「경연일기」 선조 2년 윤6월(33면 나)
140) 당시 이황은 문소전 논란을 겪은 후, 선조 2년 3월에 예안으로 내려간 상태였다.
141) 『고봉집』「양선생왕복서」 권3, 12면

세력은 숫적인 측면에서나 권력의 정도에서 상대적으로 열세였음을 알 수 있다. 위기감을 느낀 것은 다른 신진 인사들도 마찬가지였다. 대표적으로 정철은 이이에게 "士類가 마땅히 먼저 일어나야 한다. 오직 앉아서 망하기를 기다리기보다는 공격하는 게 낫다"며 개혁적 신진세력이 먼저 대신들을 공격하자고 제안하기도 하였다.[142] 결국 이해 7월, 기대승은 병을 이유로 관직에서 물러났다.[143]

⑵ 선조 3년 이후 이이의 개혁운동 주도와 정치적 부상

문소전에 시행할 전례를 둘러싼 신·구 논쟁 끝에 기대승이 조정에서 물러난 후, 개혁적 신진세력의 중심인물로 부상한 자는 이이였다. 그는 선조 2년 말 각종 개혁 과제들을 선도적으로 제기한 이래, 선조 3년 초반부터 그것들의 수행을 위한 노력에 앞장섬으로써, 개혁적 신진세력 사이에서 존재감과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시작하였다.[144]

이 시기 그가 중점적으로 추진한 개혁 과제는 민생을 안정을 위한 각종 폐법의 개혁, 관료 사회 개혁을 위한 인재 등용 방식의 개혁, 그리고 위사공신 삭훈을 삭제함으로써 과거사를 청산하는 일 등 크게 세 종류였다. 이전까지 이이의 개혁운동 참여가 주로 三司 등 조직의 일원으로서 참여하는 수준이었다면, 이때부터 그는 자신만의 목소리를 내며 개혁 어젠다를 적극적으로 제기하기 시작하였다. 아래에서는 이들 개혁 과제를 종류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민생의 안정과 그것을 이루어기 위한 弊法·弊政 개혁은 그가 조정에 진출한 처음부터 최종적으로 완전히 사퇴하기까지 일관되게 강조한 개혁 과제였다. 그는 이미 명종 21년의 「간원진시사소」에서 주요 정국 과제로 민생의 안정을 제기한 이래, 선조가 즉위한 직후에도 선조 2년의 「동호문답」, 「옥당진시폐소」, 「진미재오책차」등에서 누차 이것이 시급하고도 중요한 과

142) 『율곡전서』 권28, 「경연일기」 선조 2년 윤6월(35면 나)
143) 『선조실록』 권4, 선조 3년 7월 9일(을해)
144) 이이는 「동호문답」을 제출한 직후인 선조 2년 10월, 외조모의 병간호를 이유로 잠시 조정을 떠났으며, 선조 3년 4월 다시 조정에 복귀한 후 본격적으로 개혁책의 실행을 추진하였다.

제임을 강조하였다. 그 내용은 시기와 글의 종류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만, 대체로 공납제 개혁, 군역제 개혁, 지방 행정 개혁 문제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145]

둘째, 인재 등용 방식의 개혁, 즉 과거 이외의 방법을 통해 관료를 충원하자는 주장은 일찍이 명종대 말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된 개혁세력의 희망 사항이었다. 그들은 당시 과거 제도 자체가 공정하게 시행되지 않고 있으며, 관직에 나오는 자들은 부적격자인 경우가 많은 등 관료 사회에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다.[146] 그리하여 "과거 이외의 선발로 뛰어난 인재를 구하"고, "현명한 이를 등용하여 조정을 맑게 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임을 강조하였다. 이는 결국 관료 조직을 새로운 인물들로 교체하려는 시도에 다름 아니었으며, 科擧와 같은 기존의 방식으로는 그것을 이루기 어렵다는 생각이 그 배경에 있었다. 일찍이 명종 21년에도 이이가 '과거 이외에 별도로 賢良한 자를 찾아 관직을 제수할 것'을 건의하였으나 무위로 끝난 적이 있었다.[147]

선조 즉위 후에 개혁세력이 도입에 성공한 방법은 '郎薦' 제도였다.[148] 이는 이조의 낭관이 '이름이 알려진 선비[知名之士]'를 천거하면, 과거 급제자가 아니더라도 관직에 등용하는 제도였다.[149] '낭천' 제도는 선조 1년, 이조판서 이탁과 이조정랑 구봉령이 주도하여 처음으로 마련하였다. 이탁이 비록

---

145) 이이는 선조 16년 4월, 그의 마지막 시정 관련 소라 할 수 있는 「진시사소」에서 자신이 이전부터 요청하였던 폐정개혁안으로 貢案 개정, 軍籍 개정, 주현 병합, 감사 구임 등 네 가지를 들고 있다.

146) 먼저 명종대 '권신'의 집권 이후 관료 사회에 뇌물과 청탁이 심해지는 등 벼슬길이 혼탁해진 상태였다[『高峯集』「論思錄」 卷上, 5면]. 다음으로, 여러 차례의 士禍를 거치며 "고상한 선비들은 과거로 진출하려 하지 않는," 반면 "자신만 살찌우려는 자들은 관직에 진출"하여 이들이 관료 조직을 구성하고 있었다[『율곡전서』 권3, 「玉堂陳時弊疏」].

147) 『율곡전서』 권3, 「諫院陳時事疏」

148) 『율곡전서』 권29, 「경연일기」 선조 8년 6일

149) 이 제도는 이조의 낭관이 자신의 후임을 직접 천거하는 소위 낭관 自薦制와는 다른 제도이다[이조 낭관의 자천제에 대해서는 '최이돈, 1994 『조선중기사림정치구조연구』, 일조각, 148~155쪽' 참조]. 김항수 역시 이 낭천제의 시행 과정과 논란을 상세하게 다루었으나, 이를 낭관 자천제로 오해하였다[김항수, 1992 「宣祖 初年의 新舊갈등과 政局動向」 『국사관논총』 34, 93쪽~96쪽]. 이조 낭관의 추천에 의한 미출신자의 등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다 자세한 검토가 필요하다.

연배나 경력은 대신들과 가까웠지만,[150] '士林을 扶護하려는 뜻을 가졌다'는 평을 들을 정도로 평소 개혁세력에 우호적인 인물이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151] '낭천' 제도는 선조의 재가를 얻어 몇몇 인물들을 충원하였으나, '舊規를 훼손하고 새로운 예를 열었다'는 대신들의 반대도 만만치 않았다. 대표적으로 선조 2년 6월, 이탁에 이어 이조판서가 된 홍담은 이조좌랑 정철이 천거한 인물을 출신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등용을 거절하였고 결국엔 '낭천' 제도 자체를 없애 버렸다. 그 과정에서 정철은 크게 반발하였고, 이 일로 문소전 논란으로 벌어진 대신과 신진 개혁세력 사이의 간극은 더욱 멀어졌다. 선조 2년 9월, 이이가 「옥당진시폐소」에서 중요 시국 과제 중 하나로 미출신자를 대간에 제수할 것을 건의한 것은 이들 시도의 연장선상에서, 재차 그 제도를 시행의 요구하는 것이었다.[152]

마지막으로 셋째, 衛社功臣의 삭훈 운동을 전개하였다.[153] 위사공신 삭훈 운동의 전개는 이이가 개혁적 신진세력의 중심인물로 부각되는 데 특히 핵심적 계기가 된 사안이었다.[154] 선조 즉위 이래 사화의 피화인들에 대한 신원과 적몰 재산의 환수 작업에 대한 요청이 계속 되었고, 어느 정도 실현되었다. 그러나 이이는 선조 2년 9월에 제출한「동호문답」의 제일 마지막에서, '을사사화를 일으킨 五姦의 관직과 작위를 삭탈하는 것이 유신의 시작'이라고 강조함으로써, 거기에 더하여 삭훈까지 할 것을 주장함으로써 삭훈 논의

---

150) 이탁은 1509년(중종 4)에 출생하였고, 1535년(중종 30)에 급제 하였다. 그의 출신과 생애에 대해서는 沈守慶이 지은 碑銘 참조[『국조인물고』 권2, 相臣, 이탁].

151) 『선조수정실록』 권4, 선조 3년 1월 1일(기사)

152) 『율곡전서』 권3, 「玉堂陳時弊疏」, "我國祖宗朝用人之規 惟視才德 不專以科擧爲重 故朝無曠官 野無遺賢 政治以成焉 自己卯士林之敗 姦兇連執國柄 嫉惡高尙之士 非由科擧而進 終不置之要地 祖宗良法 於斯埽地矣 乙巳年間 雖非出身 亦命交差憲官 而終不克施焉 今則流俗之輩 習以爲常 若聞欲用遺逸 以爲臺官 則羣怪聚笑 如見太古茹毛飮血之事 此所以朝多尸素 野有潛珍 而政治不成者也 夫擧業奪志 專心求利者多擢科第 學問餘暇 兼治擧業者 類多抱屈 又況守道山樊 杜門求志者 豈有苟售有司之理哉 如是而不共天職 使老於丘壑 豈國家之福也 伏願殿下務以祖宗爲法 不拘近規 特命銓曹 擢拔賢士 苟有經明行修 才可適用者 不次收用 使居要地"

153) 위사공신에 대해서는 '우인수, 1987「朝鮮明宗朝 衛社功臣의 性分과 動向」『대구사학』 33; 한춘순, 1998「명종대 을사사화 연구」『인문학연구』 2' 참조.

154) 김항수, 2000「栗谷 李珥와 乙巳削勳論議」『한국사상과 문화』 8, 한국사상문화학회, 124~125쪽.

에 불을 지폈다.

논의는 외조모 상을 당해 휴가를 갔던 이이가 선조 3년 4월, 조정에 복귀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 그리고 이후 10월까지 근 6개월이 넘게 지속되며 정국에 큰 파란을 몰고 왔다.[155] 특히 그는 같은 해 5월, 홍문관 교리로 임명받은 후부터는 본인이 41차례나 차자를 지으면서 논의를 주도하였다. 이에 대한 대신들의 반응은 정미년, 기유년의 경우는 조작임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을사년 사화의 경우는 조작을 확신하기 어려워 개정은 곤란하다는 것이었다. 이는 선조의 입장이기도 했다.[156]

위사공신 삭훈 문제로 한창 정국이 논란이던 선조 3년 5월, 아래와 같은 백인걸의 상황 묘사는 당시 조정에서 벌어진 신·구 갈등의 양상을 간명하게 보여준다.

> 지금 조정에서 舊臣과 新進이 화합하지 않는다. 대신은 안정에 힘쓰니 그 폐해는 고식적으로 일한다는 것이고, 사류는 건의하는 데 힘쓰니 폐해는 과격하다는 것이다.[157]

'안정 대 건의', '고식적 대 과격'이라는 구도는 다소 도식적이긴 하나, 비교적 객관적 입장에서 파악한 신·구 양측의 행태를 잘 보여준다. 이러한 묘사는 당시 정국에서 백인걸이 처한 독특한 위치에서 비롯한다. 그는 일찍이 명종대 을사년에 화를 입었다가 선조 즉위와 함께 복직된 인물로, "논의가 강개하고, 많은 나이에도 물러서지 않아 사람들이 중히 여기는" 인물이었다. 그러나 그는 동시에 선조 즉위 초 조정의 개혁적 신진세력의 행태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출하며 거리를 두고 있었다.[158]

---

155) 위사공신 삭훈 운동의 상세한 전개 과정은 다음의 두 논문에 잘 정리되어 있다. 김항수, 2000 위의 논문; 김영두, 2009「소통의 시각에서 본 율곡 이이의 정치활동: 을사삭훈(乙巳削勳) 논쟁의 의미」『역사비평』 89

156) 결국 을사사화의 훈적은 선조 10년, 피해 당사자인 인종비 인성왕후의 훙거를 앞두고 선조의 전격적 결단으로 이루어졌다.

157)『율곡전서』권28,「경연일기」선조 3년 5월(48면 나), "方今朝廷 新舊不和 大臣務欲安靖 其弊也偸 士類務欲建白 其弊也激"

158) 백인걸은 당시 조정에서 한창 여망을 받던 기대승과 심의겸에 대해 각각 "너무 자신이 과하다"거나, "외척의 권세가 성하면 안 된다"는 등의 비판을 하였다고 한다. 이준

자신이 제기한 여러 개혁 과제들이 실행되지 못하는 가운데, 선조 3년 10월, 이이는 사퇴하고 향촌으로 내려갔다. 그러나 이후에도 여전히 조정에서의 신구 갈등은 계속되었다. 특히 다음해인 선조 4년 7월에는, 백인걸이 사림을 해치려 한다는 소문이 돌아, 또 다시 정국에 긴장감이 돌았다. 소문의 실상은 이준경의 再從弟인 이원경과 선조의 외삼촌인 정창서가 백인걸을 이용하여, 박순, 이후백, 오건 등 개혁적 신진세력의 중심인물 10여인을 공격하려던 계획이었다. 이원경과 정창서는 각각 자신의 처지에 대한 불만과 권세를 잡으려는 목적에서 이 계획을 구상했으나, 미리 소문이 나면서 결국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다.[159] 이 사건은 구신들과 직접적으로 연관은 없었으나, 양 측의 갈등 상황을 틈타 자신들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자들에 의해 언제든지 화란이 있을 수 있음을 상기하여 주었다.

무엇보다 선조 5년 7월, 이준경이 죽음을 앞두고 올린 마지막 遺箚는 당시 조정에서 신.구 간의 갈등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는지를 잘 보여주었다. 모두 네 개의 시국 사안을 건의한 이 글에서, 이준경은 셋째 항목에서 군자와 소인의 분별을 강조하고, 넷째 항목에서 붕당을 타파할 것을 건의하였다.[160] 이 두 항목은 병렬적으로 나열되었으나, 사실상 연결되어 있었다. 개혁적 신진세력이 사사로이 붕당을 결성하고 있다는 비판이었으며, 그들을 '소인'에 비정함으로써 타파해야 할 대상임을 공공연히 규정한 것에 다름 아니었다. 그런 만큼 글의 파장도 클 수밖에 없었다.

> 셋째, 군자와 소인을 분별해야 한다. 신이 듣기로, 군자와 소인은 절로 나뉨이 정해지지니 감출 수 없다. … 만약 군자라면 비록 혹 소인이 공격하여 다스리더라도 발탁하여 등용하고, 만약 소인이라면 비록 사사로운 의도가 있더라도 배척하여 제거하는 것을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
>
> 넷째, 朋黨의 사사로움을 깨야 한다. 지금 세상 사람들을 보면, 몸에는 잘못된 행동이 없고, 일에서는 법칙을 어긴 것이 없는데도, 한마디 말이 맞지 않으면 배척하고 용납하지 않으며, 자신의 행동을 검속하지 않고, 독서에도 힘쓰지 않으면서 고

경에 이이를 추천한 이도 백인걸이었다. 이에 대해서는 '『율곡전서』 권28, 「경연일기」 선조 1년 가을(28면 나); 선조 2년 9월(42면 가)' 참조.

159) 『율곡전서』 권28, 「경연일기」 선조 4년 7월(57면 가~58면 나)

160) 나머지 두 항목은 학문에 힘쓸 것과 아랫사람을 대함에 威儀가 있을 것이었다.

> 상한 이야기를 하거나 큰소리나 치면서 붕비를 맺은 자가 혹 있다. 친구 맺은 자를 훌륭하게 여겨 마침내 虛僞의 풍조를 이루었다. 이는 전하가 훤히 듣고 같이 본 바로서, 이 폐해를 제거하는 데 힘쓸 때이다. 그렇지 않으면 종내 국가가 구제할 수 없는 걱정거리가 될 것이다.[161]

여기서 이준경은 당시 '朋比를 결성한' 무리들의 행태에 대해 크게 두 가지를 문제를 지적한다. 먼저 행실과 일에서 별다른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과 조금이라도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강하게 비난하였다. 이는 그들의 지나친 배척성과 공격성에 대한 지적이었다. 다음으로, 그들은 행실을 검속하거나 독서에도 힘쓰지 않으면서, 고상한 얘기나 큰 소리나 하는 虛僞 집단일 뿐이었다. 이는 그들의 행태나 주장 자체에 대한 비난으로, 현실성과 실천 가능성이 결여된 주장일 뿐이라는 비난이었다. 결국 이준경이 파악하는 '붕비를 결성한' 무리들은, 정작 본인들은 문제적 행동을 하고 허위의 주장을 내세우면서, 자신들과 다른 의견을 표방하는 사람.집단에 대한 공격만 하는 '사사로운' 집단이었다. 그렇기에 결국 이준경은 이 폐단을 없애지 않으면 "끝내 국가가 구제할 수 없는 걱정거리가 될 것"이라 말로 끝을 맺고 있다. 그들 '붕비'의 세력은 제거되어야 할 대상이었던 것이다.

이 글은 종종 선조 8년에 표면화 되는 사류 내부의 동서 분당을 예견한 것으로 오해되기도 하지만, 실상은 선조 2년 문소전 논쟁 이래 계속된 신.구 갈등의 연장선상에서 작성된 글이었다.[162] 『선조실록』의 사관은 해당 기사에 대한 설명에서 이준경이 지적한 집단은 심의겸의 무리라고 표현하였는데,[163] 여기서 심의겸의 무리란 훗날 서인으로 차정되는 무리들이 아니라,

---

161) 『東皐遺稿』 권2, 「遺箚」, "三曰 辨君子小人 臣聞君子小人 自有定分 不可掩也 … 苟君子也 雖或小人攻治 拔而用之勿貳 苟小人也 雖有私意 斥而去之勿疑 如此則安有河北朝廷之難治也哉 四曰 破朋黨之私 臣見今世之人 或有身無過擧 事無違則 而一言不合 則排斥不容 其於不事行檢 不務讀書 而高談大言 結爲朋比者 以爲高致 遂成虛僞之風 君子則竝立而勿疑 小人則任置而同其流 可也 此乃殿下公聽竝觀 務去此弊之時也 不然 終必爲國家難救之患矣 臣切於貢忠 而臨死錯亂 言不盡意 取進止"

162) 특히 개설서류에서 이러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일찍이 정만조가 지적하였듯이, 이준경이 지목한 붕당은 단지 후일의 서인 세력만이 아니라 기대승, 심의겸을 비롯한 신진 관료세력 일반이었다. 이에 대해서는 '정만조, 1990 「16세기 사림계 관료의 붕당론-歐·朱 붕당론과의 비교를 통하여 본-」 『한국학논총』 12, 102~104쪽' 참조.

기대승을 포함하여 명종대 말~선조 즉위 초 조정에서 개혁 운동을 전개한 개혁적 신진 관료 일반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에 훗날 서인으로 자정하는 이이뿐만 아니라, 동인이 되는 유성룡 역시 이준경의 유소에 대해 '사류를 해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하였던 것이다.[164]

이상과 같이, 선조 즉위 초 조정에서는 정책을 둘러싸고 여러 정치 주체들 간에 일치된 합의의 분위기가 존재하는 것과 동시에 구신과 신진 관료 사이에 갈등이 존재하였고, 때로 그 갈등은 심각한 상황까지 이르기도 하였다. 권신 체제를 청산하고 새 질서를 마련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모두가 동의하였지만, 새 질서의 방향을 두고 국왕과 구신 對 개혁적 신진세력 사이에 의견 차를 보인 것이다. 선조와 구신들이 '조종지제'를 이유로 신중한 변화를 도모한 반면, 개혁세력은 보다 과감한 정책 전환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양측 사이에서 논란이 됐던 왕실 전례 문제, 관리등용 제도의 개혁 문제 등이 이후로도 계속 논란이 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이들 간의 상이한 지향을 잘 보여주는 사안들이었다.

2) 「경연일기」 속 '流俗'과 '士類'

「경연일기」는 이이가 명종 20년부터 선조 14년까지, 조정에서 벌어진 주요 사건과 논의들을 월별로 순차적으로 분리하여 정리한 기록이다.[165] 「경연일기」에는 이이가 직접 경연에 참여했을 때 오간 논의들이 상세하게 담겨 있으며 내용의 중심을 이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가 경연에 입시하지 않았을 때 또는 아예 조정에서 물러나 향촌에 머물렀던 기간 동안의 중앙 조정 상황도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경연일기」는 단지 이이 개인을 둘러싼 정황뿐만 아니라, 이 시기의 정국 상황 전반을 파악하는 데도 많은 정보를

163) 『선조실록』 권6, 선조 5년 7월 7일(경인), "四曰破朋黨之私 [時沈義謙以外戚 締結群小 有濁亂朝著之漸 故箚中以此爲目] "

164) 『서애집』 별집 권4, 雜著 「記壬申三司會議故相李公浚慶遺疏」

165) 그는 14년 11월, 조정에서 물러나 해주 석담에 있을 때 이를 작성하였으며, 그런 이유로 「석담일기」라고도 한다. 「경연일기」의 판본 문제와 표제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정, 2008 「이이의 「석담일기」에 대한 서지학적 검토」 『전북사학』 32' 참조.

제공한다. 게다가 임진왜란으로 인해 선조대 초반의 기록들이 많이 사라진 상태에서 사료적 가치는 더욱 귀하다.[166]

「경연일기」의 내용이 지닌 가장 큰 특징은 사실적 정보만이 아니라 인물에 대한 평가를 풍부하게 담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 평가는 여러 사람들 사이에서 공공연하게 이루어진 것은 물론, 이이와 타인 간에 사적으로 은밀히 오간 내용도 많이 포함하고 있다. 그 결과 「경연일기」는 대상 인물에 대한 사람들의 일반적 평가는 물론 이이의 개인적인 신랄한 평가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경연일기」의 이러한 특징은 비슷한 시기에 일기 형식으로 작성된, 여타 관료 출신 인사의 기록과 비교하면 더욱 잘 드러난다.[167] 단적으로, 유희춘(1513:중종 8~1577:선조 10)의 「眉巖日記」는 「경연일기」보다 사적인 내용을 훨씬 많이 담은 기록임에도, 타인에 대한 인물평은 오히려 적다. 그런 점에서 이이는 단지 당대 정국에 대한 사실적 기록만이 아니라 주요 인물에 대한 평가를 남기려는 명확한 의도 하에 「경연일기」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이가 남긴 인물평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그가 당대 조선에서 같이 활동한 인물들은 물론 과거의 인사들을 '적과 동지'로 분명하게 구분하였으며, 그 구분에는 명확한 기준이 있었다는 점이다. 그 기준은 '주관적'인 동시에 '객관적'이기도 하였다. '주관적'이라는 뜻은 적과 동지를 구분하는 기준이 그 인물의 가문이나 경제 상태와 같이 외적으로 확연히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의식, 사고, 가치관과 같은 내면적인 것이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예를 들어 김개는 김계휘의 오촌 당숙이었지만,[168] 김개는 이이의

166) 「경연일기」는 西人들이 광해군대 北人들의 손에 의해 만들어진 『선조실록』에 불만을 가지고 『선조수정실록』을 편찬할 때 주요 사료로 활용되기도 하였다. 『선조수정실록』의 제작 과정에 대해서는 '오항녕, 2003 「宣祖實錄修正攷」 『한국사연구』 123'를 참조할 것. 실제 『선조수정실록』과 「경연일기」의 같은 날 기사를 비교해 보면, 『선조수정실록』의 많은 내용이 「경연일기」의 내용을 그대로 轉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67) 기대승(1527:중종 22~1572:선조 5)의 「論思錄」은 그가 경연에 참여하여 공적으로 행한 발언만이 수록되어 있다. 또, 이이와 함께 경연에서 활발하게 활동한 김우옹(1540:중종 35~1603:선조 36)의 「經筵講義」 역시 「논사록」과 유사한 성격의 기록으로 경연에서의 발언을 담고 있다.

168) 김계휘의 아버지 金鎬와 김개는 사촌 간으로 이들은 모두 金克忸의 손자였다. 이에 대해서는 '『簡易集』 권2, 大司憲金公神道碑銘; 『記言』 별집 권21, 金判官墓碣銘; 『樂全堂集』 권12, 監役金公墓碣銘; 『율곡전서』 권17, 知禮縣監贈參判金公神道碑銘'

적으로, 김계휘는 같은 편으로 구분되었다. 또 윤의중과 이발도 외숙과 조카 사이였지만 이이에게는 각각 적과 동지로 나뉘었다.

다음으로 '객관적'이라는 의미는 그 기준이 단지 이이 혼자만의 일방적 판단이 아니라 여러 사람 사이에서 어느 정도 합의된 평가였다는 점에서 그렇다. 따라서 그 기준은 어느 인물에 대한 이이 개인의 好惡를 넘어서는 것이었다. 가령, 이이는 기대승에 대해 '기질이 세고 거칠며, 학문이 정밀하지 못하다', '의견이 자기와 같으면 좋아하고, 다르면 미워한다'는 등 개인적으로는 매우 부정적으로 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승은 어디까지나 이이와 같은 편으로 분류되었다.

「경연일기」에서 이이에 의해 적은 '流俗' 또는 '俗流'로, 동지는 '士類'로 표현되고 있다. 그런데 이이는 어떤 인물에 대해 '류속', 속류', '俗士'라 명확히 지칭하는 경우도 많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학문하는 선비를 미워하였다[嫉學問之士]', '도학의 선비를 좋아하지 않았다[不喜道學之士]' 등의 표현을 통해 그의 정체성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또 그보다는 그 정도가 약하지만 '선비를 좋아하지 않았다[不喜士]', '유자를 좋아하지 않았다[不悅儒者]' 등도 모두 류속계 인사들을 묘사하는 표현이었다. 반대로 '학문의 선비', '도학의 선비', '유자'란 곧 사류를 표상하는 단어들이었으며, '善類' 또한 사류가 자신들을 가리킬 때 사용한 표현이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류속'과 '사류'에 해당하는 인물들은 누구이며, 이들은 어떤 특징을 지녔을까? 먼저 「경연일기」에서 선조 즉위 초, '류속' 측 인사로 이이가 평가한 인물들의 이름과 官歷, 그리고 이이의 인물평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특히, 선조 2년 김개의 발언 때, 이이가 그의 후견인으로 지목한 인물들을 중심으로 하였다.

[표 3]「경연일기」 속 선조 즉위 초 '류속' 인사들

이름	생몰년	급제 시기	선조 즉위 초 관직	특이사항	이이의 평가
홍섬	1504(연산군10) ~1585(선조18)	1531(중종26)	우의정, 좌의정	선조 2년, 김개의 배후로 지목됨	暹本以庸才 循資以致相位 / 暹有文名 無操守 容身保祿而已

참조.

홍담	1509(중종4) ~1576(선조9)	1539(중종34)	병조판서, 이조판서	홍섬과 사촌. 선조 2년, 김개의 배후로 지목됨	居家有孝友之行　立朝著廉潔之名 處事多幹能之才 流俗孰不以爲賢者乎 / 曇若見持身異於流俗則已疑其僞矣
김개	1504(연산군10) ~1569(선조2)	1540(중종35)	형조판서	선조 2년, 개혁적 신진세력에 의해 탄핵됨	鎧以舊臣　持身居官　稍稱府簡而爲人剛愎自信　不喜道學之士見人異於流俗 則必深嫉之
송순	1493(성종24) ~1582(선조15)	1519(중종14)	우참찬	선조 2년, 김개의 배후로 지목됨	曇甚怒　尤忌士類　思所以逐之時舊臣如曇從兄右相暹判書宋純及金鎧　皆與曇合　先用純爲大司憲　將攻士類
권철	1503(연산군9) ~1578(선조11)	1534(중종29)	좌의정, 우의정	·	轍稍有才氣 而性鄙俗 自少歷歫淸顯 位極人臣 而惟以保全爵祿爲務 爲世所輕
정대년	1503(연산군9) ~1578(선조11)	1532(중종27)	우의정	선조 5년 우의정 제수, 양사의 논박으로 취소	大年雖粗有淸儉之行　而不學無識 所存凡俗 且不喜儒者 故人望不歸
오겸	1496(연산군2) ~1582(선조15)	1532(중종27)	우의정	·	謙尋免　謙立朝　外雖謹幹　內乏淳實　久爲贊成　不得拜相　知士類不與　乃乞骸骨歸羅州 / 是時士類雖據淸要　而大臣皆是流俗大小官議論矛盾　朝廷乏淸和之氣　　姦人之不得志者頗伺閒隙及吳謙朴忠元相繼被論　大官之庸碌者　咸懷不平之心

류속은 이이가 '舊臣'이라 지칭한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중종대 중후반에 급제하여 명종 말~선조대 즉위 초에는 대신급의 자리에 있던 인물들이다. 홍섬, 홍담, 김개, 송순, 권철, 정대년 등이 해당 인물로, 이들 가운데는 권철과 같이 명종대 이량에게 협조적인 모습을 보인 인물이 있었다.[169] 그러나 사류와 가장 격렬하게 충돌한 인물인 홍섬은 오히려 이량에게 배척되어 '死地에 이르기 직전 심강에 의해 겨우 구제'되기도 하였다.[170] 그리고 이들 중에는 행실이 매우 청렴 개결하다는 평이 많았고, 이러한 사실은 이이도 분명히 인정하는 점이었다. 가령 이이는 김개에 대해서는 '청렴개결하다는 평이 있다' 하였고, 홍담에 대해서도 '조정에 나와 청백하고 간정하다는 칭

169) 권철은 당시 이량의 최측근까지는 아니지만, 주변 세력 정도로 지목되고 있었다[김우기, 2001『朝鮮中期 戚臣政治硏究』, 집문당, 84~85쪽].

170)『명종실록』권29, 명종 18년 10월 4일(기유)

찬이 있다'고 적고 있다. 따라서 이이에 의해 류속으로 분류된 인물들을 권신체제 관련 인사들 또는 부정부패 등 오로지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인사들로 특징지을 수 없으며, 그와 다른 기준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한편, 예외적이며 문제적 인물로서 이준경이 있다. 그는 명종 말에서 선조 5년까지 영의정으로 복무하면서 혼란의 정국에서 가장 무게감을 지닌 신료였다. 특히 명종 사후 선조로의 왕위 계승이 별 탈 없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정국이 안정을 찾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 인물이었다.[171] 이이는 그를 사류로 분류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분명하게 류속이라 칭하지도 않았다. 이이는 그에 대해 양가적 평가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이 역시 다른 사류들과 마찬가지로 이준경이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것에 대해, 그리고 기존의 정책들을 고수하려는 태도에 대해 불만이 많았다. 그러나 그는 이준경이 '마음 속으로 선한 이들을, 사류를 보호할 생각'이었다고 믿고 있었다. 즉, 무엇보다 이준경이 사류를 해칠 생각은 없었다고 보았기에 명백한 적으로는 간주하지 않았다. 그의 청렴함 역시 인정하는 바였다.[172]

다음으로 선조 즉위 초의 조정에는 [표 1]의 집단과 비슷한 시기인 중종 말에 관직에 진출하였으나, 정치적 사건 등의 이유로 인해 명종 연간에는 중앙 조정에서 활동하지 않은 인물들이 있었다. 대표적으로 이황은 명종대 중후반의 기간에 대체로 관직에서 물러나 고향에 머물렀으며,[173] 조식은 아예 관직 진출 자체에 의지를 보이지 않은 데다 공개적으로 문정왕후의 정치개입을 강하게 비판하였다. 이들이 자발적으로 재야에 머무르고자 했다면, 백인걸, 유희춘, 노수신 등은 을사사화에 연루가 되어 유배에 처해졌다가 선조 즉위 후 해배되어 다시 조정에 들어올 수 있었다. 그런데 이들에 대한 이이의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이지 않았다. 이이의 불만은 "학문이 정밀하지 못하다(백인걸)"거나, "世務에 식견이 없다(유희춘)", "기절이 위축되었다(노수

171) 이준경의 일생과 정치 활동 등에 대해서는 '정재훈, 2010「東皐 李浚慶의 정치적 역할과 정치사상」『한국사상과 문화』55; 송웅섭, 2013「동고 이준경의 避禍와 朋黨 인식」『지역과 역사』33'을 참조.

172) 이준경에 대한 이이의 평은 '『율곡전서』 권28,「경연일기」 명종 22년 5월 기사; 『율곡전서』 권28, 선조 2년 2월 기사; 『율곡전서』 권28, 선조 4년 5월 기사; 『율곡전서』 권29,「경연일기」 선조 5년 7월 기사' 참조.

173) 이황의 생몰년은 1501(연산군7)~1570(선조3)이며, 급제 시기는 1534년(중종29)이다.

신)” 등 인물에 따라 다양하였다. 그 공통점을 추출하자면, 이들이 조정에 복귀하였지만, 막상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제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표 4] 「경연일기」 속 선조 즉위 초 복관 인사들

이름	생몰년	급제 시기	선조 즉위 초 주요 관직	특이사항	이이의 평가
백인걸	1497(연산군3) ~1579(선조12)	1537(중종32)	홍문관 부제학, 대사간	조광조의 문인 / 을사년 피화, 선조 즉위년 복관	仁傑久廢復用 猶忼慨論議 不以老自沮 人倚爲重 / 仁傑志氣不羣而學術麤疏喜於敢言亦不適用時
유희춘	1513(중종8) ~1577(선조10)	1538(중종33)	홍문관 응교	을사년 피화, 선조 즉위년 복관	博覽强記 亦有時譽 /希春多讀古書成誦 而實無眞知 且於世務茫然無識見
노수신	1515(중종10) ~1590(선조23)	1543(중종38)	홍문관 부제학, 대제학, 이조판서	을사년 피화, 선조 즉위년 복관	以文行少有重名 擢魁科 歷淸要 乙巳 姦黨忌其名遠竄之 守愼謫中問學益精 有時吟詠 多發於忠君愛親之至情 著夙興夜寐箴註旨意精明 士林傳誦 淸名益播 / 以盧守愼爲吏曹判書 守愼起自謫中 不久秉銓 朝野皆賀得人 但守愼懲於禍患 氣節消縮 其爲政事 一遵流俗模樣 無擧錯得宜之實 士林失望 / 守愼判吏曹 政事無可觀 或循私請 及拜相 亦無建明 識者短之

마지막으로, 「경연일기」에서 선조 즉위 초 조정에서 활동한 인사 가운데 이이가 사류로 분류한 인사들이 있었다. 이들의 이름과 官歷, 그리고 이이의 인물평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특히, 명종말 이량 세력에 의해, 선조 2년 김개에 의해, 그리고 선조 4년 이원경에 의해 제거 대상이 된 인물을 중심으로 하였다.

[표 5]「경연일기」속 선조 즉위 초 '사류' 인사들

이름	생몰년	문과 급제 시기	선조 즉위 초 주요 관직	특징	이이의 평가
허엽	1517(중종12) ~1580(선조13)	1546(명종1)	대사간	명종 18년 이량 일파의 탄핵 대상	雖前輩 而推許孝元 故年少士類尊之爲主 / 自少以學問自許 而議論顚錯 至於文義 亦不通曉 … 雖自以爲好善 而是非不明 取人多錯
이후백	1520(중종15) ~1578(선조11)	1555(명종10)	도승지	명종 18년 이량 일파의 탄핵 대상 / 선조 2년 김개의 탄핵 대상 / 선조 4년 이원경의 공격 대상	季眞(李後白)子膺 (盧禛)稍有士望 第未知合於相位也 / 後白淸謹奉公 大臣(朴淳)薦之 / 金繼輝李後白 皆人望而人目爲沈黨者也 / 後白爲銓長 務崇公論 不受請託 政事可
오건	1521(중종16) ~1574(선조7)	1558(명종13)	사간원 정언, 이조좌랑	선조 4년 이원경의 공격 대상	健少好學 從曹植遊 / 作銓郎 務恢公道 爲人淳實果敢 遇事直前 無所回撓 … 上意厭士類 而流俗之勢日盛 健度不能有爲 乃棄官而歸
박순	1523(중종18) ~1589(선조22)	1553(명종8)	이조판서, 우찬성	선조 2년 김개의 탄핵 대상 / 선조 4년 이원경의 공격 대상	淸介有志操 少事徐敬德深尊仰之 立朝 常以憂國爲心 至是爲善類宗主 惓惓以接引名士爲務 其於流俗 視之蔑如也 大臣頗不悅
기대승	1527(중종22) ~1572(선조5)	1558(명종13)	홍문관 직제학, 좌승지	명종 18년 이량 일파의 탄핵 대상, 선조 2년 김개의 탄핵 대상	少以文學名世 … 旣登第淸名大著 … 樑敗 仕益顯 士類推重 以爲領袖 / 大升旣與流俗不合 又爲識者所不取 自上亦待以尋常 鬱鬱不得志 棄官而去
심의겸	1535(중종30) ~1587(선조20)	1562(명종17)	우승지, 대사간	명종비 인순왕후의 동생	奇大升沈義謙 方有時望
정철	1536(중종31) ~1593(선조26)	1562(명종17)	이조좌랑, 홍문관 지평	선조 2년 김개의 탄핵 대상	澈忠淸剛介而喜飮酒 醉必失儀 職者短之
윤두수	1533(중종28) ~1601(선조34)	1558(명종13)	대사간	윤근수의 형, 명종 18년 이량 일파의 탄핵 대상	·
윤근수	1537(중종32) ~1616(광해군8)	1558(명종13)	사간원 사간, 홍문관 직제학	명종 18년 이량 일파의 탄핵 대상	·
이이	1536(중종31)	1564(명종19)	홍문관 교리	·	·

	~1584(선조17)				

사류 집단은 대체로 명종대 중반 이후에 급제하여 관직에 진출한 인물들로, 명종대 말~선조대 초반에는 낭관급의 직위에 있었다.[174] 선조 초년의 시점에서 이들은 조정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인물들이기에 「경연일기」에서는 '新進'으로도 표현된다. 이들 중에는 이황이나 조식 또는 당시 이미 고인이던 서경덕(1489~1546)의 가르침을 직접 받은 경우가 많았다. 허엽과 박순은 서경덕의 제자였으며, 기대승과 이이는 이황의 가르침을 받았으며, 오건은 조식의 제자였다.

문정왕후 사후부터 선조 즉위 초, 정계에서 고조되던 정치적 긴장과 갈등은 기본적으로 [표 5]의 인물들이 조정에 새로운 흐름을 형성하면서 형성되었다. 상대적으로 젊고, 낮은 직위에 있었으며, 개혁에 보다 의욕적이었던 이들은 당시 조정의 고위층에 있던 [표 3] 인사들을 비판하며 이들과 대립각을 세웠다. 그리고 [표 3] 인물들은 [표 5] 인사들의 이러한 행태와 주장에 대해 거부감과 불만을 표출하였다. 앞서 본대로, 그들 사이의 갈등은 단순한 의견 충돌을 넘어 신진 인사들이 정치적 탄압을 걱정할 정도로 격화되기도 하였다.

「경연일기」에서 이이가 '구신'과 '개혁적 신진세력'을 각각 일관되게 '류속'과 '사류'로 지칭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가 그들 사이의 갈등을 단지 직위의 高下에 따른 갈등이 아니라 가치 지향의 차이에 따른 일종의 정책 갈등으로 파악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실록이나 동시대 다른 인물들의 기록에서는 '세속의 경향'이라는 일반적 의미 외에 하나의 세력을 지칭하는 용어로 '류속' 또는 '속류'이란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는 것과 달리, 「경연일기」에 유독 그러한 의미로 집중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만큼 이이가 이 시기의 정치적 대립 구도와 양자의 입장 차이를 예민하게 인지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174) 선조 즉위 당시 6조의 판서와 낭관들의 명단은 '『선조실록』 권1, 선조 즉위년 11월 7일(무오)' 참조.

3) 이이의 '류속'·'사류' 인식과 '류속' 구신 비판

이이가 「경연일기」에서 사용한 '류속'과 '사류'라는 호칭은 각 세력이 스스로를 그렇게 부른 명칭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자신들이 진정한 士라고 생각하는 세력, 즉 자칭 사류 세력이 자신들과 대립 지점에 있는 집단을 류속이라 낮추어 부른 것임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그렇기에 사류들은 자신들을 '眞儒'라고 칭하였고, 이에 대해 류속 인사들은 강한 거부감을 표하기도 하였다.[175]

그렇다면 이이는 본인이 자기편으로 분류한 사류, 그리고 정치적 적대세력으로 이해한 류속을 어떤 존재들로 인식하고 있었는가? 이에 대해서는 두 개의 자료를 참고할 수 있다. 그 중 하나는 선조 2년 9월의 「옥당진시폐소」이고, 다른 하나는 선조 5년 7월의 「논붕당소」이다.[176] 이 두 글은 공통적으로 이이가 구신들에 의해 사류가 크게 위협받고 있다고 느낀 상황에서 제출된 것들로서, 그가 생각하는 사류 그리고 그 대립항으로서 류속의 정체가 대조적으로 묘사되고 있다.

첫째, 「옥당진시폐소」는 명종의 大祥을 마치고 선조의 본격적인 새 정치가 시작되는 시점에 주요 정국 과제 9가지를 제시한 글로서, 이미 문소전 전례 논쟁을 거치며 신·구 간의 갈등이 표면화되고 고조되던 상황에서 제출된 것이다.[177] 그 중 세 번째의 조항이 "기미를 살펴 사림을 보호할 것[審幾微以護士林者]"이었다.

> 마음으로는 古道를 사모하고, 몸으로는 儒者의 행동을 신칙하고, 입으로는 法言을 말하고, 公論을 부지하는 자를 士林이라 한다. 사림이 조정에 있으면서 사업을 펼치면 나라가 다스려지고, 사림이 조정에 없고 그들의 말을 空言이라 여기면 나라가

175) 이이의 증언에 따르면, 홍담은 "진유가 어찌 오늘날의 세상에 나오겠는가. 지금 스스로 학문이라 하는 것은 모두 가짜이다"라고 하였다고 한다[『율곡전서』 권28, 「경연일기」 선조 2년 6월(33면 가)].

176) 정만조를 비롯해 이이의 붕당론을 탐핵한 기존의 연구는 주로 선조 5년의 「논붕당소」를 다루고, 「옥당진시폐소」는 분석하지 않았다. 그러나 「옥당진시폐소」 역시 신·구 갈등의 구도를 염두에 두고 작성되었다는 점에서 함께 파악해야 하는 자료이다.

177) 이에 대해서는 제1장 2절 '「동호문답」의 君臣論과 도덕정치의 이상' 참조.

어지러워진다. 옛부터 군자와 소인의 진퇴에 다스림과 어지러움이 달려 있는데, 機關은 항상 소홀한 데서 발생하였다.[178]

이 조항의 서두는 사림의 정체성 그리고 그들의 정치적 상태와 治亂의 관계에 대해 말하는 것으로 시작하였다. 먼저 사림의 지향, 행동, 발언, 정치적 역할 등을 통해 사림을 규정하는데, 그들에게 이 네 가지는 각각 별개의 사항이 아니라 동시에 수행되어야 할 것들이었다. 즉, 사림이란, 古道를 경세 질서의 모범으로 추구하고, 행동거지와 말은 儒者로서 품격을 지키며, 정치적으로 올바른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들이었다. 다음으로, 이들 사림이 조정에서 자신들의 뜻대로 정책을 펼칠 수 있으면 다스려지고, 이들이 정치적 힘과 발언을 갖지 못하면 어지러워진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즉, 사림으로서 정체성을 지닌 집단이 관료 조직에 포진하여 이들에 의해 정책 시행이 이루어질 경우 다스려질 수 있다는 것이 이이의 생각이었다.

그런데 이이가 위와 같은 발언을 한 이유는 결국 사림 집단이 조정에서 자신들의 뜻을 정책으로 구현하는 데 따르는 위험성을 말하기 위함이었다. 여기서 이이는 사림을 공론을 부지하는 자들, 정치적으로 올바른 견해를 제기하는 자들임을 강조하고 있다. 즉, 그들이야말로 사사로움을 추구하기보다 공공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마음[公心]을 지닌 자들이었다.[179] 그런데 문제는 그런 그들이 사사로움을 추구하는 소인에 의해 화를 당하는 경우가 역사적으로 많았다는 사실이었다. 위의 말에 이어 이이는 기묘사림이 "공론을 부지하다" 남곤·심정에 의해 화를 입은 사례, 을사년의 賢人들이 마찬가지로 "공론을 부지하다" 윤원형·정순붕·이기에 의해 화를 입은 사례를 제시하였다.

흔히 '사림파'에 대한 정의로 많이 거론되는 위의 구절은 단지 일반론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에서 한 말이 아니라 구체적 상황을 염두에 둔 발언이었

178) 『율곡전서』 권3, 「옥당진시폐소」, "夫心慕古道 身飭儒行 口談法言 以持公論者 謂之士林 士林在朝廷 施之事業則國治 士林不在朝廷 付之空言則國亂 治亂所係 而機關常發於所忽焉"

179) 이념형으로서 공론의 의미는 다수라는 숫적인 측면보다 논의를 제기하는 주체의 마음이 얼마나 公的인가가 핵심 요소라는 견해를 새롭게 제기한 연구로는 '김경래, 2012 「조선 공론정치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제안: 李珥의 公論개념을 중심으로」『사학연구』 105' 참조.

다. 같은 항목에서, 그보다 몇 달 전 기묘사림을 빗대어 개혁적 신진세력을 비난한 김개의 발언을 문제 삼고 있는 점을 통해 이를 알 수 있다.[180]

> 얼마 전에도 간사한 자가 감히 편벽되고 터무니없는 논의를 경연 석상에서 남발하여 사림에 화를 끼치려 하였으나 다행히 성상께서 밝게 살핀 덕분에 간사한 계책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 어찌 조정에 간사하고 아첨하는 자가 없다고 할 수 있겠으며, 기미를 소홀히 할 수 있겠는가. 간악함은 하나의 모습만이 아니며, 사람을 보는 것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 사람 중에는 진실로 행동이 청렴결백하고, 평소 忠信한 것 같으나, 古道을 좋아하지 않고 유자를 깊이 미워하여 종국엔 賢人을 방해하고 나라를 병들게 하는 데 이르게 하는 자가 있다. 또한 겉으로는 士類를 가탁하지만 속으로는 行檢이 없고 그저 들러붙어서 영향력을 빌어 뜻을 이루게 되면 利慾의 사사로움을 추구하여 끝내 조정을 흐리고 어지럽히는 자가 있다. 만약 그들을 분명하게 판별하고, 결단력 있게 끊어내지 않는다면, 소인에 의해 미혹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181]

이이는 김개를 '간사한 자'로 규정하고, 그를 군주를 미혹하여 결국 사류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인물의 전형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리고 김개에 의해 다시금 과거와 같이 사림이 화를 입을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을 표출하고 있다. 여기서 이이는 사류 또는 군자와 대조적인 문제적 인간형의 두 유형을 제시하고 있다. 그 하나는 행동은 청렴결백하고 충신하나, 고도를 좋아하지 않아 유자를 미워하는 인간이다. 즉, 그의 개인적 행실은 전혀 문제될 게 없으나, 경세 질서의 구상에서 사류와 가치 지향이 분명하게 다른 인물들이다. 그렇기에 그들은 정책이 충돌할 때, 사류에 위해가 될 수 있었다. 앞서 보았듯이, 개인적인 청렴성에서는 이이도 인정했던 이준경, 홍섬, 홍담과 같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였다. 다른 하나는 본인의 입으로는 사류라 칭하지만, 막상 그의 행실은 사류의 그것과는 거리가 있는 자들이다. 이들은 자신의

---

180) 김개 사건에 대해서는 제1장 3절 참조.

181) 『율곡전서』 권3, 「옥당진시폐소」, "頃者 有一憸邪 敢以詖遁之說 濫發經席之上 將禍士林 而幸賴天鑑洞照 姦謀不售 … 豈可謂朝無憸佞 而輒忽幾微乎 姦細非一端 觀人亦多術 人固有行之似廉潔 居之似忠信 而不悅古道 深惡儒者 終至於妨賢病國者焉 亦有外託士類 內無行檢 攀附以假吹噓之力 得志方濟利欲之私 終至於濁亂朝著者焉 若非辨之明而決之斷 則不爲小人之所惑者幾希矣"

이익과 욕심을 채우는 세속의 인물들과 다르지 않았다. 따라서 이들 역시 언제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류를 해칠 수 있었다.

둘째, 「논붕당소」는 앞서 보았듯이, 이준경이 죽기 직전에 올린 유차에 대해 반발하며 올린 글이다. 이 글은 이이가 붕당에 대한 이론을 본격적으로 제시한 첫 글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또 류속에 대한 그의 인식을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글의 내용은 편의상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초반부는 이준경의 '破朋黨' 논의를 집중적으로 성토하고 있으며, 중반부는 이준경이 유차에서 언급한 구체적 구절들을 지적하며 비판하고 있다. 마지막 종반부에서는 기묘사림의 사례를 들며 재차 파붕당설의 위험성에 대해 강조한다.[182]

먼저 전반부는 이준경의 사람됨에 대한 비판으로 시작한다. 그는 식견이 명석하지 못하고, 재능과 기량이 부족하며, 남보다 뛰어난 듯 스스로를 높이는 것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이준경의 평소 사람됨을 문제 삼음으로써, 결국 그의 파붕당설 역시 신뢰할 수 없다는 암시를 주기 위함이었다. 그런 다음 이이는 아래와 같이 본격적으로 그의 파붕당설을 비판한다.

> (가) 아, 붕당의 설이 어느 시대에 없었겠는가. 오직 군자인지 소인인지를 살피는데 있을 뿐이다. 만약 군자라면 천명 백명이 붕을 이루어 많으며 많을수록 좋다. 만약 소인이라면 한명이라도 용납할 수 없는데 하물며 黨이겠는가. 만약 邪正을 묻지 않고 붕당을 의심하여 깨트리고자 한다면, 東京에서 벌어졌던 黨錮의 禍와 백마강에서 있었던 淸流의 참혹함이 없으리라 장담할 수 없다. 한명의 임보가 당나라를 망칠 수 있으며, 한명의 채경이 송을 망칠 수 있으니, 소인이 난을 빚음이 어찌 그 무리가 많아야 되는 것이겠는가. 자고로 붕당을 논한 것은 구양수의 논의가 가장 낫고, 주자가 유정에게 한 편지가 가장 절절하다. 전하께서 그것을 보면 군.자소인의 情狀을 밝게 볼 수 있을 것이다.
>
> (나) 다만 오늘날의 일을 두고 말한다면, 이준경이 말한 붕당이란 것이 어떤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인지 모르겠다. 지금 권간이 모두 사라지고, 나머지 도당들도 자취가 없다. 비록 소인이 없다고는 말할 수는 없어도, 아무도 감히 공공연하게 떼 지

182) 이는 어디까지나 이이 본인의 구분이 아니라, 글의 이해를 위한 필자의 편의적 구분이다. 초반부는 '처음~今人將死 其言也惡 嗚呼異哉', 중반부는 '臣竊取浚慶之辭~其可因一老臣臨死亂言而破壞也哉', 종반부는 '臣之肝膈 粗陳於前~마지막'으로 구분하였다.

어 비방하지 않으며, 무리를 모아 악을 같이 한 흔적도 없다. 그러므로 붕당이라 지목할 수 없다. … 오로지 군주를 사랑하고 나라를 걱정하며 公을 받들고 私를 막는 자를 손꼽아 세어보면 몇 명 되지 않지만, 公論이 그들에 의해 조금 행해지고 있으니 이준경이 말하는 붕당이 이들을 가리키는 게 아닌가. … 대신들은 권간이 斬伐하는 끝에 두루 변하며 겨우 그 몸을 보전하였다. 그러므로 매번 전날의 화를 경계하며 안정을 힘쓰고 바랐는데, 사림은 그들이 고식적이라 의심하였다. … 거기에 더하여 류속에 부화뇌동하여 古道를 좋아하지 않고, 예전의 일을 모르면서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지금 세상을 논하면서 교묘하게 말하는 것이 風潮가 모두 이와 같다. 일반적인 추세. 학문하는 士를 이름나기 좋아한다 하고, 性理의 설을 迂闊하다 하고, 자신의 직책을 지키는 것을 어리석다 하며, 곧은 말을 거짓말이라고 한다.[183]

(가)의 내용은 이이 역시 구양수와 주희의 붕당론을 수용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이는 본인의 명시적 언급에서도 알 수 있으며, 붕당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군자와 소인이냐가 중요하다는 주장, 그리고 군자의 붕당이라면 많을수록 좋고, 소인의 붕당이라면 한명이라도 용납할 수 없다는 주장은 그 전형적 내용이기 때문이다.[184] 여기에 더하여 이이는 邪正을 따지지 않고 붕당이라고 무조건 깨트리려는 행위의 위험성을 환기하는 것을 빠

183) 『율곡전서』 권3, 「論朋黨疏」, "嗚呼 朋黨之說 何代無之 惟在審其君子小人而已 苟君子也 則千百爲朋 多多益善 苟小人也 則一人 亦不可容也 況於成黨乎 若不問邪正 輒疑其朋黨而欲破之 則東京黨錮之禍 白馬淸流之慘 未必不作也 夫一林甫足以誤唐 一蔡京足以亡宋 則小人之釀亂 豈待有徒之寔繁乎 自古論朋黨者 莫辨於歐陽脩之論 莫切於朱子答留正之書 殿下試取而觀之 則君子小人之情狀 昭然可見矣 … 以今日之事言之 未知浚慶之所謂朋黨者 指何人耶 當今權姦已盡 餘孽熄氣 雖不可謂無小人 而莫敢公然翕訾 無聚徒同惡之迹 則固不可以朋黨目之也 … 惟是愛君憂國 奉公杜私者 屈指無幾 而公論依之得以稍行 浚慶之所謂朋黨者 無乃指此等人乎 … 大臣歷變於權姦斬伐之餘 僅保其身 故每創前禍 務欲安靖 而士林疑其偸 … 加之以流俗雷同不悅古道 嘗前經而不恥 論當世而解頤者 滔滔皆是 以學問之士爲好名 以性理之說爲迂闊 以守職爲愚 以直言爲訐 … 故近年以來 漸與士林相阻 旣與士林相阻 則讒諂之輻輳 理所必然也 去年閒都下喧傳 狐鼠之輩 欲陰害士林 而浚慶爲之主云 … 以今日所言觀之 則安知去年傳播 非虛語也哉"

184) 구양수와 주희의 붕당론에 대해서는 '이태진, 1985 「당쟁을 어떻게 볼 것인가」 『조선시대 정치사의 재조명(2003, 개정판)』, 태학사, 26쪽; 정만조, 1990 「16세기 사림계 관료의 붕당론-歐·朱 붕당론과의 비교를 통하여 본-」 『한국학논총』 12, 81~91쪽)' 참조. 이태진과 정만조는 공통적으로 구양수 이전의 붕당론이 붕당에 대한 전적인 부정이었다면, 구양수와 주희의 붕당론 단계 들어서는 군자의 당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등장하기 시작했음을 주목하였다.

트리지 않는다. 중국의 역사적 경험으로 보건대, 그것은 소인이 군자의 붕당을 해치려할 때 활용하던 전형적 방법이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이이는 이준경의 주장 역시 군자의 붕당을 제거하려는 소인의 기획일 가능성을 제기한다.

(나)에서 이이는 이준경이 제기한 군자.소인의 구도를 역전시킨다. 즉, 이준경이 말한 붕당을 체결한 '소인'들이야말로 군자이며, 그들을 공격한 측이야말로 소인이라는 것이다. 이이가 이해하는 전자의 인물들은 국가와 군주를 위하는 자들로, 그들은 사사로움을 벗어나 公共을 위하고 公道를 추구하는 자들이다. 반면, 이준경을 비롯한 구신들은 '류속에 부화뇌동 하는' 자들로, 그런 사류들을 비웃고 비난하는 자들이다. 게다가 그들은 권간의 집권기에 자신의 몸만을 보전하던 자들로, 사림에 의해 구차한 것으로 비판받는 자들이다. 즉, 그들은 군주에 의해 비판받고, 군자를 비난하는 소인들이었다.

중반부와 후반부에서 이이는 다시 한번 이준경의 파붕당설이 지닌 위험성을 경고하는데, 그 근거로 가장 직접적이며 비근한 기묘사림의 피화가 제시된다.

> 지금 붕당의 설이 군자를 뽑아버리는 칼과 몽둥이가 되고, 소인을 부르는 깃발이 되고 있으니, 장차 한줄기의 공론을 모두 끊을 것이다. … 지금 조정 신하들 중에 크게 간사하고 사특하기가 남곤·심정과 같은 자가 반드시 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또한 이런 자들이 반드시 없다고 말할 수도 없다. 이준경의 말이 한번 나오자 류속의 무리들이 많이 그것을 옳다고 여겼다. 불행히도 남곤·심정의 간사함이 잠복하여 두루 돌아다니다 다시 헐뜯는 말을 아뢰고, 구신으로서 평소 비난하고 비웃음을 품고 있던 자가 그것에 호응한다면 깨트릴 수 없을 정도로 단단해지고, 전하가 또 먼저 받아들인 설에 마음이 움직임을 면할 수 못하면 기묘사화가 오늘날에 다시 일어날 것이다.[185]

185) 『율곡전서』 권3, 「論朋黨疏」, "今者 朋黨之說 爲拔君子之鉗鎚 招小人之麾旌 而將擧一脈之公論 竝絶之矣 … 今者 朝臣之中 大姦大慝如南袞, 沈貞者 雖不可謂必有此人 而亦不可謂必無此人也 浚慶之說一出 而流俗之輩多有是之者 不幸而袞, 貞之姦 潛伏周行 復啓讒喙 舊臣之素懷非笑者 隨聲應響 牢不可破 而殿下又不免爲先入之說所移 則己卯之禍 復作於今日矣"

이이는 이준경이 말을 기화로 공론이 모두 끊길 가능성, 즉 사류들이 모두 조정에서 제거될 가능성을 염려하였다. 류속 구신들은 언제든 간인과 결합할 수 있는 존재들이었으며, 그만큼 사류에게 위협이 되는 존재들임이 분명하였다.

이상을 내용을 마무리 하면, 「논붕당소」에서 이이는 류속 구신에 대한 가장 극대화된 경계감을 보여주었다. 이는 이준경이 유차에서 사류를 '소인'이라 지목했기 때문이었다. 이는 사류에 대한 정치적 탄압이 정당화될 수 있는 길을 제시한 것이었으며, 조광조와 기묘사림이 당한 화를 상기시켰다. 그렇기에 이이는 「논붕당소」를 통해 이준경 개인에 대해, 그리고 류속 구신들에 대해 격한 비판을 쏟아내었다. 이후 이이의 류속에 대한 경계 의식은 더 이상 이와 같이 방식으로 표출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앞으로 살펴보듯이, 류속 구신에 대한 경계와 위기의식, 그리고 사화에 대한 염려는 선조 16년 그가 조정에서 완전히 물러날 때까지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

二. 선·후배 士類 간의 갈등과 이이 개혁론의 정립「萬言封事」

1. 鄕約 시행 논란과 이이의 후배 사류 비판

선조 6~7년에 조정에서 향약 시행을 둘러싸고 벌어진 논란은 선조대 초반 정국의 특색과 관료들의 지향을 잘 보여준다. 향약이야말로 일반 민까지의 교화를 시도하는, 삼대지치 구현을 위한 핵심적 장치라 할 수 있었는데, 그에 대해 대신과 신진 관료들 모두가 찬성한 것이다. 언관이 이를 제안하고 대부분의 대신들도 찬성을 표명하자, 선조는 일단 시행을 결정하였다. 일찍이 중종대 초반 국가사업으로 추진되었다가 기묘사림의 패퇴와 함께 중단되었던 것이 50여년 만에 다시 시행이 결정된 것이었다. 그러나 몇 달 뒤 본격적인 실시를 앞두고 선조는 전격적으로 자신의 결정을 번복하였다. 이때 그의 판단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이가 바로 이이였다.

그 동안 활발하게 전개된 16세기 조선의 향약에 대한 연구들에서 특징적인 점은 중종대 향약에 대해서는 조정에서의 논의가 주요 대상이었던 반면, 명종대와 선조대의 경우엔 주로 이황과 이이가 향촌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한 향약안들에 관심이 집중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현상은 이황과 이이가 향촌에서 개별적으로 기획한 향약을 완성형으로 평가하는 시각과 연결되어 있다. 즉, 중종대의 향약 실시는 어디까지나 과도기적 현상이며, 이황과 이이 단계에서 비로소 조선 향약의 전형이 마련되었다는 인식이다. 이때 '조선적 향약'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주요 배경으로 '자치단체조직'인 留鄕所가 주목되었으며,[1] 사림파 이론의 대두와 함께 향약은 사림파가 추진한 향촌사회 자율·자치 기획의 일환으로 평가되었다.[2]

---

1) 柳洪烈, 1933「朝鮮鄕約의 成立」『진단학보』9

그러나 이황과 이이가 향촌에서 기획·실시했던 향약뿐만 아니라, 선조대 조정에서 이루어진 향약 논의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3] 일찍이 중종대의 향약이 조선에서 국가 차원에서 향약을 실시한 유일 사례로서 의미가 있다면, 비록 철회되긴 했지만 선조대의 경우도 시행 명령이 내려진 唯二의 사례이기 때문이다.[4] 그러나 그것이 단지 예외적 경우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만은 아니다. 향약의 始原인 중국 宋代의 그것이 사족 간의 자율적 운영이라는 성격이 강했던 것과 달리,[5] 조선에서 향약은 도입 초기 단계인 중종·선조대부터 사족은 물론 민까지를 대상으로 했다는 점, 그리고 국가 주도의 시행을 추진하는 움직임이 강했다는 점도 조선 향약의 주요 특징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6]

선조대 향약 논의와 관련하여 다음의 두 가지 과제가 더 분명한 해결을 기다리고 있다. 먼저, 중종대와 선조대 향약 운동 사이에는 공통점이 많은지 아니면 차이점이 많은지에 대해서이다. 지금까지 양자 간에 변화와 차이를 강조하는 견해가 일반적이었다면,[7] 최근 이들 사이에 단절적 측면은 크지

---

2) 이태진, 1984「사림파의 향약 보급운동」『한국문화』 4; 한상권, 1984「16·17세기 鄕約의 構造와 性格」『진단학보』 58

3) 다음과 같은 선행 연구들에서도 선조대 초반 조정의 향약 시행 논란의 간단한 개요를 설명하고 있다. '김무진, 1983「栗谷 鄕約의 社會的 性格」『학림』 5, 23~25쪽; 김승태, 1984「율곡 이이의 향약 변용: 서원향약과 해주향약」『홍익사학』 1'. 선조대 조정에서 시행하려 한 향약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는 '한상권, 위의 연구, 27~30쪽'에서 이루어졌는데, 이 글에서 분석 대상은 주로 예조의 시행 절목이었으며, 조정의 논의 과정에서 제출된 다양한 의견들에 대한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4) 김용덕, 1985「鄕約과 鄕規」『한국사론』 8, 218쪽

5) 중국 송대의 향약에 대해서는 'Monika Übelhör, 1989 "The Community Compact of Sung and Its Educational Significance" in Wm. T. de Bary and John Chaffee eds.. *Neo-Confucian Education: The Formative Stage*(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이성무, 1991「여씨향약과 주자증손여씨향약」『진단학보』 71·72' 참조.

6) 양자를 비교한 연구도 이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이근명, 2002「朱熹의 <呂氏鄕約>과 朝鮮社會ㅡ朝鮮鄕約의 特性에 대한 檢討를 중심으로ㅡ」『중국학보』 45' 참조.

7) 한상권, 앞의 연구. 한상권은 중종대와 선조대의 향약운동 사이의 차이로 모두 다음의 세 가지를 든다. 첫째, 중종대에 증손여씨향약을 그대로 사용하였다면 선조대에는 조선의 풍속을 고려하여 변용하였다. 둘째, 중종대에 監司가 중심이 되어 道 단위로 시행하였다면, 선조대에는 향촌마다의 특수성이 반영된 개별적 향약이 시행되었다. 셋째, 중종대의 향약이 신분제의 약화를 추구하는 급진적 성격을 지녔다면, 선조대의 향약은 신분제의 유지 내지 강화를 추구하였다.

않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8] 그런데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요인은 비교의 층위를 같게 하는 것이다. 즉, 중종대 향약 운동을 조정의 논의를 중심으로 검토했다면, 선조대의 경우에도 향촌보다는 조정의 논의에 초점을 맞추어 그것을 국가 정책으로 시행하는 것에 대해 어떠한 입장들이 제출되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럴 경우 선조대 향약 운동과 관련한 또 다른 문제, 즉 본인이 직접 향약을 시행하기도 했던 이이가 왜 전국가적 차원의 향약 시행에는 반대했는지, 일견 모순적으로 보이는 행태를 취한 이유에 대해서도 해결의 실마리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1) 선조 6~7년 향약 시행 논란의 추이와 특징

선조대 향약 시행 논의는 대사간 허엽과 사간원 관원들이 주도하는 양상으로 전개되었다.[9] 선조 5년 10월 대사간 허엽이 향약 시행을 건의했으나, 선조의 강력한 반대로 무산되었다.[10] 허엽은 다음 해 봄 재차 향약 시행을 요청했으나, 이번에도 선조는 허락하지 않았다. 이때 유희춘 역시 경연 자리에서 시행에 난색을 표명하며 선조에게 동조하였다.[11] 사간원은 포기하지 않고 선조 6년 8월, 또 다시 향약 시행을 건의하였다. 그런데 이때 선조는 이전과 달리 일거에 거절하지 않고 일단 삼공과 대신에게 의견을 모으도록 하였다.[12] 향후 약 6개월 간 전개될 향약 시행을 둘러싼 논란의 시작이었다.

그 결과 대부분의 대신들이 시행에 찬성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런데 그들

---

8) 김인걸, 2007「'栗谷鄕約' 再論－養民을 위한 人才 육성－」『한국사론』54, 100쪽

9) 허엽은 나이나 관직 상으로는 선배사류에 해당했으나, 후배 사류로부터 추존을 받고 있었다[『율곡전서』 권29, 「경연일기」 선조 8년 7월(76면 가), "曄雖前輩 而推許孝元 故年少士類尊之爲主"].

10) 『선조실록』 권6, 선조 5년 10월 1일(갑인). 『선조실록』을 보면 이보다 전에 선조 4년에 黃億이란 인물이 향약을 거행할 것을 청하는 상소를 올린 적이 있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향약 시행 논란의 불을 지핀 것은 허엽이었다[『선조실록』 권5, 선조 4년 2월 28일(경신)].

11) 『선조실록』 권7, 선조 6년 8월 10일(기사), "是年春 大司諫許曄等 請行鄕約 上以爲迂闊"

12) 『선조실록』 권6, 선조 5년 10월 1일(갑인)

사이에도 미묘한 차이가 있어 영상 권철, 좌상 박순, 우상 노수신은 즉각 시행하자는 의견을 개진하였고, 영부사 홍섬은 시행에 찬성하되 향약을 거부하는 움직임을 예상하며 선조의 강한 의지가 중요함을 덧붙였다. 유일하게 판부사 이탁만이 국가 차원의 강제적 시행에 반대하고, 대신 책을 印刊하여 서울과 지방에 반포하여 자율적으로 실시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다.[13] 이처럼 삼공과 대신은 대체로 즉각 시행에 찬성하는 의견이 많았지만, 선조가 채택한 것은 오히려 이탁의 견해로서 일단 증손여씨향약을 책으로 찍어 보급하기만 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14] 뒤에 드러나듯, 그의 본심은 시행 자체에 반대하는 입장이었지만, 신하들의 요청에 나름의 타협안을 모색한 것이었다.

그러자 사간원은 곧장 반발하며, 조정에서 강제하지 않으면서 자율적인 실시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재차 국가적 차원의 시행을 촉구하였다.[15] 그러나 선조는 이전의 결정을 그대로 밀고나가, 며칠 후에는 "여씨향약을 인출하여 서울은 동몽훈도, 외방은 향교나 마을학장이 주도하여 그 의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형편에 맞게 거행하라"며 여전히 시행은 자율에 맡기고자 하였다.[16] 하지만, 국가 주도의 향약 시행을 추진하는 세력의 요구는 계속되었다. 사간원뿐만 사헌부와 홍문관도 가세하여 三司가 함께 누차 건의를 올렸으며,[17] 2품 이상 대신들의 요구도 재차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18] 그러자 결국 선조도 입장을 바꾸어 9월 중순경 전격적으로 국가 차원의 향약 시행을 결정하였다.[19] 이후 예조는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시행 절목 마련 작업

---

13) 『선조실록』 권7, 선조 6년 8월 17일(갑자)
14) 위의 자료.
15) 위의 자료, "然而命令不出於朝廷 則雖敬奉行 人無所據 必有遲疑難據之患 況習於偸薄之民 豈有奮然興起 不令自行之理乎 雖命行之 必無騷擾拘迫之弊 請令該司爲公事擧行"
16) 『선조실록』 권7, 선조 6년 8월 22일(기사), "呂氏鄕約之書 最切於化民成 先爲印出此冊 多其件數 廣頒中外 京則童蒙學 外則鄕校至於村巷學長 多數頒給 使人人皆得閱覽 知其自修之道 或盡從其儀 或略倣其儀 遵而勿廢 行之有漸 以致厚倫成俗之效事 下禮曹." 이때 인출 건수는 진상 5건, 국용 3백건으로 결정하였다[『선조실록』 권7, 선조 6년 9월 9일(병술)].
17) 『선조실록』 권7, 선조 6년 8월 24일(신미)
18) 『선조실록』 권7, 선조 6년 9월 12일(기축)
19) 『선조수정실록』 권7, 선조 6년 9월 1일(무인)

에 돌입하였고, 12월 초에는 교서관의 인쇄까지 모두 마쳤다.[20]

그런데 시행 절목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예조가 새롭게 제기한 요청이 증손여씨향약의 절목들을 그대로 사용하지 말고 그것을 수정하여 사용하자는 것이었다. 예조는 그 이유로 중국 사람과 조선 사람의 생리·기질·습관 등이 다르다는 점을 들었다.

> 향약의 글은 진실로 백성을 교화하고 풍속을 이룩하는 요체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의 生理와 기질·습관이 중국과 같지 않으니, 만약 그것을 시행하려 한다면 반드시 번거로운 것을 없애고 간략하게 하여 土俗에 맞게 함으로써 앞으로 오래도록 사용할 규식으로 삼아야 한다.[21]

일반적으로 이때 예조가 마련한 절목들은 중종대 증손여씨향약을 그대로 사용하던 단계에서 발전하여, 조선의 풍속을 반영한 '조선적 향약'으로 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지표로 설명된다.[22] 그러나 예조의 절목 마련은 동시대에 중국과 조선이라는 공간적 격절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차이들에 대한 수정이라기보다 실상은 이상과 현실 간의 간극에 대한 조정 작업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는 변용하는 항목이 '덕업상권·과실상규·환난상휼' 등의 내용에 해당하는 조목들에 대한 수정이 아니라, 대부분이 모임의 횟수나 의례 등 형식상의 간소·간편화에 치중되어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다.[23] 다시 말해 변용의 목적은 중국과 다른 조선 고유의 상황을 반영하는 내용을 담으려는 의도라기보다 전반적으로 모임의 방식을 간소·간편화하려는 의도였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아래와 같은 수정 항목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20) 『미암일기초』 선조 6년 12월 4일

21) 『선조실록』 권7, 선조 6년 9월 27일(갑진), "鄕約之書 固化民成俗之要 但我國之人生理氣習 與中國不同 若欲行之 必須刪繁就簡 使合於土俗 以爲久遠之規"

22) 대표적으로 '한상권, 앞의 연구, 28쪽.'

23) 이이가 해주에서 실시한 향약들 중에 이러한 경우를 발견할 수 있다. 선조 10년 석담에서 만든 '해주향약'부터 이이 스스로가 "大槩放倣呂氏鄕約 而節目多不同"이라고 표명하였듯이, 소위 4대 규범의 내용을 세세하게 변용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이후 '사창계약속'에서도 다시 내용의 수정이 이루어짐으로써 그 내용이 주희의 증손여씨향약과는 더욱 멀어지게 되었다.

1. 모임 빈도: 매월 1회 모임 → 여러 달에 1번 모임
2. 준비 음식물: 과일·술·면·밥 → 술 1잔, 밥 1그릇
3. 모임 범위: 먼 마을의 사람은 모이기 어려우므로, 부근 사람들이 모이게 할 것
4. 연소자들의 연장자에 대한 禮見: 신년 초, 동지, 四孟月朔 등 총 6회 → 세배 1회
5. 善惡籍: 善籍·惡籍 모두 구비 → 선적만 구비
6. 約正·直月 등의 임원: 士人으로 선출 → 외방에는 士人이 드물고 적으므로, 수령이 약정을 겸하게 함[24]

총 여섯 종류의 변경 항목 가운데 간소·간편화와 관련한 항목이 네 가지나 되어, 모임 횟수의 감축, 모임 시 장만하는 음식의 간소화, 모임 지역 범위의 축소, 연소자의 연장자에 대한 예식 시행 횟수 감축이 이루어졌다. 여기에다 다섯 번째의 항목인 악행을 적는 장부의 폐지 역시 간소·간편화의 목적은 아니었지만, 마찬가지로 참여 구성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 항목인, 지방에서는 수령이 임원을 맡게 한 내용만이 사실상 구성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과 관련 없는 내용이었다.

이처럼 선조대 국가적 차원에서 시행하려 했던 향약은 중종대 향약 시행 과정에서 발생했던 문제점들을 수정·보완하는 방향으로 마련되고 있었음은 중중대의 경우와 달리 惡籍을 없앤 사실로도 알 수 있다. 중종대 향약 시행 시에 가장 논란이 되었던 사안 중의 하나가 향약의 성원들이 '자기들 멋대로 刑政을 사용한다'는 혐의였다.[25] '선·악적이 사사로운 미움에 따라' 운영된다

24) 『선조실록』 권7, 선조 6년 9월 27일(갑진), "蓋我國土瘠民貧 艱於衣食勞於賦役 若令每月一會 則勢所難堪 當累朔而一會 果酒麪飯之設 非資者所能辦 只令酒一巵 或飯一器 務從簡約 外方人居 踈密不齊 若令遠村之人 一處聚會 則不無勞弊 當以附近而相會 少者幼者 於尊長歲首冬至四孟月朔 皆爲禮見 則亦爲煩擾 似當只存歲拜之禮 記善之籍 固主於勸善 不可不速行 記惡之籍 先儒亦有未安勿行之說 蓋出於聖人隱惡揚善之意 約中有過與違約者 宜戒其人 姑勿書籍 以合敬敷五敎之義 且約正直月 必得公正良善之人 乃能服人心而無弊 外方士人稀少處 守令亦當兼約正之任"

25) 『중종실록』 권37, 중종 14년 11월 20일(경술), "上曰 此二人中 當斟酌處之 且鄕約本意 乃德業相勸 其意固美 然近日聞約中之人 自用刑政 至有呈訴法司 而法司亦從其所爲 是刑政在下也 此無乃終至有弊乎 光弼曰 鄕約古人有不得行道者 在鄕中相與爲善之事也 若京中則旣有法司 尤不當爲也 此事臣等將欲啓之 今可曉諭中外 使知其本意 行之可也 近聞工商之人 頻數群聚 不得作業云 此亦有弊 雖京城 若使之死喪相救而已則可也 毋令群聚 自用刑政亦可"

거나,[26] ‘무리지어 모여서는 다른 사람들의 과실을 말하고는 刑罰을 가했다”는 비난도 제기되었다.[27] 이들 비판이 주로 기묘사림이 패퇴한 후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가운데 나왔다는 점에서 이들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곤란하다. 하지만, 이미 그 전에 국가적 향약 시행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행하지 않는 자는 조정에서 죄를 주어야 한다’는 요청이 제기되었던 점,[28] 그리고 조광조 역시 당시의 상황에 대해 ‘본래 편안하고 여유 있게 해야 하는데, 급하게 다그치고 있다’며 우려를 표시한 사실로 볼 때,[29] 중종대 향약 시행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던 인사들이 향약 시행에 강제성을 강하게 부여하려 했음은 분명해 보인다. 그리고 선조대 예조가 향약 시행 절목을 마련하면서 악적을 없앤 것은 바로 이러한 문제가 또 다시 발생할 여지를 사전에 예방하려 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처럼 선조대 조정에서 시행하려 한 향약안은 전반적으로 중종대의 그것보다 간소·간편화 되고, 구속력도 완화된 것이 특징이었다.

그럼에도,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만 같았던 향약 실시 계획은 해를 넘겨 선조 7년 1월에 들어서자 이전과는 다른 상황에 직면하였다. 그 결정적 계기는 이이의 중지 요청이었다. 이이는 시국책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장문의 「만언봉사」에 담아 제출하면서, ‘향약 시행이 아름다운 일이기는 하나 지금의 습성을 가지고 향약을 실시한다면 성과가 없을 것’이라며 시행 명령의 철회를 건의하였다.[30] 그리고 다음 달의 경연 자리에서도 그는 “향약 시행은

---

26) 『중종실록』 권38, 중종 15년 1월 4일(계사), “掌令徐厚曰 近日令中外 皆行鄕約善矣 然十室之邑 雖曰有忠信 亦豈多得 雖在朝廷 少有其人 況外方乎 束縛而行鄕約之道 故人心益偸 風俗益薄 況其善惡籍 率多以私以嫌 故無美事 古人不能申其所懷於天下 故爲此鄕約 而欲化一鄕之人 非以此欲馳驟天下之人也”

27) 『중종실록』 권38, 중종 15년 1월 11일(경자), “灌曰 如是聚會 而人之過惡 皆得言之 至用刑罰”

28) 『중종실록』 권35, 중종 14년 4월 5일(무진), “正言李認曰 前者金安國爲監司時 行鄕約于郡邑 風俗化而爲美 但民情其所未嘗爲 則必不肯從 自上當勸之 其不行者科罪 能行者 可表其鄕閭”

29) 『중종실록』 권37, 중종 14년 10월 10일(경오), “光祖曰 鄕約本意則不如是 今之鄕約大似迫促 甚非王道之事也 其故乃監司 迫而使之行也 京中亦如是 故臣召五部言之矣 治道不可急迫 當以德優游而使民化之 然後可以言治也” 실록 상으로 볼 때 중종대 향약의 국가적 시행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인물은 소위 기묘사림 내에서도 韓忠, 金湜, 金淨, 李延慶 등이었다. 조광조는 이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아직 이르다. 백성을 기르는 일[養民]이 먼저이고 백성을 교화하는 일[敎民]은 나중"이라며 재차 중지를 요청하였다.[31] 사실 이이는 일찍이 선조 6년 9월 향약 시행이 결정된 직후부터 그 시행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다. 하지만 그 당시만 해도 그는 "이미 성대한 법[盛典]을 거행하였으니 중지할 수는 없다"며, 시행을 막을 수는 없다는 입장이었다.[32] 그러나 선조 7년 들어 그 시행이 목전에 다다르자 더욱 적극적으로 시행 중지 요청을 한 것이었다.

이이의 요청을 계기로 선조는 대신들에게 향약 시행에 대해 다시 상의할 것을 명하였다. 대신들 사이에서 찬반 의견이 분분하였지만,[33] 종국에 선조는 향약 시행 명령을 전격적으로 철회하였다. 이때 선조가 예조에 내린 전교의 내용을 보면 이이의 논리가 거의 그대로 반영됐음을 확인할 수 있다.[34] 이에 선조의 결정 번복에 결정적 역할을 한 이이는 조정에서 그 누구보다 향약 시행에 적극적이었던 허엽으로부터 원망을 들어야 했다.[35]

2) 향약 시행에 대한 제 입장들

선조 6년 8월부터 7년 2월까지 6개월 남짓 지속된 논란에서, 향약 시행에 대한 조정 인사들의 입장은 아래와 같이 반대·찬성·유보 등 크게 세 종류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향약 시행 자체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입장이 있었다. 그 대표적 인사는 바로 국왕 선조였다. 당시 정국에서 선조만큼 거리낌 없이 향약에 대해 비판적 인식을 드러낸 인사는 없었다. 선조는 기본적으로 향약이 당시의

---

30) 『율곡전서』 권5, 「만언봉사」 "廣擧鄕約 雖是美事 臣愚竊恐以今之習 徑行鄕約 亦無成俗之效焉"

31) 『선조수정실록』 권8, 선조 7년 2월 1일(병오)

32) 『율곡전서』 권29, 「경연일기」 선조 6년 10월(14면 가), "鄕約是三代之法 而殿下命行之 誠近代所無之慶也 但凡事有本有末 人君當正心以正朝廷 正朝廷以正百官 正百官以正萬民 鄕約乃正萬民之法也 朝廷百官 未底於正 而先正萬民 則捨本而治末 事必無成 今者已擧盛典 不可中止"

33) 『미암일기초』 선조 7년 2월 6일. 이때 어떠한 논의가 오갔는지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다.

34) 『선조실록』 권8, 선조 7년 2월 7일(임자)

35) 『율곡전서』 권29, 「경연일기」 선조 7년 2월(34면 나~36면 나)

조선의 안정과 질서 확립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입장이었다. 그는 향약이 '풍속을 놀라게 한다'라고 하여 신료들의 반발을 불렀고,[36] 향약 시행을 주도하던 허엽 등을 '迂闊하다'고 비난하였다.[37] 그는 시행을 허락한 후에도 "언관이 계속 주장하기 때문에 따랐을 뿐"라며 자신의 본심은 그게 아니었음을 드러내었다.[38] 특히 시행 명령을 취소하기 직전에는 자신은 '처음부터 행하기 어렵다고 보았다'며 일관되게 반대의 생각이었음을 밝혔다.[39] 이이는 이런 선조의 태도를 간파하여, 선조가 본래부터 향약을 하려 하지 않았으며 그렇기에 자신의 말 한마디에 곧바로 결단을 내렸다고 지적하였다.[40]

둘째, 당장 향약을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 있었다. 이들은 가장 적극적으로 향약의 국가적 시행을 추진한 세력으로, 즉각적이며 전면적인 실시를 주장하였다. 이러한 입장에 있었던 인사로는 허엽을 필두로 한 사간원의 관원들이 중심을 이루었고, 이들에 가세하여 선조에게 향약 시행을 요구했던 사헌부와 홍문관의 관료들도 마찬가지였다. 선조가 시행령을 취소하자 이에 반발하며 즉각 시행을 요청했던 성균관 유생들도 같은 태도였다.[41] 이처럼 상대적으로 연소한 신진 관료이자 언론직에 포진해 있던 인물들이 선조대 조정의 향약 시행 논의를 앞장서 이끌고 있었다. 선조 6년, 논란을 촉발한 사간원의 상소는 그들의 생각을 잘 보여준다.

> 간원이 아뢰었다. 인륜이 무너지고 풍속이 어그러져, 안으로는 서울로부터 밖으로는 촌마을까지 天性을 해치고 人紀를 어지럽혀 없애고 있다. … 이것을 구제하는

36) 『선조실록』 권6, 선조 5년 10월 23일(병자), "玉堂入番 趙廷機柳成龍 簡通于柳希春曰 日昨 上答諫院請行鄕約之敎 有曰駭俗云云 鄕約之法 乃先賢祖述先聖賢之遺意而爲之制 古今異宜 雖未可必行於今日 一向以明彝倫厚風俗之盛擧 爲駭俗云爾 則是不以先聖賢爲可信 而治道之無復段可知 至爲未安 欲論此二字之未安之意 未知何如"

37) 『선조실록』 권7, 선조 6년 8월 10일(정사), "臣等伏見朱子增損藍田呂氏鄕約 規模正大 節目詳密 其矯俗之繩墨 爲治之良籍也 淑人心回世道之要 正在於此 而頃者言官論啓 竟閟兪音 物情之堙鬱 愈久而愈極也 其時上敎 旣以爲迂闊"

38) 『선조수정실록』 권7, 선조 6년 9월 1일(계유), "上曰 此言是也 予自顧省 度不能行不欲輕擧 而言者不止 故從之耳"

39) 『선조실록』 권8, 선조 7년 2월 1일(병오), "上曰 予亦初以爲難 當議于大臣"

40) 『율곡전서』 권29, 「경연일기」 선조 7년 2월(34면 나~36면 나)

41) 『미암일기초』 선조 7년 2월 12일

요체는 다만 刑政의 말단에 구애 되서는 안 되고, 반드시 교화를 닦아 밝히고 예전의 더러움을 씻어 없애되 마치 물에 빠진 것을 건지고 불에 타는 것을 끄듯이 서둘러야 백성이 짐승이 되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신들이 朱子가 增損한 藍田呂氏鄕約을 보건대 규모가 정대하고 節目이 상세하니 풍속을 바로잡는 준칙[繩墨]이요 다스림을 위한 좋은 자료[良籍]이다. … 임금이 크게 해보려는 뜻으로 분연히 시행한다면 三代의 제도도 시행하기 어려울 걱정이 없는데 더구나 향약은 大賢이 참작하고 증감하여 만세에 통행하는 규범으로 만든 것이므로 人情에 마땅하고 천리에 맞는 것이요 高遠하며 해괴한 풍속의 일이 아니다. 이것을 우활하다고 여겨서 거행하지 않는다면 무너진 인륜과 어그러진 풍속을 변화시킬 수 있을 때가 없을 것이니 어찌 슬프지 않겠는가. 42)

이들은 "인륜이 무너지고 풍속이 어그러진" 상황을 무엇보다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그것은 "마치 물에 빠진 것을 건지고 불에 타는 것을 끄듯이 서둘러야" 하는 문제로 설정하고 있었다. 이들의 이러한 태도는 이이가 민들의 교화보다는 민생의 안정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제시한 것과 비교된다. 이들은 또한 주희가 증손한 여씨향약을 "만세에 통행하는 규범"으로, 즉 고금에 상관없이 절대적으로 시행 가능한 제도로 평가하였기에, 더하고 덜할 것 없이 조선에서는 그대로 시행하기만 하면 된다고 주장하였다.43) 이러한 점에서 이들은 증손여씨향약의 절목을 수정하여 시행하려 했던 예조의 입장과도 차이가 있었다.44) 이상과 같은 사실로 볼 때, 선조대 조정에서 향약 시행을 주도한 이들의 입장은 일찍이 중종대 초반, 기묘사림을 비롯해 향약의 국가적 시행을 관철했던 인사들의 그것과 유사하였다.

대신들은 사간원처럼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았지만, 향약 시행에 동의하

42) 『선조실록』 권7, 선조 6년 8월 10일(정사), "院啓 彝倫斁壞 風俗悖惡 內而輦轂之下 外而村巷之間 戕賊天性 瀆滅人紀 … 救此之要 不可徒區區於政末 必修明敎化 湔革舊汚 汲汲如拯溺而救焚 然後民免禽獸之歸矣 臣等伏見 朱子增損藍田呂氏鄕約 規模正大 節目詳密 其矯俗之繩墨 爲治之良籍也 … 人君以大有爲之志 奮然行之 則雖三代之制 亦無難行之患 況在鄕約 乃大賢斟酌增損 爲萬世通行之規 宜於人情 合於天理 非高遠駭俗之事乎 若以此爲迂闊而不擧 則斁壞之人倫 悖惡之風俗 無時而可變矣 豈不於悒"

43) 『선조실록』 권7, 선조 6년 9월 12일(기축), "諫院啓 … 夫鄕約之書 旣經兩賢之手 其規模節目 秩然有序 而參酌損益 旣已周備 後之人所憂者 行之不力而已"

44) 예조는 또한 일찍이 향약을 선택적으로, 점진적으로 시행하자는 의견을 제출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선조실록』 권5, 선조 4년 2월 28일(경신)' 기사 참조.

며 그것을 추인하는 입장에 있었다. 흥미로운 점은 선조가 의견을 모았을 때, 이들이 향약 시행에 별 무리가 없을 것을 예상하면서 그 이유로 이미 향촌 단위에서 운영되고 있는 여러 조직들을 거론하고 있다는 점이다. 영상 권철과 우상 노수신은 鄕徒를, 좌상 박순은 契와 香徒가 있음을 언급하는데,[45] 이들이 이들 기존 조직과 향약의 차이를 얼마나 의식하고 있었는지에 대해 분명하게 알기는 어렵다.[46] 하지만 어느 경우든 최종적으로 조선에 구현해야 할 향촌 질서는 국가적인 향약 시행을 통한 것이 되어야 한다고 본 점에서는 사간원과 의견이 일치하였다고 할 수 있다.

셋째, 향약의 필요성과 유용성에 대해서는 동의하나 그 실시 방식 또는 시기와 상황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입장이 있었다. 이러한 입장을 보인 인사들은 즉각 시행을 찬성했던 입장과 달리 조정에서 극히 소수였으며, 이탁·유희춘·이이 등이 여기에 해당하였다. 그런데 그 이유에 따라 반대 입장은 다시 이탁·유희춘의 입장과 이이의 입장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었다.

먼저, 이탁과 유희춘의 경우는 시행 방식과 범위에 대한 문제제기였다. 이들은 향약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서는 시행 추진론자들과 공유하되, 그것을 국가가 정책적으로, 전국적 범위로 실시하는 것에는 반대하였다. 이들은 주희가 張栻 등에게 보낸 편지를 근거로 제시하며, 주희는 어디까지나 여씨향약을 향촌에서 士끼리 하려 했으며, 그마저 쉽지 않다고 보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47] 이들과 같이 주희의 경우에는 국가적 시행이 아니었음을 의식한 경우는 일찍이 중종대 향약 논의 과정에서도 등장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그 당시 이러한 주장이 나온 이유는 국가적 시행을 찬성하는 입장에서, 즉 향촌 단위의 시행을 위해 만들어진 증손여씨향약을 국가적 규모에

45) 『미암일기초』 선조 6년 8월 17일; 『선조실록』 권7, 선조 6년 8월 17일(갑자)

46) 조선시대 향촌에서 시행되었던 여러 제도들에 대해서는 '정진영, 2013 「조선시대 향촌 제 組織과 規約의 '契約'적 성격」『古文書硏究』 42' 참조

47) 『선조실록』 권6, 선조 5년 10월 23일(병자), "柳希春答略曰 鄕約之事 朱子答張南軒呂東萊 皆以爲難行 則其通行一國之未易 亦可知矣"; 『선조실록』 권7, 선조 6년 1월 12일(계사), "按朱子大全 答張敬夫書 論鄕約曰 其實難行 蓋呂氏之約 乃與一鄕同心同志之士爲之 非可通行於天下一國也"; 『선조실록』 권7, 선조 6년 8월 17일(갑자), "判府事李鐸議云 … 臣伏見朱晦菴答張敬夫之書曰 鄕約之書 偶家有藏本 且欲流行其實恐亦難行 如所諭也 然使讀者見之 因前輩所以敎人善俗者 而知自修之目 亦庶乎其少補耳云 於此亦略見古人之意矣"

걸맞게 조정할 것을 요청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는 점에서 이탁과 유희춘의 언급과는 그 맥락과 의도가 정반대였다.[48]

이탁과 유희춘이 국가적 시행을 않는 것이 주희의 뜻을 충실하게 따르는 것이라는 생각이었다면, 향약 추진 세력들은 그들이 주희의 본래 의도를 오해하고 있다며 비판하였다. 다음과 같은 김우옹의 발언은 그들의 인식을 잘 보여준다.

> 얼마 전 經筵官이 주자가 향약은 행하기 어려울까 걱정이다 라고 한 것을 인용하며 말한 적이 있었다. 이것은 매우 그렇지 않다. 교화는 모름지기 위로부터 하는 것인데, 주자는 아랫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행하기 어려웠다. 지금 전하는 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데 무엇 때문에 행하기 어렵겠는가. 오직 힘쓰고 권장할 뿐이다. 만약 진실로 행하기 어렵다면 주자가 무엇 때문에 呂氏의 글을 더하고 덜어내어 후세에 가르침을 전했겠는가. 주자의 뜻은 혹 한때에 행할 수 없을 수도 있다고 말한 것이었으며, 후대의 군주가 본받기를 기대할 수 있을 뿐이었다. 전하가 오늘날 그것을 행한다면 곧 주자의 道가 오늘날에 행해지는 것인데, 어찌 성대한 일이 아니겠는가.[49]

먼저 김우옹은 서신에 등장하는 주희의 말은 사실적 기술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가정적 표현일 뿐이라며 이탁 등과 달리 해석한다. 그리고 주희는 자신의 현실적, 정치적 지위의 한계 때문에 향촌 단위의 실시에 그쳤을 뿐이며, 실상 그는 언젠가 후대의 군주가 자신의 뜻을 실천해주기를 기대하면서 증손여씨향약을 남겼다고 주장하였다. 즉, 지금 조선에서 국가적 규모로 향약을 실시하는 것이야말로 바로 주자의 뜻을 계승하는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

48) 『중종실록』 권36, 중종 14년 5월 19일(신해), "叅贊官金湜曰 呂氏以匹夫 不得行於天下 故但施於一鄕耳 成周之時 立其黨正族師比長 以相勸 其規模行於天下 且一鄕與一國 其勢異也 今以一鄕之規模 而欲行於一國 故或阻礙有爭鬪之事 宜自上倣周之制 大立規模"

49) 『선조실록』 권7, 선조 6년 9월 21일(무술), "頃日經筵官 有引朱子言 鄕約恐亦難行之說云 此甚不然 敎化須自上焉者 朱子在下位 所以難行 今殿下居得致之位 何故難行 惟在勉勵而已 若果難行 朱子何故增損呂氏之書 以垂訓後世耶 朱子之意 政謂縱不能行之一時 猶可待後世王者之取法爾 殿下今日行之 則是朱子之道得行於今日也 豈不盛者 伏願勉之"

한편, 이이의 경우는 이탁과 유희춘의 경우와는 조금 달라서, 시행 시점과 상황에 대한 문제제기였다. 이이의 문제의식의 초점은 향약 실시 대상으로서 민에 맞추어져 있었다. 일찍이 그가 선조 4년 西原에서 실시한 향약은 물론, 선조 9년 해주로 내려간 이후 실시한 각종 향약안들이 민을 구성원으로 포함하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이이가 향약을 민에게 시행하는 것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었다.[50] 다만, '남전여씨향약은 士子끼리 시행하던 것으로, 小民에게 泛然하게 시행해서는 안 된다'는 언급에서 잘 드러나 있듯이, 그는 민에게 향약을 시행하는 일은 '범연하게' 할 것이 아니라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51]

이상을 정리하면, 중종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선조대 조정에서도 증손여씨향약을 전 국가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 향약 논의를 주도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들의 주장이 조정 내에서 상당한 호응을 얻어 실시 결정까지 내려진 점도 같았다. 다만, 향약에 상당한 기대를 표명하기도 했던 중종과 달리 선조는 애초부터 그에 대해 부정적이었다는 점, 그리고 중종대의 논란을 고려하는 가운데 증손여씨향약을 간소·간편화 하고 강제력도 약화시킨 시행 절목을 마련했다는 점이 달랐다. 선조대 조정의 향약 논의에서 또 하나 주목되는 점은 비록 극소수이긴 하나 중종대의 경우와 달리 중간자적 입장의 인물이 등장했다는 사실이다. 이탁·유희춘·이이 등과 같은 이들은 향약 추진 세력과 결정적으로 대립하는 입장은 아니었지만, 그들의 논의에 대해서는 시종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였다. 앞으로 살펴보듯이, 이이는 국가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 그들과 다른 견해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3) 이이의 '迂儒' 비판과 그 이유

50) '서원향약'은 色掌과 別檢으로 양인, 천인 가리지 않고 임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位次에도 庶人이 등장한다. 그리고 '사창계약속'에는 '下人'이 지켜야 할 규범들이 많이 제시되어 있다[『율곡전서』 권16, '서원향약', '사창계약속'].

51) 『율곡전서』 권29, 「경연일기」 선조 7년 2월(36면 가), "謹按 藍田呂氏鄕約 綱正目備 是同志士子 相約而講禮者也 不可泛施于小民也"

선조 6년 10월의 경연 자리에서, 이이는 선조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 예부터 사람들의 소견이 같지 않아, 우활한 선비는[迂儒]는 堯舜의 다스림을 하루아침에 이룰 수 있다 하고, 류속은 古道는 결코 오늘날 행할 수 없다고 여긴다. 둘 모두 틀렸다. 다스림은 모름지기 唐虞를 기약하되, 일의 결과는[事功]은 모름지기 점진적이어야 한다.[52]

여기서 그는 요순의 정치에 대한 두 가지 태도를 모두 비판하고 있다. 먼저 하루아침에 할 수 있다는 '우유'의 입장을 비판하고, 다음으로 요순지치를 결코 오늘날 행할 수 없다는 '류속'의 입장을 비판한다. 그가 보기에 요순의 정치는 '류속'의 말대로 결코 불가능한 목표가 아닐 뿐더러 반드시 지향해야 할 목표였다. 그렇다고 '우유'의 말처럼 그것을 하루아침에 이루려는 것도 곤란하다는 게 그의 생각이었다. 양자를 모두 지양하는 이이가 제시한 대안은 '목표는 당우로 하되, 그 과정은 점진적이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이의 이날 발언은 약 한달 전에 선조가 국가 주도로 전국의 士民을 대상으로 향약을 시행하라고 명한 후 조야에서 그에 대한 논란이 벌어지던 상황에서 나온 것이었다. 즉, 위의 발언은 일반론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그 속내는 향약 시행이라는 구체적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이는 이날 경연의 주요 대화 주제가 향약 시행이었음을 보면 명확해진다. 그리고 '류속'에 대한 이이의 비판이 새삼스러울 게 없는 것에 비해, '우유'에 대한 그의 비판은 이날 처음 공개적으로 등장한다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비판의 초점은 '우유'에 맞추어져 있으며, 그 '우유'란 곧 향약 시행을 주도하던 세력임을 알 수 있다.

향약 논란을 계기로 이이가 '류속' 뿐만 아니라 '우유'에 대한 비판 의식도 강화하고 있음은, 그가 「경연일기」에 이날의 일들을 정리한 후 다음과 같은 추가 기록을 남긴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허엽과 같이 迂妄한 士는 단지 옛날을 사모할 줄만 알고 時宜를 헤아리지 않는다.

52) 『율곡전서』 권29, 「경연일기」 선조 6년 10월(18면 나~19면 가), "自古人之所見不同 迂儒則以爲堯舜之治 朝夕可做 流俗則以爲古道決不可行於今日 此皆非也 爲治須以唐虞爲期 而事功則須以漸進也"

다스림의 도[治道]에 本末과 緩急이 있음을 알지 못하면서, 향약으로써 末俗을 만회하고 커다란 계획을 이루려 하니 또한 잘못이 아니겠는가.[53]

이이가 보기에 허엽과 같이 향약을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들은 理想은 좋으나 현실 인식에 문제가 있었다. 여기서 이이가 그들을 비판하는 지점은 '옛날을 사모하는' 것, 즉 그들의 목표와 지향이 아니었다.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것으로, 그들의 전략 부재와 무지에 대한 비판이었다.

앞서 본 대로 이이는 선조 6년 국가 주도의 향약 시행이 결정되었을 때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였고 결국 그의 말대로 선조는 명을 철회하였다. 향약 시행을 둘러싼 논란에서 이이가 보인 태도는 삼대지치의 구현 방식에 대한 사류 일반과 이이 사이의 인식 차를 잘 보여주는 사안이다. 이이는 다른 사류들과 마찬가지로 요순의 정치를 지향해야 하며 또 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들과 달리 그것을 '점진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즉 양자의 차이는 목표나 방향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구현하는 과정과 방법에 있었다. 따라서 이이가 말하는 "점진적"의 의미, 그리고 그가 요순의 정치 구현을 위해 우선적으로[先], 그리고 근본적으로[本] 해결해야 한다고 보았던 과제는 무엇인지를 이해한다면, 이이와 '迂儒' 사이의 전략적 차이를 해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이가 선조 6년에 시행하려 한 국가적 차원의 향약 시행을 반대한 이유는 한마디로 당시 상황에서 향약을 시행하는 것은 '先後'와 '本末'을 顚倒하는 일이라는 판단 때문이었다. 이때 '선후'의 문제가 民이라는 단일 영역 내에서 '양민'과 '교민' 중 무엇을 먼저 할 것인지를 둘러싼 문제라면, '본말'의 문제는 官과 民이라는 상이한 두 영역에서 어느 부문이 더 근원적인 영역문제인지와 관련되어 있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이는 민에 대해서는, 교화보다 민생의 문제 해결이 우선이라고 생각하였다. 그 역시 경세질서의 최종 목표는 민에 대한 교화까지 이루어진, 즉 삼대지치의 상황이 되어야 한다고 본 점에서 그들과 다르지 않았다. 그

53) 『율곡전서』 권29, 「경연일기」 선조 7년 2월(36면 나), "如曄迂妄之士 徒知慕古 不度時宜 不知治道有本末緩急 而乃欲以鄕約挽回末俗 以升大猷 不亦謬哉"

런데 그가 보기에 당대 조선의 민은 국가의 교화 시도를 감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따라서 국가는 향약을 시행하기 이전에 즉 민을 교화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민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을 선행해야 했다. 이이의 폐법 개혁론과 연결되는 문제의식으로서, 민생 관련 각종 폐법들을 개혁하지 않고, 그들을 교화부터 하려 한다면 이는 先後의 착종이라 할 수 있었다. 이이가 허엽에게 한 아래의 말은 이러한 그의 생각을 잘 보여준다.

> 민을 기르는 것[養民]이 먼저이고 가르치는 것[敎民]은 나중이다. 민생이 곤란한 것이 지금보다 심한 적이 없으니 폐단을 구제하는 데 급히 서둘러 먼저 거꾸로 매달린 것을 풀어주어야 향약을 행할 수 있다. 德敎는 기장밥과 고기[粱肉]와 같으니, 만약 비위가 매우 상하여 죽도 내려가지 않는다면 밥과 고기가 비록 좋더라도 어떻게 그것을 먹을 수 있겠는가.[54]

> 의식이 족한 연후에야 예의를 안다. 춥고 배고픈 민에게 禮를 행하라 강제할 수 없다. … 자고로 민이 도탄에 빠졌는데 능히 禮俗을 이룬 경우가 있었는가? 지금 父子 사이가 비록 지극히 친하더라도 만약 춥고 배고픈 것을 생각하지 않고 날마다 학문을 권하면서 매질을 하면 반드시 서로 떨어질 것이다. 하물며 민이겠는가.[55]

'민생의 안정[安民]' 후 '민의 교화'라는 이이의 입장은 일찍이 「동호문답」에서, 그리고 이후에도 「성학집요」를 비롯한 여러 말과 글에서 그가 지속적으로 주장한 원칙이기도 하였다. 그런데 향약 시행 논란을 전후하여, 이제 민생 구제의 시급함에 대한 이이의 강조는 이전과는 다소 다른 맥락에 놓이게 되었다. 즉, 향약 논란 이전 민생의 안정과 그것을 위한 폐법 개혁에 대한 이이의 요구가 주로 기존 제도의 변통에 주저하던 선조와 대신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면, 이제는 같은 사류 내부에서도 도덕적 교화를 우선하는 인사들에게 더욱 적극적으로 이를 설득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

---

54) 『율곡전서』 권29, 「경연일기」 선조 7년 2월(34면 나), "養民爲先 敎民爲後 民生憔悴莫甚於今日 汲汲救弊 先解倒懸 然後可行鄕約也 德敎是粱肉 若脾胃極傷 糜粥不下則粱肉雖好 其能食乎"

55) 『율곡전서』 권29, 「경연일기」 선조 7년 2월(35면 나~36면 가), "衣食足 然後知禮義飢寒之民 不可强之行禮也 … 今者父子雖至親 若不念飢寒 日撻而勸學 必至相離 況百姓乎"

둘째, 이이는 향약을 통해 백성을 교화하기 전에, 군주 그리고 관료 부문의 문제부터 해결되어야 하며, 그것이 더 근본적인 지점이라고 생각하였다.[56] 이와 관련한 이이의 입장은 아래와 같은 말에 잘 드러난다.

> 향약은 三代의 법인데 전하가 시행을 명하였으니 근래에 없던 경사이다. 그러나 뭇 일에는 本과 末이 있으니, 군주는 마땅히 자신의 마음을 바르게 함으로써 조정을 바르게 하고, 조정을 바르게 함으로써 관료들을 바르게 하고, 관료들을 바르게 함으로써 민을 바르게 해야 한다. 향약은 바로 민을 바르게 하는 법이다. 조정과 백관이 아직 바름에 이르지 않았는데 먼저 만인을 바르게 하는 것은 근본을 버리고 말단을 다스리는 것이니 필시 성취가 없을 것이다. [57]

여기서 이이는 특유의 本末論을 통해 작금의 향약 시행이 근본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말단의 문제부터 해결하려는 일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이때 이이가 인용하는 구절, 즉 '人君當正心~正萬民'은 董仲舒의 말을 차용한 것이다. 진덕수는 동중서의 대책문에 나오는 이 구절을 『대학연의』에 인용하면서, 군주의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것이 결국 세상 모든 일을 바르게 하는 시작이자 근본임을 강조하였다.[58] 즉, 진덕수의 본말론에서 근본은 '군주의 마음'으로서, 조정, 백관, 민, 四方의 변화는 모두 군주의 마음 변화가 연쇄적으로 일으킨 변동의 결과였다. 그리고 일찍부터 『대학연의』를 중시한 조선에서도 일찍부터 이 구절은 같은 의미로 이해되고 자주 인용되었다.

그런데 이이는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근본'와 '말단'의 구도를 약간 변용하였다. 즉, '군주의 마음~조정·백관'까지를 '근본'으로 설정하고, 향약의 일은 바로 민의 영역에서 전개되는 '말단'의 일로 규정하였다. 다시 말해, 이이는 향약을 통해 민간 영역의 변화를 도모하기 전에 반드시 그 근본으로서 군주와 조정과 관료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향약 시행론자들은 그 일은 제쳐두고 말단의 일부터 하려 한다고 보았던 것이다.

그렇다면 이이가 '민을 바르게 하는' 향약 시행의 전제로서, 군주에 대해,

---

56) 김인걸, 앞의 논문, 103쪽

57) 『율곡전서』 권29, 「경연일기」 선조 6년 10월(19면 가), "鄕約是三代之法 而殿下命行之 誠近古所無之慶也 人君當正心以正朝廷 正朝廷以正百官 正百官以正萬民 鄕約乃正萬民之法也 朝廷百官 未底於正 而先正萬民 則捨本而治末 事必無成"

58) 『대학연의』 권1, 帝王爲治之序(奎中 509, 14면 나~15면 가)

그리고 조정과 관료의 부문에서 이루고자 했던 변화는 무엇일까? 그가 말한 '조정을 바르게 하고, 관료들을 바르게 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이며, 아직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상황 판단은 무슨 뜻일까? 이에 대한 해답은 향약의 문제를 넘어, 당대의 정국 상황에 대한 그의 인식 일반에서 실마리를 얻을 수 있다. 그 중 하나는 일찍이 선조 2년, 정철이 구신들로부터 위협을 느끼고 먼저 그들을 공격할 것을 제안했을 때, 이이가 이를 반대하며 한 아래와 같은 말이다.

> 사류는 스스로 지키고 몸을 신칙하며 誠意를 쌓는 데 힘씀으로써, 상의 마음을 얻을 뿐이다.[59]

이이는 사류가 자신의 뜻을 펼치기 위해서는 먼저 군주의 마음을 얻을 것, 즉 군주의 지지를 얻는 것이 필수적이라 생각하였으며, 그가 조광조와 기묘사림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는 지점도 바로 여기에 있었다. 이이가 보기에 기묘사림은 "行道의 요체인 格君"도 하지 못하고, "巨室의 비방도 그치게 하지 못하여" 결국 패퇴하였다.[60] 이이는 국왕 선조의 의지를 보건대, 사류에 대한 신뢰가 없고, 개혁에 대해 적극적이지 않다고 생각하였다. 게다가 앞서 제1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선조 즉위 이래 대신급의 자리에 있는 인사들은 개혁에 미온적이었고, 개혁적 신진세력에 대해 매우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다. 따라서 이이가 판단하기에, 당시의 시점에서 무엇보다 우선해야 할 일은 군주를 '사류'의 정치적 동지로 만드는 일, 그리고 개혁적 인사들이 대신과 같이 조정에서 책임 있는 지위에 포진하는 일이었다.

이상으로, 이이가 국가적 차원의 향약 시행을 반대한 이유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먼저, 이이는 민간에서는 교화의 사업보다는 민생의 해결이 필수라고 보았다. 산적한 민생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국가 교화의 사

---

59) 『율곡전서』 권28, 「경연일기」 선조 2년 7월(36면 가), "爲士類者 莫如自守飭躬 務積誠意 以得上心而已"

60) 『율곡전서』 권28, 「경연일기」 선조 즉위년 10월(22면 나), "古之人 必待學成 乃求行道 行道之要 莫先於格君 惜乎 趙文正以賢哲之質 經濟之才 學未大成 遽升當路 上不能格君心之非 下不能止巨室之謗 忠懇方輸 讒口已開 身死國亂 反使後人 懲此不敢有爲 豈天未欲斯道之行歟"

업부터 실시하는 것은 효과가 없을뿐더러 잘못된 정책이라는 것이었다. 다음으로 그는 민에 대한 교화를 시도하기 전에 군주와 조정 상황의 상황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다시 말해 민을 포함한 전 사회적 변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군주의 지지와 사류의 집권과 같은 정치적 조건의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2. 「만언봉사」의 時宜論·實功論과 '祖宗之法'의 회복

「만언봉사」는 이이 개혁론의 추이에서 볼 때, 「동호문답」과 「성학집요」 간에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저술이라 할 수 있다. 먼저 시기적으로, 선조 7년이라는 제출 시기는 선조 2년의 「동호문답」과 선조 8년의 「성학집요」 의 사이에 해당한다. 보다 중요하게는 내용으로, 「만언봉사」는 「동호문답」의 개혁론을 계승·변용하는 한편, 「성학집요」에 정리되는 이이 개혁론의 완성 내용의 단초를 보여주고 있다. 즉, 법제의 변통과 진실한 실천[實功] 등 이이 개혁론의 중심 이론이 「만언봉사」를 통해 정립되어, 이후 「성학집요」에도 반영된다. 그렇기에 「만언봉사」에 대한 분석 작업은 이이 개혁론의 내용 자체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그것의 변화와 추이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61]

---

61) 철학계는 이이의 '무실론' 또는 '무실사상'을 보여주는 핵심 텍스트로, 「만언봉사」를 주목하였다. 1970년대~80년대에는 대체로 이이의 '무실론'·'무실사상'이 조선 후기 '실학'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입장에서 많은 논의가 제출되었다[이에 대해서는 '황의동, 1998 「제1장 율곡 철학의 실학적 고찰」『율곡 사상의 체계적 이해 2 경세사상편』, 서광사'에 잘 정리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실학'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은 유보하는 가운데, 이이의 철학과 정치 구상에서 '實'의 강조는 여전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대한 논의로는 '황의동, 1991 「율곡의 무실사상」『한국사상사』, 원광대 출판부; 장숙필, 1997 「栗谷의 務實的 修己論」『율곡사상연구』 3; 장숙필, 2001 「栗谷 경세설의 특징: 무실론과 경장론을 중심으로」『율곡사상연구』 4; 맹현주, 2006 「栗谷의 務實思想에 관한 연구」『동서철학연구』 40; 홍원식, 2011 「栗谷學과 實學의 차별성에 관한 연구: 홍대용 등 북학파 실학을 중심으로」『한국학논집』 43; 맹현주, 2012 「율곡 경세론의 실학적 사유 특성」『인문과학연구』 35; 조성환, 2013 「'실천학'으로서의 '실학' 개념: 율곡 개혁론의 철학적 기초」『철학논집』 33' 참조. 이 글은 「만언봉사」에 대해 다음과 같은 과제들이 더욱 탐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이의 해결을 추구한다. 첫째, 「만언봉사」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파악이다. 「동호문답」·「성학집요」와 마찬가지로, 「만언봉사」 역시 이이가 전체 구조와 내용에서 정합적 완결성 추구하며 지은 저술이다. 따라서 글의 일부만이 아니라, 전체를 봐야 부분의 의미도 확연해진다. 둘째, 구성과 내용의 측면에서 「동호문답」·「성학집요」과 비교·검토함으로써, 「만언봉사」의 상대적 위치를 드러낼 필요가 있다. 이는 개혁론의 추이·변화를 보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셋째, 상황 속에서 이해하는 것으로, 제도 변통론에 대해 처음으로 이론적 정립을 한 저술이라는 의의가 지적되어야 하며, 왜 이런 저술을 제출하였는가를 상황을 통해 해명할 필요가 있다.

1) 구성의 특징과 제출 배경

⑴ 구성과 특징

「만언봉사」는 내용상 크게 두 개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반부는 이이가 당시의 정치에서 시급하다고 생각하던 문제와 관련해, 그것의 원리·원칙을 제시함으로써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강조하려는 부분이다. 그 내용은 '때의 마땅함을 앎[知時宜]'와 '성실한 실천에 힘씀[務實功]', 두 가지 주제였다. 먼저 '지시의'는 法制 변통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이다. 중국의 역사적 사례 검토를 통해 자신의 주장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만든 후, 조선의 지난 과거를 돌아본 다음 당대 조선의 현실에 대한 진단을 내린다. 다음으로 '무실공'은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성실함[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이이가 보건대 당시 조선에서 형식과 제도는 이미 존재하나, 제대로 된 실천이 이루어지 않아 결국 실질적 효과는 없다고 판단한 대표적 사안 7가지를 거론한다.

후반부는 '修己治人'의 구도에 기초하여 구성한 부분으로, 이는 다시 '수기'와 '안민', 두 부분으로 나뉜다. '수기'가 군주 자신이 행해야 할 실천을 다룬다면, '안민'은 민에 대한 정책적 차원의 실천 문제를 다룬다. '수기'에서는 군주가 취해야 할 마음가짐, 태도 등으로 모두 네 가지 항목을 든다. 삼대지치 회복의 의지를 가질 것, 학문에 힘쓸 것, 사사로움을 버리고 공공의 태도를 취할 것, 현명한 선비를 가까이 할 것 등이 그것이다. '안민'에서는 민생의 안정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다. 성심으로 아랫사람의 사정을 살필 것, 예산을 절약할 것, 公賤의 選上 법을 바꿀 것, 貢案을 개정할 것, 군역을 개혁할 것 등이 그것이다. 「만언봉사」의 항목 구성을 간단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전반부>

• 때의 마땅함을 앎[知時宜]

1. 중국 법제 변통의 역사

2. 조선 법제 변통의 역사

• 성실한 실천에 힘씀[務實功]
1. 군신 간에 서로 믿는 실공이 없음[上下無交孚之實]
2. 신하들이 일을 책임지는 실공이 없음[臣鄰無任事之實]
3. 경연에서 성취하는 실공이 없음[經筵無成就之實]
4. 현인을 불러 수용하는 실공이 없음[招賢無收用之實]
5. 재난을 만나 하늘에 응하는 실공이 없음[遇災無應天之實]
6. 여러 정책이 백성을 구제하는 실공이 없음[羣策無救民之實]
7. 인심이 선을 향하는 실공이 없음[人心無向善之實]

<후반부>

• 군주의 자기 수양[修己]을 위한 요체
1. 뜻을 분발하여 삼대의 융성함을 기약할 것[奮聖志期回三代之盛]
2. 학문을 부지런히 하여 성의·정심의 노력을 다할 것[勉聖學克盡誠正之功]
3. 편벽한 사사로움을 버리고 지극히 공정한 도량을 가질 것[去偏私以恢至公之量]
4. 현명한 선비를 가까이 하여 깨우침에 도움이 되게 할 것[親賢士以資啓沃之益]

• 민생의 안정[安民]을 위한 요체
1. 진실한 마음으로 아랫사람들의 사정을 얻을 것[開誠心以得羣下之情]
2. 공안을 개정하여 포악하게 거두는 해악을 없앨 것[改貢案以除暴斂之害]
3. 절약과 검소함을 숭상하여 사치의 풍속을 바꿀 것[崇節儉以革奢侈之風]
4. 공노비를 뽑아 서울로 올려 보내는 법을 바꾸어 그들의 고통을 구제할 것 [變選上以救公賤之苦]
5. 군정을 개혁하여 내외의 방비를 튼튼히 할 것[改軍政以固內外之防]

「만언봉사」의 구성을 이전의 「동호문답」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은 특징들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전반부에서 발견할 수 있는 특징으로, 「동호문답」과 「만언봉사」 모두 이이가 당시의 정국 상황에서 가장 절실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안, 즉 시의성이 강한 사안을 제일 서두에 배치하였다. 이는 동시에 양자가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기도 한데, 「동호문답」의 경우 그 내용은 군신 관계였고, 「만언봉사」는 법제의 변통과 진실한 실천이었다. 이는 각각의 글이 제출되

던 시점에 이이가 생각했던 주요 정국 과제가 달랐음을 의미한다. 서술 방식도 공통적인데, 중국의 역사적 사례를 통해 이론적 검토를 한 뒤, 조선의 과거와 현재를 진단하는 식이다.

둘째, 후반부에서 보이는 특징으로, 두 저술 모두 '수기'과 '안민' 항목을 포함하고 있다. 다만 수기와 안민이라는 항목의 명칭과 주제는 같지만, 하부 내용에는 차이가 있다. 「동호문답」의 경우 '수기'는 대학의 팔조목에 따라 '입지~평천하'까지, 수기뿐만 아니라 사실상 치인의 영역까지 포괄하여, 모든 단계에서 군주의 '무실'이 중요함을 강조하는 내용이다. 반면, 「만언봉사」에서 '수기'는 '입지~성의·정심'까지만 다루며, '3. 사사로움을 버릴 것, 4. 현명한 신하를 가까이 할 것' 등이 새롭게 첨가된다. 그리고 새롭게 추가된 내용은 이후 「성학집요」 '수기'편의 '恢德量'·'輔德'장으로 이어진다.[62] '안민'의 경우에도 두 저술 모두 공납제와 군역 문제를 다루고 있는 점은 공통적이나, 그 외의 사항에는 차이를 보인다.

셋째, 「동호문답」의 '교화' 항목이 「만언봉사」에는 없다. 「만언봉사」 뒤에 나온 「성학집요」 역시 「동호문답」과 마찬가지로 '위정'에서 '용현'과 '明敎' 항목을 두어 인재 등용과 민의 교화 문제를 별도로 다룬다. 따라서 '용현'과 '교화'의 항목 설정이 없는 것은 「동호문답」·「성학집요」와 다른 「만언봉사」만의 특징이다. 사실, 「만언봉사」에서도 '무실공'의 마지막에서 '교화의 실상이 없다'며 교화를 문제를 언급한다. 그러나 그 내용은 향약 시행은 아직은 이르다는 것으로, 교화 정책의 실시를 반대하는 내용이다.

정리하면, 「동호문답」와 비교할 때, 「만언봉사」의 구성에서 주목할 만한 특징은 다음의 두 가지이다. 첫째, 시의론과 실공론이다. 글의 전반부에 시의성이 강한 주제를 담고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만언봉사」의 가장 핵심적 주장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만언봉사」는 '안민'의 문제에 집중하고, '교화'의 문제는 비중 있게 다루지 않는다. 이 점은 「동호문답」은 물론 「성학집요」와도 다르다는 점에서 더욱 그 차이가 두드러진다. 그렇다면 이이는 왜 「만언봉사」에서 특히 법제의 변통과 성실한 실천을 강조하려 했을까? 그리고 왜 민생의 안정이라는 주제에 집중하였던 것일까? 이에 대한 대

62) 「성학집요」의 수기편의 항목 구성은 '修己總論·立志·收斂·窮理·誠實·矯氣質·養氣·正心·檢身·恢德量·輔德·敦篤·修己功效'으로 이루어져 있다.

답은 「만언봉사」가 제출되던 상황에 대한 이해를 통해 추론할 수 있다.

⑵ 제출 배경

선조 5년 여름부터 파주에 머물던 이이는 선조 6년 9월, 직제학으로서 다시 조정에 복귀하였다. 그리고 선조 7년 1월, 선조가 천변재이를 이유로 구언 하교를 내리자, 우부승지로서 당대의 시국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상세하게 정리하여 장문의 글을 올렸다. 그것이 바로 「만언봉사」이다. 그렇다면 「만언봉사」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정국 상황에서 제출되었는가? 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 사안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 앞서 제2장 1절에서 보았듯이, 선조 6년 9월에 조정에서 국가적 향약 시행에 대해 최종적으로 결정이 났고, 이제 본격적인 시행을 바로 앞두고 있었다. 즉, 당시 조정에서는 민에 대한 교화의 문제가 그 어느 때보다 역점 사업으로 다루어지던 상황이었다. 그런데 이이는 오히려 교화의 항목을 자신의 글에서 제외하였고, 향약 시행을 주요 문제적 사안의 하나로 포함시켰다. 따라서 「만언봉사」에서 별도의 교화 항목이 없는 것은 다분히 의도적 결과라 볼 수 있다. 교화보다 우선해야 할 과제가 민생의 안정과 그것을 위한 법제의 변통에 있음을 강조하고, 그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기 위한 목적에서 「만언봉사」를 제출하였던 것이다. 글의 전반부에서 시의를 아는 것의 중요성을 제기하며 법제의 변통에 대한 이론을 제시하고, 후반부의 '민생의 안정' 항목에서 세제 등 여러 제도들을 거론하며 변통을 얘기하는 것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선조 6년 11월, 선조가 미출신자들을 臺官에 임명할 것을 승인하였다.[63] 미출신자의 등용은 그해 6월에 시작하였다. 선조는 이조에 미출신자로서 행실이 뛰어난 선비를 천거할 것을 명하였고, 이조가 이지함, 최영경, 정인홍, 조목, 김천일을 천거하자 이들을 모두 6품관에 제수하였다.[64] 8월에는 미출신자인 성운, 한수, 남언경 등을 모두 3품직에 불차탁용하는 파격

63) 『선조실록』 권7, 선조 6년 11월 5일(신사). 실제 임명이 이루어진 것은 김우옹의 독촉이 있고 난 후인, 12월 30일의 일로서, 이때 성혼을 지평에 제수하였다[『선조실록』 권7, 선조 6년 12월 30일(병자)].

64) 『선조실록』 권7, 선조 6년 6월 3일(신해)

적인 조치를 내리기도 하였다.[65] 미출신자의 등용과 대간 임명은 선조 즉위 초부터 개혁적 신진세력이 지속적으로 요구하던 사안으로서, 당시 이이도 건의하였지만 좌절된 적이 있었다.[66] 그런데 이해에는 이이·구봉령·김우옹 등이 같은 사안을 또 다시 요청하자,[67] 선조가 전과 달리 이 요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였다. 선조 즉위 초 이조판서로서 이 제도를 주도적으로 추진하였던 이탁이 이때에는 영의정으로서 이 일에 적극적으로 나섰기에 가능한 일이기도 하였다.[68]

이와 같이, 선조가 향약 시행의 결정을 내리고, 이조의 천거를 통해 미출신자들을 등용하고, 나아가 이들을 대간에 임명하기로 한 사실은 개혁적 신진세력의 기대를 고양시키기에 충분하였다.[69] 그런데 선조 12년 12월 말, 흰 무지개가 해를 꿰 뚫는 현상이 발생하였고,[70] 이에 대해 선조가 아래와 같은 발언을 하여 정국에 논란이 일었다.

> 지금 현명한 선비들이 조정에 있으면서 큰소리를 경쟁적으로 내놓고, 전에 없던 일을 하는 것을 즐긴다. 마땅히 상서로운 일이 이르게 해야 하는데, 도리어 이변이 이르게 하였다. 이는 위에서 古道를 회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바른 말[讜論]을 싫어함을 알 수 있다.[71]

선조는 사류의 발언을 '큰소리'로, 그들의 고도 회복 주장을 '바른 말'이라며 비꼬듯 언급하며, 하늘이 천변 내린 것으로 보아 그것을 싫어한다고 결론 내렸다. 이는 하늘을 빌려, 사실상 사류들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불편한 자신의 속내를 드러낸 것이었다. 그러자 이이를 비롯한 사류들 사이에는

---

65) 『선조수정실록』 권7, 선조 6년 8월 1일(무신)
66) 이에 대해서는 제1장 3절 '이이의 정치적 浮上과 舊臣 비판' 참조.
67) 『선조수정실록』 권7, 선조 6년 11월 1일(정축)
68) 『율곡전서』 권29, 「경연일기」 선조 6년 11월(21면 나).
69) 『선조실록』 권7, 선조 6년 11월 5일(신사), "近以未出身人 擇差臺官事下命矣 … 故群下感殿下有向治之志 莫不喜悅." 16세기 조선에서 遺逸·學生 천거제 시행이 지닌 개혁적 의미에 대해서는 '최이돈, 1989 「16세기 士林派의 薦擧制 강화운동」 『역사학보』 15' 참조.
70) 이로 인해 선조가 구언 하교를 내리게 된다.
71) 『선조실록』 권7, 선조 6년 12월 28일(갑술), "今者賢士在朝 大言競進 喜爲無前之事 宜致詳 而反致異觀 此則 上之不喜復古道 而厭讜論可知矣"

선조의 본심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 의혹이 퍼지게 되었다.[72]

정리하면, 「만언봉사」를 제출할 당시의 정국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있었다. 향약 시행이 결정되고, 미출신자의 등용과 그들의 헌관 임명이 승인되는 등 사류가 추진한 사업들이 실현이 되었다. 그러나 사류의 추진 사업에 우호적 태도를 보이는 듯 했던 선조가 천변을 계기로 한 발언을 통해, 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속내를 드러냈다.

2) 법제의 변통과 진실한 실천의 강조

「만언봉사」에서 이이는 정치의 원리와 사업의 원칙에 대한 선언으로 글을 시작한다. '정치는 때의 마땅함을 아는 것[知時宜]이 귀하고, 사업은 성실한 실천에 힘쓰는 것[務實功]이 중요하다'는 언급이 바로 그것이다.

⑴ 법제 변통의 중요성

먼저 법제의 변통에 대해서는 『주역』에 대한 정이의 풀이가 그 당위성의 중요한 근거로 제시된다.

> 소위 時宜라는 것은 때에 따라 변통하는 것으로, 법을 만들어 백성을 구제하는 것을 말한다. 정자는 易을 논하여 말하길, 時勢를 아는 것이 역을 배우는 큰 방도이다 라고 하였고, 또 때에 따라 바꾸는 것이 항상의 도[常道]이다 라고 하였다. 대개 法이란 때에 기인하여 만드니, 때가 바뀌면 법은 같지 않다.[73]

때의 마땅함을 아는 것의 중요성은 이미 선조 즉위 초부터 '때의 힘쓸 바[時務]'를 강조하는 가운데 단편적으로 자주 제기되었다.[74] 그러나 「만언봉사」에서는 법제의 변통에 대한 본격적인 이론 접근을 처음 시도하고 있다는

---

72) 이이는 「만언봉사」 전반부의 '무실공' 부분에서 선조의 이 발언을 비판한다.

73) 『율곡전서』 권5, 「만언봉사」, "夫所謂時宜者 隨時變通 設法救民之謂也 程子論易曰 知時識勢 學易之大方也 又曰 隨時變易 乃常道也 蓋法因時制 時變則法不同"

74) 「성학집요」의 위정편에서도 '知時務' 장이라 명명하였듯이, 이이는 '시의'보다는 '시무'란 표현을 더 많이 사용한다.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순 임금이 요 임금의 9주를 12로 만든 것, 그리고 우 임금이 그것을 다시 9주로 만든 것은 모두 때에 맞게 변통한 바람직한 사례로 거론된다. 반면, 한나라가 진나라가 남긴 폐단을 바꾸기 위해 한 변통, 당나라가 魏晉, 五胡의 폐단을 바꾸기 위해 한 변통, 그리고 송나라의 왕안석이 시행한 변통 등은 모두 잘못된 사례로 제시된다. 그 이유로 당나라 貞觀之治의 변통은 '그 도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을, 왕안석의 경우 '仁義를 뒤로 하고, 功利를 우선했다'는 점을 지적한다. 검토의 끝에 이이가 내린 결론은 법제의 변통을 잘 한 때는 삼대뿐이라는 것이다.

> 수천 년간 역대 치란의 흔적이 대개 이와 같은데, 때에 따라 잘 구제한 것은 단지 삼대에서만 보인다. 삼대 이후 구제한 것은 진실로 드물고 또한 도를 다하지 않았다. 대저 때에 따라 변통할 수 있는 것은 法制이며, 古今에 걸쳐 변통할 수 없는 것은 王道이며, 仁政이며, 三綱이며, 五常이다. 후세에 道術이 밝지 않아, 변통할 수 없는 것을 때때로 고치고, 변통할 수 있는 것은 때때로 고집하고 고수하니, 이것이 언제나 다스려진 날은 적고 어지러운 날은 많은 이유이다.75)

「동호문답」에서 삼대는 군주와 신하의 만남을 통해, 왕도정치가 행해진 유일한 시기로 그려졌다면, 이제 「만언봉사」에서 삼대는 때에 따라 법제를 잘 변통한 유일한 시기로 평가되고 있다. 이때 주목할 점은 법제의 변통이 진정한 다스림을 이루기 위한 유일한 충분조건이 결코 아니라는 점이다. 여기서 이이는 '왕도', '인정', '삼강', '오상'으로 지칭되는, '도'를 '다하는 것'이 반드시 전제 되어야 한다는 점도 마찬가지로 강조하고 있다. 즉, 도가 행해지고, 법제는 때에 따라 변통하는 일, 이 모두가 이루어질 때만이 삼대의 정치라 할 수 있었다. 앞서 정관지치와 왕안석의 변통이 지닌 문제점을 지적한 것도 이와 같은 이유로, 법제의 변통 자체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지향하는 목적과 방향도 중요하였다. 이처럼 이이의 제도 변통 주장에는 언제나 도의 문제가 함께 고려되고 있었다.76)

---

75) 『율곡전서』 권5, 「만언봉사」, "隨時善救者 只見於三代而已 三代以後 救者固鮮 而亦未盡道焉 大抵隨時可變者 法制也 亘古今而不可變者 王道也 仁政也 三綱也 五常也 後世道術不明 不可變者 有時而遷改 可變者 有時而膠守 此所以治日常少 亂日常多者也"

이상 중국의 역사적 사례를 통해 법제 변통을 위한 이론적 근거를 마련한 이이의 시선은 이제 조선으로 이어진다. 그가 보기에 이미 조선도 법제를 잘 변통한 모범적 역사를 지니고 있었다.[77] 이이는 세종대의 『경제육전』, 성종대의 『경국대전』과 『대전속록』의 편찬이 '때에 따라 만들어 사용한' 사례로 높이 평가한다.[78] 그런데 연산군대부터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때 祖宗의 貢法을 변경하여 '아래의 것을 덜어 위에 더한' 것이다. 그러나 중종대 초반 반정공신들은 그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기묘사림들이 이를 개혁하려고 하였지만 결국 화를 당하였다. 그리고 을사사화까지 경험한 사림은 이제 아무도 國事에 대해 말을 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권신은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는 것은 舊法이라 하여 준수하고, 방해가 되는 것은 新法이라며 폐지'하는 방식으로 자신들이 의도하는 바대로 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권신이 없는 지금 왜 신료들 중에 아무도 경장·변통을 언급하지 않을까. 이이는 그 이유는 두 가지 역사적 경험으로부터 비롯한다고 본다. 첫째, 변통을 얘기했다가 왕안석이란 비난을 들을까 염려해서였고, 둘째, 조광조와 기묘사림처럼 화를 당할까 걱정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79] 이처럼 이이는 조종지법을 변경했다는 비난을 받은 후, 결국 화를 입은 조광조의 사례를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었으며, 또 의식하고 있었다. 그리고 법제 변통을 역설하는 자신에게도 그러한 비난이 가해질 질 수 있음을, 자신 역시 언제든 화를 당할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80]

---

76) 이에 대해서는 제3장 2절 '「성학집요」 '聖賢道統'편과 삼대지치론'에서 자세하게 다룬다.

77) 이러한 평가는 「동호문답」에서 조선 先代의 군신 관계를 모범적인 것으로 평가하지 않았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78) 『경제육전』에 대해서는 '연세대 국학연구원 편, 1993 『經濟六典輯錄』, 신서원'의 해제를, 『대전속록』이 편찬되기까지의 과정에 대한 최근의 정리는 '윤정, 2013 「조선 中宗代 『大典後續錄』 편찬과 법률체계의 변동」 『역사와 실학』 50, 38~55쪽'을 참조.

79) 중종대 '훈구파'와 '사림파' 간에 벌어졌던, '祖宗之成憲'을 둘러싼 정책 대립에 대해서는, '윤정, 1997 「조선 중종 전반기 정국구도와 정책론」 『역사와 현실』 25, 155~173쪽' 참조.

80) 실제 선조 16년 계미년, 동인 중에 그를 왕안석으로 비유하는 비난이 등장하여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서는 '『선조실록』 권17, 선조 16년 6월 17일(정묘); 『선조실록』 권17, 선조 16년 6월 19일(기사); 『선조실록』 권17, 선조 16년 7월 15일(갑오); 『선조실록』 권17, 선조 16년 7월 16일(을미); 『선조실록』 권17, 선조 16년 7월 21일(경자)'

그에 대한 이이의 대응 전략은 자신이 변통하려는 제도들은 실은 조종지법이 아니며 근래에 만들어진 것일 뿐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었다. 이이는 그 핵심 근거로 공납제의 사례를 제시하면서, 동시에 관리 등용에서의 청탁 문제, 승지의 면대와 경연 참여 불가 문제 등의 문제들도 마찬가지로 조종지법이 아니라 근래에 만들어진 규칙들임을 강조하였다.

> 시험 삼아 지금의 정치를 말하면, 공안은 연산군때 백성을 괴롭히던 법을 지키고 있고, 이조의 관리 선발은 권간이 청탁했던 규례를 준수하고 있으며, 文藝를 우선하고 덕행은 뒤로 하여 행실이 높은 자는 끝내 굽히어 小官에 머무르고, 문벌을 중시하고 현명함은 가벼이 여겨 가문이 한미한 자는 뜻과 능력을 펴지 못하며, 승지는 御殿 안에 들어가 아뢰지 못하여 近臣은 소원하고 환관은 가까우며, 侍從은 조정의 의논에 참여하지 못하니 유신은 가볍고 俗論은 중하며, 한 관직에 오래 머무르지 않아 청현직을 두루 거치는 것을 영예롭게 여기며, 일을 나누지 않아 오로지 조사曹司에 맡기기에 힘쓴다. 나쁜 관습과 잘못된 규칙을 상세하게 거론하기 어렵지만, 기묘년에 시작된 게 아니면, 필시 을사년에 만들어진 것이다. 그런데 지금 논하는 자들이 그것을 조종의 법제로 여겨 감히 경장하자는 말을 꺼내지 못하니, 이것이 소위 시의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비록 聖王이 만든 법이라도, 만약 현명한 후손이 변통하지 않으면 끝내 반드시 폐단이 있게 된다. … 우리나라가 법제를 만들던 초기에는 진실로 지극히 치밀하고 상세 하였지만, 200년이 지나며 때와 일이 바뀌어 폐단이 없을 수 없으니 (그것도) 변통할 수 있는데, 하물며 후일의 잘못된 규칙은 물과 불에서 구하는 것처럼 개혁을 서둘러야 하지 않겠는가?[81]

여기서 이이는 시의를 아는 것의 중요성과 법제 변통의 필요성을 강조한 진정한 의도를 드러냈다. 그의 논리는 다음과 같았다. 때에 따른 법제 변통

참조.

81) 『율곡전서』 권5, 「만언봉사」, "試言今日之政 則貢案守燕山虐民之法 銓選遵權姦請託之規 先文藝後德行 而行尊者 終屈於小官 重門閥薄賢材 而族寒者 不展其器能 承旨不入稟于御內 近臣疏而宦官親 侍從不參預於廷議 儒臣輕而俗論重 不久一官 以歷揚淸顯爲榮 不分職事 以專委曹司爲務弊習謬規 難以縷陳 而不始于己卯 必成于乙巳 而今之議者 擬以祖宗之法 不敢開更張之論 此所謂不知時宜者也 大抵雖聖王立法 若無賢孫有以變通 則終必有弊 故周公 大聖也 治魯而不能振後日寢微之勢 太公 大賢也 治齊而不能遏後日篡弒之萌 若使齊魯賢孫 善遵遺意 不拘於法 則寧有衰亂之禍哉 我國祖宗立法之初 固極周詳 而年垂二百 時變事易 不無弊端 猶可變通 況後日謬規汲汲改革 當如救焚拯溺者乎"

은 삼대의 聖王들도 행했던 마땅한 조치이며, 따라서 조선의 조종지법이라도 때에 맞추어 필요하다면 변통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고수하고 있는 법들은 조종지법이 아니며 근래에 만들어진 잘못된 법규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 법제들은 시급히 변통해야 할 대상이 된다.

⑵ 진실한 실천의 중요성

다음으로 이이는 진실한 실천, 즉 實功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는 일을 함에 있어 진실함[誠]의 중요성을 강조한 「중용」과 「맹자」의 구절을 그 근거로 인용하였다.

> 소위 實功이란 것은 일을 함에 진실[誠]하여, 헛된 말[空言]을 하지 않는 것이다. 자사는 진실함이 없으면 物이 없다 고 하였고, 맹자는 지극히 진실한데 움직이지 않는 것은 없다 고 하였다. 만약 실공이 있다면 어찌 實效가 없겠는가. 지금 다스림의 효과가 없는 것은 實功이 없는 데서 비롯한다.[82]

여기서 實功의 의미는 두 가지 개념과의 관계 속에서, 그 의미가 분명히 드러난다. 첫째, 실공은 空言과 대척적 관계에 있다. 그가 다른 곳에서 언급한 실공의 용례들을 살펴보면, 그것은 '空言' 또는 '言語'와 대조적인 의미로 자주 사용된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83] 즉, 실공은 단지 말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행하는 것을 의미하였다. 둘째, 실공은 실효에 대해서는 충분조건인 관계에 있다. '일을 함에 진실하다면 반드시 효과가 있다'는 주장은, 일을 함에도 효과가 없는 것은 진실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말이기도 하였다. 다시 말하면, 실공은 行 또는 不行 차원에 대한 문제인 동시에, 얼마나 진실히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질적 차원의 의미도 내포되어 있었다. 다시 말하면, 이이가 말하는 실공은 진실과 실천의 의미를 동시에 포함하고 있었다.[84]

---

82) 『율곡전서』 권5, 「만언봉사」, "所謂實功者 作事有誠 不務空言之謂也 子思子曰 不誠無物 孟子曰 至誠 未有不動者也 苟有實功 豈無實效哉 今之治效靡臻 由無實功"

83)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구절들을 들 수 있다. "但王道之行 在於實功 不在於言語" [『율곡전서』 권28, 「경연일기」(39면 가)]; "所謂恐懼修省者 不在於言語 而在於實功" [『율곡전서』 권3, 「진미재오잭차」]

일찍이 이이는 선조 2년의 「동호문답」에서도 수기의 요체로서 무실을 얘기하였는데[務實爲修己之要], 여기서 '실'은 「만언봉사」의 경우와 달리 '실공'이 아니라 '實效'임이 표방되었다. 경연 자리에서 다스림을 위한 말은 많이 나오지만, 하나의 폐단도 개혁되지 않고, 정책도 시행되지 않고 있다며, 이를 "아침 내내 밥상을 차려놓았는데 조금도 배가 부르지 않는" 상황에 비유하며 비판하였다.[85] 같은 달 이이가 작성하여 제출한 「옥당진시폐소」에서도 이이는 선조에게 왕도정치에 뜻을 두었다면, 반드시 '실효'에 힘쓸 것을 요청하고 있다.[86] 한편 이이는 같은 해에 행한 다른 발언에서는 실행·실천을 강조하는 의미로 '실공'을 얘기하기도 하였다. "왕도정치의 행함은 실공에 있지 언어에 있지 않다"거나, "공구수성은 언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공에 있다"는 등의 용례가 그것이다.[87] 이처럼 이이는 말이나 문구로만 그칠 게 아니라 실천·실행이 중요함을 강조하기 위해, 실공 또는 실효를 모두 사용하고 있었다.

그런데 「만언봉사」에서 이이는 실공과 실효를 엄연히 구분하여 사용하였다. 실공은 말[言語]과 실효를 연결하는 중간 항목으로, 즉 '말 → 실공 → 실효'의 연쇄적 관계의 중요한 매개로 위치하였다. 실공은 말에 대해서는 실효와 함께 실행·실천의 의미가 강조되었지만, 동시에 실효에 대해서는 진실함의 의미가 중요하게 부각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용법의 배경에는 '진실함[誠]'에 대한 강조가 있었다.[88] 그런 점에서 「만언봉사」의 실공론에서 얘기하

---

84) 앞서 '시의를 앎'을 통해 변통을 얘기하였듯이, '실공에 힘씀'에서 이이가 강조하려던 바의 핵심은 진실함이었다. 그렇기에 實功을 현대어로 실행 또는 실천이라고 번역해서는 그 의미를 충분히 드러내지 못한다. 실공은 곧 진실함과 실천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렇기에 여기서는 '진실한 실천'이라 번역하였다.

85) 『율곡전서』 권15, 「동호문답」, '右論務實爲修己之要'

86) 『율곡전서』 권3, 「옥당진시폐소」, "所謂定聖志以求實效者 一國之治亂 係於一人 一人之臧否 係於一心 一心之所之 謂之志 是故 志乎善而與治同道 則罔不興 志乎惡而與亂同事 則罔不亡 如或立志靡定 悠悠泛泛 則亦同歸於亂亡而已 所謂靡定者 徒有其志而不能擴充 終無實效之謂也 有其志而無實效者 謂之無志 亦可也 今我殿下臨政願治 爲日久矣 安常守故 不見治化者 臣等不敢知聖志未定而然耶 聖志雖定 不求實效而然耶"

87) 앞의 각주 23) 참조

88) 이황이 敬을 강조하였다면, 이이는 誠을 강조한 것이 특징이라는 연구가 제출되어 있다. 이에 대해서는 '채무송, 1996『退溪 栗谷哲學의 比較硏究』, 성균관대 출판부' 참

려는 핵심은 '실천'이라기보다 '진실함'에 있었다. '지시의'를 통해 결국 법제의 변통을 얘기했듯이, '무실공'을 통해서는 실천의 진실함이 중요함을 얘기하려 한 것이다. 그렇게 봤을 때, 그가 「만언봉사」의 서두에서 실공에 힘쓸 것을 강조한 의도 역시 짐작할 수 있다. '지시의'가 기존 제도 자체의 변화를 촉구하는 것이라면, '무실공'은 기존의 관계나 제도의 질에 대한 비판으로, 그것의 충실화를 요구하는 것이었다.

「만언봉사」에서 '무실공'의 중요성은 선언되었으나, 막상 여기서 성실함의 중요성에 대한 이론적 탐색은 상세하게 이루어지지는 않는다.[89] 그보다는 주로 당시의 정치 상황의 문제점에 대한 비판이 대부분이다. 이이가 당대 실공이 없어 결국 실효도 없다고 거론한 사안은 모두 일곱 가지였다. 이들은 모두 병렬적으로 나열되어 있으나, 그 내용을 보면 문제의 층위와 영역을 달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1. 군신 간에 서로 믿는 실공이 없음'은 개혁적 신진세력에 대한 선조의 신뢰 부족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이며, '2. 신료들이 일을 맡는 실공이 없다'는 관료 조직 전반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으로, 특히 三公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다음으로, '3. 경연에서 성취하는 실공이 없다'와 '4. 賢人을 불러, 수용하는 실공이 없다'는 앞서 보았듯이, 「만언봉사」 제출 전에 있었던 미출신자의 등용 조치와 관련한 문제제기였다. 미출신자를 등용하였음에도 그들을 제대로 대우하거나 그들과 소통하지 않아서 효과를 거두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3의 경우 그들도 경연에 입참하게 하라는 요구이고, 4의 경우는 선조가 더욱 자주 그들과 만나 적극적으로 그들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5. 재난을 만나 하늘에 응대하는 실공이 없다'는 재난이라는 특수한 상황의 반영이었다. '6. 여러 정책이 백성을 구제하는 실공이 없다'는 민생 안정이 중요하다고 말들은 하지만 막상 실제 정책 시행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으로, 이 문제는 후반부에서 민생 안정을 위한 강령 다섯 가지를 거론할 때 더욱 자세하게 다루어진다. '7. 인심이 善을 향하는 실공이 없다'는

조.

89) 「성학집요」에 이르면, 성실함은 별도의 장으로 분리되어, 체계적으로 정리되기에 이른다. 『율곡전서』 권21, 「聖學輯要」 修己第二 誠實章第五.

교화와 관련한 내용이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민생의 문제부터 해결해야 교화의 문제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으로, 사실상 교화보다는 6.과 마찬가지로 민생의 안정을 강조하는 내용이다.

이상과 같이, 무실공에서는 군주와 삼공을 비롯한 관료조직, 민생의 안정과 교화 등 주체와 영역을 달리하며 다양한 문제점들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그리고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은 후반부에서 제시되게 된다.

3) 군주의 자기수양과 민생 안정을 위한 '조종지법' 회복

후반부에서 이이는 구체적 행동 지침과 정책 제시를 통해, 전반부에서 제시한 이론과 원칙들을 관철하고자 한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조종지법에 대한 그의 태도이다. 앞으로 살펴보듯이, '수기'와 '안민'의 많은 항목에서, 이이는 자신이 시행하려는 바는 조종지법을 변통하는 것이 아니라, 조종지법의 복구임을 누차 강조한다. 이는 앞서 전반부에서 강조하였던, 즉 당시 조종지법이라는 이유로 고수하는 많은 법제들이 실은 조종지법이 아니라 근래 만들어진 잘못된 규칙이라는 주장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먼저 '수기'에서는 승지의 국왕 面對, 그리고 미출신자의 경연 입참 허용이 대표적 사안으로 논의선상에 올랐다. '3. 편벽한 사사로움을 버리고 지극히 공정한 도량을 가질 것'에서 이이는 宦官을 멀리하고, 모든 일을 승정원와 같은 공적인 경로를 통해 처리할 것을 요청하였다. 그리고 '4. 현명한 선비를 가까이 하여 깨우침에 도움이 되게 할 것'에서는 그 연장에서 신료들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늘릴 것을 촉구하였다. 그 일환으로 제안된 방법 가운데 賢人이라면 출신 여부에 상관없이 등용할 것, 그들을 경연에 참여토록 할 것, 승지는 하루 한번씩 公事를 직접 국왕에게 아뢸 것 등이 있었다. 이 같은 요청을 한 이유는 환관을 통한 일처리를 방지하여 국왕이 공개적이며 공정토록 하려는 목적과 함께, 개혁적 신진세력과 국왕 간의 대면 접촉을 늘림으로써 선조에 대한 영향을 증대하려는 목적이 있었다.

그런데, 승지의 면대 문제는 일찍이 선조 2년 8월의 경연 자리에서도 논

란이 된 적이 있었다. 그보다 두 달여 전 좌승지 기대승과 우승지 심의겸이 선조와 면대하여 대사헌 김개를 논척한 후였다.[90] 영상 이준경은 그들의 면대에 대해 '근래 시행하던 규례가 아니며, 조정의 체통에도 어긋난다'며 비판하였다. 그러자 이이는 '승지 역시 경연 참찬관이므로, 면대하여 進言해도 된다. 근래의 규칙만 고수해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며 반박하였다.[91] 이처럼 선조 2년 당시에는 승지도 경연관이라는 점을 그 이유로 들었지만, 「만언봉사」에서는 '조종 규례'의 복구를 이유로 들고 나온 것이 달라진 점이었다.

미출신자의 등용과 그들의 경연 입참 문제 역시, 이이는 그것이 조종의 법을 복구하는 것임을 내세웠다. 그는 선조 6년 11월 5일, 선조가 미출신자의 대관 임명을 승인한 날 경연 자리에서, 그것은 '조종의 법'으로 단지 오랫동안 폐지되었던 것뿐이라고 평가하였다[92] 그리고 「만언봉사」 제출 한 달 뒤에 가진 경연 자리에서도 "미출신인 인사가 경연관을 겸한 것은 조종조에서 한 바"라고 재차 주장하며, 미출신으로서 사헌부 지평에 제수된 성혼을 경연에 참여케 할 것을 요청하였다.[93] 그런데 같은 자리에서 김우옹이 이이와는 다른 견해를 내놓은 점이 눈길을 끈다. 그에 따르면, 미출신자의 등용 규정이 분명 『경국대전』에 있긴 한데, 그것은 門蔭의 경우로서, 미출신 현인의 등용과 경연 입참은 法外의 일이라는 주장이었다.[94]

승지의 면대, 그리고 미출신자의 등용과 경연 입참은 일찍이 중종대 기묘

90) 김개는 그보다 며칠 전 경연 자리에서 조광조를 비난하여 개혁적 신진세력의 반발을 불러일으킨 상태였다. 이에 대해서는 제1장 3절 '이이의 정치적 浮上과 舊臣 비판' 참조.

91) 『선조실록』 권3, 선조 2년 8월 16일(정사)

92) 『선조실록』 권7, 선조 6년 11월 5일(신사). 이이는 일찍이 선조 2년 9월의 「옥당진시폐소」에서도 미출신자의 대간 등용을 선조에게 요청하면서 "조종지법은 본받고, 근규에는 구애받지 않는" 것을 그 명분으로 들었다. 그리고 과거 이외의 방법을 통한 인재 등용은 이미 옛 조정에서 시행했던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류속' 구신들이 이를 마치 三代에나 했던 이상적인 제도로만 여긴다고 비판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율곡전서』 권3, 「玉堂陳時弊疏」' 참조.

93) 『율곡전서』 권29, 「경연일기」 선조 7년 2월(34면 가)

94) 김우옹이 이를 발언한 취지는 미출신자의 등용과 경연 입참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현인을 등용하면 문음의 경우와 다르게 格外로 우대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서는 '『율곡전서』 권29, 「경연일기」 선조 7년 2월(34면 가)' 참조.

사림이 추진한 정책이기도 하였다. 그들은 '조종조에는 승지가 직접 아뢰고 명을 전했었는데, 정희왕후가 수렴청정을 할 때 승지가 드나들 수 없어 宦侍가 그 역할을 대신하였다'며, 조종조의 규례를 복구할 것을 요청하였고 결국 중종의 승인을 이끌어냈다.[95] 이에 반해 미출신자의 등용 문제의 경우 기묘사림이 시행을 추진하면서도, 조종의 일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다.[96] 그리고 미출신자의 學官 또는 경연관 임명 역시 조종지법이 아님을 인지하고 있었고, 중종 역시 마찬가지의 이유를 들어 불허하였다.[97]

이이가 관련 규정과 사실 관계를 얼마나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조종지법이 아님을 잘 알고도 이를 의도적으로 주장한 것인지를 확인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그가 김우옹이나 이전의 기묘사림과 달리, 미출신자의 등용과 경연 입참이 조종지법의 회복임을 강조한 배경에는 단지 사실 차원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략적 목적도 있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그는 이를 통해 자신의 주장에 대한 설득력을 높일 수 있었고, 자신에게 조종지법을 변통하려 한다는 비판이 가해질 경우에 대비한 대응 논리를 선제적으로 제시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안민'에서도 이이는 여러 사안에서 자기가 주장하는 법제 변통의 대상은 조종지법이 아니라 근래에 만들어진 문제 있는 법규들임을 역설하였다. 그 가운데 핵심은 아래와 같이 貢物 문제였다.

> 조종조에는 지출을 매우 절약하여, 백성들에게서 취하는 것이 매우 적었다. 연산군대 중엽에 지출이 많이 늘어나 정상적인 공물로는 그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였다. 이에 늘려 정하여 그 욕심을 충족하였다. 신이 예전에 여러 故老들에게 들었는데,

95) 이에 대해서는 많은 기사들이 있지만, 특히 '『중종실록』 권32, 13년 2월 4일(계유); 『중종실록』 권36, 14년 6월 28일(경인)'이 좋은 참고가 된다. 이들은 승지 면대가 세종대의 고사임을 그 근거로 든다. 실제, 「증보문헌비고」에 의하면, 세종 11년의 세종이 승지, 환시, 종치, 선전관 등이 나누어 하던 공사의 입계를 일체 승지가 하도록 명하였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증보문헌비고』 권218, 職官考五 承政院].

96) 『중종실록』 권32, 중종 13년 3월 11일(경술)

97) 이에 대해서는 '『중종실록』 권34, 중종 13년 10월 4일(경오); 『중종실록』 권34, 중종 13년 11월 1일(정유); 『중종실록』 권34, 중종 13년 11월 8일(갑진); 『중종실록』 권34, 중종 13년 11월 9일(을사)' 참조. 조선 전기 시기별 경연 참여 관원들의 변동에 대해서는 '지두환, 2009「朝鮮時代 經筵官 硏究」『한국학논총』 31' 참조.

감히 깊이 믿을 수가 없었다. 전에 승정원에 있을 때 호조의 貢案을 가져다 보았더니 제반 貢物이 모두 弘治 연간의 신유년에 늘려 정한 것을 지금까지 준용하고 있었는데, 그 시기를 생각해 보니 바로 연산군대였다.98)

앞서 전반부에서 이미 연산군대 공납 수취가 증가했음을 밝혔던 이이는, 여기서는 더욱 구체적으로 연산군 7년에 있었던 공물 증가 조치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자신이 직접 그 증거를 목도했음을 강조한다.99) 이이가 홍문관에서 승정원 동부승지로 옮긴 것은 선조 6년 11월의 일이므로,100) 「만언봉사」가 제출되기 약 2달 전의 일이었다. 이이가 민생 안정을 위한 제도 변통을 주장한 것은 선조 즉위 초부터 계속된 일이지만, 공물 징수 증가의 이유와 시점을 명확히 확인한 것은 사실상 「만언봉사」 제출 얼마 전의 일이었던 것이다. 그렇게 볼 때 이이가 「만언봉사」를 통해 제도 변통에 대한 본격적인 이론화를 시도하고, 자신이 추구하는 바는 바로 '조종지법의 복구'라는 점을 더욱 강하게 주장하게 된 것은 공안의 직접 확인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당시 자신의 변통 주장을 반대하면서 그 이유로 "조종지법을 가벼이 고칠 수 없다" 드는 입장에 대해, 이제 대응 논리와 근거를 확실하게 마련했음을 의미한다. 그는 "연산군대 늘려 정한 것을 모두 제거하여 祖宗의 옛 상태를 회복하는 것"을 그 해결책으로 제시하였다.

이이의 주장에 따르면, 민생의 안정을 위해서는 변통을 통해 조종지법을 복구해야 할 사안이 공물만이 아니었다. 그 다음 항목인 '3. 절약과 검소함을 숭상하여 사치의 풍속을 바꿀 것'에서도 역시, '조종을 본받아' 왕실 재정의 지출을 줄이는 해결안이 제시된다. 성종의 검소했던 생활은 모범 사례로 언급하며, "조종조에서 봉공한 규례를 살펴, 궁중의 지출을 모두 옛 조종조의 사례를 따를 것"을 요구하였다.101) '4. 공노비를 뽑아 서울로 올려 보내

98) 『율곡전서』 권5, 「만언봉사」, "祖宗朝 用度甚約 取民甚廉 燕山中年 用度侈張 常貢不足以供其需 於是 加定以充其欲 臣於曩日 聞諸故老 未敢深信 前在政院 取戶曹貢案觀之 則諸般貢物 皆是弘治辛酉所加定 而至今遵用 考其時則乃燕山朝也"

99) 연산군대 공물 수취 증가를 비롯한 국가 재정의 증대 상황과 그로 인해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김성우, 2001 『조선중기 국가와 사족』, 역사비평사, 54~93쪽' 참조.

100) 『선조실록』 권7, 6년 11월 5일(신사)

101) 왕실 재정의 감축에 대해서는 이미 선조 3년에 제출한 「의진시폐소」에서도 상세하게 다루었다[『율곡전서』 권4, 「의진시폐소」].

는 법을 바꾸어 그들의 고통을 구제할 것'에서도 현행의 제도가 조종의 법제, 즉 『경국대전』에도 없는 제도임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즉, 공노비의 選上 入役 제도 자체는 『경국대전』에도 규정된 것이지만,[102] 身役 대신 면포를 받는 것은 『경국대전』에 없는 것임에도 백성들의 고통을 가중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103] 이 문제에 대한 이이의 대안은 身役 대신 면포를 받는 제도를 아예 없앨 것, 대신 공노비의 현황을 조사하여 모두가 일정한 면포를 바치도록 하는 것이었다.

다만, 마지막 '5. 군정을 개혁하여 내외의 방비를 튼튼히 할 것'에서는 "우리나라 법제가 부족하고 빠진 게 많다"고 하여, 조종지법에도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옛 제도를 바꾸어 새로운 규칙을 만들 것"이, 즉 조종의 제도를 복구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법을 제정하는 것이 해답으로 제시되었다.

이상과 같이, 이이는 후반부의 '수기'와 '안민' 항목을 통해, 정치 전반의 실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의 변통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그리고 많은 경우 제도 변통의 방향은 기존의 잘못된 제도를 변통하여 조종의 제도를 회복하는 것임이 표방되었다. 「만언봉사」 제출 한 달 뒤의 경연 자리에서, 선조와 이이 간에 오간 아래와 같은 대화는 변통에 대한 양자의 인식 차를 잘 보여준다.

> 이이가 말하기를, 상께서 매번 변통을 어렵게 여기므로 끝내 실효가 없다. 만약 경장하지 않으면 나라를 어찌 할 수 없다 . 상이 말하였다. 조종의 법이 아니면 경장이 뭐가 어렵겠는가 . 이이가 말하였다. 조종의 법을 모두 바꾸려는 게 아니다. 공안 같은 것은 연산군대 더하여 정한 것이지 조종의 법이 아니다. 신이 경장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백성들의 병을 구하려는 것이다.[104]

---

102) 『경국대전』 권5, 刑典 諸司差備奴根隨奴定額條

103) 이이에 따르면, 이 제도의 유래는 다음과 같다. 애초에는 서울의 관노비만으로 役事를 감당할 수 없었기에 지방의 공노비들이 교대로 서울로 가 이를 맡게 하였다. 그러나 공노비들이 양식을 싸 가지고 와 오래 머무르는 고통이 너무 크므로, 베를 내어 이를 대신하게 하였다. 그런데 담당 서리들의 부정으로 인해, 공노비들의 고통은 더욱 커지는 결과만을 낳았다. 조선 태조~성종대 공노비에 대한 수취와 그들의 부담 증가에 대해서는 '공석구, 1990 「조선초기 공노비의 도망과 대책」 『충남사학』 5' 참조.

104) 『율곡전서』 권29, 「경연일기」 선조 7년 2월(32면 나), "珥曰 自上每以變通爲難 故

> 전하가 만약 唐虞·삼대지치를 하려면 비록 조종의 법이라도 고치지 않을 수 없는 게 있을 것이다. 만약 少康에 그치려면 조종의 좋은 법과 아름다운 뜻을 준수해도 된다. 오늘날 소위 조종의 법이라는 것은 단지 근래의 법규가 전해진 것을 지키는 것뿐이요, 조종의 좋은 법과 아름다운 뜻은 실제로는 없어져 행해지지 않으니 이는 매우 옳지 않다.105)

선조가 현행 제도를 조종의 법이라고 여기는 반면, 이이는 그것은 조종의 법이 아님을 강조한다. 실제로 그것은 조종이 아닌 최근에 만들어진, 게다가 문제가 많은 법규일 뿐이라는 것이다. 물론 조종의 정치는 이이가 목표로 하는 경세 질서의 모습, 즉 삼대지치와 같은 도덕정치의 최종적 완성 형태는 아니었으며, 어디까지나 '少康' 상태의 질서였다. 그러나 그가 도덕과 함께 정치 질서 확립과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본, 또 하나의 중요한 다스림의 도구[治具]인 법제의 운용에 측면에서, 조종의 정치는 모범적 모습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하였다.106) 이처럼 이이가 조종의 정치를 전적으로 부정하고, 조종의 법제를 변통 대상으로 상정한 것은 아니었으며, 「만언봉사」의 후반부에서 볼 수 있듯이, 그는 구체적 각론에서는 오히려 조종지법의 복구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았다.

終無實效 若不更張 無以爲國 上曰 若非祖宗法 則更張何難 珥曰 非欲盡變 祖宗之法也 至如貢案 是燕山所加定 非祖宗法也 臣非好更張 欲救民瘼也"

105) 『율곡전서』 권29, 「경연일기」 선조 7년 2월(37면 나), "殿下若欲做唐虞三代之治 則雖祖宗法 亦有不得不改者矣 若欲少康而止 則可遵祖宗良法美意也 今之所謂法祖宗者 只守近規之傳襲者 而祖宗良法美意 實廢不行 此甚不可也"

106) 이에 대해서는 제3장 2절 '「성학집요」 '聖賢道統'편과 삼대지치론' 참조.

3. 선·후배 사류 간 분열과 이이의 진정 시도

선조 8년 명종 비 인순왕후의 훙거와 함께 선·후배 사류 간의 갈등이 표면화 되고 분열된 상황은 그 후 오랫동안 지속되는 조선 정치의 특징적 양상의 시작을 의미하였다. 즉, 복수의 붕당이 출현하여 상호 견제하고 갈등하면서 정국을 운영하는 이른바 '붕당정치'가 시작된 것이다.[107] 새로운 정치현상의 출현이었고, 그런 만큼 새로운 정국 운영 원리가 요구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이이의 사림 화합론은 상대편 붕당의 파멸이 아니라 공존을 도모했다는 점에서, 붕당 간 '상호 비판과 공존'이라는 "붕당정치 이념을 정립한" 선구적 논의로 평가되기도 하였다.[108] 그리고 그의 붕당론은 엄격한 是非의 분별을 통해 소인당의 배격과 군자당의 존치를 강조한 구양수·주희의 붕당론과는 다른 독창적 이론으로 해석되었다.[109]

---

107) 붕당정치론에 대해서는 '이태진, 1985「당쟁을 어떻게 볼 것인가」·「조선시대의 정치적 갈등과 그 해결-사화와 당쟁을 중심으로」『조선시대 정치사의 재조명(2003, 개정판)』, 태학사' 참조.

108) 박광용, 1985「탕평론의 전개와 정국의 변화」『조선시대 정치사의 재조명(2003, 개정판)』, 태학사, 572쪽. 대체로 선조대의 붕당정치는 초창기로서 미숙한 단계로 이해되거나[정만조, 1998「붕당의 출현」·「붕당의 성격」『한국사 30-조선중기의 정치와 정책』, 국사편찬위원회, 56~59쪽. 정만조는 이이의 서인 자정과 지지 세력의 가담 등을 통해 비로소 붕당으로서 서인의 존재가 확립된 선조 16년을 진정한 붕당정치의 시작으로 봐야 한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17세기의 붕당정치로 옮아가는 과정의 과도기'로 이해된다(이태진, 위의 연구, 56~57쪽). 그리고 인조대 들어 붕당정치가 구현된 것으로 평가된다[오수창, 2003「인조대 정치세력의 동향」『조선시대 정치사의 재조명(개정판)』, 태학사].

109) 지금까지 국사학계에서 이이의 붕당론을 상세하게 분석한 연구자는 정만조로, 그는 다음과 같은 일련의 연구들을 제출하였다. '정만조, 1990「16世紀 士林系 官僚의 朋黨論 -歐·朱 朋黨論과의 比較를 통하여 본-」『한국학논총』 12; 정만조, 1992「朝鮮時代 朋黨論의 展開와 그 性格」『조선후기 당쟁의 종합적 검토』, 정신문화연구원'. 그리고 정치학적 접근을 한 연구로 '야마다 에이코, 2008「율곡 이이의 붕당론: 비교붕당론사를 위한 하나의 시론」『한국·일본·'서양'』, 아연출판부'가 있다.

정만조는 중국의 붕당 인식에는 사사로운 이해를 좇는 私黨이라는 인식, 군자와 소인의 변별을 전제로 한 붕당긍정론인 구양수.주희의 붕당론, 그리고 그 변별의 어려움을 지적하며 붕당 간 상호 조화와 절충을 도모한 范純仁·呂大防의 調停論등 모두 세 종류가 있다고 분류하였다. 그리고 이이의 붕당론은 선조 즉위 초 구신과의 갈등 상황에서는 군자소인론이었지만, 선조 8년 동서 분열 이후에는 "중국에서는 현저하게 드러

그런데 앞으로 살펴보듯이 선조 8년부터 선조 16년 최종적으로 조정에서 물러날 때까지, 이이의 정국 인식을 살펴보면, 그는 이 기간에도 여전히 '류속' 구신들을 경계하면서, 그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군자·소인론을 펼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기존 연구에서 이해한 것처럼 선조 6~8년부터 사류의 정국의 주도가 가능해지고 난 후 사림파 내부의 분열이 발생했고, 이에 이이의 붕당론이 군자·소인론에서 전면적으로 조제론으로 전환한 것이 아니었다.[110] 그의 사림 화합론은 류속 구신에 대한 경계 속에서 사류의 갈등과 분열이 사류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의 소산으로,[111] 이 시기 이이는 대상을 달리하며 군자·소인론을 주장하는 동시에 사림 화합론도 주장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이 붕당론의 주축이자 근간은 어디까지나 군자·소인론이었으며, 사림 화합론은 오히려 임시적·방편적 성격이 강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1) 선조 8년 仁順王后 薨去와 新·舊 간 服制 논쟁

선조 8년 1월, 명종비 인순왕후가 훙거하였다.[112] 앞서 중종비 문정왕후 훙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인순왕후의 훙거 역시 향후 정국에 중대한 변화

나지 않았던 調劑論으로" 변화했다고 이해하였다. 즉. 그것은 군자소인론도, 조정론도 아닌 독창적 이론으로 평가되었다[정만조, 1998『한국사 30-조선중기의 정치와 정책』, 국사편찬위원회, 60~66쪽]. 야마다 에이코도 붕당에 대한 이이 언설의 "가장 큰 특징은 주자나 구양수의 붕당론이 의거했던 '군자나 소인의 구별' 그 자체에 대한 대담한 재해석을 통해 붕당간의 '조제'가 가능하다는 정치 언설을 만들려고 했다는 점"이라고 평가하였다(야마다 에이코, 위의 글, 323쪽). 양자의 연구는 이이의 붕당론은 구양수와 주희의 군자소인론과는 다른 논리와 개성을 갖추고 있음을 강조하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110) 정만조, 1990「16世紀 士林系 官僚의 朋黨論-歐·朱 朋黨論과의 比較를 통하여 본-」『한국학논총』12, 107~109쪽; 정만조, 1998 위의 논문, 43~44쪽' 참조.

111) 야먀다 에이코도 이이 붕당론의 특징 중 하나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서 붕당이라는 언설을 사용했을 때의 위험성과 병폐에 대한 일관된 비판'를 지적하였다(야마다 에이코, 앞의 연구, 316~323쪽). 그러나 그의 연구는 언설의 내적 분석에 치중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실제 정국 상황의 산물이며, 구체적 인물을 지칭하는 것임을 규명하지는 못하였다.

112)『선조실록』권9, 선조 8년 1월 2일(임인)

를 알리는 시작이었다. 그녀의 훙거로 인해 다시금 조정의 신·구 관료들 간에 전례 논쟁이 벌어졌으며, 이를 계기로 선·후배 사류 간의 잠재되어 있던 갈등이 표면화 되었다.

전례 문제는 그해 5월, 卒哭 후의 服制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전개되었다. 이미 선조 2년의 문소전 전례 논쟁에서 보았듯이, 왕실 전례를 둘러싼 논쟁은 선조대 초반 구신과 신진 간의 의견 차가 드러난 대표적 갈등 사안이었다. 그런 만큼 이이 역시 왕실 전례 논쟁에 많은 관심을 보이며, 그 결과를 통해 국왕 선조의 정치적 입장을 추론하였다. 특히 이해 인순왕후의 졸곡 후 복제를 둘러싸고 조정에서 논쟁이 벌어졌을 때, 마침 이이는 조정에 있었던 데다 전례의 고증을 담당한 홍문관 부제학이었기에 논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이는 명종대 말~선조대 초반에 벌어졌던 여러 왕실 전례 논란 중 이이가 직접 참여한 유일한 경우이기도 하였다.[113]

[표 6] 명종대 말~선조대 초반의 왕실 전례 문제

시기	사안
명종 20년	중종 비 문정왕후의 상. 졸곡 후 복제 문제
선조 즉위년 10월	명종의 상. 졸곡 후 복제 문제
선조 2년 2월	인종의 문소전 부묘 여부와 神位의 昭穆과 방향 문제
선조 8년 1월	명종 비 인순왕후의 상. 졸곡 후 복제 문제
선조 9년 1월	인순왕후의 練祭 시 복제 문제
선조 10년 11월	인종 비 인성왕후의 상. 장례 기간 문제
선조 13년 1월	인성왕후 태묘 부묘 후 女樂 사용 문제

졸곡 후 복제 문제는 선조대 초반의 전례 논쟁 가운데 가장 빈번하게 발생했던 사안으로서,[114] 논쟁의 중심에는 『국조오례의』의 이행 여부가 있었

113) 명종대 말부터 선조대 초반까지는 명종 20년 중종 비 문정왕후, 명종 22년 명종 본인, 선조 8년 명종 비 인순왕후, 선조 10년 인종 비 인성왕후 등이 잇따라 薨去하면서 國葬을 치러야 할 상황이 여러 차례 발생하였다. 그리고 그때마다 服制, 祔廟, 女樂 등 다양한 사안을 둘러싸고 전례 논란이 일었다. 대신들과 개혁적 신진세력은 이에 대해 명시적으로 상이한 입장을 보였으며, 국왕 선조는 시기별로 다른 태도를 보이며 결정을 번복하여 논란을 더욱 부채질하였다.

다. 성종 5년에 제정된『국조오례의』에는 國喪을 당하면 졸곡 후 "燕居 시에는 白衣·白笠·白帶를 착용하고, 視事 시에는 白衣·烏紗帽·黑角帶"를 쓰도록 되어 있었다.[115] 그런데, 사류 세력은 이『국조오례의』조항을 변경하여, 졸곡 후 평상 시는 물론 업무 시에도 喪服 그대로 白衣·白笠·白帶를 착용함으로써 3년상의 의미를 보다 철저하게 구현하려 하였다. 이에 비해, 구신측은『국조오례의』를 준용하여, 졸곡 후 업무 시에는 黑笠·黑帶과 같은 평상복을 착용함으로써 일상으로 복귀하여도 무방하다는 입장이었다.

그런데 이때의 논란은 이전의 복제 논쟁과는 문제의 초점이 달라진 것이었다.[116] 졸곡 후 복제 논쟁의 연원은 일찍이『국조오례의』가 편찬된 성종대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이때부터 선조 즉위 초까지 계속적으로 논란이 되었던 사안은 업무 시가 아닌 평상시의 복제였다. 즉, 선조 8년 이전까지는 업무 시의 복제를 흑립·흑대 등 吉服으로 하는 것은 당연시 하는 가운데, 평상시의 복제를 백립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흑립으로 할 것인지가 논란이었다.[117] 그런데 선조 8년이 되자, 이제 사류는 평상시의 복제는 물론, 업무 시의 복제까지 백립·백대로 바꿈으로써, 3년상의 의미를 온전하게 다하려 한

---

114) 졸곡의 의미와 조선 태조~선조대 국상에서 3년상 수용과 졸곡 후 복제의 변화 과정에 대해서는 '지두환, 1994『조선전기 의례연구』, 서울대 출판부, 192~218쪽' 참조.

115)『국조오례의』권7, 凶禮 服制

116) 안희재, 2010『조선시대 국상의례 연구: 국왕국장을 중심으로』, 국민대 국사학과 박사논문, 107쪽

117) 성종 12년 세조 비 정희왕후의 상 때 성종이 '업무 시에 이미 검은 오사모를 쓰고 있으니, 평상 시의 갓도 마땅히 검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평상 시에도 흑립을 쓰는 것으로 바꾸었다. 이후 인종대 중종의 국상 때 총호사 柳灌이 '평상 시 흑립을 쓰면 졸곡 후 바로 탈상하는 것'과 같다는 이유를 들어, 다시『국조오례의』대로 평상 시 백립을 쓰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명종 20년 7월, 문정왕후 상 때는 애초 禮官이『국조오례의』에 의거하여 백립을 쓸 것을 건의했으나, 윤원형이 그것은 유관이 건의했던 제도라 하여 다시 흑립으로 결정하였다. 그러다 선조 즉위년 10월, 명종의 국상 때는 다시 졸곡 후 평상 시 白笠을 사용하였다. [『율곡전서』권28,「경연일기」선조 즉위년 10월 (16면 나), "五禮儀 卒哭後 以烏紗帽 , 角帶 , 白衣視事 而燕居則著白笠 蓋以烏紗帽爲權制視事之服也 成廟朝 議者以爲紗帽旣用烏 則笠亦當黑 當時廷臣 皆不識禮意 遂用黑笠 厥後 因循未改 中廟之喪 左相柳灌以爲燕居若著黑笠 是卒哭後脫喪也 乃用白笠之制 仁廟之喪 灌等旣死 大臣以灌議爲非 還著黑笠 文定王后之喪 禮官有言 卒哭後當著白笠者 尹元衡爲首相 厲色曰 此柳灌之議也 衆懼不敢更議 至是 始復五禮儀之制"]

것이다.[118]

그 시작은 인순왕후의 훙거가 있던 선조 8년 1월에, 典籍 金宇顒이 올린 상소로, 그는 '졸곡 후에도 變服을 하지 않음으로써, 3년상을 행할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해 선조는 '여러 先王들이 지켜 온 『국조오례의』를 어기기 어렵다'며 난색을 표하였다.[119] 그해 5월 지평 閔純이 송 효종의 고사를 들며 재차 白衣冠으로 업무를 볼 것을 청하였을 때, 선조는 이전과 달리 대신들에게 의견을 모을 것을 명하는 등 전향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때 좌상 박순과 우상 노수신이 민순의 견해에 찬성의 입장을 보인 반면, 영상 권철과 예조판서 홍섬은 『국조오례의』대로 검은 관과 검은 띠로 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120] 그러자 선조는 홍문관이 古禮를 널리 상고하여 아뢸 것을 명하였는데, 홍문관 부제학이던 이이는 다음과 같은 취지의 글을 올렸다.

> 꼭 先王의 예법에 다 맞게 하려면 상하가 모두 衰絰의 상복을 갖추어 『의례』에 있는 제도대로 하고, 별도로 布帽, 布團領, 布帶를 만들어 시무를 볼 때의 복색으로 해야 할 것이나, 지금은 이미 효종 때의 제도에 의하여 흰색의 옷, 관, 허리띠로 사무를 보는 것이 고례에 가까울 것입니다. 검은 관, 검은 허리띠는 정리와 예의에 비추어 생각해 보면 극히 온당하지 못합니다. 송 고종 대 나점이 이 제도를 건의하였으니, 그 때 상례의 기강이 퇴폐하여 易月 뒤에는 순전히 吉服을 썼기 때문에 나점의 이 의론은 오히려 않는 것보다는 낫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례의』를 찬정할 때 참찬 허조가 나점의 말을 인용한 것이 마침내 정론이 되었습니다. 당시에 예를 아는 유신이 없어서 선왕을 正禮로 인도하지 못한 것을 지금까지 志士들이 개탄하고 있으니, 어찌 오늘날 또 다시 잘못을 저지르겠습니까.[121]

---

118) 문정왕후 상 때 졸곡 후 복제에 대해 이이는 '吉禮를 따르는 것이 너무 빠르다'며 비판적 견해를 남겼다[『율곡전서』권28, 「경연일기」 명종 20년 7월(2면 나), "卒哭 自上及百官 皆著黑笠 識者恨其從吉之速"]. 그리고 명종의 상 때 졸곡 후 복제에 대해서는 '비로소 『오례의』 제도에 복귀했다'며 긍정적으로 평하였다[『율곡전서』 권28, 「경연일기」 선조 즉위년 10월(16면 나), "明宗大王卒哭 上下著白笠 始復五禮儀之制"].

119) 『선조실록』 권9, 선조 8년 1월 17일(정사)

120) 『선조실록』 권9, 선조 8년 5월, "領議政權轍 領府事洪暹 則以爲卒哭後視事 用玄冠素衣烏帶 載於五禮儀 不可輕變"

121) 『율곡전서』 권29, 「경연일기」 선조 8년 5월(58면 가~나), "必欲盡合先王之禮 則當初上下當具衰絰 如儀禮之制 別造布帽布團領布帶 以爲視事之服 今旣蹉過 不能追復

여기서 이이가 말하려는 요지는 두 가지였다. 첫째, 현재 시행하고 있는 『국조오례의』의 규정은 송대 나점이 상례의 기강이 지극히 떨어진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예를 갖추기 위해 마련한 제도를 참고하여 만든 것이다. 즉, 그것은 특수한 상황에서 부득이한 조치였을 뿐이다. 따라서 그 제도가 최선이 될 수는 없다. 둘째, 古禮와 완전히 동일하게 시행하기 위해서는 布帽, 布團領, 布帶 등 보다 철저하게 복제를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그렇게까지 할 수는 없으므로, 송 효종대의 고사에 따라 흰색의 옷, 관, 허리띠 정도는 해야 한다. 정리하면, 이이의 주장은 『오례의』를 준수하기보다는 고례의 정신과 의미를 실천하는 것이 더 옳다는 것, 그리고 그 형식은 고례 그대로가 아니더라도 되도록 그에 가깝게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는 대사간 김계휘도 마찬가지여서, 이 둘은 "이 기회에 마땅히 변통하여 상례를 고례에 가깝게 치러야 한다"고 역설하였다.[122]

그러나 논란은 쉬이 수그러들지 않았다. 좌상 박순과 우상 노수신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대신들이 『오례의』를 준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기 때문이다. 특히 예조판서 홍담은 『오례의』를 변경하는 일은 절대 불가하다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였다. 다수 대신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선조의 의지에 따라, 결국 졸곡제를 행한 후 白袍·白冠·白帶·白靴로 환궁하는 것으로 결말이 났다. 이에 홍섬은 '군주의 居喪은 사대부와 같지 않다'거나, '오늘날 祖宗 典禮가 변경될 줄은 생각지도 못했다'며 분개하였다고 한다.[123] 홍섬의 이 말은 졸곡 후 복제 문제에는 두 가지 이슈가 관련 되어 있음을 잘 보여준다. 첫째, 군주에게 사대부와 마찬가지의 예를 실천할 것인가, 둘째, '조종지제'를 변경해도 되는가의 여부였다. 구신들이 군주의 특수성에 대한 고려와 조종지제로서 국조오례의의 준수를 추구했다면, 사류들은 군주 역시 사대부와 마찬가지의 예를 준수해야 하며, 그렇다면 『국조오례의』라도 수정되어야 한

寧依宋孝宗之制 上下以白衣冠帶視事 爲近於古禮也 若玄冠烏帶之制 揆之情禮 至爲未安 宋高宗朝 羅點建白此制 時喪紀廢壞 易月之後 純用吉服 羅點此論 猶愈於已也 … 五儀撰定之時 叅贊許稠引羅點之說 遂爲定論 當時無識禮之儒臣 不能導先王於正禮 至今志士慨嘆不已 豈可再誤於今日乎"

122) 위의 각주

123) 『율곡전서』 권29, 「경연일기」, 선조 8년 5월(59면 나)

다는 생각이었다.

이상의 상황에 대해 이이는 「경연일기」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 이때 卿大夫가 모두 俗流라 正論이 매우 약했으나, 상의 마음이 굳게 예를 좇으려 하고 좌우정승이 그 뜻을 받든 때문에 俗論이 능히 성립되지 못하였다. … 삼가 살피건대, 『오례의』에 정해진 喪禮를 漢·唐에 비하면 훨씬 잘 되었다 할 수 있으니, 이것 역시 동방의 盛典이다. 그러나 古禮를 참작하면 어찌 미진한 것이 없으랴. 지금 이것을 바꾸어 옛 도를 좇으려 하는데 조정 신하가 따르지 않는 것이 이와 같다. 流俗이 옛 도를 좋아하지 않는 것은 이치와 형세로 보아 당연하니 이상할 게 없다.[124]

여기서 이이가 왕실 전례 문제를 '진유'인 사류와 '류속'인 구신 간의 입장 차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안으로 파악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이는 구신들이 고도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고례의 시행에도 반대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문소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왕실 전례에서 고례를 시행하는 것은 이이와 사류가 강조하는 '고도의 회복'을 구현하는 핵심적인 장치의 하나였다. 그렇기에 인순왕후 졸곡 후 평상시는 물론 업무 시에도 백립·백대를 착용키로 한 선조의 결정을 사류는 자신들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로 읽었다. 훗날 이이는 이때를 회상하며, "다스릴 수 있는 기회"였다고 평가하였다.[125]

그런데 선조 8년 12월, 인순왕후의 練祭 후 다시 變服할 때가 되자, 시행할 복제를 둘러싸고 또 다시 조정에서 논의가 벌어졌다. 선조가 종2품 이상 신료들을 불러 의논하게 하였는데, 이때 대부분의 신료들이 『국조오례의』를 따라 검은 관과 모자로 바꾸어 업무를 볼 것을 주장하였고, 졸곡 후부터의 복제 그대로 흰 모자와 허리띠로 계속 할 것을 주장한 이는 좌상 박순과 우

---

124) 『율곡전서』 권29, 「경연일기」, 선조 8년 5월(59면 나~60면 가), "于時卿大夫皆是流俗 正論甚弱 而上心堅欲從禮 且有左右相將順 故俗論不能奪 … 謹按 五禮儀所定喪禮 比於漢 , 唐 則可謂遠過 此亦東方之盛典也 但參以古禮 則豈無未盡者乎 今欲變通從古 而廷臣不從乃如此 流俗之不好古道 理勢然也 無足怪者"

125) 선조 11년에 제출한 한 상소에서 이이는 그 동안 선조에게 기대를 가지게 되었던 정치적 순간으로 모두 세 번의 시기를 드는데, 선조 즉위 초, 선조 8년 인순왕후의 상 때, 선조 10년 위사공식 삭훈 때를 들었다. 이에 대해서는 '『율곡전서』 권6, 「응지논사소」' 참조.

상 노수신을 포함하여 소수일 뿐이었다.[126] 이는 곧 조정에서 여전히 대신급 이상의 고위 관료층에는 이이가 '류속'이라 부를만한 구신들이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사류'라 분류하는 인물들은 소수인 상황을 반영한다.

이상과 같이, 선조 8~9년 인순왕후의 상을 치르던 시점에 조정에는 홍섬, 권철 등의 '류속' 구신들이 여전히 건재한 가운데, 이들은 전례 문제를 둘러싸고 사류와 다른 의견을 표방하고 있었다. 구신들은 기존의 규례 또는 『국조오례의』의 준수를 주장하며, 『국조오례의』의 규정에서 벗어나 고례의 정신에 더욱 철저해야 한다는 사류와 충돌하였다. 결과는 비록 선조의 강한 의지에 의해 사류의 견해와 같은 안이 채택되었지만,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대신급 인사들 중 대부분은 '류속' 구신이었다.

2) 후배사류의 선배사류 비판과 선·후배 사류 간 갈등의 표면화

명종비 인순왕후의 훙거는 그녀의 남동생이자 당대 정계의 실력자였던 심의겸으로부터 중요한 정치적 자산이자 권력의 원천이던 후견인이 사라졌음을 의미하였다. 사림의 분열이 인순왕후의 졸곡이 끝난 뒤인 선조 8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동안 잠재해 있던 선배사류와 후배사류 간의 갈등이 인순왕후의 사망을 기점으로 전면적으로 드러난 것이었다. 보다 정확히 얘기하면 선배사류의 후견자인 인순왕후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후배사류가 심의겸 등 선배사류에 대한 공세를 개시한 것이었다. 서인 내에서도 시종일관 동인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견지했던 정철은 그 사실을 정확히 간파하였다.

> 정철이 말하였다. 심의겸이 권력을 쥐고 있을 때는 사대부들이 모두 따르며 교제하였는데, 상(선조)께서 대통을 계승하고 大妃가 승하하고 권세가 사라진 후에는 상의 뜻을 관찰하고 엿보아 權戚이라 지목하여 심의겸을 공격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126) 『선조실록』 권9, 선조 8년 12월 8일(임신), "上命招從二品以上議之 朴啓賢成世章李文馨元混尹玉朴大立沈守慶尹鉉金貴榮朴忠元李俊民鄭大年鄭宗榮 皆以爲當從五禮儀 自上着黑冠黑帶以臨朝 獨任說南應雲柳坱議 與左右相同 宋麟壽洪曇朴永俊姜士尙鄭惟吉議 皆主於五禮儀"

자기들을 따르지 않는 선배들도 黨이란 이름으로 음해하기를 전후로 반복하니 그 마음을 알만 하다. 127)

비록 정철의 이 말은 親 심의겸의 입장이 강하게 반영된 기술이지만, 인순왕후 사후 심의겸의 권세가 상대적으로 약화되었고, 이를 기화로 그와 선배사류들에 대한 비판이 본격적으로 전개된 상황을 잘 보여준다.

잘 알려져 있듯이 사림 세력 내부에서 전개된 반목의 중심에는 심의겸과 김효원이라는 두 인물이 있었다. 그런데 사류의 분열 과정은 단지 심의겸과 김효원 사이의 개인적·감정적 충돌이 의도치 않게 세력 간 대결로 확산된 것이 아니었다.128) 그것은 애초부터 개인 대 개인이 아닌 세력 대 세력의 구조적 갈등이었으며, 사건의 우연적 확산이라기보다 그 이전부터 누적된 갈등의 표출이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선조대 초반에 벌어진 사림의 동서 분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심의겸과 김효원이라는 인물이 각각 어떤 세력·집단을 대표하는지, 그리고 두 인물의 정치적 성장 과정에 대한 탐구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129)

---

127) 『선조수정실록』 권10, 선조 9년 2월 1일(을축), "鄭澈之言曰 沈義謙柄用時 士大夫無不依附交歡 及此嗣聖入承 大妃昇遐 權勢旣去之後 方乃窺覘上意 目爲權戚 不惟攻其人而止 竝與其不從己之先輩 而陰之於黨目 前後反覆 其心可知"

128) 『黨議通略』과 같은 조선 시대의 당론서와 『朝鮮政爭志』와 같은 일제 식민주의 사학자의 저술이 모두 이러한 관점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이 당시의 일에 대한 사료들은 훗날 갈등이 심화되고 난 후 서로가 상대방이 먼저 갈등의 원인 제공을 했다고 치부하면서 그 근거로서 회고적으로 서술된 것이다. 따라서 당시의 상황을 전하는 양측의 자료에는 이러한 의도가 깊이 개입되어있음을, 거기에 등장하는 상대방의 행위에 대한 '사감', '보복' 등의 규정·표현은 사태에 대한 객관적·사실적 진술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자기 쪽의 행동을 합리화하고 상대방의 잘못을 부각시키기 위한 주관적.의도적 진술임을 고려해야 한다. 만약 그 진술들을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사림 간의 갈등과 동서 분열은 오로지 서로에 대한 사적 감정이 원인이며, 그 전개는 보복의 연속 과정으로 이해하게 된다.

129) 현재 심의겸에 대한 본격적인 인물 연구는 없는 상태이며, 김돈이 김효원과의 갈등 관계를 검토하면서 부분적으로 다루었다[김돈, 2009 「선조대 심의겸·김효원의 갈등 요인」 『조선중기 정치사 연구』, 국학자료원]. 김효원의 경우에도 김돈의 연구가 유일한데, 그는 실록의 기록을 중심으로 김효원의 이력을 정리하였다[김돈, 2003 「김효원-동서 분당의 발단이 된 신진사림의 영수」 『63인의 역사학자가 쓴 한국사인물열전』, 돌베개].

김돈은 '양자 간에 빚어진 갈등의 사실 관계를 최대한 밝히려는 노력이 우선이며,

심의겸(1535:중종 30~1587:선조 20)은 명종 비 인순왕후의 남동생으로서, 외척이라는 출신 배경을 지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명종대 말 이량, 윤원형 등 외척 세력을 정계에서 축출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였고, 그 과정에서 권신 체제의 청산을 갈망하던 개혁적 신진세력과 손을 잡았다. 그는 명종 17년 별시에 급제한 이후 본격적으로 정계 활동을 시작하였는데, 이때 윤원형 세력에게 비판적이었던 개혁적 신진세력은 그에게 좋은 정치적 동지였다. 개혁적 신진세력 역시 아직 을사사화의 여파가 남아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심의겸의 덕분에 조정에서 정치세력화가 가능하였다. 명종대 말 이루어진 권신정치의 종식은 심의겸과 개혁세력의 공동작품이었다. 심의겸에게 개혁세력은 지원군이었고, 개혁세력에게 심의겸은 든든한 후원자이자 구심점이었다.[130]

그런데 명종대 말부터 시작된 심의겸의 급속한 정치적 성장과 세력화는 동시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의구심을 불러일으켰다. 심의겸은 급제 직후 빠르게 승진하며 청.현직을 두루 역임하였는데, "資級의 차례를 빠르게 뛰어넘은 것이 일찍이 이와 같은 적이 없었다"는 평을 들을 정도였다.[131] 명종 19년 독서당에 선발되었을 때도 과연 그에 합당한 재능이 있는지 의심을 하는 자들이 있었다.[132] 결정적으로 명종 21년 1월 종3품직인 사헌부 집의에 제수되자, 많은 사람들이 그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기 시작하였다고 한다.[133] 곧이어 2월에는 홍문관 직제학에 오름으로써 발신 5년 만에 堂上의 반열에 오르는 파격을 보였다.

게다가 명종 18년 이양을 축출한 후부터 그의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들었는데,[134] 명종 20년 윤원형마저 축출하고 당상관에도 오르자 그의

그 후 그 사건의 의미를 규명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심의겸과 김효원 사이의 갈등을 촉발한 소문의 진위 여부를 검토하여, 그것이 실제 이상으로 과장되어 양측의 대립을 증폭시켰다는 결론을 내렸다(김돈, 2009 위의 논문).

130) 이에 대해서는 제1장 1절. '명종대 말~선조 즉위 초의 개혁정국과 이이의 참여' 참조.

131) 『명종실록』 권29, 명종 18년 9월 29일(갑진), "沈義謙爲弘文館副修撰(王妃之母弟 去年登第 遍歷淸顯 超資越序 未有如此之速 然器度夙成 不喜驕奢)"

132) 『명종실록』 권30, 명종 19년 3월 24일(병인); 『명종실록』 권32, 명종 21년 5월 18일(무신)

133) 『명종실록』 권32, 명종 21년 1월 21일(계축)

세력화는 더욱 성대해진 것으로 보인다.[135] 심의겸이 의도하였던 의도하지 않았던 간에 中殿의 동생이라는 점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를 권력자로 인식하도록 만들었으며,[136] 실제 이 시기 그가 권력을 행사하여 특정인을 구제하거나 비호한 경우도 있었다.[137]

선조대 들어서도 심의겸의 정치적 성장은 계속되었다. 그는 우승지를 거쳐 선조 2년 8월에는 대사간에 올랐으며,[138] 선조 6년 3월에는 이조 참의에, 같은 해 8월에는 特旨로 대사헌에 제배되었다. 이때 그는 외척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할 수는 없다며 일단 사직하였다가, 형조판서.병조판서를 거쳐 선조 7년 2월에 다시 대사헌에 제수되자 그 자리에 나아갔다. 그리고 이후 선조 8년 10월 사림의 갈등이 표면화 되어 개성유수로 나갈 때까지 줄곧 대사헌으로 근무하였다. 이처럼 명종대 말부터 선조대 즉위 초까지, 실제 심의겸의 정치적 영향력은 급격히 증대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상황은 그에 대한 후배사류의 경계와 배척이 막연하고 근거 없는 것이 아니었음을 말해준다. 즉, 후배사류들은 단지 외척이라는 심의겸의 출신 때문이 아니라, 외척인 그의 권력이 증대되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 삼은 것이었다.

명종대 말부터 심의겸이 정치적으로 급성장하자, 그의 세력화에 대한 우려와 걱정의 시선 역시 일찍부터 커지고 있었다. 김효원(1542:중종37~1590:선조23)은 바로 그러한 우려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심의겸의 세력화에 대한 비판에 앞장선 인물이었다. 명종 20년 알성시에서 장원으로 급제한 그는,[139] 그 다음 해 북경에 서장관으로 가면서 청렴함과 엄격함을 보여줌으로써 더욱 淸名을 높일 수 있었다.[140] 그는 급제 하던 해 호조좌랑으로

---

134) 『명종실록』 권32, 명종 21년 1월 21일(계축)

135) 『명종실록』 권33, 명종 21년 윤10월 9일(병신)

136) 명종의 후사가 정해지지 않았지만 모두들 그에 말하기 꺼려할 때, 생원 김택이란 자가 상소를 올려 이를 촉구한 일이 있었다. 이때 홍문관의 長으로 있던 이양원이 먼저 심의겸에게 물어 명종의 뜻을 엿보고자 한 사례는 이를 잘 보여준다[『명종실록』 권33, 명종 21년 11월 16일(임신)].

137) 『명종실록』 권32, 명종 21년 5월 24일(갑인); 『명종실록』 권33, 명종 21년 7월 3일(임진)

138) 선조 6년 2월 20일 대사간 심의겸이 呈病하였다는 기사가 있는 것을 보면 이때까지 계속 대사간으로 재직했던 것 같다[『선조실록』 권7, 6년 2월 20일(신미)]. 그러나 이 기간의 활동에 대한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139) 『국조문과방목』(奎 106), http://people.aks.ac.kr/

서 黃腸木 敬差官으로 영남에 다녀왔는데, 이때 이황과 조식 및 그의 문하생들과 두루 만나며 교류하였다. 특히 그는 조식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조식은 김효원이 "오늘날 士類라고 이름 하는 자들이 어찌 외척에게 付托하는가"라며, 기대승 등의 개혁적 신진세력이 심의겸과 연대하는 행동을 비판하는 것을 높이 평가하였다. 그리고 자신의 고제이자 당시 이조좌랑이던 오건으로 하여금 김효원을 후임으로 천거토록 하였다.[141]

그리고 선조 6년 銓郞 김효원은 심의겸의 동생 심충겸이 전랑 후보로 천거되자, 외척이라는 이유로 이를 반대하였다.[142] 앞서 보았듯이, 이때는 선조대 들어 계속 승승장구하던 심의겸이 특지를 통해 대사헌으로 진출하는 등 성장이 가속화 되던 시기로, 이러한 상황에서 김효원은 심충겸의 전랑 진출을 "급급하게 외척을 진출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하였던 것이다. 이미 심의겸이 대사헌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심충겸까지 관료 사회의 중요한 영향력이 큰 전랑직에 진출한다는 것은 충분히 경계할 만한 상황이었고, 이에 대해 김효원은 적극적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낸 것이었다.

그런데 출사 후 외척 심의겸의 세력화를 경계하는 김효원의 모습은 급제 전 그의 행태와는 차이가 있었다. 김효원은 草溪 鄭氏 鄭承孝의 딸과 결혼하였는데,[143] 정승효는 윤원형의 첩 정난정의 아버지인 정윤겸의 조카였다.

---

140) 이때 명종이 공조 참판 尹玉을 북경에 보내어 사은하게 하였는데[『명종실록』 권33, 명종 21년 윤10월 10일(정유)], 윤옥은 김효원이 같은 마을에 사므로 자세히 따지지 않을 거라 김효원을 데리고 갔다고 한다. 그런데, 출발 당일부터 김효원은 윤옥의 濫行을 하나도 따라 주지 않았고, 결국 중도에서 가지고 온 銀을 다 돌려보냈다고 한다[『명종실록』 권34, 명종 22년 5월 28일(임오)].

141) 『沙溪遺稿』 권3, 「與辛用錫慶晉李玉汝貴」, "適其時金孝元見南冥曰 今之人名爲士類 而付托外戚 其可乎 蓋以高峯諸公 爲附沈義謙也 南冥大喜而推奬之 使吳健薦爲銓郞"

142) 심충겸은 심의겸의 동생으로 선조 5년의 春塘臺試에서 장원으로 급제하였으며, 형 심의겸과 함께 심연원의 여덟 손자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인물 중 한명이었다[『선조수정실록』 권3, 선조 2년 7월 1일(신임)]. 『연려실기술』에 실린 『하담록』에 의하면, 이때 김효원은 "이조의 관직이 어째서 외척 집안의 물건인가. 심씨 문중에서 반드시 차지해야 하는가", 그리고 『괘일록』에 의하면, "외척은 등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을 했다 한다.

143) 손자 김세렴이 작성한 김효원의 묘갈명에는 그의 집안에 대한 정리가 상세하게 되어 있다.『葛庵集』 속집 권4, '通政大夫行永興府使贈嘉善大夫吏曹參判省庵金公墓碣銘' 참조.

즉, 김효원의 장인 정승효와 윤원형의 첩 정난정은 사촌 간이었다. 그가 어떤 연유로 윤원형의 집안과 혼사를 맺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태생적 요인이 아니라 결혼이라는 자신의 의지를 통해 윤원형과 연계되었다는 점, 게다가 잘 알려진 대로 윤원형의 집에 숙식까지 했다는 사실은 급제 전의 김효원은 권신체제 척결을 내세웠던 당시의 개혁적 신진세력과 친연성이 없었음을 말해 준다. 발신 전에는 외척 윤원형과 친밀한 관계에 있던 그가, 발신 후에는 외척 심의겸에 대한 비판을 통해 명성을 높인 것이다.

선·후배 사류가 분열한 보다 직접적 계기는 선조 8년, 황해도 재령에서 종이 주인을 죽인 살인 사건이었다. 사인을 밝히지 못하여 오래도록 獄이 성립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의자인 종을 계속 옥에 가두는 것이 옳은가를 둘러싸고 대신들 사이에서 찬반 의견이 갈렸는데,[144] 선조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종을 석방하였다. 그러자 이번에는 三司로부터 서로 다른 견해들이 나왔다. 선조는 강상죄이므로 종을 다시 가두어 국문하기를 청한 사헌부와 홍문관의 주장을 수용하였고, 그 결과 이를 반대한 사간원의 관원은 모두 교체되고 허엽이 새로운 대사간이 되었다.[145]

결정적인 문제 상황은 그 이후 발생하였다. 대사간 허엽이 사건의 처리가 체통을 잃었다는 이유로, 위관인 좌상 박순을 推考하고 의금부 당상에서 파직할 것을 청한 것이다. 이때 김효원도 사간으로서 허엽과 함께 추고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그러자 사간원이 대신을 추고하는 것이 事體에 마땅한지 여부를 둘러싸고 파장이 일었다. 선배사류 측 인사인 정언 趙瑗과 대사헌 김계휘는 '추고는 일반 관원[庶官]에게나 하는 것으로 대신에게는 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였다. 반면 이 둘을 제외한 대부분의 兩司 관원들은 大臣 추고는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들은 모두 후배사류 측 인사들이었다.

---

144) 위관인 좌의정 박순과 우의정 노수신은 綱常 관련 범죄이므로 피의자를 석방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고, 지의금부사 홍담은 피의자가 억울하게 갇혀 있다며 조속한 석방을 주장하였다.

145) 이때 사헌부는 서인인 김계휘가 대사헌으로, 그가 논의를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사간원의 경우 대사간은 유희춘이었으며, 그는 재차 국문하는 것에 반대하였다. 사간원 관원 중 유일하게 김응남은 사헌부와 마찬가지로 다시 국문을 청하였다. 그리하여 사간원 관원이 모두 체직될 때 김응남만은 제외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양사를 처치해야 할 홍문관 내부에서도 선배사류와 후배사류 간에 의견이 갈리었다. 부제학 이이는 추고는 대신에 대한 대우가 아니라며 조원과 김계휘를 두둔한 반면, 수찬 洪進, 著作 洪迪, 李敬中 등은 허엽을 옹호하고 김계휘를 비난하였다. 결국 양측은 김계휘도 체직하는 것으로 타협점을 찾아, 양사의 관원을 모두 체직시키고 오직 조원만 출사하도록 처치하였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후배사류가 주축인 대간의 인사들을 대거 체직한 이 조치는 그들의 불만을 살 수밖에 없었다.[146]

그밖에도 선·후배 간 갈등이 표면화 된 선조 8년 7~9월에는 그들 간에 직접적인 충돌이 많았는데, 주로 이조와 대간 등 정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직책에 자파의 인물을 심고 상대편 인사를 축출하려는 내용으로 전개되었다. 허엽과 김효원의 박순 추고가 있은 직후, 선배 사류측의 대사헌 김계휘는 평소 김효원과 친밀한 것으로 알려진 이조판서 정종영을 탄핵하여 물러나게 하였다. 무엇보다 인사 담당 부서의 수장부터 교체하여 조정에서 후배사류 세력의 성장을 막으려는 조처였다. 그러자 다음 달 8월에는 이조 좌랑인 허봉과 이조참판 박근원이 주도하여 김계휘를 평안도 관찰사로, 이후백을 함경도 관찰사로 내보냈다. 김계휘와 이후백은 모두 선배 사류 중에서도 핵심 인사들이었는데, 이들을 외방으로 내보내 중앙 조정에서 선배 사류의 공세를 약화시키려는 의도였다.[147]

이에 9월에는 선배사류 측 인사가 중심이 된 사간원이 “이조가 사사로움을 따르고, 政事를 잘못 하였다”며, 참판 이하 이조의 관원을 모두 체직하기를 청하여 윤허를 받았다.[148] 그들 중에는 좌랑 이성중과 허봉 등 김효원의 최측근 인물들이 포함되어 있었다.[149] 그리고 동인 전랑들이 물러난 자리에

146) 특히 허엽은 “이이 같은 자가 옥당의 장관이니 어찌 국사가 잘못되지 않겠냐?”며 이를 주도한 이이를 격렬하게 비난하였다. 이상 사건의 경위에 대해서는『율곡전서』권29,「경연일기」선조 8년 7월 기사 참조. 이이는 허엽이 살해된 주인의 族黨으로서, 평소 옥이 성립되지 않아 분개하였다고 적고 있다. 즉, 이이는 이를 허엽의 사적 인연으로 인한 대응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147) 선배사류는 이 조처가 許篈이 대사헌 김계휘가 자신의 아버지 허엽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에 반발하여 박근원과 함께 벌인 일들이라 파악하였다.

148)『선조수정실록』권9, 선조 8년 9월 1일(병신), “諫院啓論吏曹循私失政 請遞叅判以下 卽依允”

149) 이처럼 선배사류의 후배사류에 대한 강경책은 이조참판 박근원만 교체하자는 이이의

서인 강경파 윤현과 조원을 후임으로 채우고,[150] 李誠中이 지평이 되자 탄핵하여 물러나게 하는 등, 조정에서 후배사류들을 대거 제거하였다. 그 결과 "후배 사류들은 편히 조정에 있지 못하고 외직으로 나가거나 벼슬에서 물러났다."[151]

결국 이해 10월, 사류 간 격해지는 갈등을 진정하기 위해 이이의 제안대로 심의겸과 김효원을 외방으로 내보냈다. 그러나 선조가 김효원만을 지명하여 '이 사람이 조정에 있으면 조정이 안정되지 않는다'고 한 점, 그리고 심의겸을 가까운 개성으로 보낸 것과 달리 김효원은 경흥·부녕과 같은 먼 변방에 보내는 것을 보고, 후배사류들은 공정성에 의구심을 품었다.[152] 선배사류들은 이후에도 김효원과 후배사류에 대한 공세를 계속하였다. 그리하여 이성중, 정희적, 노준 등 후배사류로서 '당하 문신들 가운데 이름난 자들'이 모두 외방으로 보내졌다.[153]

이상을 정리하면, 명종대 말부터 두드러진 심의겸의 세력화를 경계하던 후배 사류는 선조 8년 인순왕후의 사망을 기점으로 선배사류에 대한 공세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결과는 오히려 대간과 이조에서 후배 사류측 인사들이 모두 체직되는 것으로 끝났다. 그리고 이조를 장악한 선배 사류는 중앙 조정은 선배 사류측 인사들로 채우고, 후배 사류 측 인사들은 외직으로 내보냈다. 그리하여 선조 8년의 사건 이후 선배사류가 우세하다는 평가가 나오게 되었다.

3) 이이의 '류속' 구신 경계와 진정 시도

선배사류와 후배사류의 갈등이 표면화된 선조 8년 8월을 전후한 시점에 이이는 홍문관 부제학으로 재직하고 있었다. 잘 알려져 있듯이 이 시기 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일이었다. 『선조수정실록』권9, 선조 8년 9월 1일(병신)

150) 조원은 선조 11년 5월, 동인인 지평 홍가신에 의해 탄핵되어 체직되었다.

151) 『연려실기술』 권13, 「宣祖故事本末」 '東西分黨之分'

152) 『율곡전서』 권29, 「경연일기」 선조 8년 10월 기사

153) 『선조실록』권10, 선조 9년 3월 3일(병신), "金沈雖俱出外 而沈邊勝金邊 堂下文士之有名者 多見排抑"

음 표면화된 사류 간의 갈등에 대응하는 조처로서 심의겸과 김효원을 모두를 외방으로 보내자는 제안은 바로 이이로부터 나온 것이었다. 갈등의 상황에서 양쪽 모두의 잘못으로 돌린 점, 그리고 논란의 중심에 있던 사람을 외방으로 보내어 일단 갈등의 현장인 중앙 조정으로부터 격리하려 한 점에서 할 수 있듯이 당시 이이의 목적은 무엇보다 갈등의 봉합과 확산의 방지에 있었다.

그는 먼저 우의정 노수신에게 이들은 모두 사류라는 점을 강조하고, 경연석상에서 선조에게 이들을 외직으로 보낼 것을 건의해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리고 경연 자리에서는 노수신의 발언을 지지하는 형식을 취하면서, 재차 이를 강조하였다.

> 이 두 사람이 미워하여 틈이 생긴 것이 깊은 것은 아니다. 단지 우리나라 인심이 가볍고 성급[輕躁]하여 말세에는 시끄럽게 떠드는 것이 더욱 심하여, 두 사람의 친지와 오랜 친구들이 각각 들은 바를 전하며 서로 말해 주어 마침내 어지럽게 만들었다. 大臣(역자:노수신)은 마땅히 진정시켜야 하므로 두 사람을 외방으로 내보내 말의 근원을 끊으려 하였을 뿐이다. 또 상께서는 모름지기 이 일을 아셔야 한다. 금일 조정에 비록 현저하게 드러난 姦人은 없지만 어찌 반드시 小人도 없다고 할 수 있겠는가? 만약 소인이 朋黨이라 지목하고 두 사람을 모두 다스릴 계획을 세운다면 사림의 화가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154)

여기서 이이가 향후에도 사림의 분열이라는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시하는 핵심 논제, 즉 '둘은 모두 사류'란 표현이 등장한다. 이이는 김효원이나 심의겸이나 모두 똑같은 사류로서, 이들은 흑백 또는 사정과 같이 도덕적 시비를 명확히 가릴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이들 간의 갈등은 어디까지나 사소한 원인으로 인한 작은 틈에 불과했는데, 浮言으로 인해 커진 소란일 뿐이라고 치부한다. 따라서 이 둘을 일단 외방으로 보내면 소란이 진정되리라 예측한다.

---

154) 『율곡전서』 권29, 「경연일기」 선조 8년 10월 기사, "珥曰 此二人未必深成嫌隙 只是我國人心輕躁 末世囂囂益甚 二人之親戚故舊 各傳所聞 相告語 遂致紛紜 大臣當鎭靜 故欲出二人于外 以絶言根耳 且自上須知此事 今日朝廷 雖無姦人顯著者 亦豈可謂必無小人乎 若小人目以朋黨 爲兩治之計 則士林之禍必起矣 此不可不知也"

그런데, 여기서 이이의 이 발언이 국왕 선조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는 이 둘의 갈등을 매우 사적인 이유에서 비롯한, 사소한 갈등으로 치부함으로써 선조에게 그 심각성을 부각시키지 않으려 하였던 것이다. 이이는 사태에 대한 선조의 질문에 대해 애써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한다.[155] 이때 선조는 이이가 김효원과 붕당을 이룬 것으로 알고 심하게 꾸짖을 정도로 아직 상황 파악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다.[156] 그러나 이날의 이이 발언은 훗날 '심각할 것을 예상했다'는 그의 회고를 통해 알 수 있듯이,[157] 그의 본심이 아니었다. 그것은 선조를 안심시키기 위한, 의도적인 '위장'과 '축소'였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에 대한 해답은 인용문의 마지막에서 찾을 수 있다. 이이는 무엇보다 양측의 갈등을 기화로 '小人'에 의한 '사림의 화'가 일어날 것을 경계하고 있었으며, 선조에게 이 점을 분명하게 인식시킨다. 그는 권신 체제의 종식 이후 드러난 간인은 없지만, 소인이 없는 것은 아니라며 언제든지 그들에 의해 '붕당으로 지목되어' 사림의 화가 발생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이이가 소인이라고 지칭한 대상은 막연한 존재가 아니라, 당대 정국 상황에서 구체적인 인물을 가리키고 있었다. 이는 다음해 선조 9년 1월, 인순왕후의 練祭 후 복제를 둘러싸고 다시 조정에서 논의가 있었을 때, 그에 대해 언급하면서 분명하게 드러냈다. 앞서 보았듯이, 이때 대부분의 대신들이 검은 모자로 바꿀 것을 주장하였고, 좌의정 박순과 우의정 노수신만이 그대로 흰 모자로 갈 것을 주장하였다. 그런데 이 논란에 대해 이이는 「경연일기」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 대개 양이 성하고 음이 쇠하면, 군자가 등용되고 소인은 배척된다. 음이 성하고 양이 쇠하면, 소인이 등용되고 군자는 물러난다. 이것은 진실로 常理다. 비록 그러하나 천하의 일은 바르고 이기는 자는 항상 적고, 바르지 않은데 이기는 자는 항상

155) 위와 같음.

156) 『율곡전서』 권29, 「경연일기」 선조 8년 10월 기사. 이때만 해도 선조는 이이가 김효원과 黨比함을 의심하여 循私한다고 화를 냈으며, 한참 후에야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고 한다.

157) 『율곡전서』 권7, 「辭大司諫兼陳洗滌東西疏」

많다. 이런 까닭으로 군자가 비록 성하더라도 한명의 소인이 左腹에 잠입하여 또한 족히 다스려짐[治]을 바꾸어 어지러움[亂]을 만들 수 있다. 하물며 소인이 많고 군자가 적음에랴. 을해·병자 연간(선조 8~9년)에 류속이 조정을 가득 채워, 매번 조정의 의론이 있으면 邪論이 무리지어 떠들고, 正議의 약함이 머리털 하나로 무거운 짐을 끄는 것과 같았는데, 거기에다 상의 마음이 士類를 깊이 미워하여 설사 공자. 관자 .제갈량이 조정에 있더라도 어찌할 수 없었다.158)

여기서 이이는 전례 논쟁에서 오례의 고수를 주장했던 다수의 류속 구신들을 소인으로 치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영부사 권철, 영의정 홍섬, 예조참판 박계현 등이 그에 해당하였다. 이이는 여전히 홍섬과 같은 류속 구신 인사들이 대신 직위에 포진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언제든지 그들에 의해 사류의 화가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사류 간의 갈등은 위험한 일이 될 수밖에 없었다.

류속 구신에 의한 정치적 피화를 경계하여 사류 간의 갈등을 봉합하고 확산을 막으려는 이이의 의도는 애초 사간원이 좌상 박순을 추고했을 때, 서인 동료들의 공세적인 조치 요청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개입을 자제한 것에서도 잘 드러난다. 서인 신응시, 정철 등은 '옥당은 왜 대간을 탄핵하여 체차시키지 않는가'라며, 이이에게 대간을 체차하도록 압박하였다. 하지만, 이이는 '옥당은 논핵을 주요 임무로 하지 않으며, 반드시 양사의 피혐을 기다린 후에 처치해야 한다'며 직무상·절차상의 이유를 들어, 그리고 허엽 등의 대신 추고 주장은 '사악한 논의가 아니라 다만 過重할 뿐이다'라는 이유를 들어 거절하였다. 또, 이때 친 동인 인사인 정종영이 이조판서가 되자 정철이 논박할 것을 요청하였을 때도, 이이는 정종영이 '人望이 없고 김효원과 附託했음'을 알고 있었지만, '논박은 옥당의 직무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159)

---

158) 『율곡전서』 권29, 「경연일기」 선조 9년 1월(90면 나), "蓋陽盛陰衰則君子用 而小人斥 陰盛陽衰 則小人用 而君子退 此固常理也 雖然 天下之事 正而勝者常少 不正而勝者常多 是故君子雖盛 一小人潛入左腹 亦足以易治爲亂 況小人衆 而君子寡者乎 乙亥丙子之間 流俗充滿朝廷 每有廷議 邪論羣咻 正議之弱 如一髮引千勻 而加之以上心深厭士類 假使孔孟管葛處朝 亦無如之何矣"

159) 『율곡전서』 권29, 「경연일기」 선조 8년 8월(77면 가), "澈又謂珥曰 鄭銓長 豈可存乎 珥曰 論駁非玉堂之職 澈慨嘆作詩曰 君子 指朴淳 辭黃閣 小人秉東銓 賢邪進退

동시에 이이가 동료 사류들에게 진정할 것을 설득하며 내세운 논리는 선·후배 사류 모두에게 잘잘못이 있다는 소위 '양시양비론'이었다. 이를 잘 보여주는 사례는, 선조 9년 2월, 그가 관직을 떠나 파주로 내려가기 전 여러 사류들과의 송별 모임에서 조정의 화합을 호소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 내용이다.

> 내가 지금 定論을 얘기 하려 하니 제공은 그것을 들어보라. … 권간이 흐리고 어지럽힌 지 오래인데, 권간을 꺾어 누르고 깨끗하게 하여 士論을 펴게 한 것이 어찌 심의겸과 諸公의 공이 아니겠는가. 김효원이 애초 나라 일을 하고자 하면 巨室의 마음을 잃지 말아야 하는데, 前輩들을 누르고 배척하여 그들로 하여금 분을 품게 하여 사림이 저절로 서로 角立하였으니, 이는 김효원의 죄이다. 이미 이와 같아 공론이 裁抑하여 外官으로 내보냈으니 이미 中을 얻었으나 여전히 깊이 미워하고 공격하는 것은 선배의 죄이다. 이와 같이 의론을 결정하면 그 事情을 얻는 것이니 지금 이후 서로 의심하지 말고 진솔하게 처치한다면 무슨 일이 있겠소. 그렇지 않으면 조정의 걱정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예전에는 士類와 俗類 두 편 뿐이더니, 지금은 사류 가운데 절로 양쪽으로 나뉘었으니, 이에 이르게 한 게 김효원이 아니면 누구겠는가.[160]

그는 먼저 김효원과 후배사류의 잘못으로, 권간을 척결하는 데 공헌한 심의겸과 선배사류에 대한 공세를 시작한 것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선배사류의 잘못으로는, 이미 김효원을 외직으로 내보냈음에도 계속하여 김효원에 대한 공세를 가하려는 점을 들고 있다.[161] 자신은 단지 鎭定하고자 했을 뿐

際 副學心恬然 珥見詩 但微笑而已." 그렇다고 당시 이이가 완전한 중립을 취하거나 서인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은 결코 아니었다. 이이가 주도한 옥당의 처치로 대간에 있던 동인 인사들이 모두 체직된 것이다. 옥당은 사간원의 박순 탄핵을 가장 먼저 공개적으로 비판한, 서인인 사헌부 정언 조원 이외에는 모두 체직하였는데, 이는 허엽이 강하게 반발할 정도로, 서인의 입장이 많이 관철된 것이었다.

160) 『율곡전서』 권29, 「경연일기」 선조 9년 2월(97면 가~나), "珥曰 吾今欲爲定論 諸公試聽之 … 珥曰 權姦濁亂久矣 摧陷廓淸 使士論得伸 豈非方叔諸公之功乎 而乃排抑前輩 使前輩懷憤 士林自相角立 此則仁伯之罪也 旣如此 故公論裁抑 出補外官 已得中矣 而猶嫉之太深 攻之太劇 則此前輩之罪也 如此論斷 得其事情矣 自今以後 不相疑阻 坦懷處之 則更有何事 不然則朝廷之憂未艾也 疇昔則士類俗類 只兩邊而已 今則士類之中 自分兩邊 致此者非仁伯而誰"

161) 그런데 이와 같은 이이의 양시양비론의 내용은 선조 11년 양측의 갈등이 더욱 격화되고 난 후의 심의겸의 잘못을 보다 분명하게 지적한 양시양비론과는 그 내용을 다소

이었다는 본인의 고백처럼, 이때만 해도 이이는 동서 갈등을 봉합하고 무마하는 데 주력하고 있었다. 반복하지만 그 이유는 위의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류속과 사류의 양자 구도를 우선적으로 의식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제 '사류가 또 양쪽으로 나뉘었고', 이후의 상황은 그의 바람과는 다르게 진행되었다.

그러나 선배사류와 후배사류 모두의 잘못을 지적하는 이이의 입장은 양쪽으로부터 불만을 샀다. 허엽을 비롯해 후배사류 측 인사들이 강하게 반발했던 것은 물론, 선배사류 동료들로부터도 별다른 호응을 얻지 못하였다. 가장 강경한 입장을 보인 정철을 필두로 선배사류는 이이의 태도가 모호하다며 김효원에 대한 더욱 강력한 처벌을 이어가지 않는다고 불만을 표출하였고, 후배사류는 김효원을 외직으로 보낸 조치 자체를 비난하였다.[162]

정리하면, 동서 분당의 직접적인 이유 중 하나는 명종대 말 척신체제가 종시된 이후, 정치적으로 가장 위협이 되는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선후배 사류 양측의 판단이 달랐기 때문이었다. 후배 사류들은 권신 체제의 경험으로부터, 외척인 심의겸의 권력화를 가장 경계하였다. 반면, 선배 사류들은 심의겸에 대한 경계 의식은 상대적으로 희박하였다. 대신 이이는 과거 여러 차례 발생한 士禍의 경험으로부터 대신들이 주도하고 군주가 그에 동조하여 발생하는 사림의 정치적 被禍를 가장 경계하였다. 그렇기에 그의 사림 화합론은 사류 내부를 향한 발언이되, 동시에 경계의 시선은 사류 외부를 향해 있었다.

달리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제3장 3절 '동서 갈등의 격화와 이이의 이중과제'에서 자세하게 다룬다.

162) 『율곡전서』 권29, 「경연일기」선조 9년 2월(97면 가~나)

三. 개혁론의 완성 「聖學輯要」와 이이의 이중 과제

1. 「성학집요」의 집필 의도와 '修己'·'爲政'편

이이가 선조 8년에 제출한 「성학집요」는 그의 개혁론의 완성본이라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다음의 두 가지이다. 첫째, 형이상학이 보충되었다. 이전의 「동호문답」·「만언봉사」와 달리 「성학집요」는 '수기'편에서 이기심성론과 수양론을 다루고 있으며, 이는 개혁론의 출발로서 기능하고 있다.[1] 둘째, 바람직한 경세 질서와 그것의 실천 전략에 대한 이론적 완성이 이루어졌다. 「성학집요」의 '위정'편에서 이이는 이미 「동호문답」·「만언봉사」를 통해 단편적으로 제시하였던 개혁의 이론과 원리들을 포괄하면서, 그것들의 종합적인 체계화를 시도하였다.

「성학집요」는 철저하게 이론적 접근을 시도하는 저술이며, 보편적 전망의 제시를 표방하고 있다. 「동호문답」·「만언봉사」와 달리, 여기서 이이는 조선의 역사나 상황을 언급하지 않으며, 또 구체적인 정책들을 다루지도 않는다. 그럼에도 「성학집요」에는 이이가 처한 구체적 상황과 그것에 대한 그의 인식이 반영되어 있었다. 즉, 이이는 「성학집요」를 통해 자신이 구상하는 개혁의 목표·주체·과정과 방법을 제시하면서, 자신과는 다른 입장을 의식하며 체제를 구성하고 내용을 담았다. 따라서 「성학집요」 의 정확한 독해를 위해서는 앞서 「동호문답」·「만언봉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역사적 맥락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2]

---

1) 그 배경에는 선조 5~6년, 성혼과 서신을 교환하며 나눈 토론이 있다. 이이의 사상 형성의 시기를 추적한 정원재의 연구에 따르면, 그의 이기심성론은 이때 완성되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서는 '정원재, 2005 「이이 철학의 형성 과정과 시기 구분」『철학논구』 33' 참조.

1) 집필 의도와 특징

이이가 「성학집요」를 저술한 목적은 단지 『대학연의』의 개선 또는 보완이 아니었다. 즉, 『대학연의』의 분량이 너무 방대하여 불편하므로 보기 간편하게 만든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근원적인 지점을 향해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책의 序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이는 아래와 같이 자신의 문제의식을 피력하였다.

> 道는 오묘하여 형태가 없지만, 文으로써 道를 드러낸다. 四書와 六經이 이미 밝고 갖추어져 있어, 文을 통하여 道理를 구하면 드러나지 않음이 없다. 다만 책 전부는 넓고 아득하기에 요점을 잡기 어려운 것을 걱정하여 先正이 『大學』을 表章하고 규모를 세워, 聖賢의 천 가지, 만 가지 교훈이 모두 이것을 벗어나지 않으니, 『대학』

---

2) 그 동안 「성학집요」의 의미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평가가 이루어졌다. 먼저, '수기'에서 '치인'으로의 확대, 즉 '도덕적 자기 수양의 논의를 경세 질서의 차원에까지 적용한 것'이라는 평가로, 주로 철학계의 연구가 그러하였다[대표적으로 '리기용, 2005 「「성학집요」를 통해본 성인의 학문과 정치」『한국사상과 문화』 28' 참조]. 다음은 '조선의 군주학'이란 표현이 보여주듯, 『대학연의』를 조선적으로 변용했음을 강조한 국사학계의 연구가 있다. 이 연구는 변용의 핵심을 군신 관계에서 포착하였는데, 『대학연의』가 지닌 '尊君'적 성격과 달리 「성학집요」의 군주는 사대부 일원으로서, 사대부의 논리를 따라야 하는 존재가 되었다고 평하였다[정재훈, 1999 「「성학집요」를 통해본 조선중기의 정치사상-『대학연의』와의 비교를 중심으로」『규장각』 22]. 한편, 이이 당대를 다룬 것은 아니지만, 18세기 국왕들이 「성학집요」를 어떻게 이해하고 활용하였는가를 탐구한 일련의 연구들도 있다[윤정, 2006 「숙종대 『聖學輯要』 進講의 경위와 의미 -숙종 정국 운영방식의 일단면」『남명학연구』 21; 윤정, 2007 「정조의 『大學類義』 편안과 『聖學輯要』」『남명학연구』 23; 윤정, 2008 「영조의 『聖學輯要』 이해와 君師 이념」『역사와 경계』 66]. 최근 정치학계에서, 이상의 연구들이 "「성학집요」를 진헌했던 당시의 정치적 맥락에 주목하지 못하였다"는 문제의식 하에, 이이는 "선조 초기 국정 운영에서 배제되어 있었고, 그 타개책으로, 「성학집요」를 진헌했다"는 연구가 제출되었다[박홍규·송재혁 저, 2012 「「성학집요」 진헌의 정치적 성격」『한국철학논집』 35]. 이 연구는 「성학집요」를 이해하기 위한 정치적 맥락의 중요성을 환기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이이와 단지 선조의 갈등 구도만을 염두에 두고 있으며, 상황 분석도 매우 소략하다는 한계가 있다. 「성학집요」이해를 위한 정치적 맥락의 구성은 선조는 물론 당대 신료 세력 내부의 다양한 입장에 대한 고려, 그리고 선조 즉위 이래의 정국 상황에 대한 세밀한 접근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은 바로 요점을 잡는 법이다. 西山 眞氏가 이 책을 미루어 넓혀 衍義라 하고, 경전을 널리 인용하고 또 史籍을 끌어오니, 학문을 하는 근본[爲學之本]과 다스림의 순서[爲治之序]가 찬연하게 조리가 있으며, 人主의 몸으로 귀중함이 돌아가니, 실로 제왕이 道에 입문하는 指南이다. 다만, 卷帙이 너무 많고 文辭가 넘쳐, 紀事의 책이지 實學의 본체는 아닌 것 같으니, 진실로 아름답지만 완전하게 좋지는 못하다. … 생각하건대, 『대학』은 진실로 立德의 門인데, 진씨의 『대학연의』는 오히려 簡要함을 결여하였다. 진실로 능히 『대학』의 취지를 모방하여 次序를 나누고, 성현의 말을 정밀하게 골라 채우고, 節目은 상세하고 분명하게 하되, 말은 간략하고 이치를 다하면 요점을 잡는 법이 바로 여기(성학집요)에 있다. … 다른 일은 모두 젖혀두고 오로지 요점을 모으는 것을 일삼아, 四書·六經과 先儒의 설, 역대의 역사를 깊이 탐구하고 널리 찾아서는, 그 정수만을 채집하여 모으고 차례를 나누고, 번잡한 것은 삭제하고 중요한 것을 취하여 다섯 편으로 편성하였다.[3]

「성학집요」는 주희 이래 이어진 '요점 잡기[領要]'와 '미루어 확충하기[推廣]' 작업의 연장선상에 있었다. 그 시작이자 근원은 四書와 六經이었다. 이 책들을 통해 분명하게 '道'를 알 수 있지만, 양이 너무 많고 광범위한 것이 문제라고 생각한 주희는 『대학』을 표장함으로써 사람들이 이를 통해 사서·육경의 요점을 잡을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 그 후 진덕수는 다시 『대학』의 내용을 확충하여 『대학연의』를 만들었고, 또 여기에 제왕학으로서 성격을 강화하였다. 그리고 이제 이이는 국왕 선조를 위해, 다시 요점을 잡기 위한 작업을 한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이이가 『대학연의』에 대해 문제 삼고 있는 초점은 단지 분량이 너무 많다는 게 아니라, 그것이 '簡要'라는 『대학』의 정신을 잃었다는 사실이었다. 애초 주희가 『대학』을 표장한 의도대로라면 『대학연의』를 통해 쉽고 편리하게 사서·육경으로 갈 수 있어야 하는데, 『대학연의』는 오히려 그

3) 『율곡전서』 권19, 「성학집요」 序, "道妙無形 文以形道 四書六經 旣明且備 因文求道 理無不現 第患全書浩渺 難以領要 先正表章大學 以立規模 聖賢千謨萬訓 皆不外此 此是領要之法 西山眞氏 推廣是書 以爲衍義 博引經傳 兼援史籍 爲學之本 爲治之序 粲然有條 而歸重於人主之身 誠帝王入道之指南也 但卷帙太多 文辭汗漫 似紀事之書 非實學之體 信美而未能盡善焉 … 竊念 大學固入德之門 而眞氏衍義 猶欠簡要 誠能倣大學之指 以分次序 而精選聖賢之言 以塡實之 使節目詳明 而辭約理盡 則領要之法 其在斯矣 … 於是 廢棄他功 專事摭要 四書六經 以及先儒之說 歷代之史 深探廣搜 採掇精英 彙分次第 刪繁就要 沈潛玩味 反覆檃括 兩閱歲而編成 凡五篇"

과정을 방해하고 있다고 보았다. 무엇보다 문제는 많은 분량의 사실이 기록되어 있으나 막상 중요한 핵심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으로, "紀事의 책이지 實學의 본체는 아닌 것 같다"는 평가는 이러한 인식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렇기에 「성학집요」의 목표는 『대학』의 정신으로 돌아가는 것, 『대학』과 마찬가지로 사서·육경의 핵심을 정확히 제시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사실은 「성학집요」 내용을 주로 사서·육경 등에서 채용했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이이 본인이 序의 마지막에서 '이 책은 사서·육경의 사다리'라는 점을 강조한 점에서 알 수 있다.[4]

「성학집요」를 통해 직접 사서·육경과 그리고 '도'와 연결되기를 기획한 이이의 의도는 『대학연의』의 보완 또는 수정이 아니라 사실상 전면적인 대체였다. 이러한 이이의 문제의식과 목표는 체제상으로도 드러난다. 두 책 모두 『대학』의 체제를 모범으로 하였지만, 본문의 대항목부터 항목의 명칭에 차이를 보이며,[5] 소항목과 세부 항목으로 들어가면 그 차이는 더욱 커진다. 단적으로, 공통으로 다루는 부분인 '수기~제가'에 대한 항목을 비교해 보면, 이를 알 수 있다.[6] 「성학집요」는 『대학연의』와 항목 구성 자체를 상당히 달리할 정도로, 애초부터 그와는 분명하게 구별되는 책을 의도한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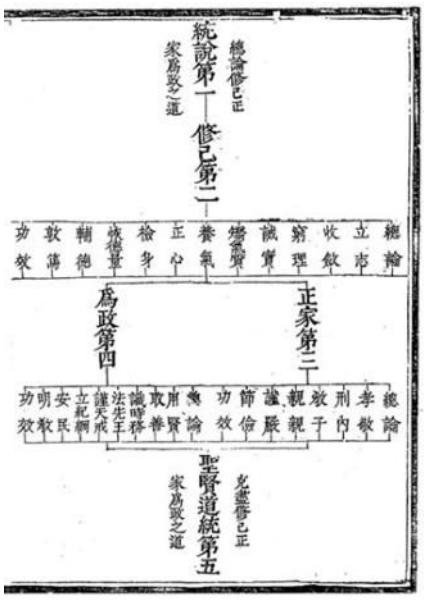
---

4) 『율곡전서』 권19, 「성학집요」 序, "此書乃四書六經之階梯也"

5) 각각의 대항목을 보면 『대학연의』는 '格物致知-誠意正心-修身-齊家', 「성학집요」는 '修己-正家-爲政'으로 되어 있다.

6) 『대학연의』와 「성학집요」의 항목 비교는 '정재훈, 1999 앞의 논문, 322~325쪽' 참조.

[그림 1] 「성학집요」 목록도



무엇보다 「성학집요」 체제의 특징이자 『대학연의』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대학』 팔조목의 치국·평천하에 해당하는 '위정' 항목이 설정되어 이 문제를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는 사실이다. 『대학연의』는 '격물치지~제가'까지만 다루고, 치국·평천하는 생략하고 있다. 책의 서에서 저자 진덕수는 그 이유를 격물치지·성의정심·수신·제가, "이 네 가지의 도를 얻으면, 치국과 평천하는 그 속에 있기" 때문이라고 간단하게 언급하였다.[7] 더 이상 자세한 이유는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으나, 그의 의도는 『대학』의 소위 本末先後論과 그에 대한 주희의 해석, 즉, '수신이 근본으로, 근본이 어지러우면서 말단이 다스려질 수는 없다'는 논리를 충실히 따르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8] 앞서 이이도 언급하였듯이, 『대학연의』는 군주에게 특화된 저술을 표방하였다. 그리하여 사대부의 일반의 차원에서 강조되었던 자기 수양의 중요성이 『대학연의』에서는 군주의 그것에 대한 중요성의 강조로 이어졌다.

---

7) 『대학연의』(奎中 509) 「進大學衍義表」, "四者之道得 則治國平天下 在其中矣"

8) 진덕수가 '치국평천하'를 생략한 이유는 오랫동안 연구자들의 중요한 탐구 주제였다. 이 문제를 비롯해 『대학연의』 전반에 대한 연구사 검토로는 '오세진, 2012 「『대학연의』에서 수양론과 경세론의 관계 연구」, 연세대 철학과 석사논문, 4~8쪽' 참조

국초부터 『대학연의』를 중시한 조선의 儒者들도 이러한 입장을 수용하여, 군주의 자기수양이 政事의 시작이자 근본임이 지속적으로 강조한다.[9] 특히 중종대 『대학연의보』의 進講을 둘러싸고 벌어진 논란은 16세기의 소위 '사림파'가 얼마나 『대학연의』의 본말선후론에 충실하고자 했는지를 잘 보여준다.[10] 明의 丘濬이 편찬한 『대학연의보』는 『대학연의』가 다루지 않은 '치국·평천하'의 항목만을 중점적으로 다룬 책으로, 역사적 연혁과 구체적 사례를 풍부하게 다룬 책이다.[11] 이 책은 명에서 간행된 지 6년 후인 성종 25년(1494) 조선에 수입되어, 중종 10년(1515)을 전후한 시점부터 근 30년간 경연 교재로 이용되었다.[12] 그러나 그 동안 그에 대한 반대도 만만치 않았다. 그 이유로는 160권이라는 방대한 분량 문제가 거론되기도 하였지만, 무엇보다 '순정하지 못하다'는 내용상의 문제가 지적되었다.

그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가 중종 34년, 당시 전주부윤으로 있던 이언적의 상소였다. 그는 『대학연의보』를 "제도와 사물의 번다함에는 세밀하지만, 聖人의 明誠한 뜻과 精一의 요점은 없는" 책으로 치부하고, "말단의 섭렵을 중지하고 근본에 힘쓸 것"을 요청하였다.[13] 『대학연의보』는 그 후 대부분의 기간 동안 경연의 교재로 이용되지 못하였고, 오직 영조대에 군주의 강력한 의지에 의해 잠시 경연의 교재로 사용될 수 있었다.[14] 『대학연의보』의 이러

---

9) 조선 초 『대학연의』의 이해에 대해서는 '지두환, 1993「조선전기 君子·小人 논의ㅡ『大學衍義』 왕안석론을 중심으로ㅡ」『태동고전연구』 9; 지두환, 1993「조선 전기 『大學衍義』 이해과정」『태동고전연구』 10; 김인호, 1998「여말선초 군주수신론과 『大學衍義』」『역사와 현실』 29; 정재훈, 1998「조선전기 『대학』 이해와 聖學論」『진단학보』 86' 참조.

10) 중종대 『대학연의보』 진강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는 '윤정, 2001「朝鮮 中宗·英祖代 『大學衍義補』 進講의 의미」『규장각』 21; 윤정분, 2001「『大學衍義補』의 조선 전래와 그 수용(상): 정조의 『어정대학유의』를 중심으로」『중국사연구』 14-1, 104~109쪽' 참조.

11) 『대학연의보』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는 '윤정분, 2002 『中國近世 經世思想 硏究: 丘濬의 經世書를 중심으로』, 혜안' 참조.

12) 윤정, 2001 앞의 논문, 86쪽.

13) 『중종실록』 권92, 중종 34년 10월 20일(갑신), "臣常怪殿下 有志堯舜之道 而至於經幄進講 則不以三代以上聖經賢傳爲本 而每取末世所輯編帙浩繁 未易究竟之書(時進講大學衍義補 故及之) 進讀如此等書 詳於制度事物之繁 而至於聖人明誠之旨 精一之要 蓋有未備焉 人主但當置諸左右 淸燕之間 時加省閱 以究古今制作規模之得失可也 不必專精講究於經幄之中也"

한 처지는 조선시대 내내 『대학연의』가 누렸던 군주수신서로서의 확고한 지위와 비교된다.

이언적과 같은 인식은 이황에게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가 선조의 즉위를 맞이하여 올린 「戊辰六條疏」는 모두 여섯 조목의 사안을 건의하였는데, 그 중 세 가지가 군주의 자기 수양과 관련이 있었다.[15] 즉, 세 번째 주제인 '聖學을 돈독히 하여 다스림의 근원을 세울 것[敦聖學以立治本]', 네 번째 주제인 '道術을 밝혀 인심을 바르게 할 것[明道術以正人心]', 여섯 번째 주제인 '자기 수양과 성찰을 성실히 하여 하늘의 총애를 계승할 것[誠修省以承天愛]'이 반복적으로 군주의 자기 수양이 다스림의 근본이자 시작임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글의 네 번째 주제, '明道術'에서 그는 아래와 같이 말한다.

> 그것(道術)을 밝히는 일 또한 시행에 본말·선후·완급이 있는데, 근본과 말단은 또 허와 실에 차이가 있다. 군주를 근본으로 하여 몸소 행하고 마음으로 얻은 후에 민생과 일용의 가르침에 행하는 것이 근본이며, 法制를 추종하고 文物을 따르고 좇아 오늘날의 것은 바꾸고 옛 것을 배우려 모방하고 비교하는 것은 말단이다. 근본은 먼저 하고 서둘러야 하는 것이고, 말단은 뒤에 하고 천천히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도를 얻어 군주의 덕이 이루어지면 근본과 말단이 모두 실하여 唐虞의 정치를 이룰 것이고, 그 도를 잃어 군주의 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근본과 말단이 모두 허해질 것이다.[16]

여기서 이황은 군주의 마음과 덕을 근본으로, 법제와 문물을 말단으로 분명하게 대비하였다. 그리고 근본이 이루어진다면 말단의 문제는 자연스레 함께 이루어질 것으로 보았다. 이런 입장이라면 법제와 문물의 문제뿐만 아니라, 군주의 자기 수양 이외의 다른 사안들은 모두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고 우선 순위에서 뒤로 밀리게 된다. 그렇기에 그가 선조의 새 정치를 맞아 만들어 올린 「성학십도」에서 '치인' 또는 '위정'에 해당하는 내용은 찾아볼

---

14) 윤정, 2001 앞의 논문, 90쪽.

15) 나머지 사안은 '重繼統以全仁孝', '杜讒間以親兩宮', '推腹心以通耳目'이었다.

16) 『퇴계전서』 권6, 「무진육조소」, "其明之之事 亦有本末先後緩急之施 其本末又有虛實之異歸焉 本乎人君 躬行心得之餘 而行乎民生日用彝倫之敎者 本也 追蹤乎法制襲美乎文物 革今師古 依倣比較者 末也 本在所先而急 末在所後而緩也 然得其道而君德成 則本末皆實 而爲唐虞之治 失其道而君德非 則本末皆虛"

수 없다. 10개 도설의 주제는 '태극도, 서명도, 소학도, 대학도, 백록동규도, 심통성정도, 인설도, 심학도, 경재잠도, 숙흥야매잠도'로서, 그것은 철저하게 군주의 자기 수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17] 그런 점에서 이황의 『성학십도』는 비록 그 체제와 표현 방식은 『대학연의』와 많이 다르지만, 내용적 측면에서는 『대학연의』의 맥락을 잇고 있다고 할 수 있다.[18]

이상의 사실들을 통해, 「성학집요」는 형식상으로나 내용상으로나 조선에서 군주수신서의 전범으로 간주되던 『대학연의』로부터 벗어난 파격의 책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왜 이이는 당대의 일반적 흐름과는 다른 군주수신서를 내놓았던 것일까? 그에 대한 해답의 일단은 그가 경연 자리에서 행한 여러 발언들에서 찾을 수 있다.

(가) (군주의) 덕행은 하루아침에 갖출 수 없고, 정사는 하루라도 폐할 수 없다. 덕이 이루어지기 전이라고 정사를 불문에 두고 어지럽도록 내버려 둘 수 있는가. 그러므로 덕행과 사업은 동시에 닦으며 같이 나아가야 한다.[19]

(나) 만약 군주의 덕이 요순과 같기를 기다린 연후에 당우의 사업을 일으킬 수 있다면 어느 때 하리오. 반드시 덕행이 문왕과 같은 연후에야 關雎·麟之의 뜻이 있는 게 아니다. 지금 전하가 해보겠다는 뜻을 일으켜 성실한 마음으로 다스리기를 원한다면 … 주나라의 법도를 행할 수 있다.[20]

(다) 군주의 덕이 반드시 요·순·탕·무와 같은 연후에야 다스릴 수 있다면, 진실로 어렵다.[21]

(가)는 선조 2년, '덕행을 쌓은 연후에야 사업을 일으킬 수 있다'는 선조의

17) 『퇴계전서』 권7, 「進聖學十圖箚 幷圖」
18) 정재훈, 2008 『조선시대 학파와 사상』, 신구문화사, 47쪽
19) 『율곡전서』 권28, 「경연일기」 선조 2년 9월(40면 가), "德行非一朝可辦 而政事不可一日廢也 允德未成之前 將置政事於不問而任其紊亂乎 是故德行事業 當一時交修並進"
20) 『율곡전서』 권29, 「경연일기」 선조 6년 10월(14면 나), "若必待德如堯舜 然後可興唐虞事業 則何時可做 非必德行一如文王 然後始有關雎麟趾之意也 今殿下奮發有爲之志 誠心願治 … 則可行周官之法度矣"
21) 『율곡전서』 권29, 「경연일기」 선조 6년 11월(23면 나~24면 가), "人君之德 必如堯舜湯武 然後可以爲治則果難矣"

발언에 대한,[22] (나)는 선조 6년 '군주의 덕이 먼저 이루어져야 주나라의 제도를 실시할 수 있다'는 김우옹의 발언에 대한 대응이다.[23] 그리고 (다)는 선조 6년, 맹자의 '格君心'과 주희의 '誠意·正心'을 거론하며, 선조에게 '마음을 바로 하여 본원을 닦는 것'을 우선해야 한다는 김성일의 발언에 이어 한 말이다.[24]

이에 대한 이이의 대응은 한마디로 군주의 덕이 완성되기를 기다린 후 사업을 시행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었다. 그 역시 군주는 무엇보다 자기 수양을 중시하고 우선해야 한다는 점을 결코 부정하지 않았다.[25] 그러나 근본을 강조하고 우선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 반드시 근본의 완성 이후에야 말단의 일을 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해석한다. 그 이유는 사대부와 달리 '군주의 정사는 하루라도 폐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군주의 수기와 치인에 대한 이이의 생각은 「성학집요」 '수기'편의 궁리장 전체를 마무리하면서 다음과 같이 정리되었다.

> 人君의 앎은 필부와 같지 않다. 필부는 반드시 자기 수양을 하고 때를 기다리며, 군주를 얻어 도를 행한다. 그러므로 학문이 만약 부족하면 감히 즉시 나아가지 않는다. 인군은 그렇지 않아, 이미 臣民의 주인이 되었고, 이미 가르치고 기르는 책무를 짊어졌다. 만약 내가 지금 자기 수양을 하느라 남을 다스릴 겨를이 없다고 한다면 天工을 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기수양[修己]과 남을 다스리는[治人] 도를 다 같은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26]

---

22) 『율곡전서』 권28, 「경연일기」 선조 2년 9월(40면 가), "上曰 蘊之爲德行 然後乃可發之爲事業 豈可無德行 而有事業乎 且三代之治 亦當行之有漸 不可猝然遽復也"

23) 『율곡전서』 권29, 「경연일기」 선조 6년 10월(14면 나), "弘文館正字金宇顒曰 有闕睢麟趾之意 然後可以行周官之制度"

24) 『율곡전서』 권29, 「경연일기」 선조 6년 11월(22면 나), "金誠一曰 陳蕃曰 國有三空 朝廷空 倉廩空 田野空 是謂三空 方今雖不可謂之無人 然無有一人擔當國事者 國計民生 自上所已知也 如此則不出十年 危亡之禍至矣 朝廷之命 壅而不行 上下之勢 散而不統 經席之上 雖有一二建白之事 節目纔擧 他弊隨生 如此 而能治其國者鮮矣 孟子以格君心之非爲先 朱子以正心誠意爲言 若殿下不能正心以修本源 則一國人心 豈能服從乎"

25) 『율곡전서』 권20, 「성학집요」 修己 第二, "臣按 大學曰 自天子以至於庶人 一是皆以修身爲本 其本亂而末治者否矣 是故 帝王之學 莫先於修己"

26) 『율곡전서』 권22, 「성학집요」 修己-窮理章 第四下, "人君之職 與匹夫不同 匹夫則必修己而待時 得君而行道 故學苟不足 則不敢徑出焉 人君則不然 已爲臣民之主 已

여기서 이이는 군주와 사대부의 앎과 실천은 달라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였다. 사대부와 달리 군주에게는 신민을 가르치고 기르는 책무가 있는데, 자기수양을 이유로 그 본연의 책무를 폐하거나 미룰 수는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군주는 수기와 치인을 함께, 동시에 해야 했다. 그러나 이러한 이이의 사고는 당시 사류의 분위기에서 일반적인 것이 아니었다. 그렇기에 김우옹은 이이에게 "그대는 왜 경연 자리에서 心學 상의 말보다 事業의 말을 많이 하는가"라는 불평을 터트렸다.[27] 심지어 이이는 친구인 성혼으로부터도 '儒者는 군주의 마음을 바로잡는 데 힘써야 하는데, 그대는 결과[事功]에 먼저 힘쓰는 게 아닌가"라는 비평을 들어야만 했다.[28]

2) '修己'편의 이기론과 인간관

(1) '수기'편의 구성과 '궁리 하'장

아래 [표 7]과 같이 '수기'편은 내용상 크게 네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29] 먼저 서론격인 '총론수기'장이 있으며, 다음으로 본론에 해당하는 '입

荷敎養之責 若曰我今修己 不暇治人云 則天工廢矣 故修己治人之道 不可不一齊理會也"

27) 『율곡전서』 권29, 「경연일기」 선조 6년 11월(21면 가), "宇顒曰 然公於經席 啓辭固好 但事業上言語多 心學上言語少 吾意則不然 自上若知學問入頭處 則事爲自中於理矣"

28) 『율곡전서』 권29, 「경연일기」 선조 6년 11월(25면 나), "其友成渾語之曰 儒者當以格君爲務 若上心不可回 則當速引退 不能得上心 而先務事功 則是枉尺直尋 非儒者之事也"

29) 「성학집요」의 항목 분류는 『율곡전서』에 포함된 본[연세대 중앙도서관 소장본(문집총간본)]과 영조대에 별책으로 刊印된 御製 본[서울대 규장각 소장본 奎 2119~2135, 2159, 2164, 5386] 간에 차이가 있다. 먼저, 『율곡전서』본의 경우 궁리장이 한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어제 본은 상.하 두 장으로 나누고 있다. 다음으로, 「율곡전서」 본의 경우 '修己第二上'의 제목 밑에 세주로, "上篇四章 中篇五章 下篇四章 凡十三章"이라 표기되어 있다(이러한 세주의 존재는 '爲政'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에 의하면, 상에는 '수기총론, 입지, 수렴, 궁리' 장이, 중에는 '성실, 교기질, 양기, 정심, 검심' 장이, 하에는 '회덕량, 보덕, 돈독, 수기공효' 장이 해당한다. 그러나 단독 어제 본에는 이 세주 구절이 없다. 앞으로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검토가 필요하다. 필자는 다른 내용은 『율곡전서』 판본을 이용하였지만, 「성학집요」만은 어제 본의 항목 구성과

지~검신'과 '회덕량~돈독' 장이 있다. 전자가 수기의 일반적 원리와 과정을 제시하는 성격의 항목들로 이루어져 있다면, 후자는 '親正士'·'從諫' 등의 소항목 구성에서 알 수 있듯이 군주라는 특수한 입장에 있는 경우에 필요한 수기의 항목들을 다루고 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은 결론격인 '수기공효'로 전체 편을 마무리 한다.[30]

[표 7] 「성학집요」 '수기'편 항목 분류

대항목	중항목(章)	소항목
도입	總論修己 一	·
본론 1	立志 二	立志之目, 立志之效, 立志之反
	收斂 三	收斂其容止, 收斂其言語, 收斂其心, 居敬窮理之本
	窮理 四 上	窮理用功之方, 讀書之法, 讀小學法, 讀四書法, 讀六經法, 讀史之法
	窮理 四 下	**天地人物之理, 人貴於萬物, 本然之性, 氣質之性, 心性情, 王霸之略, 異端之害**
	誠實 五	·
	矯氣質 六	氣質不同而矯之各有法, 矯氣質之法在克己, 矯氣質之功在勉強
	養氣 七	養志氣, 養血氣
	正心 八	涵養, 省察, 涵養省察, 存誠反復以盡正心之義亦兼涵養省察而言
	檢身 九	敬身謹禮之功, 威儀容止之則, 戒飭無怠之意
본론 2	恢德量 十	恢進德之量, 恢容衆之量, 恢公平之量
	輔德 十一	親正士, 從諫, 改過
	敦篤 十二	敦篤之功, 怠惰之病
마무리	修己功效 十三	由知而達於行之效, 由行而達於知之效, 由裏達表之效, 知行表裏而言由淺至深極之於聖神, 承上聖神之說而極論聖人之道

'수기'편의 여러 장 중에서도 특히 '궁리 하'장에 주목할 만하다. 그 이유는 다음의 두 가지이다. 먼저, '궁리 하'장은 경전 구절과 先賢의 해석 인용 위주인 「성학집요」의 다른 장과 달리, 이이 본인의 직접적 생각을 가장 많이 드러낸 장이다. 이는 이 주제에 대한 저자의 관심과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분류가 옳다고 보아 이를 이용하였다.(학민문화사 영인본)

30) 이러한 구성은 '정가'편과 '위정'편도 마찬가지로, 각 편의 서두에 총론, 마지막에 공효 항목이 있다. 이러한 구성은 『대학연의』나 『대학연의보』에서는 볼 수 없는 「성학집요」만의 독특한 구성이다.

을 보여주는 증거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궁리 하'장의 구성과 내용을 보면, 본고의 주제인 이이의 개혁론과 관련하여 저자가 생각하는 세계관·인간관과 경세 구상의 연결을 볼 수 있다. 「성학집요」의 다른 장들도 그러하지만, '궁리 하'장의 세부 항목들도 병렬적 나열된 것이 아니라, 저자의 치밀한 의도 하에 항목이 설정되고 순서가 배치되었다. 따라서 항목의 설정과 항목 간 연결 고리를 이해함으로써, 그에 대한 이이의 생각을 엿볼 수 있다.

'궁리 하'장은 『周易』계사전과 주돈이 『태극도설』의 太極에 대한 구절로 시작한다. 이로써, '천지와 인물에 공통된 리'를 다루고('천지인물지리' 항목), 이후에는 '오로지 인간의 리에' 초점을 맞춘다('인귀어만물' 항목).[31] 그것은 곧 인간의 본성에 대한 논의로서, 『맹자』의 '不忍人之心' 구절과 『시경』의 '天生烝民'을 구절을 통해, 인간은 누구나 '堯舜의 仁과 湯武의 義, 그리고 孔孟의 道를 갖추고 있음'을 말한다.('본연지성' 항목) 다음엔 張載로부터 기질지성 개념을 가져와, 인간이 형태를 지님으로써 필연적으로 지니는 본성에 대해서도 말한다.('기질지성' 항목) 이후에는 인간의 마음과 감정에 대해 언급하는데 『書經』의 人心道心 구절, 장횡거 '心統性情' 구절, 『맹자』 盡心章의 한 구절 등이 인용된다('心性情' 항목). 여기까지가 인간의 본성.마음.감정 등의 인간 이해를 다룬 부분으로, 그렇기에 이이는 '심성정' 항목이 끝나는 지점에, 이상의 주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총괄적으로 제시한다.[32]

이후에는 인간 개인에 대한 이해를 넘어 그 집합체인 사회의 질서 마련을 위한 원리로서 왕도와 패도를 다룬다. '힘으로써 仁을 빌리는 것이 패도이며, 덕으로써 仁을 행하는 것이 왕도'라는 『맹자』의 구절, '仁한 사람은 이익을 도모하지 않고, 도를 밝게 하며, 결과를 계획하지 않는다'는 동중서의 말이 인용된다('王霸之略' 항목). 다음엔 도학과 다른 원리로서 '이단'이 비판되는데, 楊.墨을 시작으로, 노자와 불교도 그 대상이 된다('異端之害' 항목).

이상 '궁리 하'장의 내용을 다시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천지와 인간을 관통하는 공통의 원리로서 이기론을 다루고, → 인간의 본성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룬 후, → 인간의 마음과 감정 문제를 다루었다. → 그리고 사회의 질서를 위한 원리로서, 왕도를 제시한 후 → 최종적으로, '이단'

31) 『성학집요』 권3, 11면 가, "右通言天地人物之理 此以下 專言在人之理"
32) 『성학집요』 권3, 23면 가~29면 나

비판으로 마무리하였다. 이처럼 이이는 '궁리 하' 장을 통해 인간의 생성으로부터 사회 질서의 원리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제시한 것이다.

⑵ 이기론과 인간관

성리학은 理와 氣라는 두 개의 요소.개념으로 인간을 비롯한 우주 만물의 생성과 그 운동을 설명하고자 한다. 이이 역시 예외가 아니어서, 리와 기에 대한 그 나름의 이해와 규정은 결국 그의 인간관이 지닌 특징적 면모를 형성하게 된다. 이이는 인간의 마음[心]·본성[性]·감정과 욕망[情]에 대한 당대의 문제적 주장들의 배경에는 결국 리·기에 대한 그릇된 이해가 자리 잡고 있다고 보았다.[33] 「성학집요」 窮理 下에서, 그는 문답의 형식을 빌려, 자신이 이해하는 리·기의 핵심을 간명하게 보여준다.

> 문: 리·기는 하나의 物[一物]인가, 두 개의 物[二物]인가?
>
> 답: 이전의 여러 가르침을 살펴보면, 하나이면서 둘이고, 둘이면서 하나이다. 리·기는 渾然하여 둘 사이에 간격이 없고 원래 서로 떨어지지 않으니 二物이라 할 수 없다. 그래서 程子께서 말씀하시길, 기도 도이고, 도 역시 기이다 라고 하였다. 비록 서로 떨어지지 않으나 혼연한 가운데 실로 서로 섞이지 않으니 一物이라 할 수 없다. 그러므로 朱子가 말씀하시길, 리는 스스로 리이고, 기는 스스로 기이다. 서로 挾雜하지 않는다 라고 하였다. 두 개의 설을 합하여 玩索하면, 理氣之妙가 그 견해에 거의 가깝다. 그 대개를 논하면, 리는 형태가 없고 기는 형태가 있다. 따라서 리는 통하고 기는 국한된다[理通氣局]. 리는 하는 게 없고, 기는 하는 게 있다. 따라서 기는 발하고 리는 탄다[氣發理乘]. 형태가 없고 하는 게 없는데 형태가 있고 하는 게 있는 것의 주인이 되는 것이 理이다. 형태가 있고 하는 게 있는데, 형태가 없고 하는 게 없는 것의 그릇[器]이 되는 것이 氣이다. 이것이 바로 理氣를 궁리한 것의

33) 『성학집요』 권3, 25면 나, "夫以心性爲用 四端七情爲二用者 皆於理氣有所未透故也" 이이가 보기에, 이러한 문제는 그가 대표적인 비판 대상으로 삼은 이황은 물론이요, 오랜 친우이자 학문적 동지인 성혼에게도 마찬가지로 존재하였다. 이이는 선조 5~6년에 있었던 성혼과의 서신 토론에서 애초에는 인심도심설에 대해 논의를 시작했다가, 리기에 대한 논의로 전환하였다. 그러면서 그 이유로 성혼가 리와 기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인심도심에 대해서도 문제가 발생했다는 분석을 내놓는다. 『율곡전서』 권10, 「답성호원」(2면 가), "吾兄志學二十年 非不讀聖賢之書 而尙於心性情 無的實之見者 恐是於理氣二字 有所未透故也"; 「답성호원」(11면 가), "理氣之說與人心道心說 皆是一貫 若人心道心未透 則是於理氣未透也".

大端이다.[34]

리와 기에 대한 질문의 핵심은 리와 기가 과연 '하나의 물'인지, '별개의 물'인지였다. 그리고 그에 대해 이이는 理氣之妙, 理通氣局, 氣發理乘이라는 세 개념을 들어 답한다. 이기지묘가 리와 기 각각의 정체성과 상호 관계에 대한 일반론 차원의 설명이라면, 이통기국은 양자의 존재 양태에 대한, 기발이승은 양자의 운동성에 대한 비교·설명이다. 따라서 이 세 개념들을 모두 함께 검토해야만 이이 이기론의 전모를 이해할 수 있다.[35]

첫째, 이기지묘란 표현은 "둘이면서 하나이고, 하나이면서 둘이다"라는 설명을 통해 비로소 그 실체가 드러나게 된다. 이는 리와 기가 "서로 떨어지지도 않고[不相離], 서로 섞이지도 않기[不相雜]" 때문이다.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마치 하나인 것처럼 보이고, 섞이지 않기 때문에 흡사 둘로 나뉜 것같이 보이기도 한다. 그렇기에 대표적인 두 유형의 오해를 불렀다. 그 하나는 리와 기가 떨어지지 않는 것을 동일한 하나의 물로 오해하는 것이고,[36] 다른 하나는 리와 기가 서로 섞이지 않는다는 것을 둘을 서로 분리할 수 있다고 오해하는 것이다.[37] 이이는 이 두 유형의 오해들을 각각 '理氣一物之病'과 '理氣先後之病'이라 불렀다.[38]

둘째, 이통기국은 리의 不變性과 不滅性을, 그리고 기의 可變性과 滅性을 설명하는 말이다.[39] 다른 말로 리의 일관성(coherence), 기의 비일관성

---

34) 『성학집요』 권3, 28면 나, "有問於臣者曰 理氣是一物 是二物 臣答曰 考諸前訓 則一而二 二而一者也 理氣渾然無間 元不相離 不可指爲二物 故程子曰 器亦道 道亦器 雖不相離 而渾然之中 實不相雜 不可指爲一物 故朱子曰 理自理 氣自氣 不相挾雜 合二說而玩索 則理氣之妙 庶乎見之矣 論其大概 則理無形而氣有形 故理通而氣局 理無爲而氣有爲 故氣發而理乘 無形無爲 而爲有形有爲之主者 理也 有形有爲 而爲無形無爲之器者 氣也 此是窮理氣之大端也"

35) 아래에서는 「성학집요」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되, 이이가 선조 5~6년 성혼과 논변한 편지들을 통해 내용을 보충하면서, 이들 세 개념에 대해 더 상세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36) 그 대표적 인물로 조선에는 서경덕이, 명에는 나흠순이 있었다. 그러나 이이는 분명하게 말한다. "리기는 원래 떨어지지 않아 일물처럼 보이나 그것은 서로 다른 것이다." 『율곡전서』 권10, 「답성호원」(25면 나), "理氣元不相離 似是一物 而其所以異者"

37) 그 대표적 인사는 이황이었다.

38) 『율곡전서』 권10, 「답성호원」(8면 나), "近來所謂性先動心先動之說 固不足道矣 至如羅整菴以高明超卓之見 亦微有理氣一物之病 退溪之精詳謹密 近代所無 而理發氣隨之說 亦微有理氣先後之病"

(incoherence)이라 표현할 수도 있다.[40] 그 핵심은 리와 기가 각각 언제나 그 本然을 유지하느냐,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존재하느냐의 여부이다. 기는 쉼 없이 움직이는 까닭에 변화하며 온갖 모습으로 드러나며, 그 本然을 완전히 잃기도 한다. 반면, 리는 기의 流行에 올라타면서도, 언제나 그 '本然之妙'를 잃지 않으며, 그 어떤 경우에도 '自若'을 해치지 않는다.[41] 리와 기의 이러한 특성 차이는 리로 인해 세상의 모든 物이 공통의 보편성을 가지게 되며, 기로 인해 자신만의 특수성을 지니게 된다는 논리로 이어진다.[42]

마지막 세 번째 기발이승은 리와 기의 운동성에 대한 설명으로, 이에 대한 이이의 생각은 "기는 하는 게 있고, 리는 하는 게 없다"로 정리할 수 있다.[43] 보다 구체적으로는 다음의 두 가지 답을 제시한다. 첫째, 오직 氣發만 있을 뿐으로, 세상의 모든 변화는 기가 발하고 리가 거기에 탄 것이다. 그렇다고 '기발이승'이란 표현이 기가 리에 시간적, 인과적으로 앞에 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기는 하는 게 있고, 리는 하는 게 없어, 부득이하게 그렇게 말했을 뿐이다.[44] 둘째, 언제나 기가 발하고 리가 타므로, 리와 기는

---

39) 이통기국이란 표현은 이이가 스스로 '見得'한 바라고 얘기할 정도로 자부심을 가진 말인데, 그가 '새로 만든 어휘[新語]'인 만큼 리와 기에 대한 개성적인 설명이 가능하다. 『율곡전서』 권10, 「답성호원」(25면 가), "理通氣局四字 自謂見得 而又恐珥讀書不多 先有此等言 而未之見也 以道心爲本然之氣者 亦似新語"

40) 피터 볼은 리의 번역어로 전통적으로 사용되던 principle이 아니라 coherence를 채용한다. coherence는 리의 일관성이라는 측면을 표현하는 데 매우 적절한 번역어로 보인다. 이에 대해서는 '피터 볼 저/김영민 역, 2010 『역사 속의 성리학』, 예문서원, 259~271쪽' 참조.

41) 『율곡전서』 권10, 「답성호원」(26면 가~나)

42) 이이는 이를 보다 쉽게 설명하기 위해 서로 다르게 생긴 그릇들에 자주 비유한다. 둥그런 그릇과 네모난 그릇, 큰 물병과 작은 물병은 보이는 형태는 서로 다르지만, 그 속에 담긴 내용물은 공기 또는 물로 같다[『율곡전서』 권10, 「답성호원」(40면 가), "人之性非物之性者 氣之局也 人之理卽物之理者 理之通也 方圓之器不同 而器中之水一也 大小之甁不同 而甁中之空一也"].

43) 이이는 이를 더 잘 이해시키기 위해 리와 기를 각각 물과 그것을 담은 그릇에 비유한다. 그릇이 움직이면 물도 움직이는데, 물은 그릇이 움직여야 움직이지 스스로 움직이지는[自動] 않는다. 이는 有爲하는 기와 달리 리는 無爲하기 때문이다. 또한 물과 그릇은 언제나 함께 움직이지 각각이 따로 움직이지 않는다[『율곡전서』 권10, 「답성호원」(14면 가), "器動而水動者 氣發而理乘也 器水俱動 無有器動水動之異者 無理氣互發之殊也 器動則水必動 水未嘗自動者 理無爲而氣有爲也"].

44) 『율곡전서』 권10, 「답성호원」(27면 가~나)

한 길에 있다. 소위 理氣一途說이다. 이이의 주장은 '세상에 感이 없이 안으로부터 저절로 발하는 情은 없으며, 아버지를 感해야 孝의 감정이 동하고, 군주를 感해야 忠의 감정이 동한다'는 것이었다.[45]

이상과 같은, 리와 기에 대한 이이의 이해는 인간의 본성에 대한 설명으로 이어진다. '궁리 하'장에서 이이는 먼저 본연지성을 제시한 다음, 기질지성을 제시하였다. 이들 개념에 대한 이이의 생각은 일찍이 성혼에게 보낸 편지에 담긴 아래의 구절에 보다 자세하게 드러나 있다.

> 性이란 理와 氣의 合이다. 리가 기의 가운데 있은 연후에야 성이 된다. 만약 形質 가운데 있지 않으면, 마땅히 理라고 해야지 性이라 할 수 없다. 다만, 形質 가운데 취하여 오직 그 리를 가리켜 말하면 본연지성이다. 본연지성은 기와 섞일 수 없다. 자사와 맹자는 본연지성을 말하였고, 정자와 장자(장재)는 기질지성을 말하였는데, 그 실은 一性인데 所主하여 말한 바가 다른 것이다.[46]

여기서 이이는 사실상 기질지성을 지칭하면서, 인간의 본성은 "리와 기의 합"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그것은 형태와 재질[形質]을 가짐으로써 존재하는 것이기에, 이미 氣의 개입이 이루어진 상태이다. 따라서 리와 기를 모두 고려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물론 "리와 기의 합"이라는 말에는 기질지성에 리가 있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이는 이이가 "性則理"라는 성리학의 핵심 명제를 부정하지 않았음을 보여주기도 한다. 그러나 '리'와 '성'을 분명하게 구분하려는 이이의 태도에서 인간의 본성에서 氣라는 요소에 대한 고려를 강조하려는 그의 의도를 엿볼 수 있다.

---

45) 이이는 이황이 '사단은 안[中]으로부터 나와 발하고, 칠정은 外物을 感하여 발한 것으로 보는 게 아닌가', 즉 서로 다른 길을 통해 발하는 것으로 상정한 게 아닌지 의심하였다[『율곡전서』 권10, 「답성호원」(6면 가~나), "竊詳退溪之意 以四端爲由中而發 七情爲感外而發 以此爲先入之見 而以朱子發於理發於氣之說 主張而伸長之 做出許多葛藤 每讀之 未嘗不慨嘆 以爲正見之一累也 易曰 寂然不動 感而遂通 雖聖人之心 未嘗有無感而自動者也 必有感而動 而所感皆外物也 何以言之 感於父則孝動焉 感於君則忠動焉"].

46) 『율곡전서』 권10, 「답성호원」(22면 가~나), "性者 理氣之合也 蓋理在氣中 然後爲性 若不在形質之中 則當謂之理 不當謂之性也 但就形質中 單指其理而言之 則本然之性也 本然之性 不可雜以氣也 子思孟子 言其本然之性 程子張子 言其氣質之性 其實一性 而所主而言者不同"

그렇다면 리와 기의 합은 기질지성의 善惡에 어떻게 작용할까? '궁리 장' 하에서, 이 문제는 누군가의 질문을 통해 제기되었다.

> 누군가 물었다. 주자가 情에는 선과 악이 있고, 性은 모두 선하다고 말하였으니, 기질지성도 선하지 않은 게 없는가?
> 신이 답하였다. 기질지성은 진실로 선과 악이 같지 않음이 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성은 오로지 미발을 가리켜 말한 것으로, 발하면 곧 선악이 있다. 그 악은 기품과 물욕에 구애되고 가려진 것에서 비롯하며, 성의 본체는 아니다. 그러므로 성은 모두 선하다라고 한 것이다. 47)

이에 대해 이이는 질문자가 인용한, 주희의 말에서 본성은 미발의 상태를 가리키는 것으로, 인간의 본성도 발하면 선악이 있게 된다는 점을, 즉, 기질지성에는 악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 이유는 첫째, 현실의 인간이란 형태를 지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氣稟' 때문에 발생하는 악이고, 둘째, 외부 사물의 유혹에 의한 즉, '物欲' 때문에 악이 발생할 수도 있었다.

앞서 보았듯이, 리의 본연은 불변, 불멸의 성격을 지니므로, 그것은 기질지성에도 그대로 존재한다. 즉, 리는 언제나 常數로 작용한다. 따라서 인간의 본성은 "堯舜의 仁, 湯武의 義, 孔孟의 道를 모두 가지고 있으며",48) 이이는 이를 '성 본래의 선함[性之本善]' 또는 '성의 본체'라 부른다.49) 그런데 현실의 인간은 리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고 반드시 기(기질)의 존재를 필요로 하므로, 그 기가 결국 현실의 인간 본성을 규정하는 變數로 작용한다. 즉, 기의 淸濁粹駁에 따라 결과적으로 인간의 본성은 본연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기도 하고 완전히 다른 다양한 층위를 보여주기도 한다.50) 결국, 현실

---

47) 『성학집요』 권3, 26면 나, "或問曰 朱子曰 情有善惡 性則全善 然則氣質之性 亦無有不善者乎 臣答曰 氣質之性 固有善惡之不同矣 但此所謂性 專指未發而言 人雖至惡者 未發之時 固無不善 纔發便有善惡 其惡者由於氣稟物欲之拘蔽 而非其性之本體也 故曰性則全善"

48) 『성학집요』 권3, 17면 가, "臣按 人之一心 萬理全具 堯舜之仁 湯武之義 孔孟之道皆性分之所固有也"

49) 『율곡전서』 권10, 「답성호원」(14면 가), "物之不能離器而流行不息者 惟水也 故惟水可以喩理 水之本淸 性之本善也 器之淸淨汚穢之不同者 氣質之殊也"

50) 聖人은 기질이 맑고 순수하여 본성이 그 本體를 오로지 하고 있으며, 賢人은 기질은

의 인간은 도덕적 가능성과 육체적 형질로 인한 잘못의 가능성을 모두 지니고 있는 존재가 된다.

⑶ 인간관과 경세 기획

당대 조선의 상황에 대한 이이의 문제의식의 핵심은 무엇보다 조선의 정치.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중추이자 모범이 되어야 할 사대부들이 이욕 추구의 경향을 보인다는 점이었다. 특히 문제는 정치의 근본인 조정에도 公보다 私를 위하는 자들이 많다는 사실이었다. “백관의 벼슬이 태만하여 私를 앞세우고, 公을 뒤로 하는 상황”이라는 게 그의 판단이었다.[51] 이이는『성학집요』에서 “이욕의 해가 이단의 해보다 심하다”고 분명하게 말하였다.[52]

이이는 그러한 문제적 현상의 기원을 추적하는데, 그 시작은 기묘사림의 패퇴 이후부터였고, 을사사화를 거치며 문제가 더욱 고착되었다고 보았다. 이 두 사화는 넓게는 사대부층 전반, 좁게는 관료층의 문화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는 게 그의 판단이었다.[53] 양 사건을 거치며 관료들은 물론 사대부들조차 세속적 욕망의 노골적으로 추구를 드러내는 것을 꺼리지 않았고, 자기

맑고 순수하나 약간의 탁함과 잡스러움이 섞였기에 약간의 노력을 통해 본성의 본연을 회복할 수 있다. ‘不肖者’는 기질이 탁하고 잡스러운 것이 많고 맑고 순수한 것은 거의 없는 경우이다[『율곡전서』 권10, 「답성호원」 (14면 가~나), “聖人氣質淸粹 性全其體 無一毫人欲之私 故其發也 從心所欲 不踰矩 而人心亦道心也 譬如淸淨之器儲水 無一點塵滓 故其動也 水之本淸者傾瀉而出 流行者皆淸水也 賢者則氣質雖淸粹 未免有少許濁駁雜之故 必資進修之功 然後能復其本然之性 其發也 有直遂其本然之性 而不爲形氣所揜者 有雖發於性而形氣用事者 形氣雖用事而人心聽命於道心 故食色之心亦循軌轍 譬如儲水之器雖淸淨 而未免有少許塵滓在裏 必加澄淨之功 然後水得其本然之淸 故其動也 或有淸水傾出 塵滓未動者 或有淸水雖出 而塵滓已動者 必止其塵滓 使不混淆 然後水之流行者 乃得其淸也 不肖者 氣質多濁少淸 多駁少粹”].

51) 『율곡전서』 권5, 「옥당진계차」

52) 『성학집요』 권12, 爲政 名敎(29면 나), “臣按故世道日下...人心汚穢 不顧義理 惟利是求 人物之眇然 反不及於異端橫騖之時 足知利欲之害 甚於異端也 深可慨嘆下所宜汲汲復古 以敎誨成就之也.” 당대 조선 사대부들의 이욕 추구에 대한 이이의 비판은 그가 선조 14년에 지은 「學蔀通辨」의 발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 글은 양명학에 대한 이단 비판이기도 하지만, 가장 큰 비판은 “주자의 학문도 하지 않고, 육상산의 학문도 하지 않고서 오로지 세속의 利欲과 習俗만을 힘쓰는” 조선의 사대부에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율곡전서』 권3, 「學蔀通辨跋」’ 참조.

53) 이이가 만년인 선조 14년에 지은 「사간원걸변통폐법차」에는 이러한 생각이 잘 정리되어 있다.

의 이익 추구에만 골몰하고 국가의 안위와 민생에는 신경 쓰지 않는 자들이 조정을 차지하였다는 것이다. 그 결과는 모든 폐단이 힘없는 小民에게 집중되는 현상이었고, 나라 전체의 곤경이었다.

명종대 말~선조대 초반, 이이를 비롯한 개혁세력은 조광조와 기묘사림의 경험을 계승하여, 재차 관료와 사대부 일반 등 지배층을 상대로 도덕적 각성을 촉구하는, 일종의 도덕 개혁 운동을 벌였다. 그들은 리의 존재와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인간이 지닌 도덕적 가능성과 자기수양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이이 역시 인간은 누구나 도덕성을 타고 났으며, 그것을 발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성리학의 핵심 명제를 포기하지 않았다.[54] 이 점은 그가 이황으로부터 계승하고자 했던 주요 요소이자, 또 자신의 철학에서 근저를 이루는 요소이기도 하였다.

리에 대한 중시는 공동체의 질서와 관련해서는 일반적으로 '삼대지치'로 표상되는, 조선이 추구할 경세질서의 理想으로서 '全一的 도덕국가'를 조선에서도 구현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연결되었다. 삼대지치란 敎化의 최종 단계로서, 군주로부터 일반 민까지 모든 구성원들이 五常 등의 도덕적 가치를 함께 실천함으로써 공동체 전체의 안녕과 질서를 구현할 수 있다는 기획이었다.[55] 그리고 그 기획을 조선에서 실현할 수 있다는, 기묘사림 이래 개혁세력의 구상은 리의 절대성과 보편성을 전제하였기에 가능하였다.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리는 삼대지치의 기획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하였다. 먼저, 리는 절대적이며 보편적이므로, 언제, 어디서나 동일하게 의미가 있었다.[56] 따라서 고대 중국에서 구현되었던 삼대지치의 질서

54) 『성학집요』 권3, 17면 가~나, "臣按 人之一心 萬理全具 堯舜之仁 湯武之義 孔孟之道 皆性分之所固有也 惟是氣稟拘於前 物欲汨於後 明者昏 正者邪 迷而爲衆人之蚩蚩 實與禽獸無異 而本具之理 則其明自如 其正自如 但爲所掩蔽 而終無息滅之理 誠能去其昏 絶其邪 則堯舜湯武孔孟之聖 非外假而成 譬如有人自家無限寶藏 埋諸幽暗之地而不自知焉 貧寒匄乞 流轉四方 若遇先覺 指示藏寶之處 篤信不疑 發其所埋 則無限寶藏 皆所自有者也 此理甚明 人自不覺 可哀也哉 若徒知此心之具理而已 不復力去其掩蔽 則是實不知藏寶之處 而謾說我有寶藏云爾 亦何益之有 願留睿念焉"

55) 이에 대해서는 다음 절, '「성학집요」 '聖賢道統'편과 삼대지치론'에서 자세하게 다룬다.

56) 이이는 '王道, 仁政, 三綱, 五常'은 고금에 상관없이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는 가치이자, 지켜야 할 가치로 설정한다. 『율곡전서』 권5, 「만언봉사」, "大抵隨時可變者 法制也 亘古今而不可變者 王道也 仁政也 三綱也 五常也"

가 현재 조선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며 또 구현 가능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 즉, 리는 중국과 조선이라는 공간적 격절, 고대와 현재라는 시간적 격절을 연결하였다. 箕子의 존재 역시 三代와 조선을 연결하는 매우 유용한 통로였지만, 조선의 儒者들은 리의 존재를 통해 역사적 근거뿐만 아니라 형이상학적 근거를 확보할 수 있었다.[57] 다음으로, 지배층인 士뿐만 아니라 일반 民 역시 원칙적으로는 도덕적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는 관념은 궁극적으로 그들 역시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동일한 질서의 내부로 포섭하는 구상을 가능하게 하였다. 다만, 선조 6년 향약 시행을 반대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듯이, 이이는 그 구현 방법에 있어서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을 뿐이었다.

동시에 이이는 우리가 현실에서 마주하는 인간의 본성은 본연지성이 아닌 기질지성임에 주목하며, 전일적 도덕국가 건설에 대한 낙관주의적 태도를 배격한다. 그가 이황을 비롯해 많은 후배 사류들, 소위 '迂儒'에 대해 가졌던 불만도 여기에 있었다. 인간은 도덕적 완성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지만, 동시에 聖人이 아닌 이상 감정과 욕망의 잘못으로부터 완벽하게 자유로워지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그가 기의 존재와 역할을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됨을, 경세 기획에서 그에 대한 고려를 강조한 것도 이러한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즉, 현실의 대부분의 인간이 지닌 도덕적 한계를 분명하게 인지할 필요가 있었다.

아래와 같이 선조 7년 향약 시행이 중지된 후 허엽과 나눈 이이의 대화는 그들이 이해하는 인간상의 차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허엽과 달리 이이가 보기에 현실의 인간 군상은 결코 착하기만 한 것이 아니었다.

> 허엽이 말하였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 선한 자가 많고 선하지 않은 자는 적으니 향약을 행할 수 있다 이이가 웃으며 말하였다. 공의 마음이 착하니까 사람들의

57) 다음과 같은 이이의 언급은 그들 의식의 일단을 잘 보여준다. "今人旣以道學 爲高遠難行 而且以古今異宜 爲不易之定論 夫自開闢以來 至于今日 不知其幾千歲 而天地混淪磅礴之形 猶舊也 山川流峙之形 猶舊也 草木鳥獸之形 猶舊也 以至於斯人之宮室衣服飮食器用 皆因聖人之制作 以養其生 不能闕廢 而獨於天敍天秩 因人心 本天理 亘萬古而不可變者 則乃安於敝敗 以爲終不可復古者 抑何見歟"[『성학집요』권13, 44면 나~45면 가]

선함을 본다. 나의 경우에는 선하지 않은 자가 많다고 보니, 필시 이는 내가 선하지 않기 때문이리라 58)

게다가 역사적으로 보건대, 당대의 정치 상황으로 보건대, 公을 위해 힘쓰는 자들보다 私를 도모하는 자들이 많은 것이 현실이었다.

자고로 公을 받들지 않고 私를 받드는 자는 비록 죄를 얻더라도 파면에 불과할 뿐이다. 國事에 힘쓰는 자는 왕왕 멸족의 화를 당한다. 멸족의 화를 돌아보지 않고, 오로지 국사를 생각하는 자는 세상에 항상 있지 않으니, 사를 도모하는 자가 많고, 공을 받드는 자가 적은 것은 마땅하다.59)

이이가 후배사류와 달리 삼대지치 구현을 위한 점진적 접근, 정치적 환경 마련의 선행을 강조한 이유도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 언제나 도덕적 인간이 화를 입는 것이 현실이기에, 오히려 그는 도덕적 자질과 정치적 지위가 일치되는 상황을 추구하였다. 정치적 권위를 통해 사회적 차원의 도덕도 확보하려는 방식이었다. 이이가 상정하는 바람직한 大臣은 「동호문답」에서 제시하였듯이, '본인이 덕을 지니고 이를 미루어 남에게 미칠 수 있는' 인간형이었다. 그리고 만약 그러한 조건이 만들어진다면, 그 후 남은 과제는 위로부터 아래로, 즉 大官으로부터 小官으로, 조정에서 민간으로 내려가는 하향식 도덕 질서 수립의 과정이었다.

3) '爲政'편의 구성과 '流俗'·'迂儒' 비판

(1) 위정'편의 구성과 주요 내용

아래 [표 8]과 같이 위정편의 구성은 크게 네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

---

58) 『율곡전서』 권29, 「경연일기」 선조 7년 2월(36면 가), "曄曰 今世之人 善者多 不善者少 故可行鄕約 珥笑曰 公心善 故但見人之善 若珥則見不善人多 必是余心不善而然也"

59) 『율곡전서』 권29, 「경연일기」 선조 7년 2월(37면 나), "古來不事公而事私者 雖得罪不過罷免而已 勉於國事者 往往被赤族之禍 不顧赤族之禍 而惟國事是念者 世不常有宜乎營私者衆 而奉公者少也"

먼저 서론격인 '총론위정'이 있는데, 이이의 표현에 따르면 이는 '爲政之本'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본론에 해당하는 '爲政之具·爲政之事'의 내용이 있다.[60] '위정지구'가 위정의 원리·원칙을 제시하는 성격의 항목들로 이루어져 있다면, '위정지사'는 구체적인 시행 정책과 관련한 이론들을 다루고 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결론격인 '위정공효'장을 별도로 설정하여 마무리를 한다. 아래에서는 대분류를 중심으로 각 항목이 다루고 있는 내용을 간단히 검토하고자 한다.

[표 8] 「성학집요」 '위정'편 항목 분류

대항목	중항목	소항목
爲政之本	總論爲政 一	爲政之根本, 爲政之規模, 爲政之節目而推本爲說
爲政之具	用賢 二	觀人之術, 辨君子之行, 辨小人之奸, 通論君子小人
	用賢 二 下	用捨之宜, 求賢之道, 任用之道, 禮敬親信之道, 遠小人之道
	取善 三	·
	識時務 四	時務之當識, 創業之道, 守成之道, 更張之道
	法先王 五	·
	謹天戒 六	福善禍淫之理, 遇災修省之道, 預防患難之意
爲政之事	**立紀綱 七**	紀綱之當立, 無私心是立紀綱之本, 公賞罰是立紀綱之法
	安民 八	君民相須之道, 愛民之道, 畏民之道, 絜矩之道, 薄稅斂之道, 輕徭役之道, 愼刑罰之道, 辨別義利, 節用生財, 制民恒產, 修明軍政
	明敎 九	興敎之本, 立敎之目, 興學校以正士習, 分淑慝以糾風俗, 正祀典以絶神姦
爲政功效 十		仁被天下之效, 德合天心之效, 澤流後世之效

첫째, '총론위정'은 군주가, 특히 그의 수신이 위정의 근본이 됨을 명확히 하는 장이다. 군주는 백성들에게 부모와 같은 존재임을 강조한 후, 부유하게

60) 이러한 구분은 '기강'장 전에 삽입된 다음과 같은 문구를 통해, 그가 항목별 위상의 차이를 분명하게 의식·구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성학집요』 권11, 15면 나, "臣按上六章 備論爲政之本 及爲政之具 而此章以下 乃論爲政之事"].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은 위정편을 上下로 구분하고, 각각에 '위정총론, 용현'과 '취선, 식시무, 법선왕, 근천계, 입기강, 안민, 명교, 위정공효'의 항목이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앞서 말했듯이, 어제본에는 이러한 세주가 없다.

한 후 敎化한다는 원칙을 제시하고, 『중용』의 九經과 같이 일들이 위정이 해야 할 일들임을 말한다. 이 '총론위정'장을 통해, 앞서 수기편에서 논했던 내용은 다시 위정편과 연결되고 있다.

둘째, '위정지구'의 여섯 항목은 용현과 취선, 식시무와 법선왕, 근천계와 같이 다시 세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주목할 점은 용현이 '위정지사'가 아니라 '위정지구'에 그것도 가장 처음에 위치해 있다는 사실이다. 분량 상으로도 위정의 여러 항목 가운데 압도적으로 많다. 이는 이이가 인재의 등용에 실질적으로 위정의 근본이자 우선되어야 사안으로의 위상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61] 용현의 내용은 다시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앞의 것이 군자와 소인을 분별하는 방법에 대해 다루고 있다면, 뒤의 것은 인재의 등용과 取捨 문제를 다루고 있다.

취선장은 인재의 등용 후 그들의 의견을 청취할 것을 伊尹과 太甲, 箕子와 武王 등의 사례를 통해 얘기한다. 취선장을 마무리 하며 이이는 군주 혼자 판단하고 결정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여러 신하들과 함께 다스릴 것을 재차 강조한다. 그리고 士의 출사 여부는 오로지 군주의 의지에 달렸음도 빠트리지 않는다.

다음으로, 식시무와 법선왕장은 「동호문답」과 비교할 때 특히 「성학집요」에서 두드러지게 보강된 부분이다. '식시무'장은 창업, 수성, 경장의 도를 얘기하는데, 경장 문제를 자세히 다룬다. 경장의 근거는 주로 『周易』에 대한 정이의 해설에 의지하고 있는데, 이를 빌려 이이가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경장을 위해서는 신중함과 과감함이 모두 필요하다. 준비 단계에서는 신중해야 하지만, 실행에 있어서는 '걸어서 강을 건너는[用憑河]' 것과 같은 용기가 중요하다. 그리고 그 모든 곤란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경장은 결국 공동체의 안녕을 위해 필수적인 방법이다.

법선왕장은 앞서 용현-취선장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식시무장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시무를 안다는 것은 반드시 '삼대지치'를 모범으로 하는 것이어야 했다. 여기서 이이는 程顥가 神宗에게 올린 차자를 轉載함으로써 설득력을 높이고자 한다. 정호가 올린 차자에 담긴 주장의 핵심은 '다스림의

61) 「성학집요」를 진상하며 함께 올린 차자에서도 이이는 제왕의 다스림은 용현이 제일 중요함을 강조한다. "帝王之學 莫切於變化氣質 帝王之治 莫先於推誠用賢"

큰 근원과 백성을 기르는 핵심 도는 옛날과 지금이 다르지 않다[非有古今之異者也]는 것'이었다. 그리고 정호의 이러한 주장을 이이는 전적으로 수용하고, 나아가 그럼에도 왜 오늘날 '古道'를 행하는 것이 어려운 지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한다.

근천계장은 災異와 같은 천변재이 현상을 계기로 군주는 자신과 정치를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한다는 점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상대적으로 '위정지구'의 다른 항목들에 비해 원론적 논의를 한다는 성격이 강하다.

셋째, '위정지사'의 세 항목은 위상으로 볼 때 기강장과 안민, 교민장 등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기강은 이이가 위정의 일에서 근본이자 우선해야 할 일로 설정한 것으로, 그는 관료 조직의 문제가 다음으로 이어질 민생의 안정이나 교화의 문제보다 앞서 해결되어야함을 분명히 하였다. 그런데 이이는 기강의 확립을 위해 필수 요소인 공정함이 군주에게 달려 있으므로, 결국 '위정지사'의 출발도 군주로부터 비롯하게 된다.

안민장의 소항목들은 백성을 대하는 군주의 마음가짐과 자세에 대해 설파하는 부분과 稅制의 문제를 다루는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군주와 백성이 서로를 필요로 한다는 원칙에서 시작하여, 백성을 사랑하고 두려워할 것, 백성의 마음을 헤아릴 것을 얘기한다. 후자는 다시 내용상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세금을 가볍게 할 것 등과 같이 백성에 대상으로 한 내용과 利를 추구하지 말고, 재정을 절약하라 등 군주를 대상으로 한 내용이 있다. 안민장에서는 「동호문답」이나 「만언봉사」와 달리 구체적인 제도를 전혀 다루고 있지 않으며, 그런 점에서 이론서로서 「성학집요」의 성격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다.

명교장은 위정의 최종 지점이자 위정이 추구해야할 목표이기도 하다. 그 근본정신은 "道之以政 齊之以刑 民免而無恥 道之以德 齊之以禮 有恥且格"라는 『논어』 爲政장의 유명한 구절이 잘 보여주듯, 法制와 형벌이 아니라 德과 禮를 통해 질서를 확립하고 유지하는 것이다. 교화의 내용으로 부자유친·군신유의·장유유서·붕우유신 등의 五常과 冠禮·婚禮·喪禮·祭禮·鄕禮·相見禮와 같은 六藝가 제시되고, 학교를 세워 士習을 바로잡을 것이 제시된다.

넷째, 위정공효장은 명교장까지 모두 이루고 난 후의 결과에 대한 얘기이

다. 이이는 그 효과가 횡적으로는 천하에, 종적으로는 하늘에, 그리고 차원을 달리하여 시간상으로 후세까지 오랫동안 미칠 것이라 말한다.

이상으로 살펴본, 「성학집요」 위정편의 체제와 항목을 선조 2년의 「동호문답」과 비교할 때 확인할 수 있는 특징들을 보면 우선, '용현', '안민', '교인' 항목이 마찬가지로 설정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62] 이를 통해 이 주제들이 이이의 경세론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 주목할 지점은 새롭게 보충된 항목으로, 그 가운데 특히 주목할 부분은 다음과 같은 부분들이다. 먼저 원리를 다루는 '위정지구'에서 '식시무', '법선왕' '근천계' 등의 항목이 대거 증가되었다. '위정지구' 관련 항목의 대폭의 증가는 「성학집요」가 「동호문답」에 비해 이론적 보강을 추구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특히 '식시무'와 '법선왕' 장의 추가 설정은, 이이가 「동호문답」의 제출 이후 특히 이 주제에 대한 이론화의 필요성을 의식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위정지사'에서 입기강 항목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앞서, 「동호문답」에 대한 검토에서 살펴보았듯이, 관료 조직의 문제는 그가 일찍부터 지적하였던 바였으나, 「동호문답」에는 별도 항목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나 「성학집요」에서는 안민과 명교에 우선해서 선결해야 할 근본 문제의 위상을 띠며 등장하였다.

⑵ '위정'편 구성의 맥락과 '流俗'·'迂儒' 비판

그렇다면 「동호문답」과 비교하여 「성학집요」에 추가된 항목 변화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에 대한 해답의 실마리는 「동호문답」을 저술한 선조 2년 이후부터 그가 「성학집요」를 기획하고 집필하기 시작한 선조 6년 사이의 상황에 대한 이해를 통해 찾을 수 있다.[63] 앞서 제1장과 제2장을 통해 보았듯이, 이 기간 이이는 크게 두 가지 입장들과 갈등 또는 경쟁 관계에 있었다.

첫째, 이이는 여전히 홍섬, 권철 등 '류속' 구신들이 개혁 요구에 신중론을

62) 다만, '명인'은 '명교'로 명칭이 바뀌었다.

63) 「성학집요」와 함께 올린 차자에 의하면, 이이는 선조 6년에 처음으로 「성학집요」를 기획하고 작업에 들어갔으며, 병과 지방관 봉직으로 인해 작업이 다소 늦어지다 선조 8년 가을에 완성했다고 한다.

내세우는 것에 대해 불안해하며 위기감과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었다. 이이의 이러한 태도는 선조 즉위 초부터 계속된 것으로, 이이가 가장 비판적으로 평가하던 입장이었다. 둘째, 선조 6년 향약 시행 논란을 겪으며 이이와의 입장 차가 더욱 두드러진 입장으로, 그가 소위 '迂儒'라며 비판하였던 입장이다. 당시 허엽과 김우옹은 향약의 즉각 실시를 주장하고 많은 신료들이 이에 동조함으로써 시행 결정까지 내려졌으나 이이의 반대를 선조가 수용함으로써 결국 취소되었다. 이상과 같은 상황을 이해한다면, 「성학집요」에 보강된 항목 내용들은 이이가 특정한 입장과 세력을 의식하고 그에 대응하고자 한 결과임을 알 수 있다.

먼저 '위정지구'의 '식시무'장과 '법선왕'장은 '류속' 구신들과 그에 동조하는 선조를 염두에 둔 항목 설정이었다. '식시무'장에서 경장의 필요성을 역설한 이이는 이어지는 '법선왕'장의 끝부분과 '위정공효'장에서 본격적으로 류속과 그에 동조하는 군주에 대한 비판을 전개한다. 이이는 여러 말과 글에서 류속의 행태에 대한 언급을 보이지만, 특히 「성학집요」의 이 부분은 그 가운데 가장 상세하고 분명하게 묘사한 내용으로, 이를 통해 그에 대한 이이의 인식을 잘 포착할 수 있다. 여기서 논의는 어디까지나 일반론의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지만, 실상은 당시의 '류속' 구신들과 군주의 태도에 대한 비판으로 볼 수 있다.

> (가) 三代의 道를 반드시 오늘날 행할 수 있다는 사실은 程子의 말에 매우 상세하게 있다. 다만 류속에 가리어 끝내 행해지지 못할 뿐이다. … 무릇 仁政을 반드시 행할 수 있다는 것은 聖賢의 말이고, 古道는 회복할 수 없다는 것은 속된 자들의 말이다. … 요즘 세상의 군주들이 성현의 말을 믿지 않고 속된 자들의 말에 깊이 동의하는 것은 왜인가? 본인이 도를 향한 뜻이 없고, 현명한 자를 좋아하는 성의가 부족하여 예전 것을 그대로 따르는 게 옳다하고 떨쳐 일어나는 것은 꺼리기 때문이다. 행여 군주가 古道를 행하려 하여 儒臣과 친하고 가까이 하며 조금이라도 하려고 하면 류속의 비방이 국이 끓듯 하고 매미가 울 듯 하여 반드시 저지하고 물리친 후에야 그만 둔다. 군주가 도를 믿는 것이 독실하지 못하고, 현명한 이를 아는 것이 깊지 못하니 어찌 初心을 지키어 변하지 않겠는가. 대개 류속의 고질은 갑자기 바꾸는 것을 어려워하여 하루아침에 古道를 행할 수 있다고 하면 뭇사람들의 마음이 불안해하여 처음에는 이치에 어긋난 것으로 보는 것이 事勢 상 필연적이다.

이것에 구애되어 끝내 할 수 없다면 떨어지는 世道를 언제 만회하겠는가.[64]

(나) 군주의 병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많은 욕망에 이끌려 왕도정치는 행할 수 없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류속에 빠져 왕도정치는 행할 수 없다고 여기는 것이다. 많은 욕망에 끌린 자는 是非의 공정함이 항상 利害의 사사로움에 가려 있고, 류속에 빠진 자는 성현의 말이 항상 속된 말에 굴복하니, 후세에 다스려지는 날이 항상 적은 것은 오직 이 때문이다. 대개 仁義를 몸소 행하는 것은 天德이요, 백성을 가르치고 기르는 것은 王道이다. 후세의 군주들이 항상 말하기를, 나 같은 小子가 어찌 감히 고도를 바라겠는가 한다. 천덕과 왕도에 대한 말은 옛사람의 일이요 나와는 관계가 없다고 여겨, 신하가 이에 대해 進言하면 바로 손가락질하고 비웃으면서, 고담준론으로 실상이 없는 것이라 생각하지, 내 마음이 공명정대하고 사사로움이 없는 것이 바로 천덕이고, 일을 처리함에 마땅하게 하고 인심에 따르는 것이 왕도인 줄을 모른다. 때에는 옛날과 지금이 없고 도는 고원한 것이 아니고 바로 일상생활 속에 있는 것이니, 다만 생각하지 않음을 근심할 뿐이다. 욕심이 많은 임금은 자포자기하는 것에 안주하니 진실로 말할 것도 못 되거니와 때로는 善을 하는 임금도 흔히 流俗에 흔들리는 것을 면치 못하니, 더욱 애통한 일이다. 류속이 필시 말하기를, 古道는 결코 회복할 수 없다. 이제 만일 옛 것을 개혁하여 새롭게 하면 인심이 불안해져 장차 위험과 난리에 이르리라. 하는데, 군주가 그 말을 깊이 받아들이기 때문에, 儒者의 말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뜻을 수용하지 않아 끝내 서로 부합할 수 없다.[65]

---

64) 『성학집요』 권11, 6면 나~7면 가, "臣按 三代之道 決可行於今日 程子之論 詳矣 只是蔽於流俗 終不克行 … 夫仁政必可行者 聖賢之說也 古道不可復者 俚俗之談也 時君世主 不信聖賢之說 深契俚俗之談 其故何哉 自無嚮道之志 又乏好賢之誠 宜乎樂因循而憚振作也 幸而人君欲行古道 親近儒臣 稍有所爲 則流俗之謗 羹沸蜩喧 必使沮敗而後已 人君信道不篤 知賢不深 安得守初心而不變哉 蓋流俗之痼 難於猝變 一朝施以古道 則羣情不安 初聞 轉見橫逆 乃事勢之必然也 以此爲拘 竟不能有爲 則世道之降 何時可回乎"

65) 『성학집요』 권12, 43면 가~44면 가, "人主之病 凡有二焉 一則牽於多慾 以爲王政不可行 一則溺於流俗 以爲王政不能行 牽於多慾者 是非之公 常蔽於利害之私 溺於流俗者 聖賢之言 常屈於鄙俚之談 後世之治日常少 職此之由 夫躬行仁義者 天德也 敎養生民者 王道也 後世人君 常曰 予小子 何敢望古道乎 天德王道之說 認爲古人之事而不涉於己 人臣有進言者 則輒指笑 以爲高談無實 殊不知吾心之正大無私 卽天德也 處事之合宜 而順於人心 卽王道也 時無古今 道非高遠 卽在於日用之常 特患未之思耳 多慾之主 安於暴棄 固不足道矣 間有爲善之君 亦多不免爲流俗所移 尤可痛惜 流俗之言 必曰古道決不可復 今若革舊更新 則人心不安 將至於危亂 人主深入其說 故儒者之談 邁邁落落 終無相合之理"

(가)와 (나)에는 오늘날 '古道'를 회복하는 일이 왜 어려운 것인가에 대한 이이의 분석이 담겨 있다. 그는 그 첫째 이유로 류속의 존재를 든다. 이이에 의하면, 그들이 군주의 주위에서 군주의 판단을 흐리게 하면서, 동시에 현명한 자들의 접근을 막고 있기 때문이다. 이이는 류속과 유자의 차이를 여러 면에서 대조적으로 묘사한다. 류속은 고도를 오늘날 시행할 수 있다고 믿지 않으며, 변화를 거부하고, 속되다. 이를 통해 역으로 유자의 입장을 유추해 보면, 그들은 고도의 회복을 믿으며, 현실을 바꾸고자 하고, 도덕을 내세운다. 결국 이들 간의 갈등은 도덕의 강화를 통해 현실의 변화를 도모하던 유자 세력과 그런 그들을 이상주의로 보고 상대적으로 현실적 입장을 취하려는 류속 간의 갈등임을 보여준다. 그리고 류속이 주류의 입장임에 반해 유자(사류)는 비주류적 입장이었다. 그런데 이이는 실상 군주가 류속에 의해 일방적으로 휘둘렸다기보다 군주 역시 류속과 같은 생각임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그가 보기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군주의 의지로서, 그의 결단을 촉구하고자 '법선왕'장의 내용을 통해 古道의 회복을 역설한 것이었다.

다음으로, '위정지사'의 항목은 주로 그가 '우유'라고 지칭하던, 같은 사류들에 대한 대응으로 볼 수 있다.

(가) 혹 개연히 세상의 풍습을 교정하려는 자가 있으나, 교화를 베푸는 것에는 말미암을 바가 있고, 민의 교화에는 순서가 있음을 알지 못하여, 단지 그 이름만 사모하고 그 實은 얻지 못하여, 근본을 뒤로 하고 말단을 먼저 하여, 교화는 있으나 효과가 없다. 이에 세상 사람들 중에 멋대로 하길 좋아하고 단정하기는 꺼리는 자들이 틈을 타 힘써 공격하고 古道는 진실로 회복할 수 없다고 한다. 이것이 어찌 한 잔의 물로 한 수레의 풀이 타는 것을 끄고자 하고는 물로는 불을 이길 수 없다고 하는 것과 다르겠는가.

(나) 반드시 군주가 먼저 몸소 행하고 현명한 자를 얻어 함께 다스려 조정의 명령이 인심을 복종하게 하고, 거꾸러지고 의지할 바 없는 백성들이 모두 일어날 생각을 하게 한 연후에 그 폐단들을 제거하고 고통을 없애주며, 마을을 정하여 생활하게 하고, 학교를 세워 가르침으로써 길을 안내하고, 禮를 제정하여 단속함으로써 節義를 검속하고, 향사례·향음주례 의식을 행하여 조화로 인도하고, 善은 드러내고 권하여 나아갈 바를 결심하게 하고, 惡에는 고통을 가하여 하지 않게 하면, 장차 학교로 하여금 교육을 다할 수 있게 하고, 鄕黨으로 하여금 공경하고 사양하는 풍습을 일으키게 하여, 바야흐로 큰 道를 이루어, 형벌은 사용하지 않고 禮樂이 아름답

고 훌륭할 것이다. 古道를 어찌 진실로 오늘에 행할 수 없겠는가?[66]

(가)는 류속과 또 다른 차원에서, 그가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우유'의 행태를 잘 보여준다. 이이가 보기에 그들은 목적과 방향 설정은 옳았으나 전략적 고려가 부족하였다. 그들이 지닌 위험성은 그 결과 오히려 반대자들에게 공격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사실이었다. 이이는 그들과 목표는 공유하였지만, 그 실현 과정은 다르게 생각하였다. 그는 점진적 접근을 자주 말하는데, 여기서 이이가 말하는 '점진적'이란 단지 그것이 장기적 기획이어야 한다는 시간적 의미만이 아니라, 선행 조건을 충족하면서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전략적 접근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런 그의 전략을 '爲政之事'에 담았다. '위정지사'의 구성에서 주목할 점은 그 내부의 항목들이 병렬적 관계가 아니라 本末과 先後의 위상에서 차이를 지니는 단계로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그렇기에 그것들은 '竝行'해야 할 사안이 아니라, 반드시 전 단계를 해결하고 난 후 다음 단계로 나아가도록 설정되어 있다. 즉 기강을 세운 후에야, 민생의 안정을 이룰 수 있고, 민생의 안정을 이룬 뒤에 민에 대한 교화를 해야 한다는 설정이었다.

(나)는 이이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왕도정치 구현의 단계를 보여준다. 그것은 군주로부터 시작하여, 조정으로 이어지고, 최종적으로 백성들에 이르는 과정이어야 했다. 이를 보다 사실적으로 말하면, 군주가 류속이 아닌 사류의 구상과 의견을 수용하고, 조정이 사류측 인사들로 구성된 후, 먼저 민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최종적으로 백성들을 교화하는 방식이어야 했다. 그 결과 일반 민들까지 도덕적 질서의 구현에 참여하고, 향촌 구석구석에서 자발적 도덕행위를 실천하는 모습에 대한 묘사는, 이이가 그토록 애기하는 '고도의

66) 『성학집요』 권12, 38면 가~39면 가, "或有慨然思矯世習者 又不知設教有因 化民有漸 徒慕其名 未得其實 後本先末 有教無效 於是 世人之樂縱恣憚繩檢者 乘隙而力攻之 以爲古道眞不可復 此何異於以一杯水 救一車薪之火 而以爲水不勝火也哉 必也人君 先務躬行 得賢共治 朝廷命令 悅服人心 使顚連無告之民 咸懷興起之念 然後祛其弊瘼 以解其苦 制其田里 以遂其生 設學而教之 以指其路 制禮而束之 以檢其節 爲鄕射鄕飮酒之儀 以導其和 旌善以勸 而使決所趨 癉惡以懲 而使決所背 則將使學校致教育之盛 鄕黨興敬讓之風 時升大猷 刑錯不用 禮樂濟濟矣 古道豈眞不可行於今日乎"

회복’이 의미하는 실상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준다.

2.「성학집요」‘聖賢道統’편과 三代之治論

「성학집요」의 마지막편은 ‘성현도통’편이다.[67] 이이는 『대학』의 체제에 따라 ‘修己’·‘正家’·‘爲政’의 문제를 모두 다루었음에도 마지막에 굳이 별도의 장을 설정하여 성현도통론을 개진하였다. 그리고 여기에 「성학집요」 전체의 의미를 총괄하는 내용을 담고자 했다. 그것은 곧 당대 조선에서 추구한 삼대지치의 像을 새롭게 제시하는 일이었다.

이이는 여러 말과 글에서 일관되게 경세의 목표로 삼대지치의 회복을 강조하였다. 사실 공자 이래 儒者라면 으레 唐虞·三代를 理想的 질서의 시기로 인식하였고, 이는 조선의 모든 유자들도 마찬가지였다. 따라서 이이의 삼대지치 회복 주장 역시 어디까지나 정치적 修辭일 뿐으로 泛然하게 넘기기 쉽다. 하지만 선조대 초반의 정국에서 ‘삼대지치의 회복’ 주장은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하고 논쟁적인 의미들을 함축하고 있었다. 상호 갈등하던 제 세력들은 理想으로서 삼대지치의 표상은 공유하면서, 거기에 서로 다른 의미를 투영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이의 삼대지치론이 지닌 개성은 삼대지치라는 표상 자체가 아니라, 그가 제시하는 삼대지치의 내용, 그리고 삼대지치의 회복이라는 주장을 통해 의도하는 바를 해명해야 비로소 드러낼 수 있다.

1) ‘全一的 도덕국가’로서 삼대지치

67) 성현도통이란 요·순·공자·이정·주희 등으로 이어지는 도의 전승과 계보에 대한 인식을 의미하며 그에 해당하는 인물들은 보통 도학의 원류인 중국의 인물들로 채워지며, 조선 내의 도통 인식을 의미하는 조선도통과는 구별된다. 그동안 조선의 도통론·도통인식이라고 하면 주로 문묘종사를 둘러싸고 벌어진 조선도통의 문제에 관심이 집중되었다. 성현도통은 조선 도통을 얘기하는 과정에서 그 前史로 잠깐 언급되거나 조선에서 그것은 너무나 자명한 公理와 같았기에 굳이 별다른 탐구가 필요치 않은 주제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조선 유자들의 성현도통 인식은 그들의 학문적·경세적 관심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으며 시대상을 반영하였다. 따라서 앞으로 역사적 접근을 통해 시기별·인물별로 드러나는 미묘한 차이를 포착하고 그 의미를 밝힐 필요가 있다. 元 왕조에 출사한 허형에 대한 인식이 조선에서 인물별·시기별로 어떤 차이를 보이며 변화하는지 과정을 추적한 연구는 그 좋은 모범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우경섭 2008「宋時烈의 許衡 인식과 文廟黜享論」『진단학보』106’ 가운데 ‘Ⅱ장 조선전기 허형에 대한 인식’ 참조.

성리학을 지배이념으로 건국된 조선에서는 일찍부터 唐虞·三代가 정치의 理想이자 모범으로 기능하였다.[68] 단적으로 정도전이 '贈任鎭撫詩序'에서 보여준 중국 역사에 대한 인식은 전형적인 성리학의 그것이었다. 즉, 당우·삼대에는 도가 행해졌으나, 한·당대는 도가 겨우 존재하였고, 秦·晉·隋代와 南北朝·五代 시대는 지극한 혼란의 시대에 빠졌는데, 송대 들어 人材가 나와 다시 세도가 회복할 조짐이 있었다는 것이다.[69]

한편, 그는 『朝鮮經國典』의 '儀制' 항목에서 중화와 조선의 禮儀·文物을 다음과 같이 비교하였다.

> 東方의 禮儀之風는 箕子에서 시작하였다. 고려의 文章制度가 中華를 본받았지만 土俗이 다 바뀌지 않았고, 원나라를 섬긴 이후에는 胡禮를 섞어 사용하였는데 … 皇明이 儀는 본국의 풍습을 따르고 法은 舊章을 따르라고 하여 그 弊習이 모두 사라지지 않았다. 오직 우리 전하께서 두루 시험하던 날에 搢紳으로서 治體를 아는 자들과 더불어 계획하고 의논하여, 衣冠을 청하는 表를 중국에 올린 후에야 옛 토속과 호복의 폐단이 모두 사라졌다. 寶位에 오르신 뒤에는 정성을 다해 다스림을 도모하여 제도의 沿革이 모두 厥中에 맞았고, 문물의 彬彬함이 중화에 부끄럽지 않았다.[70]

---

68) 10세기 중반 중국에서는 古代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통해, 새로운 경세질서를 제시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이러한 흐름은 일찍이 唐末 韓愈에 의해 창시된 古文 운동을 그 기점으로 하는데, 漢·唐代의 고대 이해를 비판하면서 자신들이야말로 고대에 대한 진정한 이해에 도달했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經典를 새롭게 해석하고 풀이하는 과정에서 지역별·중심인물별로 삼대에 대한 다양한 접근 방법과 해석의 차이를 보여주었는데, 江西 출신의 구양수, 四川 출신의 소식, 강서 출신의 왕안석, 섬서 출신의 사마광, 낙양 출신의 장재, 그리고 정호·정이 형제는 그 대표적 인물이었다. 정이의 계승을 표방하는 도학파의 삼대 인식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흐름의 연장선상에 있었다. 북송대 古代에 대한 다양한 해석에 대해서는 '피터볼 저/심의용 역, 2008 『중국 지식인들과 정체성』, 북스토리' 참조.

69) 『삼봉집』 권3, 贈任鎭撫詩序. 이에 대해서는 '한영우, 1999 『정도전사상의 연구』, 서울대 출판부, 177~178쪽' 참조.

70) 『삼봉집』 권8, 「조선경국전」 下, 憲典-예제, "我東方禮儀之風 肇自箕子 而王氏之世文章制度取法中華 而其土俗猶有未盡變者 事元以來 雜用胡禮 服飾無度 庶人僭擬逮夫皇明有天下 詔曰 儀從本俗 法守舊章 故其弊習亦未遽除 惟我殿下歷試之日 嘗與搢紳之識治體者 合謀建議 表請衣冠 然後土俗之舊 胡服之弊 盡革無遺 及卽寶位勵精圖治 制度沿革 咸適厥中 彬彬文物 無愧中華"

먼저 정도전은 동방의 禮儀가 기자에서 시작했음을 언급함으로써, '동방'과 '중국' 사이의 간극을 없앴다. 그리고 고려까지는 '토속'이 있었고, 원 간섭기에는 '호례'까지 섞였지만, 고려 말 이성계의 노력으로 그것들이 모두 사라졌으며, 조선 건국 이후 여러 제도들은 잘 운용되고 있고, 문물은 중화에 필적할만하다고 평하였다. 여기서 정도전은 '호례'와 함께 '토속'을 부정적 존재로 묘사함으로서, 중화 문명에 대한 강한 지향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정도전의 위 언급은 당대 현실에 대한 사실적 묘사라기보다 어디까지나 원론적·원칙적 차원의 선언으로 이해해야 한다. 고려와 원을 극복하고 건국한 조선인만큼, 전 왕조의 문화유산에 대한 전면적 부정을 통해 새롭게 마련하려는 질서에 정당성을 부여하고자 한 것이다.

실제 건국 초, 질서 수립을 위한 각종 제도들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는 조선이 무조건적으로 중화를 지향한 것은 아니었다. 삼대지치의 理想을 어떻게 해석하고 활용할 것인지를 둘러싼 긴장이 존재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은 '삼대지치'와 당대의 조선 사이에 놓인 시간적·공간적 괴리 때문이었다. 즉, '고대' '중국'의 질서를 과연 '당대' '조선'에 구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또 가능한가에 대한 의문이 존재하였다. 당장 조선 초의 문물·제도의 정비 과정에서는 고례·고제뿐만 아니라, 『洪武禮制』·『大明律』 등 당대의 중국 즉 명나라의 '時王之制'가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되었다.[71] 또한 중국과 조선의 공간적 차이에 대한 인식으로, 조선의 國俗을 반드시 중화와 같게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존재하였다.[72] 널리 알려졌듯이, 아래와 같은 양성지의 인식은 그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

71) 조선 초 문물제도 정비 과정에서 언급되는 '시왕지제'의 의미와 그것의 수용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담론 중심으로 탐구한 연구로는 '최종석, 2010「조선초기 '時王之制'의 논의 구조의 특징과 중화 보편의 추구」『조선시대사학보』52' 참조.

72) 이러한 경향을 '자주성' 또는 '고유성'으로 해석하는 종래의 경향에 대한 비판으로는 '문중양, 2006「세종대 과학기술의 '자주성' 다시 보기」『역사학보』189; 문중양, 2013「15세기의 '풍토부동론'과 조선의 고유성」『한국사연구』162' 참조. 한편, 풍토론을 중심으로, 中華에 대한 조선 지식인들의 고민을 통시적으로 검토한 연구로는 '배우성, 2014「2부 지리와 풍토론은 어떻게 중화관을 형성했는가」『조선과 중화』, 돌베개' 참조.

> 우리 동방은 세세로 요수의 동쪽을 차지하여 萬里之國이라고 칭했으며, 삼면이 바다에 막히고 일면이 산을 등지고 있어서 구역이 스스로 나뉘고, 風氣가 또한 달랐습니다. 단군 이래로 官을 설치하고 州를 설치하여 스스로 聲敎했습니다. 前朝의 태조는 信書(훈요십조)를 지어서 나라사람들을 가르쳤는데, 의관과 언어는 모두 本俗을 지키도록 했습니다.[73]

여기서 그는 중국과 조선의 공간적 격절을 이유로, 의복과 언어 같은 '本俗'은 중국과 다를 수밖에 없음을 얘기하고 있다. 양성지가 언급한 고려 태조의 「훈요십조」의 경우, 그 근거로 '殊方異土 人性各異', 즉 공간에 따라 인간의 본성[人性]도 다르다는 점을 들었었다.[74] 이상과 같이 조선 초 문물·제도의 정비 과정에서 조선의 유자들은 끊임없이 古와 今, 그리고 國俗과 中華 사이의 차이를 의식하면서 적합한 해결책을 찾고자 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로서 만들어진 것이 『국조오례의』와 『경국대전』 등의 '祖宗之法'이었다.[75] 그렇기에, '조종지법'에는 '고제'와 '시왕지제'가, '중화'와 '국속'이 공존하고 있었다.

그런데 중종대 조광조와 기묘사림을 기점으로 조선에서 삼대지치는 이전과는 다른 의미와 위상을 지니게 되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들의 등장과 좌절을 거치며 조선 사대부들의 인식 속에서 삼대지치와 조선 사이의 간극은 훨씬 좁혀지게 되었다. 그들은 '古道의 회복'·'도의 실행' 등으로 표상되듯 새로운 윤리 덕목을 구현함으로써, 조선의 '풍속'을 바꾸고자 하였다.[76] 그들

---

73) 『눌재집』 권1, 奏議-論君道十二事[한영우, 2008 『조선 수성기 제갈량 양성지』, 지식산업사, 230쪽에서 재인용] "吾東方世居遼水之東 號爲萬里之國 三面阻海 一面負山 區域自分 風氣亦殊 檀君以來 設官置州 自爲聲敎 前朝太祖作信書敎國人 衣冠言語 悉導本俗"

74) 『고려사』 권2, 世家 太祖 26年 4월, "其四曰 惟我東方 舊慕唐風 文物禮樂 悉遵其制 殊方異土 人性各異 不必苟同 契丹是禽獸之國 風俗不同 言語亦異 衣冠制度 愼勿效焉"

75) 『국조오례의』의 편찬 과정과 『홍무예제』등의 활용에 대해서는 '지두환, 1985 「국조오례의 편찬과정 (I)－길례 종묘·사직제의를 중심으로」 『역사와 경계』 9; 이범직, 1991 『韓國中世禮思想硏究－五禮를 中心으로－』, 일조각; 지두환, 1994 『朝鮮前期 儀禮硏究』, 서울대출판부' 참조. 『경국대전』 편찬 과정에서 『대명률』의 수용과 변용에 대해서는 '이성무, 1990 「경국대전의 편찬과 대명률」 『역사학보』 125' 참조.

76) 그들이 바꾸고자 한 것은 언어, 謠俗, 음식, 의복과 같은 종류의 것들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상례·혼례와 같은 '풍속'이었음은 '『우서』권10, 論變通規制利害'에 등장하는

의 경험은 조선의 사대부들에게 일종의 충격과 각성의 기회를 제공하였고, 이후 그들이 제시한 삼대지치의 像은 조선의 개혁과 경세질서 구상에서 하나의 전범으로 기능하게 되었다.

기묘사림이 패퇴하는 결정적 이유가 된 靖國功臣 개정 촉구 이유에서 알 수 있듯이, 그들은 勳臣들의 私利 추구가 당시 조선이 처한 여러 모순과 혼란의 근본적 이유라고 인식하였다. 훈신들의 이욕 추구는 조선의 사회 전체에 혼란을 가져온 주범이었다.[77] 그리고 기묘사림이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해 모색한 핵심적 방안은 인간 본성의 절대성과 보편성을 강조하는 것이었다. 더 정확히는 인간의 도덕성은 시·공간과 신분을 초월하여 공통적이므로, '古制'의 시행을 통해 구성원 모두가 그것을 발현토록 함으로써 조선의 도덕 질서를 새롭게 세우고자 하였다. 그들에 따르면, 도덕에 기반 한 질서, 교화를 통한 질서라는 삼대지치의 理想은 현재의 조선에도 여전히 유효한 모델이었다. 그들에게 古道는 현재의 도이자, 앞으로도 영원할 미래의 도이기도 하였다.

기묘사림이 조정에 진출한 후 추진한 여러 정책 중 대신들과 갈등을 빚은 사안 중에 典禮 문제와 敎化 관련 제도가 많은 것도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이었다. 이들 제도들은 조선 사회에서 어떠한 도덕 질서를 구현할 것인가의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기묘사림이 시행하고자 한 정책들은 다양한 방면에 걸쳐 있었다. 昭格署와 기신제 폐지와 같은 '異端'의 배격 조치, 賢良科 시행 등의 각종 官制 변통안, 향약 등의 敎化 제도 실시, 친영례 시행과 女樂 폐지 등의 왕실 전례 문제 등이 그것이었다. 이 가운데 昭格署와 기신제 폐지와 같은 '이단' 배척에 대해서는 훈구 대신들도 아무런 이견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이들은 중종에게 기묘사림의 요구를 수용할 것은 촉구하여, 결국 혁파 전교를 이끌어내는 데 기여하였다. 반면 관제 개혁과 왕실 전례 사안 그리고 향약 실시 문제에 대해서는 재상과 기묘사림 간에 선명하게 대조적인 입장을 보였다.

기묘사림이 '도의 절대성과 보편성'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들은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구상되었다. 먼저, 대외적 차원으로, 중국과 조선 사이의 간극

문답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77) 『정암집』 권2, 「兩司請改正靖國功臣啓一」; 『정암집』 권4, 「復拜副提學時啓十一」

은 사라지고, 양 공간은 똑같이 보편적 원리가 적용되는 공간임을 강조하였다. 그런데 이때 그들이 추구하는 중화의 질서는 '시왕지제'가 아니라 三代의 古禮·古制였으므로, 그것은 古와 今 사이의 간극을 줄이는 일이기도 하였다. 다음으로, 대내적 차원에서 군주에서 민까지 모두가 동일한 윤리와 가치를 따르도록 통합하는 것이었다. 기묘사림은 일반 민에 대한 교화를 통해 군주부터 민까지 모두가 공통의 도덕을 실천하는, 일찍이 조선에 없었던 기획을 시도하였다. 아래에서는 조정에서 논란이 되었던 사안들을 통해,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기묘사림은 古禮를 보편적·절대적인 것으로 상정하고, 각종 왕실 관련 전례에서 이를 실시하고자 했다. 그 대표적 사안이 중종 12년 7월에 거행된 중종과 문정왕후의 혼례를 전후하여 논란이 된 親迎禮와 廟見禮의 시행여부였다.[78] 왕실 전례 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단지 최고 통치자와 관련한 사안이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風俗은 법으로 정할 수 없다"는 중종의 말,[79] 그리고 "王室 大宗이 먼저 행하면 아랫사람은 보고 감흥하여 행할 것"이란 조광조의 언급에서 추론할 수 있듯이,[80] 왕실의 전례는 궁극적으로는 모든 구성원의 자발적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출발점과 같기 때문이었다.

이때 기묘사림이 친영례와 묘현례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내세운 이유는 다음과 같은 언급들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이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하나, 그것은 고대의 아름다운 일이므로, 오늘날에도 시행하기에 합당하다. 둘, 비록 『국조오례의』에 없더라도, 즉 祖宗이 한 일이 아니더라도 아름다운 일이라면 지금 실시해야 한다.

> (가) 기준이 아뢰었다. 『禮記』에 이르기를, 남자가 여자보다 우선하는 것은 剛柔의 義이다 또 혼례는 萬世의 시작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친영례를 단지 위에서만 행하고 아래에서는 행하지 않습니다. … 습속이 옛 습관을 따르고 행

78) 일찍이 중종 10년 10월부터 의견이 제출되기 시작하여, 중종 12년 혼례 직전에 가장 활발하게 논의가 개진되었는데, 결국엔 친영을 실시하는 것으로 귀결되었다. 그리고 친영 후에는 묘현례의 시행 여부가 논란이 되었는데, 이번에는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끝이 났다. 이 시기 친영례를 둘러싼 논란의 추이에 대해서는 '고영진, 1995『조선중기 예학사상사』, 한길사, 55~59쪽' 참조.

79) 『중종실록』 권34, 중종 13년 7월 13일(경술)

80) 『중종실록』 권36, 중종 14년 7월 17일(무신)

하지 않으니 매우 마땅하지 않습니다. 81)

(나) 이자가 아뢰었다. 대저 친영의 예에 대해 禮經 및 先儒의 설을 살피건대, 비록 천자, 제후의 존귀함이라도 반드시 면복으로 친영하고 관소에서 맞이하였으니 바로 오늘날 행하기에 합당합니다. 어찌 三代에 두루 행하던 예를 버리고 漢·唐을 본받을 수 있겠습니까. 82)

(다) 이자 등이 아뢰었다. 지금 正禮[친영의 예]를 거행하였는데, 묘현의 예는 더욱 중요하니 반드시 거행하소서. 옛날에는 삼 개월에 묘현을 했는데, 주자가 삼일에 묘현하는 예를 만들었습니다. 단지 삼일 만에 하는 것은 급박한 것 같으니, 삼 개월이 또한 古禮이므로 그것을 모방해 행하소서. 83)

(라) 이자 등이 아뢰었다. 묘현의 일은 전교하시기를 『오례의』에 없다고 하셨는데, 만약 아름다운 일이라면 조종조가 미처 못했던 것을 지금 하면 더욱 빛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84)

(마) 이사균이 아뢰었다. 묘현의 일은, 그것을 행하고자 하는 자는 고례를 아름답게 여겨서이고, 행하지 않으려는 자는 時宜에 맞지 않음을 중하게 여겨서입니다. … 또 祖宗이 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행하지 않는다면 매우 옳지 않습니다. 周나라의 禮樂은 成王 때에 이르러 크게 갖추어졌으니, 무릇 일에 있어 先王이 행하지 않은 것이라 하여 행하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지금 묘현은 正禮에 맞으므로 마땅히 행해야 합니다. 85)

---

81) 『중종실록』 권23, 중종 10년 10월 23일(병자), "典經奇遵曰 禮記曰 男先於女 剛柔之義也 又曰 婚禮萬世之始也 我國親迎之禮 只行於上 而不行於下 … 習俗因循而不行 甚非宜也"

82) 『중종실록』 권27, 중종 12년 3월 24일(기해), "大抵親迎之禮 考之禮經及先儒之說 雖天子諸侯之尊 必須冕而親迎迎於所館 正合行於今日 豈可舍三代通行之禮 以漢唐爲法哉"

83) 『중종실록』 권28, 중종 12년 7월 19일(계사), "副提學李耔等啓曰…今正禮已擧 廟見之禮尤重 須擧行之 古者三月廟見 而朱子制爲三日廟見之禮 但三日似急迫 則三月亦古禮 猶可倣而行之也"

84) 『중종실록』 권28, 중종 12년 7월 27일(경자), "李耔等四啓曰 廟見事 有敎云 五禮儀所無 若美事則祖宗雖未及爲之 而今爲之 尤有光且美矣"

85) 『중종실록』 권29, 중종 12년 8월 5일(무신), "刑曹參判李思鈞曰 廟見事 欲行之者以古禮爲美也 欲不行者 以不合時宜爲重也 … 且以爲祖宗所不行而不行 有大不可周家禮樂 至于成王而後大備 凡事不可以先王所不行 而終莫之行也 今廟見合於正禮固當行之無疑"

반면, 훈신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써, 친영례와 묘현례의 시행을 반대하였다. 첫째, 옛날과 지금은 마땅함이 다르다. 둘째, 조선의 예제가 모두 중국을 따를 필요는 없다. 셋째, 『국조오례의』에 없으며, 조종지법의 변경에는 신중해야 한다.

(가) 영사 김응기가 아뢰었다. 친영의 예는 지극히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세종께서 위에서 행하면 아래에서 본받으리라 고 여겨 왕자와 왕손에게 이 예를 시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래에서 그것을 행하는 자가 없었으니, 이는 아래에 이 예를 행하도록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百理에는 風이 같지 않고, 千理에는 俗이 같지 않으니, 先王이 만든 예도 인정에 맞고 토속에 마땅한 뒤라야 시행하는 것입니다. 86)

(나) 영사 신용개가 아뢰었다. 삼강오상은 고금에 바꿀 수 없는 것이지만, 禮文 사이의 節次는 옛날과 지금의 마땅함이 다르므로[古今異宜] 반드시 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87)

(다) 영상 정광필이 아뢰었다. 묘현과 같은 일은 비록 당과 송에서 이미 행했다고는 하나, 옛날과 지금의 마땅함이 다르므로[古今異宜] … 고례를 행하려다 지금과 맞지 않는 것보다는 先王의 제도를 따르는 것이 낫습니다. 88)

(라) 영상 정광필이 아뢰었다. 古今의 마땅함이 다르고 祖宗成憲이 모두 존재하는데, 하물며 우리 동방은 작은 땅을 차지하고, 한쪽 구석에 있어, 혹 옛날에 맞으나 지금에는 맞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小國의 禮制를 모두 중원을 따를 수 없는 것은 갑자기 太古의 다스림을 회복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단지 典章만 어지럽히고 필시 나라에는 이익이 없을 것입니다 89)

---

86) 『중종실록』 권24, 중종 11년 2월 6일(정사), "親迎之禮至美矣 然世宗以爲 自上爲之, 則下效之 故王子王孫 竝爲是禮 而下無行之者 是世宗成宗兩朝, 皆不能行是禮於下 大抵百里不同風 千里不同俗 先王制禮 合於人情 宜於土俗而後爲之也"

87) 『중종실록』 권28, 중종 12년 7월 27일(경자), "領事申用漑曰 三綱五常 亘古今不可易者也 而禮文間節次, 古今異宜 不必皆同"

88) 『중종실록』 권29, 중종 12년 8월 5일(무신). "若此廟見 則雖云唐宋已行 然古今異宜 … 欲行古禮, 而不合於今, 不如從先王制之爲愈也"

89) 『중종실록』 권30, 중종 12년 10월 9일(신해), "領議政鄭光弼議曰 … 臣常念 雖有所言 似正似是 古今異宜 且祖宗典憲俱存 況吾東方 彈丸小地 偏處一隅 或有宜於古而不宜於今者 小國禮制 不可一遵中原 如不遽復太古之治 徒紛亂典章 而恐無益於國事"

이상과 같이, 고례의 시행을 둘러싼 논란의 중심에는 고·금과 중국·동방의 간극에 대한 인식의 차, 그리고 조종지법인 『국조오례의』의 준수에 대한 인식의 차가 있었다. 기묘사림은 고례의 보편성과 절대성을 주장하며 『국조오례의』의 수정.보완을 주장한 반면, 훈구 대신 측은 고례는 시·공간적으로 맞지 않으므로, 『국조오례의』를 준수하는 게 낫다는 입장이었다. 이러한 논리의 대립은, 중종 14년 7월을 전후해 있었던 宗法 시행에서도 마찬가지의 양상을 보였다.[90] 즉, 그 시행을 주장하는 측에서 그것이 '삼대지법으로서, 厚倫成俗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주장한 반면,[91] 반대하는 측에서는 '삼대 이후 그것을 폐한 지 오래이며, 時宜를 참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92] 이처럼 왕실 전례를 둘러싼 대신과 기묘사림 간의 견해차는 '祖宗之法' 對 '三代之法' 담론의 충돌이자, 보편성을 극대화하려는 인식과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식 간의 충돌이기도 하였다.

둘째, 기묘사림은 일반 서민까지 포함하여 구성원 모두가 같은 道를 실천하는 공동체의 구현을 시도하였다. 대표적 사례로서 향약을 비롯한 각종 교화 정책들로서, 이들 정책은 모두 民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다는 점이 특징이었다.[93]

敎化라는 표현이 의미하는 바는 刑政과 대비되어 자주 언급되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교화는 민에 대한 억압적 형벌적 조치를 통한 질서 유지보다는 예방적 자발적 질서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었다. 즉 범죄를 저지른 후 그에 대한 처벌을 하는 것보다 사전에 예방한다는 의미가 있었다. 그것을 위에서 일방적으로 지배이데올로기 주입을 통해, 통치의 편의를 도모하는 과정으로만 이해할 수 없다. 중종대 초반 민에게 삼년상을 시행할지 여부가 논의가 될 때, 나오는 아래와 같은 발언들은 배려의 차원에서 그것이 논의

90) 지두환, 1994「제1장 종법제도의 정비와 정통론의 확립」『조선전기 의례연구』, 서울대 출판부

91) 대표적으로, '『중종실록』 권36, 중종 14년 7월 14일(을사)'에서 김식의 말을 참고할 수 있다.

92) 대표적으로, '『중종실록』 권36, 중종 14년 7월 8일(기해)'에서 남곤의 말을 참고할 수 있다.

93) 김훈식, 1985「16세기 《二倫行實圖》 보급의 社會史的 考察」『역사학보』 107; 김훈식, 1996「조선초기 『三綱行實圖』 보급의 대상」『인제논총』 12.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 상이 말씀하셨다. 삼년상은 天下古今에 通行하는 것이다. 지금 사대부가 모두 행하고 있으니, 서민들도 원하면 들어주어라. 근래 듣기로 거짓으로 하는 자가 많다고 하나, 이 역시 아름다운 일이 어찌 거짓으로 할 것을 미리 추측하겠는가 94)

혹, 身役을 피하려고 거짓으로 하는 서민이 있더라도 삼년상을 하도록 함으로써,95) 그들 역시 사대부와 마찬가지로 도덕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활약할 수 있게 된다.

기묘사림이 민의 교화를 얼마나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로 설정하고 있었는지는 아래와 같은 조광조의 언급을 통해 잘 알 수 있다.

> 民生의 衣食이 충분하고 모든 일이 끝난 후 古禮를 행하려고 하면 늦습니다. 대저 古道를 힘써 행하여 백성들을 보호하는 것을 근본으로 삼으면 됩니다.96)

여기서 조광조는 민생의 충족 못지않게 古禮의 시행을 통한 古道의 실천이 시급한 과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뒤에서 살펴보듯, 교화의 중요성과 필요성은 공유하지만, 그 방법과 과정에 있어 민생을 안정시킨 이후에야 교화를 행해야 한다는 이이의 생각과는 많이 다른 견해였다.

결과적으로, 민의 교화를 포함한 기묘사림의 시도는 이후 개혁세력이 경세질서를 구상함에 모범으로 기능하게 되었다. 이제 조선의 사대부들은 자신들이 이상시하는, 도덕과 교화에 기초한 도덕 공동체가 가능할 수 있다는 희망을 품게 되었다. 아래와 같은 윤근수와 기대승의 평가는 선조대 초반 개혁적 신진세력이 기묘사림에 대해 지녔던 인식의 일단을 잘 보여준다. 이들은 조광조에 대한 문묘종사 요구가 한창 진행 중이던 선조 2년 윤6월의 경연 자리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

94) 『중종실록』 권36, 중종 14년 8월 2일(계해), "上曰 三年之喪 天下古今所通行者 今士大夫皆行 庶民願行者聽之 近者聞多有詐僞者云 然此是美事 豈可逆其詐僞乎"

95) 『중종실록』 권26, 중종 11년 11월 5일(임오)

96) 『정암집』 권3, 「侍讀官時啓十一」, "民生衣食旣厚 凡事畢擧而後 欲行古禮 則緩矣 大抵力行古道 而以保民爲根本 則可矣"

윤근수가 말하였다. 기묘년 이후 사람들이 善을 향한 마음을 품은 것은 모두 조광조의 공입니다. 기대승이 말하였다. 근래 閭巷의 下賤輩까지도 모두 喪禮를 잘 거행하고 젊은 과부도 다른 곳으로 재가하려고 하지 않는 것은 모두 기묘인들이 진작한 효과입니다. 다만 조광조는 … 저술을 하여 후세에 전할 겨를이 없었기에 그의 학문이 深淺이 어떤지 알 수 없으나 그가 한 일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모두 欽仰하고 있습니다. 97)

"여항의 하천배까지 상례를 닦아 거행하고, 젊은 과부가 재가하지 않는 것"은 모두 기묘사림이 남긴 효과였으며, 그것이야말로 전 사회적으로 도를 행하는 삼대지치의 구현이었다.

2) 「성학집요」의 聖賢道統論과 조선 경세질서의 목표

「성학집요」 '성현도통'장은 형식 상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전반부는 주로 도통의 전승자에 해당하는 인물과 관련한 경전의 기사와 주석들을 인용한 부분이고 후반부는 '臣竊謂…'로 시작하는 부분으로 온전히 이이 본인의 생각을 피력한 부분이다. 이러한 구성은 「성학집요」의 모든 장에 공통적으로 적용된 방식이다. 책의 序에서 저자가 밝혔듯이, 「성학집요」는 기본적으로 '四書六經 先儒의 說 歷代 歷史'에서 각 장의 주제에 맞는 구절들을 선별한 大文과 그에 대한 여러 선현들의 주석을 附記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98) 그렇다고 「성학집요」가 오로지 인용문으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니어서 경전의 구절들 사이사이에 '臣按'으로 시작하는 이이의 생각이 삽입되어 있다. 무엇보다 각 장의 끝에는 반드시 본인의 문장으로 해당 장의 주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충실하게 밝히고 있다. 성현도통장의 경우에도 후

97) 『高峯集』「論思錄」 卷之下, 선조 2년 윤6월7일, "尹根壽曰 己卯之後 人懷向善 蓋出於趙光祖之功也 先生曰 近來閭巷閭下賤之輩 莫不修擧喪 禮 或有靑年寡婦 不欲他適 皆己卯振作之餘效也 但光祖年止三十八 而一時仕宦于朝 未暇著書傳後 故不知學問深淺 而其所爲之事 則人皆欽仰"

98) 『율곡전서』 권19 '聖學輯要序'. 그렇기에 비록 겸양의 修辭이기는 하지만 이이는 '進箚'에서 「성학집요」가 '나의 책이 아니라 성현의 책'이라고 하였다.

반부의 내용은 전반부의 내용을 이이 특유의 표현과 개념으로 정리한 다음 최종적으로는 자신의 주장으로 마무리 하고 있다.

전반부에서 이이가 상세하게 개진한 성현도통의 계보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복희==신농==황제==요==순==우==탕==문왕==무왕==주공ㅡ공자--안연--증자--자사--맹자……주돈이--정명도--정이천--장재--주자--?[99]

그리고 중간 중간에 이이가 삽입한 상황 설명과 논평은 다음과 같다.

(가) 도통은 복희부터 주공에 이르기까지는 聖人의 德으로써 君師의 지위에 있어 修己·治人이 각각 그 지극함을 다하였다. (주공은 비록 인군의 지위에 있지 않았으나 또한 천하의 도를 모두 다스렸다.)[100]

(나) 도통은 공자에 이르러 집대성되었고 (공자는) 만세의 스승[師]이 되었는데 공자 이후는 도가 단지 자기[己]에게서 이루어지고 한 때에 행해지지는 못했다.[101]

(다) 도통의 전승이 맹자에서 그쳐 중간에 끊어졌다.[102]

(다-1) 신이 생각컨대 도통이 복희로부터 시작하여 맹자에서 그치니 드디어 전승이 없어졌습니다. 荀卿 毛萇 董仲舒 楊雄 諸葛亮 王通 韓愈의 무리들이 말하고 행한 것이 世敎에 도움이 되는 바가 있으나 순경와 양웅은 치우친 데다 잡스럽고[偏駁] 모장은 드러난 功이 없으며 왕통은 견해가 좁고 서두르고자 하여 모두 볼 만한 게 적습니다. 오직 동중서는 바르고 도를 밝히는[正誼·明道] 논의를 가지고 있고 제갈량은 儒者의 기상을 지니고 있으며 한유는 佛老를 배척하였으니 諸子와 비교하면 낫습니다. 다만 동중서는 災異의 설로 흘렀고 제갈량은 申不害와 韓非의 습성에 가깝고 한유는 실천[踐履]의 學과는 머니 이것이 맹자의 도통을 이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103]

---

99) '=='는 도가 행해지는 상황 '--'는 도가 학문으로 전해지는 상황 '……'는 중단의 상황을 표현한 것이다.

100) 『성학집요』 권13, 10면 가, "右道統 自伏羲至於周公 以聖人之德 居君師之位 修己治人 各極其至 周公雖不居君位 亦盡治天下之道"

101) 『성학집요』 권13, 15면 나, "右道統 至於孔子而集大成 爲萬世之師 由孔子以下 道成於己 不能行於一時"

102) 『성학집요』 권13, 24면 나, "右道統之傳 止於孟子而中絶"

(라) 도통의 전승은 周子부터 끊어진 것을 이었는데 朱子에 이르러 크게 드러났다.[104]

(마-1) 신이 생각건대 주자 이후에 도통의 정맥을 얻은 자로 확실하게 가리킬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105]
(마-2) 신이 생각건대 주자 이후에 진덕수 허형이 儒者로서 세상에 이름이 났지만 그들의 出處大節을 살피면 논란이 될 만한 게 있는 것 같아 싣지 않았습니다. 皇朝의 名臣들 중에도 또한 理學에 潛心한 자가 많으나 도통의 정맥에 접할 수 있는 자를 아직 보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또한 감히 싣지 않았습니다.[106]

이이는 주희 이후에는 더 이상 확실하게 도통을 계승할 자가 없다고 단언하였다. 진덕수와 허형의 이름이 거론되지만 그들의 출처를 문제 삼고 있으며,[107] 명나라의 학자 중에도 성리학에 潛心한 자가 많다고 하나 본인의 기준으로 보건대 도통의 정맥으로 평가하기엔 미흡하다고 하였다.[108]

이상으로 볼 때 이이의 성현도통 인식은 道學派의 도통론을 종합·완성한 것으로 평가되는 주희의 그것을 계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109] 이는 다음

---

103) 『성학집요』 권13, 24면 나~25면 가, "臣按道統 傳自伏羲 止於孟子 遂無傳焉 荀卿毛萇董仲舒楊雄諸葛亮王通韓愈之徒 立言立事 有補於世教 而荀揚皆偏駁 毛萇無顯功 王通見小而欲速 皆少可觀 惟仲舒有正誼明道之論 諸葛亮有儒者氣象 韓愈排斥佛老 視諸子爲優 但仲舒流於災異之說 亮近於申韓之習 愈疏於踐履之學 此所以不能接孟氏之統也"

104) 『율곡전서』 권26, 「성학집요」 8, '聖賢道統 弟五', "右道統之傳 自周子繼絶 至朱子而大著"

105) 『율곡전서』 권26, 「성학집요」 8, '聖賢道統 弟五', "臣按 朱子之後 得道統正脈者無可的指之人 張南軒 與朱子爲道義之交 有講論之功 蔡西山以下諸公 皆有得於朱子之學 故略著行迹如左"

106) 『율곡전서』 권26, 「성학집요」 8, '聖賢道統 弟五', "臣按 朱子之後 有眞德秀許衡以儒名世 而考其出處大節 似有可議 故不敢收載 至於皇朝名臣 亦多潛心理學者 第未見可接道統正脈者 故亦不敢錄"

107) 허형의 생애와 평가에 대해서는 '이원석, 2006 「魯齋 許衡(1209~1281)의 생애와 철학사상」 『규장각』 29; 우경섭, 2008 「宋時烈의 許衡 인식과 文廟黜享論」 『진단학보』 106' 참조.

108) 나흠순이 이에 해당하는 대표적 인물이 될 것이다. 나흠순에 대한 이이의 인식과 평가는 다음 절에서 더 자세하게 다룬다.

109) 일반적으로 주희의 도통론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성립한 것으로 설명된다. 唐

의 두 가지 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첫째, 도의 전승 과정과 방식에 대한 설명이 동일하다. 양자는 모두 주공까지는 도가 행해지다가 공자부터는 도가 행해지지 못하고 단지 전해지기만 하였으며 그나마 맹자 이후에는 오랜 단절의 시기가 있었다고 설명한다. 이는 일찍이 정이가 그의 형 정호의 墓表에서 드러냈던 인식을 주희가 승계한 것이다. 둘째, 도통의 계보에 해당하는 인물들이 일치한다. 그 중 특징적인 인사는 공자 이후의 자사 그리고 맹자 이후의 주돈이이다. 정이는 『예기』의 한 편에 불과하였던 「대학」과 「중용」의 가치와 중요성에 주목하였고 주희는 나아가 이들을 별도로 분리하여 四書 체제를 완성하였는데 「중용」의 저자로 믿어지는 인물이 바로 자사였다. 그리고 주희가 자신의 본체론을 구상하는 데 결정적 근거를 제공한 『태극도설』의 지은이가 주돈이였다. 또한 (다-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한당 유학자들에 대한 부정적 평가도 주희와 이이는 공유하였다.[110]

정이와 주희의 도통론이 지닌 특징은 '올바른 통치'와 '올바른 학'을 다른 표현으로는 '治統'과 '도통(學統)'을 분리하는 의식을 보여준 점이다. 공자를 기점으로 도통의 전승이 방식이 달라진다고 설명하는 방식은 일찍이 한유의

代 말 韓愈가 「原道」에서 儒學의 부흥을 주창한 것을 연원으로 요·순~맹자로 이어지는 도통 인식이 시작되었다. 한유의 인식은 宋代 儒者들에게 이어졌는데 특히 북송 초기의 孫復 石介 등의 도통론이 대표적이었다. 이들은 한유로부터 도교.불교와 같은 '이단' 비판론을 계승하고 맹자 이후에 도통을 계승한 인물로 손자·한유 등을 추가하였다. 이후 북송 말에 程頤는 이들의 도통론을 비판적으로 계승하여 도학파 도통 의식의 단초를 연 것으로 평가된다. 정이가 작성한 그의 형 程顥의 「墓表」는 그 대표적 텍스트로 주목받는데 여기서 그는 맹자 이후 끊어졌던 도통을 정호가 이었다는 인식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남송대 들어 주희는 정이의 도통 의식을 계승하면서도 二程의 앞에 주돈이를 두는 등 약간의 변용을 가하여 도학파의 도통론을 완성하였다. 주희는 '道統'이란 용어를 처음 사용하였으며 「중용장구서」와 「대학장구서」는 그의 도통론이 드러난 대표적 텍스트로 언급된다. 그리고 元代에 작성된 『宋史』「道學傳」을 통해 도학파의 도통론은 공식화되었다. 주희의 도통론이 성립하기까지의 과정에서 대해서는 다음의 연구들이 좋은 참고가 된다. 이용주 2003 「제1장 주희 문화론의 시각: 문화이데올로기로서의 주희의 도통론」『주희의 문화 이데올로기』, 이학사; 고지마 쓰요시 저/신현승 역, 2004 「道」『송학의 형성과 전개』, 논형; 민병희, 2012 「道統과 治統: 聖人과 帝王: 宋~淸中期의 道統論을 통해 본 士大夫社會에서의 君主權」『역사문화연구』 40.

110) 도학자들의 한당 유학에 대한 평가를 문묘 從祀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본 연구로는 '고지마 쓰요시 저/신현승 역, 2004 위의 책, 173~183쪽' 참조.

「原道」에서도 그 단초가 보이지만,[111] 무엇보다 정이가 그의 형 정호의 墓表를 작성하면서 두드러지게 강조한 점이었다.

> 周公이 죽고 성인의 도가 행해지지 않았고[道不行] 孟軻가 죽고 성인의 학이 전해지지 않았다[學不傳]. 도가 행해지지 않아 백세 동안 善治가 없었고 학이 전해지지 않아 천년동안 眞儒가 없었다. 善治가 없으니 士가 오히려 善治의 도를 밝히고 私淑하여 후세에 전해줄 수 있다. 진유가 없으니 천하가 어두워지고 아무도 가야할 바를 몰라 人欲이 방자해 지고 天理가 사라진다. 선생은 1,400년의 뒤에 태어나 遺經에서 전해지지 않은 學을 얻어 장차 斯道로써 斯民을 깨우칠 뜻을 두었다.[112]

여기서 정이는 주공까지는 '도가 행해지던 시기' 그리고 공자부터는 '학이 전해지는 시기'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주공 이후 善治가 없어 도의 전승자로서 사의 의미와 역할이 커졌으며 정호의 공적으로 끊어진 '학'을 계승했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주희 역시 「대학장구서」와 「대학장구서」에서 이러한 정이의 구분을 계승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113]

공자를 기점으로 도의 계승 양상이 전환한다는 점을 부각함으로써 실상 정이와 주희가 강조하려던 것은 바로 '學'의 중요성이었다. 위의 「묘표」에서도 상황 설명의 주어가 '도'에서 '학'으로 바뀐 것에서도 이러한 사실은 잘 드러난다. 공자 이후 도는 더 이상 자연스러움의 발현이 아니라 學을 통해 인위적으로 추구하고 노력해야 하는 대상이 되었다. 이제 도덕적 완성을 위한 과정이자 도구로서 학은 필수적인 존재가 되었다. 「송사」 '도학전'에서 애기하는 유명한 문구 "삼대 이전에는 도학이란 이름이 없었다"는 바로 이러한 상황을 잘 표현한 문장이다.[114] '도를 행하는 것'과 '학을 전하는 것'의 구분에는 이들의 전략적 의도가 내포되어 있었으며 이는 결국 학통을 保持

---

111) 『韓昌黎集』「原道」

112) 『二程集』 권11, 「明道先生墓表」, "周公沒 聖人之道不行 孟軻死 聖人之學不傳 道不行 百世無善治 學不傳 千載無眞儒 無善治 士猶得以明夫善治之道 以淑諸人 以傳諸後 無眞儒 天下貿貿焉 莫知所之 人欲肆而天理滅矣 先生生千四百年之後 得不傳之學於遺經 志將以斯道覺斯民"

113) 『朱子全書』「대학장구서」

114) 『宋史』 권427, 列傳 제186 道學一, "道學之名 古無是也 三代盛時 天子以是道爲政教 … 是故盈覆載之間 無一民一物 不被是道之澤 以遂其性 於斯時也 道學之名何自而立哉"

한 재야 士의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그들의 정치적 구상과 연결되었다.[115]

주희가 이전의 도통론을 계승·변용하여 그 특유의 구상을 자신의 도통론에 담았듯이 이이는 주희의 도통론을 기반으로 그 자신의 성현도통론을 작성하여 현실의 변화를 추동할 새로운 질서 구상을 담으려 하였다. 하지만 이때 그가 취한 전략과 목표는 주희의 그것과 달랐다. 주희는 도통론을 통해 계보 수정이라는 내용상의 변화 그리고 '학'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제시와 강조를 통한 해석상의 변화라는 두 가지 전략을 취하였다. 그러나 앞서 언급하였듯이 이이와 주희의 도통론 간에는 내용의 차이 즉 도통 계보 상의 인물과 전승 방식의 설명에 아무런 차이가 없었다. 즉 내용상의 변경이 없었다. 그는 주희처럼 새로운 개념의 제시를 통해 근본적 변화를 도모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그는 學의 중요성, 한당 유학에 대한 비판적 태도, 絶學의 계승자로서 주돈이의 입지 등에 대해 주희의 인식을 공유하였다. 따라서 이이와 주희의 도통론의 내용을 서로 비교하는 방식으로 이이의 도통론의 특징을 설명하려는 시도는 별다른 소득을 거두기 어렵다.[116]

이이가 도통론을 통해 취한 전략은 주희와 같은 내용을 얘기하면서도 주목하고 강조하는 지점을 그와 달리하는 방식이었다. 그는 학을 통한 도통의 전승에 초점을 맞추고 여기에 집중하였던 주희와 달리 학의 중요성과 학통의 계보는 인정하되 시선을 공자 이전에 두었다. 다시 말해 그의 주안점과 목표는 어디까지나 '傳學'이 아니라 '行道'에 있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이의 도통론에서 주희 이후의 빈자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언제나 도통론을 제시하는 진정한 의도는 도통론이 끝난 다음에 있었기 때문이다. 한유·정이·주희는 모두 바로 자신들 바로 앞까지만 도통의 계보를 정리하고 도통론의 마지막은 비워두는 것으로써 암암리에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였다. 그

115) 도학파들에게 學이 지닌 의미와 경세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다음의 연구 참조. 피터 볼 지음/김영민 옮김, 2010「제5장 학」『역사 속의 성리학』, 예문서원; 민병희 2008「주희의 "대학"과 사대부의 사회·정치적 권력: 制度에서 心의 "學"으로」『중국사연구』 55.

116) 다음과 같은 연구들이 그 대표적 예이다. 송하경, 1990「이율곡의 도통론에 대한 고찰」『대동문화연구』 24; 이영경, 1997「율곡 대동사회론의 윤리적 성격」『유교사상연구』 9; 임홍태, 2006「율곡 이이의 도통론과 도통의식」『한국철학논집』 18

들은 이전까지의 도통을 자신이 이었다는 자부심을 표출하고자 했지만 공식적으로 거기에 자신의 위치를 두지는 않았다. 그런 점에서 '성현도통'장을 마무리 하는 글이자 「성학집요」 전체를 마무리하는 아래의 문장이 이이의 성현도통론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 이[필자:道]로써 德을 완성하는 것을 修己라 하고 이로써 교화를 실시하는 것[說敎]을 治人이라 하며 수기·치인의 實을 다하는 것을 傳道라 합니다. 이런 까닭으로 도통이 君相에 있으면 도가 一時에 행해져 후세까지 은택이 흐르고 도통이 匹夫에게 있으면 도가 一世에 행해지지 못하고 단지 後學에게 전해지기만 합니다. 만약 도통이 전승할 곳을 잃어 필부에게도 없으면 천하가 어두워 따를 바를 모릅니다. 주공이 돌아가신 후 百世동안 善治가 없었고 맹자가 돌아가신 후 천년동안 眞儒가 없었다 는 것은 이를 말합니다.
>
> 지금 신이 先儒의 說을 따라 도통의 전승을 차례로 서술하였는데 복희에서 시작하여 주자에서 끝이 났습니다. 주자의 뒤에는 的傳이 없으니 이것은 신이 오랫동안 한탄한 바이며 전하에게 매우 바라는 바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道學을 高遠하고 행하기 어렵다고 여기고 또 옛날과 지금은 마땅한 바가 다르다는 것[古今異宜]을 바꿀 수 없는 定論이라 생각합니다. 무릇 개벽한 이래 지금까지 몇 천 년이 지났는지 모르지만 天地가 한데 뒤섞인[混淪磅礴] 모습은 여전히 옛날과 같고 山川이 흐르고 우뚝 서있는 모습도 옛날과 같으며 초목과 금수의 모습도 옛날과 같습니다. 사람의 宮室 · 衣服 · 飮食 · 器用 같은 것은 모두 聖人이 만든 것에 따라 생활하며 없앨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오직 天敍天秩은 人心을 따르고 天理에 근본하여 萬古에 바꿀 수 없는 것인데 敝敗를 편안히 여겨 끝내 復古할 수 없다고 여기는 것은 무슨 견해입니까? … 전하께 바라옵건대 道에 뜻을 두어 게을리 하지 마시고 堯 · 舜을 따르고 본받아 學으로써 善을 밝히고 德으로써 誠身하여 修己의 노력[功]을 다하시고 治人의 가르침을 베푸십시오. 물러나 겁내는 생각에 흔들리지 마시고 利害의 설에 움직이지 마시고 因循의 주장에 구애받지 마시고 반드시 斯道를 크게 밝게 하고 크게 행하게 하여 道統의 전승에 접하신다면 매우 다행이겠습니다.[117]

---

117) 『성학집요』 권13, 44면 나~45면 가, "以此成德 謂之修己 以此設敎 謂之治人 盡修己治人之實者 謂之傳道 是故道統在於君相 則道行於一時 澤流於後世 道統在於匹夫 則道不能行於一世 而只傳於後學 若道統失傳 竝與匹夫而不作 則天下貿貿 不知所從矣 周公歿 百世無善治 孟軻死 千載無眞儒 此之謂也 今臣謹因先儒之說 歷敍道統之傳 始自伏羲 終於朱子 朱子之後 又無的傳 此臣所以長吁永歎 深有望於殿下者也 今人旣以道學 爲高遠難行 而且以古今異宜 爲不易之定論 夫自開闢以來 至于今日 不知其幾千歲 而天地混淪磅礴之形 猶舊也 山川流峙之形 猶舊也 草木鳥獸之形 猶舊也 以至於斯人之宮室衣服飮食器用 皆因聖人之制作 以養其生 不能闕廢 而獨於天敍

여기서 이이는 주희 이후 的傳이 없다며 선조에게 '斯道를 크게 밝히고 크게 행하여 도통의 전승에 접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는 선조에게 '단지 도를 전하기만 할 게 아니라 도를 행할 것'을, '수기만 다할 게 아니라 治人의 가르침을 베풀 것'을 요청한 것이었다. 그는 수기와 치인을 다해야 비로소 傳道라고 평가한다. 다시 말해 진정한 도의 전승은 '단지 후학에게 전하는 일'이 아니라 '一時에 행하는 일'임을, 즉 전 사회적인 도의 실천을 구현하는 일임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도통의 전승에 접하라는 이이의 요구는 순서상으로는 주희의 뒤였지만, 내용상으로는 분명 삼대의 뒤를 직접 잇는 것이었다. 또한 형식상으로는 군주인 선조의 과제로 요청한 것이었으나, 실질적으로는 조선 전체에 구현할 바람직한 경세 질서의 목표를 제시한 것이었다.

「성학집요」 '성현도통'편은 조선에서 일찍이 볼 수 없었던 형태와 성격의 글이었다. 조선에서 이처럼 성현도통론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글 그리고 그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고 나아가 도통의 계승을 주창한 글은 없었다.[118] 이 글은 국초 이래 계속된 '과연 삼대지치를 조선에서 실현하는 것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대한 이이의 대답이자 선언이기도 하였다. 이이는 성현도통론을 통해 고대 중국의 문명과 당대 조선의 문명을 시간과 공간의 격절을 넘어 연결하였다. 삼대지치는 분명 '조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원된 이론적 근거이자 목표로서 의미가 있었다. 그런데 이이는 조선에서 삼대지치를 구현하고, 고도를 회복하는 행위에 조선이라는 경계를 넘는, '보편'적 의미를 부여하고자 한다. 다시 말하면 그가 말하는 삼대지치 담론은 외래 문명의 수용을 통해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이 아니라, 오랜 기간 그 어디에서도, 심지어 중국에서도 더 이상 현실로 볼 수 없었던 도통의 맥

天秩 因人心 本天理 亘萬古而不可變者 則乃安於斁敗 以爲終不可復古者 抑何見歟 嗚呼 其亦不思而已矣 伏望殿下 志道不懈 追法堯舜 學以明善 德以誠身 盡修己之功 設治人之敎 毋爲退怯之念所撓 毋爲利害之說所動 毋爲因循之論所拘 必使斯道大明而大行 以接道統之傳 萬世幸甚"

118) 조식의 『학기류편』 가운데 '聖賢相傳'편 정도가 근사한 내용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학기류편』은 여러 저서에서 '성현'의 말을 轉載한 내용으로만 구성되었을 뿐 인물 간의 관계나 도통 계승 방식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무엇보다 조식의 생각이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다. '조식 엮음·경상대학교 남명학연구소 역주, 2002 『사람의 길 배움의 길 학기류편』, 한길사.'

락을 구현하는 적극적인 행위로 설정된다. 그런 점에서 이이의 성현도통론은 '조선중화주의'로 표현되는 조선 후기 사대부들이 지녔던 자부심의 근원이 어디서 비롯하는가를 잘 보여주는 사안이기도 하다.[119]

3) 삼대지치의 像과 개혁론의 근거

「성학집요」 '성현도통'장의 전반부 내용이 인물을 중심으로 서술한 도통의 '역사'라면 후반부의 내용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적용되는 도의 법칙을 추출한 '이론'이라 할 수 있다. 후반부에서 이이는 전반부의 도통 계보 논의를 확장하여 그것을 정치적 조건과 결부하여 묘사한다. 즉 원시적 상태에서 君師의 출현과 그들의 통치, 그리고 더 이상 聖人 군주가 출현하지 않는 상황이 도의 존재 양태와 어떻게 관련되는지 말한다. 후반부에서 이이가 전개하고 있는 인류 문명의 역사는 그 규모나 내용으로 보건대 『예기』 예운편의 그것에 비견할 만하다. 그러나 면밀히 살펴보면 이이는 예운편의 형식과 서술방식은 차용하였으되, 이상적 경세 질서에 대한 자신만의 개성적 구상을 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가) 신이 생각건대 厥初의 生民은 風氣가 처음으로 열리어 나무 위에 살고 산 채로 먹으니 生理가 아직 갖추어지지 않았고 머리를 풀어헤치고 발가벗은 채로 사니 人文이 아직 구비되지 않았습니다. 무리지어 살았는데 군주가 없었으며 이로 깨물고 손톱으로 움켜쥐니 大朴이 모두 흩어져 장차 큰 난리가 일어나려 하였습니다.

(나-1) 이때 여러 무리 중에서 가장 뛰어난 聖人이 있었는데 聰明 睿智하여 그 본성을 오로지 하니 億兆의 중생이 자연스럽게 붙좇고 마음을 기울였습니다. 싸움이 있으면 판결을 구하고 의심이 있으면 가르침을 구하고 그를 받들어 군주로 삼으니 民心의 향하는 바가 곧 天命이 아끼는 바였습니다. 성인은 억조의 중생이 붙좇는 바임을 스스로 알아 부득이 君師의 책무를 자기의 임무로 삼았습니다.

(나-2) 따라서 天時와 地理를 따라 生養之具를 만드니 이에 궁실 · 의복 · 음식 · 器

119) 양란 이후 조선 후기 지식인들의 중화 의식에 대해서는 '정옥자, 1998 『조선 중화사상 연구』, 일지사' 참조.

用이 점차 갖추어져 백성은 필요한 바를 얻어 즐겁게 살고 편안하게 일하였습니다. 또 성인이 안일하게 지내고 가르침이 없으면 금수에 가까울 것을 걱정하여 人心을 따르고 天理에 근본하여 敎化之具를 만들었습니다. 이에 父子 · 君臣 · 夫婦 · 長幼 · 朋友가 각각 그 道를 얻어 天敍天秩이 밝아지고 또 행해졌습니다. 그리고 성인은 時世가 같지 않으니 制度에는 마땅함[宜]이 있고 賢愚가 같지 않으니 矯治에는 방법[方]이 있음을 염려하여 人情을 節하고 時務를 헤아려 損益之規를 만들었습니다. 이에 文質 · 政令 · 爵賞 · 刑罰이 각각 그 마땅함을 얻으니 지나친 것은 억제하고 모자란 것은 늘이며 착한 자는 흥기하게 하고 악한 자는 징벌하여 다스려 종국에는 大同으로 돌아갔습니다.

(나-3) 성인이 하늘의 뜻을 이어 왕위에 올라[繼天立極] 한 세상을 잘 다스린 것이 이와 같은 것에 지나지 않았는데 도통의 이름이 여기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성인이 능히 대군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도덕으로써 능히 한 세상을 따르게 했기 때문이지 세력을 빌렸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성인이 돌아가시면 반드시 聖人이 뒤를 이어 천하를 다스렸는데 隋時變通하여 백성으로 하여금 궁하지 않게 하였고 소위 인심을 따르고 천리에 근본한 것 은 일찍이 조금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바꾸지 않는 것은 천지의 常經이고 變通하는 것은 고금의 通誼입니다.

(나-4) 時世가 점차 내려가니 風氣가 옛날과 같지 않고 성인이 드물게 나타나니 성인이 성인에게 도통은 전해주지 못하였습니다. 그리하여 大統은 정해지지 않고 도리어 姦雄이 틈을 엿보아 기회를 노리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므로 성인이 그것을 걱정하여 아들에게 전해주는 법을 세웠는데 아들에게 전한 후 도통이 반드시 大君에게 있지 않았고 반드시 아래에 있는 성현을 얻어 裁成輔相의 도를 도와서 斯道의 전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삼대 이상에서 인군이 반드시 성인이 아니더라도 천하가 치평했던 이유입니다.

(다) 時世가 더욱 내려가 風氣가 어지럽고 경박하여 백성의 허위가 날로 자라니 교화를 이루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군주는 自修의 덕이 없고 또 賢人을 좋아하는 성의가 부족하여 천하를 멋대로 희롱하고 천하를 걱정하지 않았으며 사람을 등용함에 덕으로 하지 않고 세상을 다스림에 도로써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아래에 있는 성현은 朝廷에 스스로 설 수 없어 깊이 숨고는 쓰이지 않으니 죽을 때까지 蘊蓄만 하였고 義를 버리고 利를 쫓는 자는 서로 밀치며 나아가 위아래가 서로 이익을 취하였습니다. 도통의 전승이 비로소 여항의 필부에게로 돌아가니 도통이 君相에게 있지 않은 것은 진실로 천하의 불행입니다. 이 이후 교화는 쇠퇴하고 풍속은 퇴패하였으며 거기에다 異端이 횡행하고 권모술수와 거짓이 치성하여 날이 갈수록 어두워지고 여기저기에서 고질이 되니 三綱과 九法(홍범구주)이 쇠락하여 도통의 전승이 여항에서도 끊어졌습니다. 그리하여 천지의 긴 밤이 여기서 가장 극에 달했습

니다. 간혹 才智로써 少康을 이룬 인군이 있었는데 대개는 功利의 설에 빠져 도덕의 단서를 찾지 못하였습니다.[120]

후반부는 원시적 자연 상태에 대한 묘사로 시작한다. (가)의 내용이 여기에 해당하는데 이 상태에서는 입고 먹고 자는 일과 같은 인간의 기본적 생리 욕구를 오로지 자연물을 그대로 이용하여 충족하는 수준이었다. 게다가 집단생활을 영위했으나 이들 사이에는 아무런 질서의 규칙도 무리의 지도자도 없는 상황이었다. 이이는 이때를 도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며 장차 '난리가 일어나려' 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상태로 표현한다. 이는 자연적 상태에서 인간의 기본적 욕구 충족은 불안정하며 지도자가 없는 집단생활은 혼란의 상태일 것이라는 이이의 가정을 투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점은 그가 다음의 (나)에서 성인의 출현을 통해 그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상황으로 서술하는 것에서도 잘 드러난다.

(나)는 성인의 출현으로 인한 문명의 시작과 그 이후 삼대까지의 시기로

120) 『성학집요』 권13, 42면 가~44면 가, "(가) 臣竊謂厥初生民 風氣肇開 巢居血食 生理未具 被髮裸身 人文未備 羣居無主 齒齧爪攫 大朴旣散 將生大亂 (나-1) 於是 有聖人者首出庶物 聰明睿智 克全厥性 億兆之衆 自然歸向 有爭則求決 有疑則求敎 奉以爲主 民心所向 卽天命所眷也 是聖人者 自知爲億兆所歸 不得不以君師之責爲己任 (나-2) 故順天時 因地理 制爲生養之具 於是 宮室衣服 飮食器用 以次漸備 民得所需 樂生安業 而又慮逸居無敎 近於禽獸 故因人心 本天理 制爲敎化之具 於是 父子君臣 夫婦長幼朋友 各得其道 天敍天秩 旣明且行 而又慮時世不同 制度有宜 賢愚不一 矯治有方 故節人情度時務 制爲損益之規 於是 文質政令 爵賞刑罰 各得其當 抑其過 引其不及 善者興起 惡者懲治 終歸於大同 (나-3) 人之繼天立極 陶甄一世 不過如此 而道統之名 於是乎立 聖人之能爲大君者 以其道德能服一世故也 非有勢力之可借 故聖人旣沒 則必有聖人者代莅天下 隨時變通 使民不窮 而其所謂因人心本天理者 則未嘗少變 不變者 天地之常經也 變通者 古今之通誼也 (나-4) 時世漸降 風氣不古 聖人罕作 不能以聖傳聖 則大統未定 反起姦雄之窺覬 故聖人有憂之 乃立傳子之法 傳子之後 道統不必在於大君 而必得在下之賢聖 贊裁成輔相之道 以不失斯道之傳焉 此三代以上所以人君不必盡聖 而天下治平者也 (다) 時世益下 風氣淆漓 民僞日滋 敎化難成 而人君旣無自修之德 又乏好賢之誠 以天下自娛 不以天下爲憂 用人不以德 治世不以道 於是 在下之賢聖 不能自立於朝 深藏不售 蘊寶終身 而棄義趨利者 相排競進 上下交征 道統之傳 始歸於閭巷之匹夫 道統之不在君相 誠天下之不幸也 自此以降 敎化陵夷 風俗頹敗 加之以異端橫騖 權詐熾興 日晦月盲 展轉沈痼 三綱淪 而九法斁 以至於道統之傳 亦絶於閭巷 則乾坤長夜 於此極矣 間有人君 或以才智能致少康 而類陷於功利之說 不能尋道德之緖"

이 시기는 다시 세 단계의 과정을 거쳤다. 먼저 무리 중 가장 뛰어났던 聖人이 집단의 君師로 등극하여 각종 통치의 도구들을 만들어 '善治'를 이룩하였다(나-1). 이후 聖人의 뒤를 聖人의 계승하고 통치의 도구들을 제대로 운용하여 선치는 계속되었다(나-2). 시간이 흘러 상황의 변화로 왕위 계승 방식이 혈연관계에 기초한 父子 계승으로 바뀌었지만 聖賢의 등용으로 여전히 선치를 이룰 수 있었다(나-3). 전반부의 역사적 상황과 연결해 보면 (나-1)과 (나-2)는 복희·신농·황제·요·순까지 (나-3)은 그 후부터 주공까지에 해당한다. 이이는 이때 '비로소 도통이 시작하였다'라고 평가하였다.

(나-1)에 등장하는 군사의 출현은 주희가 「대학장구서」의 서두에서 말하는 내용과 매우 유사하다. '자신의 본성을 오로지 한 총명예지한 인물이 군사가 되어 나머지 백성을 다스리고 교화했다'는 줄거리가 그러하다.[121] 그런데 성인이 군사에 오르는 이유에 대해 양자는 전혀 다르게 얘기한다. 주희는 이를 '하늘이 명하여 그를 군사로 삼았다'고 즉 천명이라는 집단의 외부로부터 부과된 것으로 설명한다. 이에 반해 이이는 이를 집단 내부에서 민심의 향배에 의해 자연스레 결정된 결과로 설명한다. 뭇 사람들이 성인의 도덕을 쫓아 싸움이 나면 그에게 판결을 구하고 의문이 있으면 그에게 가르침을 청하다 결국 군주로 받들었다는 것이다. 天命은 그 후에야 민심을 추인하는 식으로 등장한다. 이처럼 이이는 군주라는 직책의 기원을 '천명'에 두기보다 '민심=천명'으로부터 비롯하였음을 부각시킴으로써 민에 대한에 대한 군주의 책임을 강조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주희의 생각과 마찬가지로 이이에게도 군주의 도덕성은 필수적이었다. 이상적 군주는 '자신의 본성을 오로지 할 수 있는[克全厥性]' 즉 도덕적 완성자였다. 그리고 (나-3)에서 재차 강조하고 있듯이 군주는 자신의 '도덕으로써 세상 사람들이 절로 따르게' 해야지 물리력 등의 강제적 수단을 통해 복종하게 해서는 안 되었다.

(나-2)에서 논하는 내용은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이이만의 독창적인 설명방식이다. 이에 따르면 성인은 공동체의 안정과 질서를 위해 모두 세

121) 『주자전서』「대학장구서」, "蓋自天降生民 則旣莫不與之以仁義禮智之性矣 然其氣質之稟 或不能齊 是以不能皆有以知其性之所有而全之也 一有聰明睿智 能盡其性者出於其間 則天必命之 以爲億兆之君師 使之治而教之 以復其性 此伏羲神農黃帝堯舜所以繼天立極 而司徒之職 典樂之官 所由設也"

종류의 통치 도구들을 만들었는데 '生養之具'·'敎化之具'·'損益之規'가 바로 그것이다. '생양지구'란 의·식·주와 같이 인간의 기본적인 생리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도구들로 구체적인 물질의 형태를 띤다. '교화지구'란 三綱五倫으로 대표되듯 사회의 구성원들이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도덕·윤리를 의미한다. 그런데 여기서 '교화지구'는 聖人이 자의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人心과 天理를 바탕으로 만들었음이 즉 인간의 내부적 기원으로부터 나온 자연스러운 발현임이 강조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손익지규'란 禮制·法制 등 공동체 운영과 유지를 위한 각종 制度들을 의미한다.[122] '具'라 표현한 다른 도구들과 달리 '規'라 명명한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다분히 강제성을 지니는 외부의 제어 장치이다.

일단 이들 통치도구가 만들어진 후부터는 이제 그것을 어떻게 운용하는가가 중요하다. 聖人의 통치가 계속되는 (나-3)에서 그에 대한 모범을 제시한다. 중요한 사실은 성인은 이들 통치도구들을 그 성격과 목적에 따라 알맞게 운용하여 질서와 안정을 성공적으로 유지하였다는 점이다. 이때 특히 중요한 도구가 '교화지구'와 '손익지규' 두 가지였다. 이이의 표현을 그대로 인용하자면 성인들은 "隨時變通하여 백성들이 궁하지 않게 했는데 소위 '인심에 따르고 천리에 근본'하는 것은 조금도 바꾸지 않았다". '인심에 따르고 천리에 근본'하는 것이란 바로 위에서 말한 '교화지구'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이의 문장은 다음과 같이 바꿀 수 있다. '성인은 각종 제도들은 때와 상황에 맞게 변통하여 민생의 안정시키면서 도덕 질서는 변함없이 유지하였다.' 여기서 도구의 순서를 바꾸어 '손익지규'의 변통을 앞세우고 '교화지구'의 유지는 뒤로 옮긴 점이 흥미롭다. 이이는 "바꾸지 않는 것은 천지의 常經이고 變通하는 것은 고금의 通誼"임을 재차 언급하면서 도덕의 유지와 제도의 변통이 공동체의 질서 유지를 위한 경세의 핵심 요소임을 강조하였다.

(나-4)부터는 문제적 상황이 발생한다. '풍속이 변하고 성인이 드물게 나타나' 더 이상 예전과 같이 계속 성인 군주의 즉위 상황을 이어갈 수 없는 형편이 된 것이다. 그 결과는 즉시 정치적 불안정과 위험으로 나타났다. 도덕적 측면에서는 오히려 성인과는 정반대라 할 수 있는 '姦雄'이 정치권력을

122) 원래 '손익'은 『論語』「爲政」에 禮와 관련하여 등장하는 표현이다. "子曰 殷因於夏禮 所損益可知也 周因於殷禮 所損益可知也 其或繼周者 雖百世可知也."

노리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이에 위험을 예방하고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아들에게 군주의 계승이 아들에게 전해주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이처럼 이이는 오로지 군주 본인의 덕성을 문제 삼던 禪讓에서 혈연관계에 기초한 부자 세습으로 전환한 것을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설명한다. 역사적으로는 우왕 이후의 왕위 계승이 이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대까지는 善治가 가능하였다. 이이는 그 핵심 요인으로 세습군주의 태도를 든다. 군주 본인은 비록 성인의 덕성까지는 갖추지 못했지만 그는 반드시 아래에 있는 성현의 도움을 구하였고 그 결과 斯道를 잃지 않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로써 군주의 덕성은 성현의 덕성으로 보완되었고 그의 도움을 통해 마치 성인 군주의 통치와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다)부터는 삼대 이후의 시기로 이때에 이르면 풍속은 더욱 나빠지고 상황은 악화되었다. 그럼에도 군주는 더 이상 예전처럼 도덕적 수양에 대한 생각도 현인을 등용할 의지도 없었다. 그 결과 성현은 조정에 진출할 생각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利를 추구하는 자들이 경쟁적으로 조정으로 진출하였다. 따라서 도통은 더 이상 조정에 있지 못하고 여항의 필부에게 있게 되었다. 역사적으로는 공자 이후의 상황에 해당하며 도통의 전승 방식에 커다란 전환이 있다고 했던 때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나마 여항에 있던 도는 교화의 쇠퇴와 풍속의 악화에다 이단과 권모술수와 거짓의 폐해까지 더해져 결국 소멸하게 되었다. 역사적으로는 맹자 이후 한대~당대의 상황이 이에 해당한다. 간혹 '少康'을 이룬 경우가 있었는데 이는 功利의 결과이지 도덕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하였다.

일반적인 평가와 달리 이이는 「성학집요」는 물론 다른 말과 글 어디에서도 『예기』식의 대동·소강 사회를 경세의 理想으로 직접적으로 강조하고 있지는 않다. '예운'편과 같은 대동 사회의 개념은 「성학집요」 '위정'편의 제일 마지막 장인 '위정공효'장에서 대동의 상황만이 大文으로 한번 인용되었을 뿐이다. 그러나 여기서도 先賢들의 주를 상세하게 달거나 이이 본인의 의견이 붙이고 있지 않아 크게 의미 부여를 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흔히 이이가 대동사회를 이상으로 생각했다는 근거로 인용되는 바 (나-2)의 마지막 '종국에는 大同으로 돌아갔습니다'라는 구절은 실상 '예문'편의 대동 사회와

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 구절은 문장 구조 상 (나-2)의 전체를 마무리 하는 즉 삼대지치의 상황 전반에 대한 표현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손익지규'의 항목에만 해당하는 구절이다. 다시 말해 앞서 '생양지구'와 '교화지구'의 경우와 같은 방식으로 성왕이 '손익지규'를 만든 결과를 설명하는 구절이다. 그리고 그 의미는 '大同小異'의 용법과 같이 정도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봐야 한다. 즉 '손익지규'를 운용한 결과 '과한 것은 줄이고 모자란 것은 늘리고 선한 자는 흥기시키고 악한 자는 벌하고 다스려 결국 대체로 같아졌다'는 뜻이었다. 이는 '예운'에서 묘사하는 天下爲公의 결과로서 '大同'과는 의미가 달랐다.

(다)에서 사용한 少康이란 표현과 개념도 '예운'편에 등장하는 小康과는 전혀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다.[123] 이이는 의도적으로 小康이란 용어를 비틀어 少康이라 표현하였다. '예운'편에서 대동은 唐虞 시대의 상황을 小康은 三代 시대를 묘사하는 표현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이이가 少康으로 지칭하는 시기는 삼대 이후의 시기에 해당하며 그에 대한 평가도 小康보다는 부정적 의미를 띠고 있다. 도덕을 기반으로 사회의 안정과 질서를 이룬 삼대의 王道政治 仁政과 달리 그렇지 않은 방법으로 인위적인 방식을 통해 안정과 질서를 이룬 모든 상황이 少康에 해당하였다. 대표적으로 功利 추구의 결과로 질서 상황에 다다른 패도 정치가 있었다. 「동호문답」에서 이이는 다스림[治]을 이룩하는 두 가지 방법을 논하면서 "(人君이) 몸소 仁義의 道를 행하고 不忍人之政을 시행하여 天理의 올바름을 지극히 하는" 王道와 "仁義의 이름을 빌려 권모술수의 정치를 시행하고 功利의 사사로움을 이루는" 패도 두 가지를 들고 왕도를 통한 질서를 답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기준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훌륭한 군주로 추앙받는 진나라 도공 한나라 고조·문제 당나라 태종 송나라 태조 등은 모두 패도로 질서를 만든 군주일 뿐이었다.[124] 외형상으로는

---

123) 少康을 小康의 오류로 보았던 국역본과 기존 연구들과 달리 강정인은 이이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사용했음을 처음으로 지적하였다[강정인, 2010「율곡 이이(李珥)의 정치사상에 나타난 대동(大同)·소강(小康)·소강(少康): 시론적 개념 분석」『한국정치학회보』 제44집 제1호]. 그런데 강정인은 이이가 少康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이해하며 그 이유는 의문으로 남겨둔 채 글을 마쳤다. 하지만 강정인의 오해와 달리 이이는「동호문답」에서 분명 少康과 패도정치를 왕도정치와 대비하며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124)『율곡전서』권15,「동호문답」'君道'

양자가 모두 治平의 상태라는 점에서 공통적이었다. 그러나 추구하는 가치와 질서의 방법 모두에서 양자는 전혀 달랐다. 그리고 근원적이며 안정적인 왕도정치의 질서와 달리 그렇지 않은 패도정치의 질서는 어디까지나 일시적 현상일 뿐이라고 평가한다.

이상을 정리하면, 이이는 「성학집요」의 제일 마지막에서 자신이 이해하는 삼대지치의 像을 묘사함으로써, 바람직한 정치란 무엇인지를 제시하였다. 이에 따르면, 그것은 다스림의 도구들인 '생양지구'·'교화지구'·'손익지규', 이 세 가지가 모두 제대로 운용되는 정치였다. 의식주와 같은 구성원들의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고, 五常과 같은 윤리 덕목이 확립되어 있으며, 질서 확립을 위한 외적 장치로서 각종 제도들을 때와 상황에 따라 변통하는 정치였다. 즉, 그것은 이이가 추진하던 개혁론의 세 축인 민생의 안정, 도의 실행, 제도의 변통이 모두 이루어지던 정치였다.

3. 東·西 갈등의 격화와 이이의 이중 과제

사림의 동서 분열은 선조 11년을 기점으로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된다. 선조 8년에 표출된 선·후배 사류간의 갈등은 일단 심의겸.김효원을 외방에 보냄으로써 진정되는 듯했으나, 이해 들어 동인이 서인에 대한 공세를 재개한 것이다. 이후에도 동인은 심의겸·정철·이이 등 서인 핵심 인사들에 대한 공세를 계속 이어갔고,[125] 이이의 희망과 달리 동서 갈등은 진정은 차치하고 더욱 격화되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었다.

특히 동인이 서인을 '소인'으로 언급한 선조 12년을 기점으로, 이이의 상황 인식과 대응 방식도 변화를 보였다. 이이는 이제 더 이상 사류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이때부터 상소 등을 통해 선조에게 사림의 화합 문제를 제시하기 시작하였다.[126] 중요한 사실은 이 시기에도 이이는 구신들에 대한 경계를 계속 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그는 구신들이 여전히 대신급의 영향력이 있는 직위에 있는 상황을 주시하고, 이제 그들은 조정에서 세를 확장하던 동인에 결합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렇기에 선조 13년 조정에 복귀한 후 이이는 자신이 줄곧 주창하던 弊政

---

125) 일반적으로 사림의 동서 분열을 양측 간의 상호 충돌로 이해하지만, 그 실상을 보면 선조 8년 이래 줄곧 후배사류인 동인이 선배사류인 서인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는 과정이었다.

126) 사림의 동서 분열은 우연적으로 촉발되어 일회성 사건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여러 사건과 계기를 거치며 누적된 결과였다. 따라서 양측의 갈등이 표면화된 선조 8년의 상황에 대한 이해 못지않게, 선조 11년 11년 이후의 정국의 전개상황도 중요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 『연려실기술』의 「宣祖朝故事本末」 '東西黨論之分' 항목의 서술은 동서 분당 과정이 누적적 결과임을 잘 보여준다. 오히려 현대의 연구들이 선조 8년의 상황에 대해서만 언급하는 경우가 많고, 선조 11년 이후 동인과 서인이 어떠한 과정을 거치며 양측의 갈등이 고착화되었는지에 대한 관심과 이해는 많지 않은 형편이다. 정만조가 선조 즉위 초부터 선조 22년 정여립 사건까지를 개괄적으로 정리한 연구는 정국의 전반적인 추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정만조, 1998 「붕당의 출현」·「붕당의 성격」『한국사 30 -조선중기의 정치와 정책』, 국사편찬위원회]. 최근 이정철도 동서 분열을 '일회성의 정치적 사건이 아니라 연속적 과정으로' 보겠다는 문제의식 하에, 선조 8년~13년까지의 '정치적 전개 양상을 복원하는' 연구를 제출하였다[이정철, 2014 「선조대 '동서분당' 전개의 초기 양상 -이이를 중심으로-」『민족문화』 43]. 본 연구는 이이의 정국 인식에 초점을 맞추어 이를 보다 세밀하게 분석한 점, 그리고 그에 기초하여 이이의 붕당론을 해석하고자 한 점에서 이들 연구와 차이를 보인다.

개혁과 함께 사림의 화합을 주요 시국 과제로 제시하고 이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였다.[127] 이제 이이에게 이 두 문제는 모두 중대하면서도 시급한 이중 과제였던 것이다.

1) 선조 11년 이후 동·서 갈등의 격화와 고착화

선조 8년 7월을 기점으로 표면화 된 선·후배 사류 간의 갈등은 선조 11년 이후로 그 범위가 더욱 전면적으로 확장되고, 갈등의 정도도 격화되는 양상을 띠었다. 무엇보다 이때부터 심의겸 측 세력을 西人, 김효원 측 세력을 東人이라고 부르는 명칭이 본격적으로 생겨났는데,[128] 이러한 사실은 전배와 후배사류 간의 갈등이 점점 고착화되는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이번에도 시작은 후배사류의 선배사류에 대한 공세였다. 그 대상은 일찍이 銓郞으로서 동인 공격에 앞장섰던 윤현과 그의 叔父 윤두수, 季父 윤근수였다. 윤두수 집안의 인사들은 심의겸 집안과 가장 친하다는 말을 정도로 가까운 사이로서,[129] 동인에 대해 매우 강경한 태도를 취하여 동인 중에는 윤두수 집안 인물들을 '邪惡의 괴수'라고 부르는 경우까지 있을 정도였다.[130] 그런데 윤두수는 평소 욕심이 많고 방종하다[貪縱]는 평을 들을 정도로 청근하지 못한 면이 있었고,[131] 이는 결국 동인 강경파들에게 자신을 공격할 구실을 제공하였다. 게다가 이해에는 마침 務安縣監 田應禎이 고위 관료에게 뇌물을 바친 사건이 발생하여 관가에서는 모두들 뇌물죄에 대해 조심하는 분위기에 있었다. 그런 가운데 윤두수 일가 인물들이 뇌물을 받았다는 논란이 벌어졌고, 그만큼 그 파장은 클 수밖에 없었다.[132]

---

127) 선조 16년의 「陳時事疏」에서 이이는 '조정의 화합과 폐정의 개혁은 일의 근본'이라고 제시하였다. 『율곡전서』 권7, 「陳時事疏」, "竊惟天下之事 有本有末 先治其本者 似迂而有成 只事其末者 似切而反害 以今日之事言之 和朝廷而革弊政者 其本也 調兵食而固防備者 其末也"

128) 『율곡전서』 권30, 「경연일기」 선조 11년 5월(15면 가), "時沈義謙金孝元分邊之說益盛 以義謙儕輩 目之謂西 以孝元儕輩 目之謂東"

129) 『선조수정실록』 권13, 선조 12년 9월 1일(갑진)

130) 『연려실기술』 권13, 「宣祖朝故事本末」 '東西黨論之分'

131) 『율곡전서』 권30, 「경연일기」 선조 11년 8월(18면 나)

132) 『선조실록』 권12, 선조 11년 2월 2일(계미)

사건의 전말은 다음과 같다.[133] 선조 11년 10월, 동인 김성일이 경연 자리에서 선조에게 진도군수 李銖가 쌀을 실어 윤두수, 윤근수 형제 그리고 윤현 집에 뇌물로 바쳤다고 고발하였다. 이에 도승지로서 경연 자리에 함께 있던 윤두수는 이수는 자신의 사촌이며, 자신의 노모에게 어물을 보내왔을 뿐이라고 해명하였다. 하지만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았고, 대간은 이수를 탄핵하여 구속하도록 하였다. 여기에다 당시 동인을 이끌던 부제학 허엽이 공세에 가세하여, 대간들로 하여금 제공자 이수뿐만 아니라 수뢰자인 三尹까지 탄핵하도록 만들었다.

그런 가운데 고향에 내려가 있던 대사간 김계휘가 상경하여 올린 상소는 논란에 더욱 불을 지폈다. 그는 이 상소에서 '세 윤씨는 모두 어진 선비로서, 지금의 논란은 모략일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아 강한 어조로 동인을 비판하였다. 그러자 대사헌 박대립, 대사간 이산해, 장령 이발 등 동인 대간들은 三尹의 다른 허물을 추가로 거론하며 이들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였다. 하지만,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수가 뇌물을 준 혐의에 대해 승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랫동안 옥사가 성립하지 못하였다. 이에 동인은 이수의 쌀을 보관한 것으로 알려진 張世良을 체포하여 함께 신문하였으나 그 역시 끝까지 불복하였다.

조정에서 동인과 서인의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선조는 이즈음에 비로소 '동인'과 '서인'의 말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134] 즉, 김효원과 심의겸 간의 개인적 충돌을 넘어 조정 내에 세력 간 갈등이 있음을 알게 된 것이다. 그런 만큼 이때 선조는 동서 양쪽 모두를 경계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는 선조가 논란이 불거진 후 일단 이수와 三尹을 파직하였다가 동인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2달 만에 다시 서용한 점, 그리고 다음해 봄 4월에는 이수와 장세량마저 석방한 사실에서 잘 드러난다. 또 도승지 이산해와 승지 송응개 등 자신의 조치를 반대한 동인 승지들을 모두 파면하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이이의 상소 내용이 타당하지 않다며 이이를 체직한 사실에서도 이를 알 수 있다.

---

133) 『연려실기술』 권13, 「宣祖朝故事本末」 '東西黨論之分'

134) 『율곡전서』 권30, 「경연일기」 선조 11년 10월(20면 나), "弘文館修撰姜緖 於經席啓曰 士類分作東西二邊 皆可用之人也 不可捨一取一云云 於是上已知東西之說矣"

과연 三尹이 뇌물을 받았는가의 사실 여부와는 별개로, 이를 기화로 동인이 서인에 대한 공세를 재개한 것은 분명하다.[135] 그리고 서인의 반발과 선조의 경계에도 불구하고, 선조 11년 이후 동인은 조정에서 우세를 점하였다. 젊은 신진 관료들의 유입과 참여가 이어졌고, 이들은 자신들이 명분에서 서인보다 앞선다고 생각하였다. 그와 함께 이이가 "다시는 화합할 가망이 없는" 상태라 평가할 정도로 양측의 관계는 악화되기 시작하였다.[136]

서인 인사들에 대한 동인의 공세는 다음해인 선조 12년 들어 더욱 직접적이며 전면적인 양상을 보였다. 그 이전에만 해도 그들의 공세는 주로 박순과 三尹 등 심의겸의 주변 인물들에게 초점을 맞추었다면, 이해 봄부터는 심의겸을 직접 겨냥하고, 비판의 대상도 정철, 이이 등 서인의 중심 인사들로 확대되었다. 그 시작은 이해 3월, 대사헌 李栻, 집의 洪渾, 장령 鄭熙績 등 동인 강경파가 중심이 된 사헌부가 심의겸을 '小人'이라 지칭하고, 정철과 김계휘 등을 '邪黨'이라고 비난한 일이었다.[137] 동인이 서인 인사들을 '소인'으로 규정했다는 사실은 서인에 대한 배척 의사를 분명하게 선언한 것에 다름 아니었으며, 이제 양측의 공존은 더욱 어려워졌음을 의미하였다.

이이가 두 달 뒤 5월에 '사대사간겸세척동서소'를 올려 사림의 분열 문제를 처음으로 상소에서 다루기 시작한 것은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하였다.[138] 그러나 이이가 올린 상소와 그 직후 백인걸이 올린 상소는 선조의 주도적 역할로 사태를 진정시키려 했던 그들의 바람과 달리, 오히려 동인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킴으로써 논란을 확산시켰다. 이이의 소는 그 내용이 문제가 됨으로써, 백인걸의 소는 그가 지은 글이 아니라 이이가 작성하고 백인걸은 이름을 빌려준 것뿐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어 논란이 일었다.[139] 동인들은 이 모든 사태의 중심에는 이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140]

---

135) 이이는 삼윤에 대한 동인의 공세를 외직에 나가있는 심의겸의 중앙 조정 복귀를 막기 위한 것으로 해석하였다[『율곡전서』 권7, 「辭大司諫兼陳洗滌東西疏」].

136) 『율곡전서』 권30, 「경연일기」 선조 11년 10월(22면 가), "鄭澈與李潑議論大乖 東人顯斥澈爲小人 東西更無相合之望矣"

137) 『율곡전서』 권30, 「경연일기」 선조 12년 3월(26면 가~나)

138) 『율곡전서』 권7, 「辭大司諫兼陳洗滌東西疏」, "日者憲府之疏 始敢顯斥西人爲邪黨 以義謙爲小人 議論之激 極於此矣"

139) 『선조수정실록』 권13, 선조 12년 7월 1일(을사)

140) 그렇기에 훗날 이귀는 선조 12년 동인이 겨냥한 인물은 심의겸 아니라 실은 이이였

그런데 선조 14년 상반기에만 해도 이이와 동인 온건파 사류 간에 화합의 여지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선조 13년 말 조정에 복귀한 이이가 이때만 해도 서인 인사와 동인 온건파 인사들에게 사류의 화합을 주문하고, 특히 서인 정철과 동인 이발에게 그 역할을 부탁한 정황이 이를 말해준다. 그런데 그해 8월, 심의겸에 대한 부정적 소문이 정계에 파다하게 퍼지면서, 동인 인사들이 강력하게 반발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소문의 내용은 일찍이 선조 즉위 초 아직 명종의 喪 중일 때, 심의겸이 起復해서는 宮中의 인연을 이용하여 권력을 마음대로 하려 했다는 것이었다. 당시의 상황도 아닌 10년 이상 전의 일이 새삼 이때 논란이 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 소문을 계기로 이제 이이와 온건파를 비롯한 모든 동인 인사들 사이의 관계가 완전한 대립 관계로 접어들었다는 사실이다.

특히 장령 정인홍이 심의겸에 대해 가장 강경한 태도를 보여, 그의 상관인 대사헌 이이도 심의겸에 대한 파직에는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다음날 정인홍은 선조에게 심의겸의 파직과 더불어 윤두수·윤근수·정철 등 서인 인사들에 대한 탄핵을 요청하였다. 정인홍의 의도는 심의겸은 확실하게 정치적으로 배제하면서, 사실상 서인 강경파인 정철에 대한 탄핵을 제기하려는 것이었다. 이는 정인홍의 요구에 대해 이이가 반발하는 내용에서 주로 정철에 대한 옹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후 삼사를 중심으로 한 동인들이 이이를 비판할 때, 그 내용은 주로 '이이가 정철을 비호한다'는 점에 있었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

결정적으로, 선조 16년 1월에 '니탕개의 란'이 발생하자,[141] 이이는 납속책을 비롯한 다양한 긴급 대응책들을 시행하려 하였다. 그러나 동인은 그가 국왕과 독대를 하였다거나 정책 결정 과정에서 부당함이 있었다는 이유로 이이를 집중적으로 탄핵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이이는 물러나게 되었다.[142]

다는 해석을 내놓기도 하였다[『선조수정실록』 권21, 20년 3월 1일(경인), "然則時輩之所惡 實不在於義謙 而在於珥 亦可見矣"].

141) 니탕개의 란에 대해서는 '송우혜, 2005「조선 선조조의 니탕개란 연구」『역사비평』 72; 윤호량, 2010「선조 16년 '니탕개의 란'과 조선의 군사전략」, 고려대 석사논문' 참조.

142) 선조 16년 북방 문제와 이이에 대한 동인의 공세에 대해서는 '이정철, 2014「선조16년 동서 갈등의 전개와 '계미삼찬'」『영남학』 25' 참조.

2) 이이의 '류속' 구신 경계와 分黨 문제의 공식화

⑴ 선조 11년 '류속' 구신의 동인 합류 경계

선조 9년 이래 향촌에서 향약과 서원 등의 실험을 하고 있던 이이는 선조 10년 인순왕후의 상을 이유로 잠시 서울에 왔다가는 파주로 내려가 머문다. 자신이 주도적으로 추진하였지만 끝내 결실을 맺지 못했던 위사공신의 勳籍 삭제를, 선조가 인순왕후의 사망 직전에 전격적으로 결정하자 그는 다시 개혁에 대한 의지와 희망을 가지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143]

하지만 앞서 보았듯이, 선조 11년 5월부터 동인과 서인의 갈등은 격화되었고, 이런 상황에서 이이는 파주에서 「응지논사소」를 올려 시국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표명하였다. 이 글은 이이가 선조 9년 정계에서 완전히 물러날 결심으로 향촌으로 내려간 후 처음으로 장문의 시국 상소를 올린 것이었다. 여기서 그는 당대의 과제 네 가지를 거론한다. 첫째, 선조는 聖君이 되겠다는 의지를 가질 것, 둘째, 류속이 아닌 군자를 등용할 것. 셋째, 류속과 儒者를 구별할 것, 넷째, 제도 변통을 통해 민생의 안정을 도모할 것 등이었다. '군주의 개혁 의지 → 도덕적 인사의 변별과 등용 → 제도 변통'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제시한 것으로, 이는 그가 「동호문답」 이래 일관되게 주장한 개혁안의 연장선상에 있었다.

그런데 이 글에서 이이가 네 항목 가운데 두 항목이나 '류속'과 관련한 내용에 할애하면서, 그들과 군자.유자를 분별하여 후자를 등용할 것을 강조한 점이 주목된다. 동서 갈등이 다시 점화되어 격화되기 시작하는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이이는 막상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류속의 변별과 배제만을 선조에게 건의하고 있는 것이다.

---

143) 『율곡전서』 권6, 「應旨論事疏」, "去年之冬 殿下明燭元兇之祕術 恭承仁聖之懿旨 命削僞動 以定國是 根本枝葉 一切剗鋤 斷自聖衷 超出羣臣意慮之外 使三十年神人之憤 一朝快洩 無少餘憾 國人相慶 跛躄亦扑 因此正名之擧 復起有爲之望 此亦可治之幾也"

(두 번째) … 간혹 公共을 받들어 직책을 다하는 자가 있으면, 뭇사람들이 반드시 지목하여 혹 어리석고 망령되다고 비난하고, 혹 이름을 낚는다고 헐뜯으니 오직 일을 태만히 하고 시속을 따르는 자만이 능히 위로는 군주를 거역하지 않고, 아래로는 붕비들을 잃지 않으며, 밖으로는 사람들의 비방이 없고, 안으로는 친지들의 꾸짖음이 없으며, 맛있는 것을 먹고 편안히 앉아, 몸을 영화롭게 하고 집을 윤택하게 한다. 지금 세상의 士가 그 직책을 다하지 않는 것은 그의 본심이 아니라 자신이 받아들여지고 지위를 보존하는 방법이 여러 사람들을 좇는 데 있기 때문이다. 아, 人情은 그 누가 자기 자신을 이롭게 하려고 하지 않겠는가. 오직 도를 지키는 군자만이 능히 의를 중히 여기고 이익을 가벼이 여길 수 있다. 오늘날 의를 중히 여기고 이익을 가벼이 여기는 자가 몇 명이나 되나? 시속을 따르고 지위를 구하면 몸이 귀해질 수 있고, 시속을 따르고 재물을 구하면 집안이 부유해질 수 있으니, 모두가 이익을 원하는 뜻을 이루고자 한다.

(세 번째) 무릇 세속의 常情으로 말하면, 儒者란 진실로 미워할만하다. 다스림을 얘기하면 멀리 唐虞를 끌어오고, 군주에게 간하면서는 어려운 일을 요구한다. 잡아두어도 머무르지 않으며, 총애해도 기뻐하지 않고, 오직 그 뜻을 행하고자 하니 진실로 등용하기 어렵다. 그 중에는 혹 과격한 자도 있고, 우활한 자도 있으며, 또 이름나기 좋아하는 자가 혹 그들 가운데 섞여있는 경우도 있으니, 어찌 군주가 미워할 바가 아니겠는가. 流俗의 선비는 시세를 따르고 뭇사람과 하나가 되며 거스르는 바가 없어 군주를 섬기는 데 익숙하다. 명령엔 오직 따르고 습관이 된 잘못에 안주하며 과격함을 일삼지 않으니, 진실로 인군이 가까이 하고 신임하는 바이다. 비록 그러하나 유자는 義를 좋아하고, 류속은 利를 좋아하니, 이익을 좋아하면서 군주를 사랑하는 자는 없다. 의를 좋아하고 군주를 잊는 자도 없다. 하루아침에 禍亂이 일어나면 몸을 던져 군주를 구하며 의를 취하고 목숨을 버릴 자는 필시 유자에서 나오지, 결코 류속에서 나오지 않는다. 아! 의를 좋아하는 자는 나라를 위하고, 이익을 좋아하는 자는 자기 집안을 위한다.[144]

---

144) 『율곡전서』 권6, 「응지논사소」, "閒有奉公盡職者 則衆必指目 或譏以愚妄 或刺以釣名 惟是怠事徇俗者 乃能上不批逆 下不喪朋 外無人謗 內無親譴 美食安坐 榮身潤屋 今世之士 不職其職者 非其本心也 以容身保位之術 在於從衆故也 嗚呼 人情孰不欲利於己乎 惟守道之君子 乃能重義而輕利焉 今日重義而輕利者 有幾人乎 徇俗而求位 則身可貴也 徇俗而求財 則家可富也 莫不遂其欲利之志矣 … 夫以世俗常情言之 則儒者 固可惡也 論治則遠引唐虞 諫君則責以難事 縻之不留 寵之不樂 惟在於欲行其志焉 固是難用 而其閒或有過激者 或有迂闊者 亦有好名者或廁乎其列 豈非世主之所可惡者乎 流俗之士 順時同衆 無所忤逆 熟於事君 惟命是從 安於習非 不事矯激 是固人君之所親信也 雖然 儒者好義 流俗好利 未有好利而愛其君者 未有好義而忘其君者 一朝禍亂之作 挺身救君 取義捨生者 必出於儒者 決不出於流俗矣 嗚呼 好義者爲國 好利者爲家 爲國爲家盡"

여기서 이이는 류속과 군자·유자를 철저하게 대립적인 인간형으로 묘사하고 있다. 군자·유자는 공공과 나라를 위하고, 맡은 바 직책을 다한다. 또, 어려운 일을 간하기도 하며, 출처에 연연하지도 않는다. 류속의 행태는 모두 그 반대였다. 그들은 자신과 집안의 이익을 위하며, 일을 태만히 하면서, 군주를 섬기기만 하고 그의 뜻을 거스르지 않으려 한다. 그렇기에 군주의 입장에서 군자·유자는 가까이 하기 어렵고 까다로운 존재인 반면, 류속은 편하고 믿고 지낼 수 있는 존재로 느껴지기도 한다. 하지만 양자가 추구하는 가치는 義와 利로 완전히 대조적이어서, 류속은 언제든 자기 자신 또는 집안의 이익을 위해 군주를 버릴 수 있었다. 따라서 禍亂과 같이 결정적인 순간이 닥쳤을 때, '몸을 던져 군주를 구하고, 목숨을 버릴 자는 필시 류속이 아니라 유자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이가 이해하기에 그러한 류속들의 행태는 그들이 특별히 타락했기 때문은 아니었다. 그들은 보통의 인간들이 보여주는 일반적인 감정과 욕망을, 즉, '世俗의 常情'을 보여줄 뿐이었다. 이이는 "사람의 감정은 누구나 자기 자신을 이롭게 하고자 한다[人情孰不欲利於己乎]"거나, "사람들의 감정은 대체로 이익을 좋아한다[常人之情大抵好利]"라고 말한다.[145] 이는 다시 말해, 류속은 대부분의 보통 인간이 보이는 행태를 마찬가지로 보이는 것이고, 군자·유자의 행동과 지향이야말로 특별하고 드문 경우라는 의미였다. 군자·유자는 인간으로서 가진 한계와 욕망을 극복한 존재들로서, 언제든 자기의 이익을 좇을 수 있는 류속과 달리 진정 국가에 필요한 존재들이라는 것이 이이의 주장이었다.

그렇다면 이이는 왜 사류 간의 동서 갈등이 격해지는 와중에, 선조에게 그와 관련한 문제가 아니라 류속에 대한 경계를 강조했을까?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다.

첫째, 당시 선조가 '사류를 싫어하고 류속의 인물들에 뜻이 있어',[146] 삼정

145) 『율곡전서』 권6, 「응지논사소」, "自古人臣 鮮能爲善者 常人之情 大抵好利 而衰世未蒙爲善之利 身正則衆忌 道直則官躓 職治則妒興 言忠則恩替"

146) 『율곡전서』 권30, 「경연일기」 선조 11년 2월(12면 나), "復以洪暹爲左議政 上方厭士類 向意流俗之人 故暹復相"

승을 비롯한 대신의 직위에 류속 인사들이 많이 포진한 상태였다. 이미 영상에 '류속' 권철이 있는 상태에서, 선조 11년 2월에는 이이가 대표적 류속 인사로 파악했던 홍섬이 좌의정으로 다시 등용되었다. 그리고 5월에는 권철이 '俗人' 황림을 평양관찰사에 임명하였다.[147] 또, 10월 권철이 사망한 뒤에는 홍섬이 영의정이 되고, '유자를 좋아하지 않는' 강사상이 우상이 되었다.[148] 이처럼 삼정승을 위시해 대신급의 주요 자리가 류속 인사들로 채워진 상황은 이이가 보기에 여전히 사류에게 위협적인 상황이었다.

둘째, 이이는 선조 11년 이후 동인의 세력이 번성함에 따라, 일찍이 개혁적 신진세력에게 배척받았던 류속 구신 인사들이 동인에 합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 이 이후 동인에 붙은 자가 날로 일어나 새로운 논의를 경쟁적으로 내놓았다. 그리고 류속의 구신으로서 일찍이 서인에게 버림받았던 자들이 요직에 있으면서 권력을 부리고 감정을 풀면서 그 주장을 엄하게 하여 스스로 동인에게 충성을 바칠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서인은 비록 착한 선비라도 모두 쓰이지 않았고, 청명한 선비가 류속과 하나가 되어 청탁이 혼잡해지니 변별할 수 없었다.[149]

일찍이 명종대 말~선조 즉위 초 선배사류가 권신정치를 청산하는 과정에서, 그들에 의해 배척받았던 인사들이 이 시기 들어 조정에서 세를 확장한 동인에게 붙고 있다는 것이 이이의 생각이었다. 그가 보기에 류속 구신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자들이므로, 상황의 변동에 따라 언제든 자신들에게 유리한 세력과 결합할 수 있는 자들이었다. 또 젊은 신진이 대부분인 동인들의 입장에서도, 구신들은 관직 경력으로 보건대 이 시기에는 대신급 직위에 있었으므로, 그들을 통해 상대적으로 자신들보다 다소 연장자이고

---

147) 『율곡전서』 권30, 「경연일기」 선조 11년 2월(15면 나~16면 가), "黃琳 只是硜硜俗人 皆無才略 物議以大臣爲罔上矣"

148) 『율곡전서』 권30, 「경연일기」 선조 11년 2월(94면 가), "領中樞府事姜士尙卒 士尙居家在官 無所猷爲 但喜飮酒 終日無言 公私之事 皆不入於心 淸儉自守 門庭無囂雜之聲 只是不悅儒者 故識者不取焉"

149) 『율곡전서』 권30, 「경연일기」 선조 11년 10월(23면 나), "自是之後 附東者日起 爭出新論 而流俗舊臣曾棄於西人者 乃居要地 招權釋憾 峻其議論 自明貢忠於東 而西人則雖善士皆不見用 淸名之士 反與流俗爲一 而淸濁混淆 無以辨別矣"

관직이 높았던 서인을 상대할 수 있었다. 이이는 「경연일기」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토로하고 있다.[150] 이이는 특히 이문형과 박대립에 주목하고, 이들이 류속과 동인을 연결하는 매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151]

선조 11년을 기점으로 다시 촉발된 동서 간의 갈등을 이이가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음은 그해 10월, 그가 성혼에게 보낸 편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편지에서 먼저 이이는 동·서 간의 시비를 명확히 가릴 것을 주장하는 동인의 주장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마찬가지로 서인 중에서 그러한 주장을 하는 정철에 대해서도 불평한다. 그는 동인과 서인은 모두 士類이므로, 이 문제는 동인과 정철처럼 是非의 문제로서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優劣의 차원에서 다루어야함을 강조한다.

> 무릇 일에는 시비가 있고 우열이 있는데, 시비와 우열은 같지 않다. 우열은 같은 가운데 가벼움과 무거움이 있는 것이고, 시비는 색을 달리하여 서로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사람으로 말하면, 한쪽이 군자면 한쪽은 소인이다. 도모하는 것으로써 말하면, 한쪽은 國事를 하고, 한쪽은 家計를 경영한다. 일로써 말하면, 한쪽은 일을 이루고, 한쪽을 일을 그릇되게 한다. 이와 같은 종류가 곧 시비가 분명한 것이다. 만약 이것이 우열이라면 똑같이 사류로서, 저 사람이 이 사람보다 나은 것이다.[152]

이이에 따르면, 동서 갈등을 시비의 문제로 다루는 것은 군자·소인의 분별을 의미하며, 이는 결국 한쪽만 취하고 다른 한쪽은 배척·배제하는 것을 의미하였다. 그러나 그가 보기에 동서 갈등의 문제는 시비와 邪正을 가르는 종류의 문제로 다루어서는 안 되었다. 그 이유는 그들은 모두 '국사를 하고

---

150) 가령, '『율곡전서』 권30, 「경연일기」 선조 12년 3월 기사; 6월 기사'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151) 『율곡전서』 권30, 「경연일기」 선조 13년 7월(46면 나), "吏曹判書李文馨謝病免 以朴大立爲吏曹判書 文馨大立 皆附年少士類 得居銓衡重地 而流俗與二人合而爲一 識者憂之"; 『선조수정실록』 권15, 선조 14년 9월 1일(임술), "李文馨以流俗舊臣 自附於年少士類 朴素立亦趨時取譽 時人望以爲相"

152) 『율곡전서』 권11, 「답성호원」(9면 나), "凡事有是非 有優劣 是非與優劣不同 優劣者 同中有輕重也 是非者 異色不可相容者也 以人言之 一則君子 一則小人 以謀言之 一則爲國事 一則營家計 以事言之 一則成事 一則誤事 如是之類 乃是非分明者也 若是優劣 則同是士類而彼善於此者也"

자 하는' 사류이며, 군자이기 때문으로, 동인과 서인 간에는 단지 그 속에서 우열의 나뉨이 있을 뿐이었다.

이이가 시비의 판별을 통해 사실상 한쪽의 취사선택을 요구하는 주장이 위험하다고 본 진정한 이유는 글의 후반부에 아래와 같이 등장한다.

> 지금 류속이 뜻을 얻어 승진하고 발탁되고 있고, 정철·김계휘·구봉령 같은 서인은 모두 물러나 움츠리고 있다. 만약 사류로 하여금 류속과 하나가 되게 한다면, 사류 또한 류속이니 나라에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지금 만약 류속과 함께 구별한다면 시세로 보건대 반드시 이겨내지 못하여 또 하나의 적을 만들어 그 화는 더욱 빠를 것이다. 이후 다시는 후일에 대한 대책이 없이 앉아서 망할 뿐이다. 하늘이 실로 그것을 하는 것이니 그것을 무어라 하겠나. 내 소 가운데 양쪽에게 이롭고 함께 보존하는 계획 이란 훗날의 환란을 방지하는 바이다.153)

이이는 당시의 정국을 류속 인사가 권력을 얻고 있는 상황으로 파악하였다. 이이가 보건대, 류속과 같은 자들은 결코 국사를 하려는 자들이 아니며, 따라서 사류와 류속은 절대 하나가 돼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미 류속이 동인에 결합한 상황으로. 그렇다고 동인을 류속과 마찬가지로 취급하고 그들을 배척한다면 그야말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것이 이이의 생각이었다. 따라서 시비론을 통해 동인을 배척하기보다는 우열론을 통해 양쪽 모두를 보존하는 편이 낫다는 결론이었다. 그가 보기에 시비론은 서인과 동인 어느 한쪽만이 아니라, 결국 양쪽 모두가 패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표 9] 「경연일기」 속 선조 11년 이후 '류속' 인사들

이름	생몰년	급제 시기	선조 11년 이후 주요 관직	이이의 평가
홍섬	1504(연산군10)	1531(중종26)	좌의정	上方厭士類 向意流俗之人 故遲復相

153) 『율곡전서』 권11, 「답성호원」(12면 가~나), "今者流俗 得志陞擢 而西人若季涵重晦 景瑞諸公 皆退縮矣 若使士類與流俗爲一 則士類亦流俗也 何益於國 今若與流俗區別 則勢必不克 而又生一秦 其禍尤速矣 自今以後 更無善後之策 坐待其亡而已 天實爲之 謂之何哉 鄙疏兩利俱存之計 乃所以防後患也"

	~1585(선조18)			
이문형	1510(중종5) ~1582(선조15)	1540(중종35)	이조판서, 우참찬	文馨曾失勢以附東人 故發迹被柄用 / 文馨大立皆附年少士類 得居銓衡重地 而流俗與二人合而爲一 識者憂之
박대립	1512(중종7) ~1584(선조17)	1540(중종35)	대사헌, 이조판서	文馨大立 皆附年少士類 得居銓衡重地 而流俗與二人合而爲一 識者憂之 / 蓋大立無愛士之誠性且固執 於是士類悔其相與也
정종영	1513(중종8) ~1589(선조22)	1543(중종38)	예조판서, 형조판서, 우찬성	時西人不得列于顯班 故流俗充斥于公卿之位…宗榮不喜士 貴榮無行檢 爲世所賤 而六卿之列 無有勝於二人者 識者嘆國之空虛矣
강사상	1519(중종14) ~1581(선조14)	1546년(명종1)	우의정	士尙立朝三十年 不肯一出語論時事 … 居官 不張公論 不徇私請 任其自然而已 / 只是不悅儒者 故識者不取焉
김귀영	1520(중종15)~1593(선조26)	1547년(명종2)	우찬성, 이조판서, 우의정, 좌의정	時西人不得列于顯班 故流俗充斥于公卿之位…宗榮不喜士 貴榮無行檢 爲世所賤 而六卿之列 無有勝於二人者 識者嘆國之空虛矣
황림	1517년(중종12) ~1591년(선조24)	1552년(명종7)	한성부윤, 공조판서	硜硜俗人 皆無才略 / 琳以特旨拜漢城府判尹流俗之被擢 至於如此

⑵ 分黨 문제 공식화와 선조에 대한 요구

이이가 선조 12년 5월 대사간에 제수되자 이를 고사하며 올린 '사대사간겸동서세척소'는 그가 선조에게 사림의 동서 갈등 문제를 공식적인 글에서 처음 언급한 것이었다. 한해 전까지만 해도 공식적 발언에서는 동인에 대한 대응보다는 류속에 대한 경계에 더 신경을 쏟았던 이이가 이제 對 동인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는 동서 분당에 대한 이이의 대응 방식에 중요한 전환이 있음을 의미하였다. 그는 선조에게 공개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이 사안을 국왕이 함께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로 올려놓았다. 그리고 이후 그가 제출하는 시국 관련 글에서 사림의 화합 문제는 폐정 개혁과 함께 양대 과제로 거론되었다.

본격적인 글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시작한다.

> 신이 듣기로 예부터 국가가 믿고 유지하는 것은 사림이었다. 사림은 국가의 元氣를 가지고 있어, 사림이 성하고 화합하면 그 나라는 다스려지고, 사림이 충돌하고 분열하면 그 국가는 어지러웠다. 그리고 사림이 패하여 없어지면 그 국가는 망하였다. 이것이 과거의 행적이다.[154]

이이는 글의 처음에서 사림의 존재와 그들의 행태가 국가의 치란은 물론 존폐 여부까지 결정하는 결정적 요소임을 강조함으로써 동서 분당의 문제가 지닌 사안의 중요성을 선조에게 환기하려 하였다. 그리고 그 실례로서, 舜과 周武王 때의 사림의 화합 사례, 唐代 李德裕와 牛僧孺 등의 분열 사례, 마지막으로 後漢 黨錮의 화 등 사림의 패퇴로 인한 나라의 멸망을 거론한다.

이후 이이는 선조 8년의 갈등부터 선조 11년 三尹에 대한 탄핵까지 동서 갈등의 유래를 자세하게 설명한다. 그리고 선조 8년의 때와 마찬가지로, 서인과 동인 양쪽 모두에게 잘잘못이 있다는 兩是兩非論을 주장하였다. 그 내용은 서인과 동인은 어느 한쪽을 군자로, 다른 한쪽은 소인으로 낙인을 찍을 수 있는 대상들이 아니며, 따라서 어느 한쪽을 전적으로 정계에서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때 이이의 양시양비론에서 이전 선조 8년의 그것과는 다른 변화가 발견된다. 선조 8년의 경우 서인의 잘못으로 심의겸·김효원을 외직으로 내보낸 이후에도 동인에 대한 공세를 계속하였다는 점이 거론되었다. 그러나 이때에는 심의겸이 외척으로 정사에 간여한 것 자체를 잘못이라 분명하게 지적하면서, 동인들의 요구를 수용하는 자세를 보인 것이다. 그리고 글을 마무리하면서도 '심의겸에게는 '爵祿이나 보존해 주고 요직에는 두지 말라'고 하여, 재차 심의겸에 대한 처리를 강조하였다.[155]

이이의 의도는 심의겸에 대한 처리를 통해, 그 외 다른 서인 인사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란이 커지는 것을 차단하려는 것이었다. 그는 "정철, 김계휘 등과 같은 '착한 선비[善士]'까지 사악한 무리[邪黨]라고 비난하는 것은 연좌제[收司之律]를 적용하는 것과 같다"며, "동인은 西人을 모두 처치하겠다는 것이냐"고 압박하였다. 이이의 이 표현에 대해 동인은 '망발'이라고까지 평하며 반발하였다.[156] 이이가 이 때에도 양시양비론을 주장한 이유는 그가 글

154) 『율곡전서』 권7, 「辭大司諫兼陳洗滌東西疏」, "臣聞自古國家之所恃而維持者 士林也 士林者 有國之元氣也 士林盛而和則其國治 士林激而分則其國亂 士林敗而盡則其國亡 已然之迹"

155) 『율곡전서』 권7, 「辭大司諫兼陳洗滌東西疏」, "若義謙 則只當保其爵祿 不可更居要地也"

156) 『선조실록』 권13, 선조 12년 6월 8일(임오)

의 마지막을 分黨의 폐해로 마무리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 것에서 드러났다.

> 신의 걱정은 이것으로 그치지 않는다. 예부터 士類가 패한 적은 많고 성공한 적은 드물다. 비록 持論이 하나 같이 바른 것으로부터 나온다고 해도 오히려 소인이 붕당이라 이름 붙여 죽이고 유배 보내는 일이 계속된다. 하물며 지금은 사류의 일처리가 중도를 잃었으니 후일에 화가 있으리라는 조짐이 아닌지 어찌 알겠는가. 만약 기회를 엿보는 소인이 있어 일망타진의 계획을 교묘하게 만들면 격렬해지고 나뉘어져 변하여 패하여 나라가 망할까 걱정이다.157)

이이는 동인의 과도한 주장으로 인해, 소인에 의한 사류의 피화를 당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그리고 그의 그러한 걱정은 소의 가장 처음에 언급하였듯이, 역사적 경험으로부터 비롯한 것이었다. 그는 멀리는 중국의 사례를, 가까이는 조선 초에 발생했던 사화의 경험을 끊임없이 의식하고 있었다.

이로써, 이이가 동서 분당의 문제를 선조에게 공개적으로 제기한 이유가 분명해진다. 그는 선조 12년 초반부터 동인의 서인에 대한 '소인' 공세를 기점으로 갈등이 격화되자, 이제 실질적 위험성이 크게 증가한 사림의 화를 예방하는 데 더 주력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그 가장 중요한 방법의 하나가 군주인 선조에게 호소하는 것이었다. 선조가 사류보다 류속에게 호의적이라고 판단되는 상황에서, 당장 사류에 대한 선조의 태도를 바꾸기는 어렵다면 사림의 화가 초래할 위험성을 강조함으로써 최소한 류속의 발의와 그에 동조하는 선조에 의해 사림의 화가 발생하는 사태는 막아야 한다는 계획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해 말 이이의 우려가 결코 막연한 기우가 아님을 증명하는 일이 일어났다. 선조 12년 12월 좌참찬 성세장이 경연 자리에서 "지금 연소한 사류가 옛날을 사모하고 학문한다는 이름을 붙이지만 그 실효는 없으니 한때

---

157) 『율곡전서』 권7, 「辭大司諫兼陳洗滌東西疏」, "臣之所憂 不止於此 自古士類多敗少成 雖使持論粹然一出於正 尙被小人加以朋黨之名 誅竄相繼 況今士類處事失中 讒閒易乘 安知後日之禍 不兆於今日之擧乎 若有小人窺伺機會 巧生網打之計 則臣恐激而分者變爲敗而盡 而國隨而亡也"

의 폐해가 된다"며, 사실상 사류 세력 모두를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그리고 선조는 "이 말이 오늘날의 병폐를 맞추었다"며 그의 견해에 적극 동조하였다.[158] 성세장의 발언은 인순왕후의 禫祭日을 맞아 선조에게 賀禮를 할 것인지를 둘러싸고 대간과 대신들 간에 논란이 벌어지던 상황에서 나온 것이었다. 삼사가 번갈아 가며 성세장을 비난했으나 선조는 끝내 그들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

당시 홍문관 응교로 있던 동인 김우옹은 차자를 올려 성세장의 주장을 '사악한 의논[邪議]'이라 비난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 소위 옛날을 사모하고 학문하는 것은 사류가 하는 바이다. 만약 이것을 가지고 연소한 자들의 허황된 얘기라 여기고, 남을 헐뜯는 병[疵病]이라 지적하고 배척한다면 소위 老成한 舊臣은 이것을 버리고 다른 것에 힘쓴다는 것인가. 아, 옛날을 사모하고 학문하는 것은 인간의 기강이 서는 바이고, 국가가 국가로서 되기 위해 의지하는 바인데, 지금 그것을 한가로운 말과 도움이 안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필시 사대부로 하여금 모두 고도를 좋아하지 않게 하고 학문에 힘쓰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159]

여기서 김우옹은 성세장과 같은 '노성한 구신'과 '옛날을 사모하고 학문하는 사류'를 대조적으로 배치하고 있다. 그리고 성세장의 발언을 곧 사대부에 대한 공세로 이해하고 있었다. 그런데 김우옹은 이이가 '사대사감겸세척동서소'를 올린 직후 그의 양시양비론이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있으며, 그의 진정한 의도는 서인을 지원하고 동인에게 문제의 책임을 돌리려는 데 있다고 비판하였던 인물이었다.[160]

---

158) 『선조수정실록』 권13, 선조 12년 12월 1일, "左參贊成世章白上曰 今之年少士類 名爲慕古學問 而無其實 爲一時之弊 上曰 此言切中時病 三司交章論駁 上終不允"

159) 『東岡集』 권7, 箚 「玉堂論成世章譏議道學箚」, "所謂慕古學問者 乃士類之所爲也 若以是爲年少之虛談 而指爲疵病 則所謂老成舊臣者 乃捨此而務他耶 噫 慕古學問者 人紀之所以立 而國之所恃以爲國者也 今乃指以爲閒言語無裨補 則必欲使士大夫 皆不悅古道 皆不務學問"

160) 김우옹의 붕당론에 대해서는 '설석규, 1999 「동강 김우옹의 정치철학과 붕당론의 전개」 『남명학연구논총』 7[『朝鮮中期 士林의 道學과 정치철학』(경북대 출판부, 2009)에 수록]'에서 자세하게 검토하였다. 설석규는 김우옹의 붕당론은 '이이의 양시양비에 입각한 보합론과는 다른, 是非 분변을 전제로 한 揚是抑非論'이었다고 평가하였다.

> 모름지기 是가 있고 非가 있다는 것에 대해 이이가 논한 것만을 가지고 보건대, 심의겸은 외척으로 요직에 있으면서 권세를 피하지 않았으니 이미 잘못이다. 또 겸허한 마음으로 사류들을 예의로 대하지 못하고는 김효원의 젊었을 때 일을 가지고 비난하기를 그치지 않으니 농간을 부린 기세가 현저하다. 그리고 그 후 그 무리들이 서로 이어가며 用事하면서 조정의 기강을 가지고 놀며 무너뜨렸으니 이른바 非이고 私라는 것이 어찌 여기에 있지 않겠나. 김효원은 연소하고 날카로운 기질로서 해야 할 일에서 과감하여 혐의를 피하지 않고 權貴를 건드렸으니 비록 지나친 바는 있어도 옳은 죄[公罪]이다. 그렇다면 시비는 크게 나누어져 저절로 있을 바가 있다. 만약 전혀 시비를 논하지 않고 단지 진정시키려고만 한다면 혼잡을 빚어 진정시킬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날 시비를 정하고자 하는 것은 저절로 일국의 공정한 논의[公論]이니, 사사로운 의도[私意]나 억지로 정하는 것이 아니다.161)

김우옹은 이이의 논리만으로도 이미 심의겸의 잘못이 명확하다고 말한다. 심의겸이 외척으로서 요직에 있는 것 자체가 잘못이며, 그를 중심으로 한 인사들이 조정에서 자신들의 사사로운 욕망을 충족한 것으로 비판하였다. 즉, 심의겸과 그의 주변 인사들에게는 분명한 잘못이 있다는 것이 김우옹의 주장이었다. 반면, 김효원이 지나치게 과감했다는 것이 잘못이라면 잘못이랄까 사실상 그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입장이었다.

그런데 그랬던 그도 성세장과 같은 구신들이 사류 일반을 공격하자 위와 같이 크게 반발하였던 것이다. 성세장의 발언 사건은 선조 12년 조정의 상황에 대한 이이의 인식이 마냥 그만의 주관적 인식이 아니었음을 말해준다. 즉, 당시 조정의 고위층에 있던 인사들 사이에는 여전히 김우옹과 이이가 '사류'라고 표현한, '옛날을 사모하고 학문하는' 무리들의 행태에 대한 반감과 부정적 인식이 존재하고 있었으며, 실제 그에 대한 공세적 움직임도 있었음을 잘 보여준다.

---

161) 『선조실록』 권30, 선조 12년 6월 8일(임오), "所謂須有是非者 只以珥所論觀之 沈議謙以外戚 而居要地 不避權勢 已爲非矣 又不能虛己 禮下士類 乃以孝元少時事 詆訾不已 顯有作弄之勢 而厥後其類相繼用事 弄壞朝綱 則所謂非而私者 豈不在是乎? 若金孝元則不過年少氣銳 果於有爲 不避嫌疑 觝觸權貴 雖曰有過 亦是公罪 然則是非大分 自有所在 若都不論是非 而徒欲鎭靜 則亦成混雜 而不能鎭靜矣 然則今日欲定是非者 自是一國之公論 非私意也 非强定也"

파주에 있던 이이는 이 사건에 대해 「경연일기」에 다음과 같은 평을 남겼다.

> 도에는 고금이 없으나, 옛날에는 성현이 있었고 지금에는 없으니 士가 어찌 옛날을 사모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백성도 彝倫을 가지고 있으나, 학문이 아니면 그 이치를 밝게 할 수 없으니 사가 어찌 학문을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옛날을 사모하고 학문이라 이름하고서는 그 실제가 없는 것은 진실로 부끄럽다. 그러나 옛날을 사모하지 않고 학문도 하지 않으면서 마음을 풀어놓은 채[放心] 악을 행하는 자는 일시의 폐가 되지 않는단 말인가. 세상의 풍속이 쇠퇴하여 사에게 조금이라도 학문을 향한 정성이 있으면 군주가 학문의 이름을 미워하여 유자는 꺾이고 류속은 뜻을 얻으니 이것이 말세의 공통된 근심이다. 성세장은 비루한 사내로서 그 말의 輕重은 말할 것도 없지만 오직 성상의 마음이 류속과 깊이 일치하여 끝내 선을 좋아하는 싹을 보존하지 못할까 한스럽다.[162]

이이는 성세장의 발언이 전형적인 류속의 전형적 인식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하였다. 그리고 선조 역시 그러한 류속의 인식에 동의하고 있음에 대한 안타까움을 토로하였다. 김우옹과 이이는 공통적으로 고도에 대한 사모, 그리고 학문하는 일의 중요성과 그것이 사류의 본문이자 정체성의 핵심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그 의미를 부정하는 행위에 대한 비난도 함께 하고 있다. 다만 양자의 인식 간에는 미묘한 차이가 감지된다. 김우옹의 비난이 주로 '구신'에 초점이 있다면, 이이는 '류속'과 그에 동조하는 '선조'에 있다는 것이다. 이이는 류속과 군주에 의한 사화를 남달리 의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상으로 알 수 있듯이, 이이는 선조 11년 이후 동서 갈등에 대한 태도에 다소 변화를 보인다. 심의겸에 대해 비판적인 모습을 보임으로써 동인의 주장을 수용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동시에, 그 이외의 인물들에 대한 동인의 공세에는 단호함을 표방한다. 하지만 이때에도 그는 여전히 사림 화합론

---

162) 『율곡전서』 권30, 「경연일기」 선조 12년 12월(38면 가), "謹按 道無古今 而古有聖賢 今無聖賢 則爲士者安得不慕古乎 民有秉彝 而非學問則無以明其理 爲士者安得不學問乎 名爲慕古學問 而無其實者固可疵也 彼不慕古不學問 而放心爲惡者 獨不爲一時之弊乎 世衰俗末 爲士者旣少向學之誠 而時君世主 又從而惡學問之名 故儒者沮喪而流俗得志 此叔季之通患也 彼世章 鄙夫 其言不足爲輕重 而獨恨上心深合流俗 終不可保好善之萌矣"

을 멈추지 않았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다시 말해, 선조 11년 이후 정치 세력 간의 갈등에 대한 그의 철학이나 입장이 크게 변화한 것은 아니었으며, 오히려 그의 해결책은 일관되었다. 그렇다면 그는 동인의 비판을 받으면서, 그리고 동인의 잘못이 크다고 본심을 드러내면서도, 왜 서인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대변하기보다 여전히 사류의 화합을 역설하였을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때에도 이이의 사림 화합론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류속이라는 외부의 '적'을 의식하는 가운데 사류 내부의 단합을 촉구하는 성격이 강하였다.

3) 선조 13년 조정 복귀와 각종 개혁책의 시도

서인과 동인의 갈등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선조 13년 12월 이이는 대사간으로 조정에 복귀하였다. 선조 9년 2월에 귀향한 이후 근 5년 만에 다시 중앙 조정에 진출한 것이었다. 결과적으로 이이의 생애 마지막 출사가 되는 이 기간 동안 선조는 이전과 달리 이이에 대해 매우 호의적인 태도를 보인다. 단적으로 선조 14년 6월, 종2품 가선대부 이이를 特旨로 한 단계 위 가의대부의 직책인 대사헌에 올려 임명하였다.[163] 이이에 대한 선조의 우대는 계속되어, 같은 해 10월에는 이이의 품계를 정2품 자헌대부로 올리면서 호조판서에 제수하였다. 그 이전에 선조는 '직무에 열심인 관료라면 官秩에 상관없이 호조판서로 임명하겠다'는 생각을 밝혔는데, 실제 이이의 품계를 올리면서까지 그 자리에 앉힌 것이다.[164] 이로써 이이는 자신이 그토록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하던 2품직의 대신 자리에, 본인이 직접 오르게 되었다.

무엇보다 이이에 대한 선조의 가장 예외적인 우대 조치는 다음 달인, 11월에 호조판서 이이가 홍문관 대제학을 겸하게 한 일이었다.[165] 이로써 이

163) 『선조수정실록』 권15, 선조 14년 6월 1일(계사)

164) 『율곡전서』 권30, 「경연일기」 선조 14년 10월(89면 나), "十月 以病解職 上問于大臣曰 度支未得其人 如有盡職如尹鉉者 則勿問爵秩薦擬可也 大臣以李珥爲首薦 乃拜戶曹判書 李憲國語人曰 叔獻陞秩 此則可賀 但自上欲得如尹鉉者 而大臣乃以叔獻應薦 後世必疑人品之卑矣 聞者笑之 尹鉉是斗筲小器 故憲國之言如"

165) 『선조수정실록』 권15, 선조 14년 11월 1일(신유)

이는 재정 부문과 학술 부문을 모두 관장하는 위치에 있게 되었는데, 이는 전례가 드문 파격적인 조치였다.[166] 다음해 선조 15년 1월에는 인사 부서의 최고 책임자인 이조판서에 임명되었다.[167] 또 같은 해 9월, 선조는 이이를 종1품 승정대부에 특별히 가자하고 의정부 우찬성에 임명하였다.[168] 정2품에 오른 뒤 근 일년 만의 1품직 승진이었으며, 이이의 첫 1품직 진입이었다. 그러다 12월에는 북방의 여진족 문제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하면서, 병조판서로 자리를 옮겼다. 여전히 홍문관 대제학은 겸한 상태였다. 그리고 선조 16년 6월, 병조판서 이이는 그의 일처리 방식을 문제 삼는 동인들의 집중적인 탄핵을 받은 끝에, 최종적으로 조정에서 물러나게 되었다.

선조 14년 이후 대신급 직위에서 활동하게 된 이이는 그 동안 자신이 그 중요성과 필요성을 역설하였던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첫째, 이이는 선조 14년 10월, 호조판서가 되자마자 經濟司 설치를 건의하였다.[169] 이는 자신이 오랫동안 주창한 민생의 안정을 위한 세제 및 각종 법제의 개혁 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노력으로 보인다. 그가 구상한 경제사는 일종의 임시 특별 기구로서, 그 운영 방식은 다음과 같았다. 대신급 인사를 책임자로 삼고, 실무는 '사류 가운데 시무를 잘 알고 능숙한 이'를 선발하여 담당하게 하며, '올라온 모든 건의 사항을 경제사 내려 상의한 후 결정하게' 하는 것이었다. 이이는 '대신'이라는 일반적 표현을 사용했지만, 실상 그 자리의 책임자로는 직무상 가장 연관성이 있는 호조판서 본인을 상정했을 가능성도 있었다. 또 군주에게 건의된 사안을 경제사로 하여금 상의·결정하게 한다는 것은 사실상 경제사에 논의와 확정에 대한 상당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이이의 제안에 대한 선조의 첫 반응은 "나중에 반드시 큰 일을 만들 것이

166) 선조대 이전에는 三公으로서 대제학을 겸한 경우가 드물게 보일 뿐으로, 세조대 鄭麟趾, 성종대 崔恒, 魚世謙, 중종대 南袞, 李荇, 申用漑, 金安老의 사례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성종실록』 권263, 성종 23년 3월 19일(기축); 『중종실록』 권24, 중종 11년 4월 22일(계유); 『중종실록』 권83, 중종 31년 12월 17일(무술)' 참조.

167) 『선조수정실록』 권16, 선조 15년 1월 1일(경신)

168) 『선조실록』 권16, 선조 15년 9월 13일(무진)

169) 『선조실록』 권15, 선조 14년 10월 16일(병오). 경제사와 관련한 내용은 모두 이 날의 기사에 나온다.

다"라는 우려였다. 그리고 "나랏일을 6부로 나누어 담당하게 하는 것은 의도가 있다"고 하였다. 즉, 선조는 이이가 주장하는 대로 6부로 분장되어 있은 업무를 경제사에 집중시키면, 그 권력이 대폭 증가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그 결과 왕권에도 위협될 것으로 여겨 경계하였다. 이를 파악한 이이는 '경제사란 어디까지나 임시 기구이며, 時弊가 모두 개혁되면 관서를 혁파할 것'임을 강조하며 선조를 안심시키려 하였다. 그러나 선조는 '우활하다'. '맡을 사람이 없다', '정공도감도 폐단만 남기며 실패하였다' 등의 이유를 들며 여전히 부정적으로 반응하였다.[170] 결국 이이의 경제사 운영 구상은 기획 단계로 끝이 나고 말았다.

비록 경제사의 설치는 좌절되었지만, 그의 마지막 조정 진출 시기에도 이이는 아래와 같은 글들에서 지속적으로 민생 안정을 위한 폐법 개혁안을 제출하였다.

<공납 문제를 다룬 글>
- 14년 사간원걸변통폐법차
- 15년 진시폐소
- 16년 육조계

<군역 문제를 다룬 글>
- 16년 진시사소
- 16년 육조계

<지방 행정 문제를 다룬 글>
- 14년 사간권걸변통폐법차
- 16년 진시사소

둘째, 선조 15년 1월, 이조판서가 된 이이는 그동안 관례로 정착하였던 이조 낭관의 청요직 관원 선발을 문제 삼으며,[171] 관리 선발 권한은 어디까

170) 정공도감은 이준경의 제안으로 선조 3년 11월에 설치하였다가[『선조수정실록』 권4, 선조 3년 11월 1일(을축)], 우성전의 건의로 선조 5년 9월에 혁파하였다[『선조실록』 권6, 선조 5년 9월 30일(계축)].

171) 중종대~선조대, 낭관권의 성장에 대해서는 '최이돈, 1994 『조선중기사림정치구조연구』, 일조각' 참조.

지나 장관인 판서에게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조종의 법이며, 회복해야 할 법임을 강조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는 이조가 관리들을 임명하는 것과 함께 그들의 직무를 감찰하는 일까지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관료 조직에 대한 이조의 영향력을 대폭 확대시키려 하였다. 이에 대해 동인들은 '이이가 권력을 쥐고 멋대로 하려 한다'며 강력하게 반발하였다.[172]

그런데 판서의 권한을 강화하려는 이이의 관료 조직 개혁안은 자신이 대신이 되자 갑작스레 추진한 것이 아니라, 그가 이전부터 관료 조직의 안정과 업무의 효율화를 위한 방안으로 지속적으로 주장했던 바였다. 그는 이미 선조 2년의 「동호문답」에서 군주와 함께 대신의 역할을 강조하는 사고를 드러낸 바 있었는데,[173] 특히 선조 8년 박순에게 "國事는 마땅히 대신으로부터 나와야지, 小臣은 단지 논의를 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한 언급은 대신의 권위와 역할에 대한 그의 인식을 분명하게 드러낸 말이었다.[174] 그는 이전부터 줄곧 대신을 중심으로 한 하향식 기강 확립을 추구하였던 것이다.

마지막으로 셋째, 선조 16년 홍문관 대제학 이이는 중국의 『대명회전』을 모방하여 조선 '조종조의 고사를 모아' 법전을 새로 만들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곧 졸거함으로써, 이 역시 기획과 건의 단계에서 그치고 말았다.[175] 조종조의 고사를 모으려 한 것으로 볼 때, 자신의 법제 변통론이 조종지법의 회복임을 강조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자신의 제도 변통 주장의 실제 근거 마련을 위한 작업이었을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다. 나아가 새로운 법전의 편찬을 기획했다는 사실은, 이이가 국가 운영 전반에 대

---

172) 『선조수정실록』 권16, 선조 15년 1월 1일(경신)

173) 이에 대해서는 '제1장 2절 2. 「동호문답」의 君臣論과 도덕정치의 理想' 참조.

174) 『선조수정실록』 권29, 선조 8년 6월(66면 나), "國事當出於大臣 小臣只可論議而已"

175) 이에 대한 얘기는 『율곡전서』에는 나오지 않는다. 이정암의 『사류재집』에 등장하며, 『송강집』의 정철 「연보」(별집, 권2)에도 이를 옮겨 싣고 있다. 이에 따르면, 선조 16년 겸대제학 이이가 이 사업을 위한 廳을 설치할 것을 건의하였지만, 곧 사망함으로써 뜻을 이루지지 못하였다. 그러다 정철이 예조판서가 된 후 예조에 청을 설치하였고, 후에 廳을 宗學으로 옮겼다. 堂上은 李山海·柳根·辛應時·鄭澈·尹卓然·尹根壽·兪泓·權擘이었으며, 낭청은 李民覺·尹覃休·高敬命·邊以中·黃赫·金景生·朴慶新·金敏善·李廷馣이었다. 그러나 이후 예산 부족으로 결국 사업은 중지되고 말았다[『사류재집』 권8, 「行年日記」 (15면 가)].

한 전면적인 개혁을 시도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상과 같이 선조 14년 이후, 마침내 대신이 된 이이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각종 개혁 사업들은 선조의 비협조, 동인들의 반대 또는 재정 부족 등의 이유로 모두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 그러나 그의 개혁 구상이 그것으로써 완전히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그의 후계자 서인은 물론, 유형원·이익 등의 남인들, 그리고 '탕평군주'들에 의해 그의 개혁론은 당대의 개혁을 위한 의미 있는 자원으로서 다시 역사의 현장에 등장하게 되었다.

結論

이 글은 사후적 맥락과 필요성보다는 이이 당대의 역사적 맥락과 본인의 문제의식에 보다 천착함으로써 이이의 개혁론을 새롭게 이해하려는 목적에서 작성되었다. 이이의 개혁론과 관련하여 기존에는 제도 변통론, 사림 화합론, 조선적 특질로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이이의 개혁론에서 도덕과 주체라는 요소, '류속' 舊臣들에 대한 배척 태도, 중화주의의 추구라는 면모를 함께 파악함으로써, 위의 규정들이 실상은 이이의 개혁론에서 보다 큰 목표와 기획을 위한 과정이자 부분임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동호문답」·「만언봉사」·「성학집요」 등 이이가 중요한 정국 국면마다 개혁의 이론과 정책을 담아 제출한 저술들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 저술은 이이의 여러 글 중에서 상대적으로 이론적 성격이 강하며, 또 그만큼 개혁론의 전모를 드러내는 저술이기 때문이다. 분석의 방법은 이들 저술이 기본적으로 당대의 정국 상황에 대한 민감한 반응의 결과물이라는 이해에서 출발하여, 이이가 정국 상황에서 자신과 갈등 관계인 어떠한 입장과 세력을 의식하며, 무슨 의도를 가지고 글을 구성하였는가를 해석하고자 하였다.

본문의 내용을, 개혁론 제출의 정국, 개혁론의 추이, 개혁론의 내용 등 세 주제로 나누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개혁론 제출의 맥락

이이의 개혁론은 자신과 다른 두 가지 정치적 입장·세력을 끊임없이 의식하는 가운데 제출된 것이었다. 이이의 표현에 따르면, 그것은 '삼대지치를

할 수 없다'는 자들, 그리고 '삼대지치를 하루아침에 할 수 있다'는 자들과의 갈등이자 충돌이었다. 전자는 명종대 내내 조정에서 관직 경력을 쌓아 명종대 말에는 대신급 지위에 올랐고, 그 상태가 선조 즉위 후까지 계속된 舊臣들을 지칭하였다. 후자는 이이의 후배 사류들로서 주로 이황과 조식의 제자들이 주축이었다. 이이는 전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적대하는 태도를 보인 반면, 후자에 대해서는 정치적 동료로 받아들였다.

이이가 본격적으로 자신의 개혁론을 제출하는 선조 2년부터 조정에서 완전히 물러나는 선조 16년까지, 그가 줄곧 의식하며 경계하였던 대상이자 그가 주된 적대 세력으로 인식한 것은 바로 전자인 '류속' 구신이었다. 그렇다면 이이는 왜 그러한 판단을 하였을까? 이는 선조대 초반의 구체적인 정국상황과 정책 논란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명종대 말 권신 체제를 종식한 데는 기대승을 비롯한 개혁적 신진관료 세력의 힘이 컸다. 그들은 심의겸을 비롯한 명종의 처가 청송 심씨 세력과 결합하여, 척신 윤원형과 이량 세력을 축출하는 데 성공하였다. 이후 청송 심씨 세력과 대신들은 중종의 서손인 하성군을 선조로 즉위하게 하였다. 조선 개국 이래 최초의 방계 출신 국왕의 등장이었다. 명종 비 인순왕후의 수렴청정 하에 명종대 말부터 선조 즉위 초까지는 개혁 정국이 형성되었다. 심통원 등 권신체제의 남은 세력들이 정계에서 축출되었으며, 조광조가 추숭되고 남곤은 삭탈됨으로써, 그들에 대한 국가의 평가가 이전과 정반대가 되었다. 그리고 을사사화를 비롯해, 명종대 초반 역모사건으로 규정되어 처벌을 받았던 인물들에 대한 신원 조치가 내려졌다.

그러나 선조 2년 명종의 大祥이 끝나고, 선조의 본격적인 新政에 즈음하여 대신과 신진 세력 간에 정책을 둘러싼 갈등이 표면화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그 중심에 국왕 선조가 있었다. 선조는 비록 청송 심씨 세력에 의해 '선택된' 군주였지만, 그들에 의해 일방적으로 끌려가기보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한을 행사하려 하였다. 그것은 청송 심씨 세력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왕위 즉위에 공헌한 구신들과 정치적 입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정책 결정권자 또는 그 과정의 참여자로서 선조와 대신급의 구신들은 여러 정책의 시행을 둘러싸고 개혁적 신진세력과 충돌하였다.

양 세력 간의 입장 차이를 보여준 대표적 사안은 무엇보다 왕실 典禮 문제였다. 그리고 관리 임용 방식이나 운영 등과 관련한 관료제 개혁 문제도 있었다. 이는 일찍이 중종대 기묘사림이 시행을 추진한 정책을 계승한 것이기도 하였다. 개혁적 신진세력은 文昭殿 문제, 卒哭 후 服制 등에서 '古禮'를 시행함으로써 군주가 더욱 강력한 도덕적 모범을 보일 것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비출신자를 등용하여 근시직에 임명하는 등 기존의 제도와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파격을 통해 국왕과 관료 사회의 변화를 도모하려 하였다. 그러나 선조와 구신들은 '조종지제' 준수를 내세우며,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였다. 이들은 상례 시 고례의 규정보다 일찍 일상으로 복귀하여도 좋다고 보는 등, 왕실 전례에서 개혁적 신진세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다 실용성을 추구하는 입장이었다. 또, 그들은 과거를 통한 관료 등용이 가장 객관적이며, 파격보다는 순차적 승진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는 등 관료 조직의 운용에 그들 나름의 합리성과 안정성을 꾀한다는 입장이었다.

선조 3년 문소전 논란의 여파로 기대승이 사퇴한 후, 이이는 위사공신 삭훈 운동에 앞장서며 개혁적 신진 세력의 중심인물로 부상하였다. 이후 그는 왕실 전례 문제나 관료제 개혁에 참여하는 한편, 각종 稅制 개혁도 적극 추진하였다. 그런데 선조 6~7년의 향약 시행 논란 과정에서, 사류 내부에도 그것을 주도한 후배 사류와 이이의 입장 차가 있음이 단적으로 드러났다. 중종대 기묘사림에 의해 추진된 적이 있던 국가 차원의 향약 실시가 이때 다시 결정되자, 이이가 소수 반대 의견을 제기하여 끝내 관철시킨 것이다. 일찍이 지방관으로서 향약을 시행하기도 했던 이이지만, 향약을 통한 민의 교화 이전에 민생의 해결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아직 사류가 조정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그 이유였다.

선조 8년 명종 비 인순왕후의 훙거를 기화로, 후배 사류들은 이제 심의겸에 친화적인 이이와 선배 사류들을 공격하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명종대 말부터 정치적으로 급성장하고 있던 심의겸이 이제는 조선의 정치적 안정에 가장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였다. 반면, 이이는 '류속' 대신이 여전히 건재하므로, 중국과 조선의 역사적 경험으로부터 볼 때 그들에 의한 사류의 피화를 가장 염려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이는 사림 화합론을 주창하였다. 그

속뜻인 즉, 지금 외부의 적인 류속 구신을 경계해야지 내부의 사류끼리 싸울 상황이 아니라는 것, 내부의 분열이 모두의 공멸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이의 바람과 달리 선조 11년 이후부터 동서 갈등은 더욱 격화되었다. 게다가 이때부터 류속 구신과 동인이 결합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고 파악한 이이는, 선조 12년 동서 갈등의 문제를 주요한 시국 과제로서 처음 공식 거론하였다. 그리고 선조 13년 마지막으로 조정에 복귀하였다. 이때 이이는 전과 달리 선조의 융숭한 대우를 받으며, 자신이 그토록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한 대신직에도 오른다. 그리고 경제사 설치, 새로운 법전의 편찬 등 본인이 평소 필요성을 주창한 개혁 사업의 시행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선조는 그의 개혁책을 완전히 지지하지 않았고, 동인들은 이이에 대한 공세를 더욱 높였다. 결국 그는 자신의 개혁 사업을 이루지 못하고 사퇴하였다.

이상과 같이, 이이는 세제 개혁, 관료제 개혁, 왕실 전례 문제를 둘러싸고 대신들과 갈등하자, 그들을 말로는 삼대지치의 구현을 얘기하지만 실상은 그에 대한 진정한 믿음과 실천 의지가 없는 자들로 치부하였다. 그가 「경연일기」에서 구신들을 일반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는 의미로 '류속'이라 비난한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었다. 한편 후배 사류들에 대해서도, 그들의 목표 설정은 옳지만 전략적 접근이 부족하다고 비판하였다. 그들의 전략적 부재는 결국 현실의 실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조선에서 삼대지치의 구현이라는 목표 자체를 무의미한 것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다는 것이 이이의 판단이었다. 이이는 그들을 '迂儒'라 지칭하였다.

2. 정국 상황과 개혁론의 추이

출사하자마자 권신 체제의 종식과 뒤 이은 개혁정국을 맞이한 이이는 조직의 일원으로서 적극적으로 개혁 활동에 참여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이이의 행동은 예상치 못한 상태에서 갑작스레 결정된 것이 아니라 출사 전에 이미 예비된 것이었다. 당시 그가 친구들에게 보낸 편지들에서 알 수 있듯

이, 그는 출사 전부터 당대 지식인의 일반적 학문 경향과 정치 현실에 대해 강한 비판의식을 지니고 있었다.

선조 2년 9월 선조의 신정 시작과 「동호문답」 제출을 기점으로, 이이는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 본인만의 개성을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동호문답」을 비롯해 이후 이이가 제출한 개혁론에는 '무실'·'안민' 등과 같이 일관되게 유지된 항목도 있었지만, 정국 상황의 변동에 따라 핵심 주제와 주안점을 달리하며 제시되고 있었다. 따라서 각 저술의 핵심 주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당시 그가 처한 상황과 정국 인식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동호문답」·「만언봉사」·「성학집요」를 중심으로 그 추이와 변화의 양상을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선조 2년 9월, 이이가 독서당의 월과도 제출한 「동호문답」은 향후 그의 개혁론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내용의 단초들이 제시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의 개혁 청사진이라 할 수 있다. 「동호문답」은 그해 초 명종의 대상을 마치고 문소전 부묘를 전후하여 표출되고 고조된 新舊 갈등 상황, 그리고 선조의 新政 시작을 염두에 두고 제출된 것이었다. 그렇기에 「동호문답」에서 이이는 군주와 대신의 역할이 정치적 질서와 안정을 위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하고, 삼대지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자, 민생 안정을 위한 각종 법제의 변통에 부정적 견해를 보이는 인물로서 '류속'을 등장시킨다.

또한 「동호문답」에서 이이는 권신 체제로 인해 남겨진 문제의 해결이 시급한 시대 과제임을 분명히 하고, 이의 해결을 위해 민생 안정을 위한 각종 세제 개혁이 필수이자 시급함을 강조한다. 이는 당시 이황과 기대승이 그에 대해 신중을 표명했던 것과는 다른 점이었다. 그러나 이이 역시 민생의 안정을 이룬 이후에는 그들에 대한 교화가 이루어져야 함을, 조선의 경세 목표는 '왕도정치', '삼대지치'가 되어야 함을 분명히 선언하였다. 이이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최종적으로는 조선을 도덕 국가로 만들고자 했던 것이다.

다음으로, 선조 7년에 제출된 「만언봉사」의 내용에서 특징적인 점은 첫째, 「동호문답」이나 「성학집요」와 달리 교화 정책과 관련한 항목이 없다는 점이다. '진실한 실천에 힘씀[務實功]' 항목에서 '인심이 善을 향하는 실상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지만, 막상 그 내용은 교화 이전에 민생 문제 해결부터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둘째, 제도 변통론과 무실론에 대한 이론적 정립이 보인다는 점이다. 이들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선조 2년의 「동호문답」과 「옥당진시폐소」에서도 간단하게 언급한 적이 있으나, 「만언봉사」에서는 이에 대한 이론을 본격적으로 정립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리고 이 내용은 후에 「성학집요」에도 반영되었다.

이러한 구성과 내용의 배경에는 두 가지 정국 상황에 대한 고려가 있었다. 먼저, 이는 선조 6년 이래 조정에서 향약 시행이 논란이 되었던 상황과 관련이 있다. 「만언봉사」가 제출된 시점은 후배 사류들의 주도로 향약 시행이 추진되고, 대신들도 그에 찬성한 결과 시행을 바로 앞둔 상황이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이는 오히려 「만언봉사」를 통해 향약 시행을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민생 안정에 관심을 집중시키고자 하였다. 「만언봉사」의 변통론은 민생 관련 법안 등 법제 변통의 필요와 정당성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었다. 기존의 잘못된 제도를 '조종지법'이라는 명분으로 고수하려는 경향에 대해, 聖賢들도 변통을 하였고, '조종지법'이라도 변통이 필요하다는 대응 논리를 마련하였다. 게다가 그들이 '조종지법'이라고 내세우는 것들이 실상 조종지법가 아니라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진 규칙이라는 점을 폭로하였다.

다음으로, 이이는 「만언봉사」를 제출하기 두달 전인 선조 6년 11월, 이이는 비출신자를 헌관에 임용할 것을 건의하여 선조의 승낙을 얻은 것과 관련이 있었다. 일찍이 자신이 선조 즉위 초에 요청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던 사안을 근 4년 만에 다시 제기하여 허락을 받은 것이다. 이 사안은 단지 이이만의 희망 사항이 아니라 개혁적 신진세력 일반이 바라던 바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비출신자를 등용했음에도, 그들에 대한 선조의 대우나 활용은 만족스럽지 않은 상태였다. 무실론에서 이이는 당시 비출신으로 조정에 진출하는 자들이 '과연 도를 실천하기 위해 나온 자들인지 의심스럽다'며, 이 제도의 제대로 된 시행을 통해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게 할 것을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선조 8년 「성학집요」에서 이이는 수기론과 경세론을 종합함으로써, 마침내 그의 개혁론을 완성한다. 「성학집요」는 「대학연의」와 같은 성

리학의 대표적 군주 수신서와 여러 면에서 달랐다.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위정'편의 설정으로, 군주의 자기수양을 정치의 시작이자 근본으로 상정하여, '수기'와 '제가' 항목까지만 있고 치인과 관련한 항목은 없는 「대학연의」와는 구성부터가 달랐다. 「성학집요」의 마지막 편인 '성현도통'편도 「대학연의」에는 없는 내용이었다.

수기편은 일찍이 그가 선조 5년 성혼과의 서신 교환을 통해 나눈 소위 인심도심 논의의 내용이 반영되어 있다. 그 핵심은 두 가지였다. 먼저 이기심성론으로, 이이는 절대적이며 보편적 성격을 지닌 理의 존재를 통해 조선에서 삼대지치와 같은 도덕 공동체의 완성 가능성에 대한 근거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氣의 활동에 대한 고려를 통해, 도덕 질서에 대한 막연한 낙관주의에 대한 경계와 정치에서 인간의 육체적·개별적 욕망에 대한 고려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위정편에서는 정치의 이론을 제시하였다. 여기서 이이는 자신과 경쟁하는 두 입장, 즉 선조·류속과 동인을 모두 의식한 구성을 하였다. '法先王'장을 통해 삼대지치가 현재에도 가능하다는 점을 다시금 강조하였고, '위정지사'의 마지막에서는 자신이 '우유'라고 지칭하는 무리들에 대해 비판하며, 삼대지치의 구현을 위한 전략적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마지막 편인 성현도통편은 두 개의 목적을 지녔다. 먼저 삼황·오제 이래 주희까지 이어진 도통을 조선에서 계승할 것을 주장함으로써, 조선의 경세질서의 목표로 삼대지치를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삼대지치의 像을 묘사함으로써, 바람직한 정치란 어떠해야 하는지를 그렸다. 그것은 흔히 말하듯 예기 예운 편의 大同 사회가 아니라, 다스림의 도구[治具] 세 가지가 모두 제대로 작동하는 사회였다. 의식주와 같은 기본적 욕망이 충족되고, 공동체의 구성원들 모두가 도덕 공유하고 실천하며, 구성원들 사이의 질서를 외적으로 규제하는 법제를 때에 맞게 잘 운용하는 상황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道統이 君相'에 있을 때, 즉 학문적 권위와 정치적 권위가 일치할 때 가능하였다. 이는 일찍이 「동호문답」에서 제시된 '군주와 신하가 제대로 만난[군신상득]' 삼대와 「만언봉사」의 '제도의 변통이 제대로 이루어진' 삼대의 상을 종합한 것이기도 하였다.

정리하면, 「동호문답」은 선조의 新政과 新舊 갈등 속에서 군신 관계의 중

요성을 강조하였다. 「만언봉사」는 후배 사류 주도의 향약 시행이 결정되고 선조가 신진 세력의 희망을 수용하여 미출신자를 등용했지만 그에 대한 대우가 심상한 상황 속에서, 변통론과 무실론을 정립하였다. 마지막으로 「성학집요」는 이 내용을 포괄하면서, 여기서 더하여 개혁 구상을 총체적으로 제시하였다.

3. 개혁의 목표와 전략

「동호문답」과 「성학집요」가 잘 보여주듯, 이이는 조선에서 경세의 궁극적 목표는 삼대지치가 되어야 한다고 분명하게 선언하였다. 그런데 이때 그가 말한 삼대지치는 儒者라면 으레 애기하는 理想 정치일 뿐이거나, 특별한 의미가 없는 구호로 그치는 게 아니었다. 거기에는 구체적이며 실천적 의미가 담겨 있었다. 이이의 삼대지치는 조광조와 기묘사림 경험 이후 조선의 개혁적 지식인들이 공통적으로 추구한 경세 질서, 즉 민을 포함해 조선의 전 구성원들이 동일한 도덕적 이념을 공유하고 그것을 실천함으로써 질서와 안정을 유지하는 '전일적 도덕국가'를 의미하였다.

그러나 이이는 그 목표를 이루는 과정과 방법은 '점진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때 그가 말한 '점진적'이란 표현은 단지 시간적 의미로서, 그것이 장기간에 걸친 기획이어야 한다는 뜻이 아니었다. 그것은 필요한 순서와 과정을 해결하면서 단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전략적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미가 강하였다. 이이가 필수적 전제 조건으로 생각한 요인은 두 가지였다. 첫째, 도덕적으로 올바른 자들이 정치적으로도 힘 있는 자리에서 영향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것, 즉 도덕적 권위와 정치적 권위의 일치를 추구한 것이었다. 둘째, 민에 대한 도덕적 교화 이전에 민생 안정의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의 이기심성론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이이는 현실의 인간은 도덕적 완성을 가능성을 지닌 동시에 육체적 욕망을 지닌 존재였다. 따라서 민에 대한 교화 이전에 그들의 기본적 욕망을 충족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었다.

이이의 개혁론에 대한 새로운 이해는 16세기에 소위 '사림파'에 의해 추진

된 개혁의 의미·주체·방향에 대한 이해도 새롭게 한다. 즉, 기존의 사림파 이론이 이를 모두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설명했던 것과는 다른 대안적 설명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 연구에 의하면, 16세기 조선의 개혁적 지식인들은 中小地主가 아니라 '중화문명'을 보다 철저히 구현함으로써 당대 조선의 제 모순을 해결하려 한 문화보편주의자들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오로지 士族 주도의 자율적 향촌 질서의 확립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 중에는 이이의 경우와 같이 집권 세력의 교체와 국가 체제의 변화를 중시하는 흐름도 있었다.

참고문헌

1. 사료

『朝鮮王朝實錄』
『經國大典』(奎貴 1864)
『大典續錄·大典後續錄·經國大典註解』(서울대 규장각, 1997)
연세대 국학연구원 편, 1993 『經濟六典輯錄』, 신서원.
『東儒師友錄』(불함문화사, 1977)
『國朝人物考』(서울대출판부, 1978)
『國朝五禮儀』(景文社, 1979)
『大學衍義』(奎中 509)
『燃藜室記述』(민족문화추진회, 1982)
『國朝寶鑑』(민족문화추진회, 1994)
『增補文獻備考』(세종대왕기념사업회)
『大東野乘』(민족문화추진회, 1983)
『朝鮮經國典』(한영우 역, 올재, 2012)
『聖學輯要』(학민문화사, 2006)
『조선왕조실록에서 찾아 본 栗谷 李珥』(율곡학회, 2000)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 http://people.aks.ac.kr

박영, 『松堂集』(한국문집총간 18)
이언적, 『晦齋集』(한국문집총간 24)
서경덕, 『花潭集』(한국문집총간 24)
정사룡, 『湖陰雜稿』(한국문집총간 25)
송순, 『俛仰集』(한국문집총간 26)
이준경, 『東皐遺稿』(한국문집총간 28)
이황, 『退溪集』(한국문집총간 29~31), 『陶山全書』(1988, 퇴계학연구원)
조식, 『南冥集』(한국문집총간 31)

홍섬, 『忍齋集』(한국문집총간 32)
노수신, 『穌齋集』(한국문집총간 35)
송인,『頤庵遺稿』(한국문집총간 36)
허엽, 『草堂集』(한국문집총간 36)
박순, 『思菴集』(한국문집총간 38)
기대승, 『高峯集』(한국문집총간 40)
김효원, 『省菴遺稿』(한국문집총간 41)
송익필, 『龜峯集』(한국문집총간 42)
성혼, 『牛溪集』(한국문집총간 43)
이이, 『栗谷全書』(한국문집총간 44~45)
율곡학회 편, 2007『栗谷學硏究叢書』資料編 1~10
정철, 『松江集』(한국문집총간 46)
김우옹, 『東岡集』(한국문집총간 50)
이정암, 『四留齋集』(한국문집총간 51)
유성룡『西厓集』(한국문집총간 52)
이정형, 『知退堂集』(한국문집총간 58)
유형원, 『磻溪隧錄』(경인문화사)
유수원, 『迂書』(민족문화추진회)
정약용, 『與猶堂全書』(한국문집총간 281~286)
박운, 『龍巖集』(한국문집총간 속 2)
이익, 『星湖全書』
윤두수, 『국역 후광세첩』
이희삼, 『魯齋集』(奎 15574)
저자 미상, 『掛一錄』(古 4250-50)
『眉巖日記 : 眉巖日記草』(1992, 담양문화원)
이귀, 『국역 默齋日記』(2012, 민족문화추진회)

『근사록집해』Ⅰ,Ⅱ(이광호 역, 2004, 아카넷)
『二程集』(2004 重刊本, 中華書局)
『朱熹集』(1994, 成都, 四川敎育出版社)
『朱子語類』(2004 重刊本, 中華書局)
『朱子大全』(2002, 상해고적출판사)
『大學衍義』(奎中 538)(이한우 역, 2014, 해냄)

『貞觀政要』(김원중 역, 2012, 글항아리)

2. 연구논저

1) 단행본

(1) 이이 및 조선 관련

강문식, 2008『권근의 경학사상 연구』, 일지사.
강주진, 1971『이조당쟁사연구』, 서울대 출판부.
계승범, 2014『중종의 시대』, 역사비평사.
고영진, 1996『조선중기 예학사상사』, 한길사.
고영진, 1999『조선시대 사상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 풀빛.
국사편찬위원회, 1981『한국사론 8—조선전기 서원과 향약』, 국사편찬위원회.
국사편찬위원회, 1996『한국사 28—조선 중기 사림세력의 등장과 활동』, 국사편찬위원회.
국사편찬위원회, 1998『한국사 30—조선 중기의 정치와 경제』, 탐구당.
국사편찬위원회, 1998『한국사 31—조선 중기의 사회와 문화』, 탐구당.
권인호, 1995『조선중기 사림파의 사회정치사상』, 한길사.
근대사연구회 편, 1987『한국중세사회 해체기의 제문제(상)』, 한울.
근대사연구회 편, 1987『한국중세사회 해체기의 제문제(하)』, 한울.
금장태, 2011『율곡평전』, 지식과 교양.
김경탁, 1960『율곡의 연구』, 한국연구도서관.
김돈, 1997『조선전기 군신권력관계 연구』, 서울대 출판부.
김돈, 2009『조선중기 정치사 연구』, 국학자료원.
김범, 2007『사화와 반정의 시대』, 역사비평사.
김범, 2010『연산군』, 글항아리.
김성우, 2001『조선중기 국가와 사족』, 역사비평사.
金宇基, 2001『조선중기 척신정치연구』, 집문당.
김태영, 1998『실학의 국가개혁론』, 서울대 출판부.
김태영, 2006『조선 성리학의 역사상』, 경희대 출판국.

다카하시 도오루 지음/조남호 옮김, 1999『조선의 유학』, 소나무.
도현철, 1999『고려말 사대부의 정치사상연구』, 일조각.
마르티나 도이힐러 지음/이훈상 옮김, 2013『한국의 유교화 과정』, 너머북스.
민현구, 1983『조선초기의 군사제도와 정치』, 한국연구원.
박도식, 2011『조선전기 공납제 연구』, 혜안.
박충석, 1982『한국정치사상사』, 삼영사.
배우성, 2014『조선과 중화』, 돌베개.
사단법인 율곡학회 편, 2007『율곡학연구총서』 논문편 1~10.
설석규, 2002『조선시대 儒生上疏와 공론정치』, 선인.
설석규, 2009『조선중기 사림의 道學과 정치철학』, 경북대 출판부.
손영식, 2007『성리학의 형이상학 시론: 이황과 이이 철학의 성격 규정』, UUP.
손영식, 2008『성리학의 형이상학 도론: 성리학의 정체성 논쟁』, UUP.
신병주, 2000『남명학파와 화담학파 연구』, 일지사.
신병주, 2007『조선 중·후기 지성사 연구』, 새문사.
안외순 옮김, 2005『동호문답』, 책세상
에드워드 와그너 지음/이훈상 옮김, 2007『조선왕조 사회의 성취와 귀속』, 일조각.
오수창, 2010『조선시대 정치, 틀과 사람들』, 한림대 출판부.
유승원, 1986『조선초기신분제연구』, 을유문화사.
윤희면, 1990『조선후기 향교연구』, 일조각.
이동인, 2004『율곡의 사회개혁 사상』, 백산서당.
이범직, 1991『한국중세례사상연구ー五禮를 중심으로ー』, 일조각.
이병도, 1973『율곡의 생애와 사상』(瑞文文庫 93), 서문당[『두계이병도전집9ー조선시대의 유학과 문화(2012, 한국학술정보)에 수록』].
이병도, 1987『한국유학사』, 아세아문화사[『두계이병도전집7ー조선유학사(2012, 한국학술정보)에 수록』].
이병휴, 1984『조선전기 기호사림파연구』, 일조각.
이병휴, 1999『조선전기 사림파의 현실인식과 대응』, 일조각.
이상익, 2005『기호성리학논고』, 심산.
이광호, 2013『퇴계와 율곡, 생각을 다투다』, 홍익출판사.
이성무, 1980『조선초기 양반연구』, 일조각[2001년 한국학술정보에서 재간행].
이수건, 1979『영남사림파의 형성』, 영남대 출판부.
이재룡, 1999『조선전기 경제구조연구』, 숭실대학교 출판부.
이태진, 1985『조선시대 정치사의 재조명』, 범조사[2003년 태학사에서 개정판

발행].
이태진, 1985『조선후기의 정치와 軍營制變遷』, 한국연구원.
이태진, 1986『한국사회사연구』, 지식산업사[2008년 증보판 발행].
이태진, 1989『조선유교사회사론』, 지식산업사.
장숙필, 1992『율곡 이이의 聖學 연구』,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전세영, 2005『율곡의 군주론』, 집문당.
정두희, 1983『조선초기 정치지배세력연구』, 일조각.
정두희, 2000『조광조』, 아카넷.
정옥자, 1993『조선후기 역사의 이해』, 일지사.
정옥자, 1998『조선 중화사상 연구』, 일지사.
정옥자, 2006『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선비』, 현암사.
정옥자, 2012『지식기반 문화대국 조선』, 돌베개.
정재훈, 2005『조선전기 유교 정치사상 연구』 태학사.
정재훈, 2008『조선시대의 학파와 사상』, 신구문화사.
정재훈 역, 2014『동호문답』, 아카넷.
정진영, 1998『조선시대 향촌사회사』, 한길사.
정호훈, 2014『조선의 《소학》-주석과 번역』, 소명출판.
정홍준, 1996『율곡 이이』, 예문서원.
제임스 B. 팔레 지음/김범 옮김, 2008『유교적 경세론과 조선의 제도들: 유형원과 조선 후기』, 산처럼.
지두환, 1994『조선전기 儀禮 연구』, 서울대 출판부.
지두환, 2001『중종대왕과 친인척』, 역사문화.
채무송, 1996 『퇴계 율곡 철학의 비교연구』, 성균관대 출판부.
천관우, 1979『近世朝鮮史硏究』, 일조각.
최승희, 1976『조선초기 言官·言論연구』, 서울대 출판부.
최승희, 2002『조선초기 정치사연구』, 지식산업사.
최승희, 2005『조선초기 정치문화의 이해』, 지식산업사.
최이돈, 1994『조선중기사림정치구조연구』, 일조각.
최진홍, 2009『법과 소통의 정치』, 이학사.
충남대 유학연구소, 2007『율곡학과 한국유학』, 예문서원.
幣原 坦 著, 1908『朝鮮政爭志』, 삼성당.
한국·동양정치사상학회 엮음, 2005『한국정치사상사』, 백산서당.
한국역사연구회 조선시기 사회사 연구반, 2000『조선은 지방을 어떻게 지배했는

가』, 아카넷.
한영우, 1983『조선전기사회사상연구』, 지식산업사.
한영우, 1983『조선전기사회경제연구』, 을유문화사.
한영우, 1999『정도전사상의 연구』(개정판), 서울대 출판부.
한영우, 2002『역사학의 역사』, 지식산업사.
한영우, 2008『조선 수성기의 제갈량 양성지』, 지식산업사.
한영우, 2013『과거, 출세의 사다리—족보를 통해 본 조선 문과급제자의 신분이동(태조~선조 대)』, 지식산업사.
한영우, 2013『율곡 이이 평전』, 민음사.
한춘순, 2006『명종대 勳戚政治 연구』, 혜안.
한충희, 2011『조선전기의 의정부와 정치』, 계명대 출판부.
한형주, 2002『조선초기 國家祭禮 연구』, 일조각.
현상윤, 1949『조선유학사』, 민중서관[『기당 현상윤전집』 2(2008, 나남)에 재수록].
황의동, 1998『율곡 사상의 체계적 이해』 1-2, 서광사.
황의동 외, 2002『율곡 이이—한국의 사상가 10인—』, 예문서원.
황의동, 2008『기대승, 조선 성리학의 이론가』, 성균관대 출판부.
황준연, 1995『율곡 철학의 이해』, 서광사.
황준연, 2000『이율곡, 그 삶의 모습』, 서울대 출판부.

⑵ 중국사 및 중국철학 관련

제임스류 지음/이범학 옮김, 1991,『왕안석과 개혁정책』, 지식산업사(James T. C. Lui, 1959, *Reform in Sung China: Wang An-shih and His New Policies*, Havard East Asian Studies 3).
진래 지음/안재호 옮김, 1997『송명 성리학』, 예문서원.
진래 지음/이종란 외 옮김, 2002『주희의 철학』, 예문서원.
손영식, 1999『이성과 현실』, 울산대 출판부.
윤정분, 2002『中國近世 經世思想 硏究: 丘濬의 經世書를 중심으로』, 혜안.
이용주, 2003『주희의 문화 이데올로기』, 이학사.
조남호 지음, 2004『주희: 중국철학의 중심』 태학사.
고지마 쓰요시 지음/신현승 옮김, 2004『사대부의 시대』, 동아시아.
고지마 쓰요시 지음/신현승 옮김, 2004『송학의 형성과 전개』, 논형.
미우라 쿠니오 지음/이승현 옮김, 2005『왕안석, 황하를 거스른 개혁가』, 책세상.
쓰치다 겐지로 지음/서현창 옮김, 2006『북송도학사』, 예문서원.

미조구치 유조 지음/정태섭·김용천 옮김, 2004『중국의 공과 사』, 신서원.
피터 K. 볼 지음/심의용 옮김, 2008『중국 지식인들과 정체성』, 북스토리.
호이트 틸만 지음/김병환 옮김, 2010『주희의 사유세계ㅡ주자학의 패권ㅡ』, 교육과학사.
A. C. 그레이엄 지음/이현선 옮김, 2011『정명도와 정이천의 철학』, 심산.
피터 K. 볼 지음/김영민 옮김, 2010『역사 속의 성리학』, 예문서원.
알렉산더 우드사이드 지음/민병희 옮김, 2012『잃어버린 근대성들ㅡ중국 베트남 한국 그리고 세계사의 위험성』, 너머북스.

Tillman, Hoyt Cleveland, *Utilitarian Confucianism*, Harvard University Press, 1982
Edited by Robert P. Hymes, *Ordering the World*,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3
Ari Daniel Levine, *Divided by a Common Language: Factional Conflict in Late Northern Song China*, Univ of Hawaii Press, 2008
Jack W. Chen, *The Poetics of Sovereignty*. Harvard University Asia Center; Bilingual edition, 2011
Monika Übelhör, "The Community Compact of Sung and Its Educational Significance" in Wm. T. de Bary and John Chaffee eds.. *Neo-Confucian Education: The Formative Stage*(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9)

麓保孝, 1967『北宋に於ける儒學の發展』, 書籍文物流通會.
小島 毅, 1996『中国における礼の言説 』, 東京大学出版会.
王瑞來, 2001『宋代の皇帝権力と士大夫政治』, 汲古書院.
小島毅 編, 2001『知識人の諸相: 中国宋代を基点として』, 勉誠出版.
余英時, 2003『朱熹的歷史世界』上·下篇, 允晨文化(臺灣).
衣川 強, 2006『宋代官僚社会史研究』, 汲古書院.

3) 박사학위논문

권향숙, 2005『公·私 개념을 통해 본 李瀷의 철학』, 서울대 철학과.

김경호, 2001『율곡 이이의 심성론에 관한 연구』, 고려대 철학과.
김용곤, 1994『조선전기 道學政治思想 연구』, 서울대 국사학과.
김인걸, 1991『조선후기 향촌사회 변동에 관한 연구ㅡ18.19세기 '鄕權' 담당층의 변화를 중심으로』, 서울대 국사학과.
김정신, 2008『조선전기 훈구·사림의 정치사상 비교』, 연세대 사학과.
김학수, 2008『17세기 영남학파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남달우, 1998『조선 선조대의 정국운영에 관한 연구ㅡ國王과 臺諫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인하대 사학과.
손성필, 2013『16,17세기 불교정책과 불교계의 동향』, 동국대 사학과.
유연석, 2005『율곡 이이의 인성론 연구』, 연세대 철학과.
박현순, 2006『16~17세기 禮安縣 士族社會 연구』, 서울대 국사학과.
김영두, 2006『조鮮 전기 道統論의 전개와 文廟從祀』, 서강대 사학과.
서정문, 2006『조선중기의 文集編刊과 門派形成』, 국민대 국사학과.
윤정, 2007『18세기 국왕의 '文治' 사상 연구』, 서울대 국사학과.
송웅섭, 2011『조선 성종대 公論政治의 형성』, 서울대 국사학과.
오세현, 2013『조선중기의 '斯文'과 文章 四大家』, 서울대 국사학과.
우경섭, 2005『송시열의 世道政治思想 연구』, 서울대 국사학과.
안희재, 2010『조선시대 국상의례 연구: 국왕국장을 중심으로』, 국민대 국사학과.
윤인숙, 2011『조선전기 사림의 사회정치적 구상과 小學운동』, 성균관대 사학과.
이정민, 2013『조선시대의《小學》이해 연구』, 서울대 국사학과.
정경희, 2000『조선전기 禮制·禮學 연구』, 서울대 국사학과.
정원재, 2001『知覺說에 입각한 이이 철학의 해석』, 서울대 철학과.

4) 논문

James B. Palais, 1999「朝鮮王朝의 官僚的 君主制」『東洋 三國의 王權과 官僚制』, 국학자료원.
Milan G. Hejtmanek, 1999「朝鮮中期 賜額書院을 둘러싼 君臣간의 갈등」『東洋 三國의 王權과 官僚制』, 국학자료원.
강정인, 2010「율곡 이이의 정치사상에 나타난 대동(大同)·소강(小康)·소강(少康)」『한국정치학회보』44.

고민정, 2008「이이의 『석담일기』에 대한 서지학적 검토」『전북사학』 32.
고석규, 1985「16·17세기 공납제 개혁의 방향」『한국사론』 12, 서울대 국사학과.
고영진, 2012「조선시대 유학 계보 연구의 검토」『한국사상사학』 41.
공석구, 1990「조선초기 공노비의 도망과 대책」『충남사학』 5.
금장태, 1994「율곡사상과 실학」『율곡사상연구』 1.
김경래, 2012「조선 공론정치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제안: 李珥의 公論개념을 중심으로」『사학연구』 105.
김남기, 2001「간역 최립의 생애와 시세계」『한국한시작가연구』 6.
김무진, 1983「율곡 향약의 사회적 성격」『학림』 5.
김문식, 2009「조선시대 國家典禮書의 편찬 양상」『장서각』 21.
김범, 2003「조선전기 '훈구·사림세력' 연구의 재검토」『한국사학보』 15.
김범, 2006「조선왕조실록에 나타난 '훈구'의 용례와 그 분석」『동방학지』 134.
김범, 2011「조선시대 사림세력 형성의 역사적 배경」『국학연구』 19.
김성우, 1993「사회경제사의 측면에서 본 조선중기」『대구사학』 46.
김성우, 2000「16세기 良小賤多 현상의 발생과 국가의 대응」『경제사학』 29-1.
김성우, 2000「조선시대 '사족' 개념과 기원에 대한 검토」『조선후기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창작과 비평사.
김성우, 2006「선조대 사림파의 정국 장악과 개혁노선의 충돌」『한국사연구』 132.
김성우, 2008「조선 중기를 바라보는 두 개의 시선」『한국사연구』 143.
김승태, 1984「율곡 이이의 향약 변용: 서원향약과 해주향약」『홍익사학』 1.
김영두, 2009 「소통의 시각에서 본 율곡 이이의 정치활동: 을사삭훈(乙巳削勳) 논쟁의 의미」『역사비평』 89.
김영민, 2005「근대성과 한국학: 한국 사상사를 중심으로」『오늘의 동양사상』 13.
김영민, 2005「한국철학사 방법론—한국철학사 연구와 인문학 교육」『오늘의 동양사상』 12.
김영민, 2011「철학의 역사와 의미의 역사, 성리학자와 연암 박지원: 이기론 연구방법론 재검토」『한국학논집』 43.
김영수, 2005「조선 공론정치의 이상과 현실(1): 당쟁발생기 율곡 이이의 공론정치론을 중심으로」『한국정치학회보』 39.
김용덕, 1985「鄕約과 鄕規」『한국사론』 8.
김인걸, 1994「1960·70년대 '내재적발전론'과 한국사학」『김용섭교수정년기념

논총 1: 한국사인식과 역사이론』, 지식산업사.
김인걸, 1994「조선후기 재지사족의 '거향관(居鄕觀)' 변화」『역사와 현실』11.
김인걸, 1997「16.17세기 在地士族의 '居鄕觀'」『한국문화』19.
김인걸, 2002「조선후기 여론과 정치ー'公論政治'의 지속과 단절ー」『조선의 정치와 사회』, 집문당.
김인걸, 2007「'율곡 향약' 재론ー養民을 위한 人材 육성ー」『한국사론』53, 서울대 국사학과.
김인호, 1998「여말선초 군주수신론과 『大學衍義』」『역사와 현실』29
김정신, 2004「선조대 文昭殿 論爭과 朋黨」『한국사상사학』22.
김정신, 2009「東巖 李潑의 학문경향과 정치활동ー척신정치의 청산을 둘러싼 동인과 서인의 갈등을 중심으로ー」『호남문화연구』46.
김지영, 2012「조선시대 嗣位儀禮에 대한 연구」『조선시대사학보』61.
김태영, 2006「사림정치와 율곡의 王政 期必論」『율곡사상연구』13.
김항수, 1992「선조 초년의 신구갈등과 정국동향」『국사관논총』34.
김항수, 1995「선조초 신진사류와 개혁의 추이」『동대사학』1, 동덕여대 국사학과.
김항수, 2000「율곡 이이와 乙巳削勳論議」『한국사상과 문화』8, 한국사상문화학회.
김항수, 2003「이이ー율곡 이이의 구체제 혁신론ー」『한국사 인물열전』2, 돌베개.
김항수, 2007「조선 전기의 程朱學 수용」『인문과학연구』17, 동덕여대.
김호, 2007「정조의 俗學 비판과 正學論」『한국사연구』139.
김호, 2013「다산 정약용의 '민주(民主)' 기획」『다산과 현대』6.
김호, 2014「존재 위백규의 향촌 교화ー주자학 기획을 중심으로」『정신문화연구』37-1.
김훈식, 1985「16세기《二倫行實圖》보급의 사회사적 고찰」『역사학보』107.
김훈식, 1989「15세기 민본이데올로기와 그 변화」『역사와 현실』1.
김훈식, 1990「중종대《警民編》보급의 고찰」『이재룡박사환력기념 한국사학논총』
김훈식, 1996「조선초기『三綱行實圖』보급의 대상」『인제논총』12.
김훈식, 1998「《三綱行實圖》보급의 사회사적 고찰」『진단학보』85.
김훈식, 2003「16세기 군시윤리의 변화와 출처론」『역사와 현실』50.
김훈식, 2011「조선초기의 정치적 변화와 사림파의 등장」『한국학논집』45.
남달우, 1993「선조초기(1567~1581)의 정국과 사림: 이이의《경연일기》를 중

심으로」『한국학논집』 45.
남지대, 1985「조선 성종대의 臺諫 言論」,『한국사론』 12, 서울대 국사학과.
노영구, 2005「율곡 이이의 軍政改革論과 그 계승」『역사문화논총』 1, 역사문화연구소.
류홍렬, 1933「朝鮮鄕約의 성립」『진단학보』 9.
리기용, 2000「율곡의 경장론 연구ㅡ리 인식과 교기질을 중심으로ㅡ」『율곡학보』 14.
맹현주, 2006「율곡의 務實思想에 관한 연구」『동서철학연구』 40.
맹현주, 2012「율곡 경세론의 실학적 사유 특성」『인문과학연구』 35.
문중양, 2006「세종대 과학기술의 '자주성' 다시 보기」『역사학보』 189.
문중양, 2013「15세기의 '풍토부동론'과 조선의 고유성」『한국사연구』 162.
민덕기, 2012「이율곡의 십만양병설은 임진왜란용이 될 수 없다: 동북방의 여진 정세와 관련하여」『한일관계사연구』 41.
민병희 2008「주희의 "대학"과 사대부의 사회·정치적 권력: 制度에서 心의 "學"으로」『중국사연구』 55.
민병희, 2000「1990년대 미국 송대 지성사 연구동향」『중국사연구』 9.
민병희, 2008「朱熹의 사회·정치적 구상으로서의 "學": "功利之學," "空虛之學"과의 대조를 중심으로」『동양사학연구』 104.
민병희, 2009「성리학과 동아시아 사회ㅡ그 새로운 설명 틀을 찾아서」『사림』 32.
민병희, 2011「道統과 治統: 聖人과 帝王: 宋~淸中期의 道統論을 통해 본 士大夫社會에서의 君主權」『역사문화연구』 40.
민병희, 2013「北宋 시기 보편 원리의 추구와 사대부의 위상ㅡ邵雍, 王安石, 程頤를 중심으로ㅡ」『중국사연구』 83.
박현순, 1997「16~17세기 공납제 운영의 변화」『한국사론』 38, 서울대 국사학과.
박현순, 2004「조선시기 鄕罰의 내용과 추이」『국사관논총』 105.
박현순, 2008「16~17세기 성균관의 儒罰」『역사와 현실』 67.
박현순, 2008「17세기 지방 유생들의 士林儒罰」『한국문화』 42,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박홍갑, 2001「조선 명종조 忠州獄의 전개와 충주사림」『조선시대사학보』 17.
박홍갑, 2005「16세기 전반기 정국 추이와 충주사림의 피화ㅡ광주이씨 克堪系를 중심으로ㅡ」『사학연구』 79.
송우혜, 2005「조선 선조조의 니탕개란 연구」『역사비평』 72

송웅섭, 2001「중종대 기묘사림의 구성과 출신배경」『한국사론』45.
송웅섭, 2005「기묘사화와 기묘사림의 실각」『한국학보』119.
송웅섭, 2013「동고 이준경의 避禍와 朋黨 인식」『지역과 역사』33.
송재윤, 2003「미국의 중국지성사 연구 방법과 전망(1)」『오늘의 동양사상』9.
송재윤, 2004「미국의 중국지성사 연구 방법과 전망(2)」『오늘의 동양사상』10.
송재윤, 2010「가족, 의례, 선정ㅡ주희(1130~1200) 예학의 형성과정ㅡ」『국학연구』16.
송재윤, 2011「제국적 통합과 집권화의 이념-유종원柳宗元(773-819)「봉건론」의 정치철학적 함의」『동양철학』35.
송하경, 1990「이율곡의 도통론에 대한 고찰」『대동문화연구』24.
신하령, 2009「《경연일기(經筵日記)》를 통해 본 율곡(栗谷)의 당대 인물평ㅡ"졸기(卒記)"를 중심으로ㅡ」『율곡사상연구』18.
안외순, 2007「『東湖問答』에 나타난 율곡 이이의 초기 정치사상: 도덕주의와 현실주의의 통일」『유교사상문화연구』28.
오세진, 2012「『대학연의』에서 수양론과 경세론의 관계 연구」, 연세대 철학과 석사논문
오항녕, 2003「《宣祖實錄》修正攷」『한국사연구』123.
오항녕, 2014「문치주의와 대칭적 경세론에서 본 ≪경연일기≫」『율곡사상연구』28.
우경섭, 2001「金長生의 經學思想」『한국학보』27.
우경섭, 2008「宋時烈의 許衡 인식과 文廟黜享論」『진단학보』106.
우인수, 1987「조선 명종조 衛社功臣의 性分과 動向」『대구사학』33.
유새롬, 2006「17세기 서인의 學統意識과 栗谷年譜의 편찬」『한국사론』52, 서울대 국사학과.
유승원, 2007「조선시대 "양반" 계급의 탄생에 대한 시론」『역사비평』79.
윤정, 1997「조선 중종 전반기 정국구도와 정책론」『역사와 현실』25.
윤정, 2001「조선 중종·영조대『大學衍義補』進講의 의미」『규장각』21
윤정, 2006「숙종대『聖學輯要』進講의 경위와 의미 -숙종 정국 운영방식의 일단면」『남명학연구』21.
윤정, 2007「정조의『大學類義』편안과『聖學輯要』」『남명학연구』23.
윤정, 2008「영조의『聖學輯要』이해와 君師 이념」『역사와 경계』66.
윤정, 2013「조선 중종대『大典後續錄』편찬과 법률체계의 변동」『역사와 실학』50.

윤정분, 2001「『大學衍義補』의 조선 전래와 그 수용(상): 정조의 『어정대학유의』를 중심으로」『중국사연구』 14-1
윤호량, 2010「선조 16년 '니탕개의 란'과 조선의 군사전략」, 고려대 석사논문
이근명, 2002「주희의 <呂氏鄕約>과 조선사회ㅡ조선향약의 특성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중국학보』 45.
이기순, 2008「이약빙의 정치활동과 왕도정치론」『사총』 66.
이동희, 2003「율곡 연구의 성과와 반성ㅡ철학 사상을 중심으로」『동양철학』 34.
이선민, 1988「율곡의 更張論」『한국사론』 18, 서울대 국사학과.
이성무, 1990「경국대전의 편찬과 대명률」『역사학보』 125.
이성무, 1991「여씨향약과 주자증손여씨향약」『진단학보』 71·72.
이영경, 1997「율곡 대동사회론의 윤리적 성격」『유교사상연구』 9.
이영춘, 2001「16세기 사림파와 김저의 정치활동」『한국사상과 문화』 12.
이원석 2006「魯齋 許衡(1209~1281)의 생애와 철학사상」『규장각』 29.
이재호, 1985「선조수정실록 기사의 의점에 대한 변석ㅡ특히 이율곡의 「십만양병론」과 유서애의 「양병불가론」에 대하여ㅡ」『대동문화연구』 19
이재희, 1993「조선 명종대 '척신정치'의 전개와 그 성격」『한국사론』 29, 서울대 국사학과.
이정철, 2009「율곡 이이의 공물·진상 개혁안의 영향과 한계」『한국사연구』 144.
이정철, 2012「선조대 당쟁의 원인과 전개양상ㅡ이이를 중심으로ㅡ」『사총』 75.
이정철, 2014「선조16년 동서 갈등 전개와 "계미삼찬(癸未三竄)"」『영남학』 25.
이정철, 2014「선조대 '동서분당' 전개의 초기 양상ㅡ이이를 중심으로ㅡ」『민족문화』 43.
이태진, 1977「中央 五軍營制의 成立過程」『한국군제사-근세조선후기편』[『朝鮮後期의 政治와 軍營制變遷』(한국연구원, 1985 수록)].
이태진, 1984「사림파의 향약 보급운동」『한국문화』 4.
이태진, 1990「조선왕조의 유교정치와 왕권」『한국사론』 23, 서울대 국사학과.
이태진, 2014「임진왜란 발발기의 관군(官軍)과 의병(義兵)ㅡ당파적 인식의 청산을 위하여」『남명학연구』 41
임홍태, 2006「율곡 이이의 도통론과 도통의식」『한국철학논집』 18.
장숙필, 1997「율곡의 務實的 修己論」『율곡사상연구』 3.
장숙필, 2001「율곡 경세설의 특징ㅡ무실론과 경장론을 중심으로ㅡ」『율곡사상

연구』 4.
장숙필, 2004「율곡과 율곡학파 연구의 현황과 과제」『한국인물사연구』 창간호, 한국인물사연구회.
장숙필, 2005「율곡 경장론의 특징과 그 현대적 의의」『율곡사상연구』 10.
정두희, 2001「조광조의 復權過程과 賢良科 문제」『한국사상사학』 16.
정만조, 1990「16세기 사림계 관료의 붕당론－歐·朱 붕당론과의 비교를 통하여 본－」『한국학논총』 12.
정만조, 1993「조선시대의 사림정치－17세기의 정치형태－」『한국사상의 정치형태』, 일조각.
정만조, 2001「조선중기 유학의 계보와 붕당정치의 전개(Ⅰ)」『조선시대사학보』 17.
정만조, 2002「이이: 시대의 변화를 읽은 점진적 개혁론자」『한국사시민강좌』 30.
정만조, 2002「조선중기 정치사 연구에 대한 재검토」『한국학논총』 25, 국민대 한국학연구소.
정만조, 2009「조선시대 三公의 官歷分析－엘리트 코스 추적의 일단」『한국학논총』 31, 국민대 한국학연구소.
정만조, 2012「두계 이병도의 한국유학사 연구와 그 의의」『진단학보』 116.
정옥자, 1989「17세기 思想界의 재편과 禮論」『한국문화』 10.
정원재, 2005「이이 철학의 형성 과정과 시기 구분」『철학논구』 33, 서울대 철학과.
정원재, 2007「이이 철학을 보는 두 가지 시각: 주기론과 이기지묘론」『철학사상』 26, 서울대 철학사상연구소.
정재훈, 1998「조선전기 『대학』 이해와 聖學論」『진단학보』 86.
정재훈, 1999「《성학집요》를 통해 본 조선중기의 정치사상」『규장각』 22.
정재훈, 1999「명종·선조년간의 經筵」『조선시대사학보』 10.
정재훈, 2010「東皐 李浚慶의 정치적 역할과 정치사상」『한국사상과 문화』, 한국사상문화학
정재훈, 2014「율곡 이이의 정치사상 재론」『역사문화연구논총』 7.
정진영, 2013「조선시대 향촌 제 조직과 규약의 '契約'적 성격」『고문서연구』 42.
정호훈, 2005「16세기 말 율곡 이이의 교육론－《擊蒙要訣》·《學校模範》을 중심으로－」『한국문화』 47.

정호훈, 2006「16·7세기『警民編』간행의 추이와 그 성격」『한국사상사학』26.
정호훈, 2009「16·7세기《小學集註》의 성립과 간행」『한국문화』47.
정호훈, 2011「15~6세기 牧民書의 전개와 牧民學」『한국사상사학』36.
정호훈, 2011「16·7세기 율곡학파의 형성과 활동」『사학연구』103.
조성환, 2013「'실천학'으로서의 '실학' 개념: 율곡 개혁론의 철학적 기초」『철학논집』33, 서강대학교 철학연구소.
지두환, 1993「조선전기 君子·小人 논의ㅡ大學衍義 왕안석론을 중심으로ㅡ」『태동고전연구』9.
지두환, 1993「조선 전기『大學衍義』이해과정」『태동고전연구』10.
지두환, 2000「율곡 이이의 사회경제사상」『한국사상과 문화』7, 한국사상문화학회.
지두환, 2008「16세기 시대적 과제와 율곡의 대응」『한국사상과 문화』43, 한국사상문화학회.
지두환, 2009「조선시대 經筵官 연구」『한국학논총』31.
최승순, 1997「율곡의 東湖問答考」『율곡사상연구』1.
최완수, 1980「秋史書派考」『간송문화』19.
최이돈, 1989「16세기 사림파의 薦擧制 강화운동」『한국학보』54.
최종석, 2010「조선초기 '時王之制'의 논의 구조의 특징과 중화 보편의 추구」『조선시대사학보』52.
최종석, 2013「조선초기 국가 위상과 '聲敎自由'」『한국사연구』162.
沈慶昊, 1988「崔岦의 文章之文論과 古文詞」『진단학보』65.
한상권, 1984「16.17세기 향약의 구조와 성격」『진단학보』58.
한춘순, 1998「명종대 을사사화 연구」『인문학연구』2.
한춘순, 2013「조선 명종대 불교정책과 그 성격」『한국사상사학』44.
호이트 틸만 지음/김병환 옮김, 2005「1980년대 중반 이래 미국의 송대 사상 연구」『오늘의 동양사상』12.
호이트 틸만 지음/민병희 옮김, 2011「宋-元 지성사의 탐구: 그 현대적 의의는 무엇인가?」『중국학보』64.
홍원식, 2011「율곡학과 실학의 차별성에 관한 연구: 홍대용 등 북학파 실학을 중심으로」『한국학논집』43.
황의동, 1991「율곡의 무실사상」『한국사상사』, 원광대 출판부.
황의동, 2002「율곡학 연구의 어제와 오늘」『오늘의 동양사상』6.

[Abstract]

The Political Situation during the Early Reign of King Sŏnjo and Yi I's Reform Theory

Kim Kyungrae
Department of Korean History
The Graduate School
Seoul University

Based on the notion that existing interpretations of his reform theory focused on earlier contexts and necessities, this paper seeks to develop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historical context surrounding Yi I's problem awareness during his actual lifetime. To this end, works by Yi I such as <*Tonghomundap* (Questions and Answers at EastLake)>, <*Manŏnpongsa* (Memorial in Ten Thousand Words)> and <*Sŏnghakchipyo* (Essentials of the Learning of the Sages)> that featured his reform theory and policies in conjunction with important political situations were analyzed. As these works also encompass the theoretical element of Yi I's works, they were considered to fully expose Yi's reform theory.

These three works cover the universal prospects of Yi I as pertains to the desirable order while at the same time encompassing his practical response to the detailed political reality he was living in. In this regard, the following elements were regarded as essential in explaining the employment herein of these three works and their perception: how were these three works written and what kind of political situation prevailed at the time?

How did he perceive the opposing power groups and why he did he conflict with them? What intentions lay behind the manner in which Yi I organized the contents of these works? This study differs from explanations of Yi I's reform theory previously put forward in the philosophical, social, and scientific fields that have tended to incorporate an intrinsic approach. Rather, the present study marks a departure in terms of methodology in that it seeks to explain Yi I's reform theory based on the detailed political situation that prevailed at the time of his writing of these works.

Yi I's reform theory was submitted based on his continuous awareness of two different political positions and powers. Yi clearly stated that the problems stemmed from the conflicts and clashes between those who believed that the actualization of the 'governance of three generations (三代之治)' was impossible and those who clamored that such a denouement could be attained in one day. The former group consisted of the existing meritorious retainers who had accumulated their career as government officials during the reign of King Myŏngjong and promoted to high ranking positions at the end his reign. These individuals managed to maintain their high positions even after the enthronement of King Sŏnjo. Meanwhile, the latter group referred to junior literati associated with Yi, mainly Yi Hwang and Cho Sik's disciples. While Yi I exhibited a hostile attitude toward the former, he accepted the latter as his political colleagues.

During his conflict with the meritorious retainers over the taxation system, bureaucratic system, and ritual ceremonies, Yi I dismissed these individuals for not having any beliefs or practical will to bring about the actualization of the 'governance of three generations' despite their assertions to the contrary. While he labeled the meritorious retainers as a vulgar group in the <*Kyŏngyŏnilgi* (Daily Records of Lectures before the Throne)>, Yi also stressed that although the junior literati group had correctly established

their goals, they lacked the proper strategic considerations. Yi I believed that such a lack of strategy could lead to the failure to actualize, and would eventually make the goal of the 'governance of three generations' in Chosŏn a meaningless notion.

Yi I's reform theory has generally been defined in previous studies as revolving around institutional reform, harmony between the *sarim* factions, and Chosŏn-style characteristics. However, this study analyzed Yi I's reform theory from the standpoints of his belief in man as the main actor and morality, his exclusionary attitude toward the meritorious retainers which he regarded as vulgar individuals, and his pursuit of Sinocentrism. Moreover, this study shows that these factors were a part of the process through which the great goals and plans for Yi I's reform theory were established. Yi I also shared the belief that the ultimate goal of reform should be the pursuit of a wholesome moralistic state that encompassed the king and common people with Chosŏn reformers such as Cho Kwangjo and the members of the *Kimyosarim*, a goal that had been pursued by the latter since the 16thcentury. However, Yi believed that the actualization of this ultimate goal was predicated on the achievement of stability in terms of the people's livelihoods, the setting of a moralistic example by the royal family, and the gaining of political power by the junior literati which here cognized as his political colleagues. These points mark clear departures between Yi I's reform theory and those of other literati groups. To this end, Yi opposed the decision to implement the community compacts as a means to edify the public at the national level. Keenly aware of the potential for political oppression by the existing meritorious retainers after the *sarim* faction spilt into the Easterners (*tongin*) and Westerners (*sŏin*), he also advocated the need for harmony between the *sarim* factions.

A new understanding of Yi I's reform theory also sheds new light in

terms of the understanding of the implications, main actors, and direction of the reform pursued by the *sarim* faction during the 16th century. In other words, this study exhibits an alter native explanation of the *sarim* faction to those found in previous studies that have been based on socioeconomic elements. Based on the present study, we can conclude that the reform-minded intellectuals of Chosŏn during the 16th century adhered to the notion of cultural universalism as a means to resolve the contradictions of Chosŏn at the time. This was to be achieved by thoroughly actualizing Sinocentric culture rather than pursuing the goal of becoming small and medium-sized landlords. In addition, they were not only interested in establishing an autonomous village order led by the literati. Rather, like Yi I, they regarded a change in the leading power group and state system as being of great importance.

Key word: Yul gok, Yi I, governance of three generations (三代之治), reformation(更張), conventionalists(流俗), literati(士類), <*Tonghomundap* (Questions and Answers at EastLake)>, <*Manŏnpongsa* (Memorial in Ten Thousand Words)>, <*Sŏnghakchipyo* (Essentials of the Learning of the Sages)>

Student Number: 2005-30029